

국립국어원 2020-01-14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821-01

2020 한국수어 문법 연구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20 한국수어 문법 연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20년 5월 7일 ~ 2020년 11월 27일

2020년 11월 27일

연구 책임자: 원성옥(한국복지대학교)

연구 기관: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원성옥

공동 연구원: 김유미, 남기현, 김성완

연구 보조원: 홍장미, 박정민

2020 한국수어 문법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연구된 한국수어 음운론과 형태론 분야를 수정 보완함과 더불어 한국수어의 연구 및 교육 등에서 필요한 한국수어 문법 중에서 통사론과 의미론을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 절차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에 기술한 한국수어 음운론 및 형태론 분야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 국어국문학 전공자 1명과 수어 언어학 전공자 4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검토 의견을 참고로 하여 용어를 확정하고 내용과 수어 예시 자료를 수정·보완하였다.

둘째, 2019년에 기술한 한국수어 음운론 및 형태론과 2020년 기술한 한국수어 통사론 및 의미론에 제시된 예시자료의 수어 사진 제작을 진행하였다. 수어 사진 자료는 음운론 및 형태론은 1,009개, 통사론 및 음운론은 306개 총 1315개를 제작하였다.

셋째, 한국수어 통사론을 기술하였다. 통사론은 문장성분, 문장구조, 문장종결, 부정법, 수어 양식과 동사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문장성분에서는 주성분과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문장구조는 기본문장과 문장의 확대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기본문장에서는 문장의 종결과 서술어, 어순, 부속성분을 기본문장의 특성으로 기술하고 초점과 화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문장의 확대에서는 확대된 문장의 특성과 대등적 연결, 종속적 연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문장종결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부정법은 부정법 구현 요소, 부정법의 특징,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부정표현 예시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수어 양식과 동사에서는 동사의 유형, 공간동사의 개념, 공간동사의 하위 유형, 그리고 동시적 결합으로 나타나는 동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동사 유형은 일반동사와 일치동사, 공간동사로 나누어 주어와 서술어가 실현되는 특성을 기술하였다.

넷째, 의미론은 의미 이론, 한국수어로 본 의미관계, 한국수어에서의 계열 측면 의미관계와 통합 측면 의미관계, 의미전이와 도상성, 구성된 행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의미관계에서는 의미관계의 정의와 종류를 설명한 후, 한국수어에서의 의미관계를 동의관계, 대립관계, 상하관계, 관용표현, 속담으로 설명하였다. 의미전이는 의미전이의 양상, 의미전이의 원인, 다의어 현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도상성에서는 영상적 도상성, 구조적 도상성, 비유적 도상성으로 나누고 해당하는 한국수어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비유에서는 은유와 환유가 수어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한국수어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역할전환은 역할전환의 정의, 형식적 요소, 내용적 요소, 담화에서 나타난 역할전환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영문 초록〉

A Study on the Korean Sign Language (KSL) Grammar in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fields of Korean Sign Language phonology and morphology studied in 2019, as well as to describe syntactic and semantics among Korean sign language grammar required in research and education of Korean sign language. The procedure and results of the study o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one Korean literature major and four sign language linguistics majors were asked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field of Korean sign language phonology and morphology described in 2019. The terms were confirmed by referring to the review comments, and the contents and examples of sign language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Second, we conducted the production of sign language photographs presented in the Korean sign language phonology and morphology described in 2019 and the Korean sign language syntactic theory and semantics in 2020. A total of 1,009 phonology and morphology were produced, 306 syntactic and phonological materials were produced, and a total of 1,315 were produced.

Third, it describes the Korean sign language syntax, which is divided into sentence components, sentence structure, sentence termination, infinitive, sign language forms, and verbs. The sentence components are divided into main components, accessory components, and independent components. The sentence structure was described by dividing the sentence structure into the basic sentence and the extension of the sentence. The basic sentence describes the ending of a sentence, descriptive words, word order, and its components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sentence and describes the focus and topic. The expansion of sentences was expla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tended sentences, the equivalent connection, and the subordinate connection. The ending of the sentence was described by dividing it into plain, interrogative, command, blue, and exclamation. Fraud was described by dividing the elements

of fraudulent implementation, features of fraudulent law, types and functions of fraudulent expression, and examples of fraudulent expression. In sign language and verbs section, the type of verb, the concept of spatial verbs, the subtypes of spatial verbs, and the verb that appears as a simultaneous combination were explained. The verb type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a general verb, a matching verb, and a spatial verb in which the predicate is realized.

Fourth, semantics is described in terms of meaning theory, meaning relationship in Korean sign language, meaning relationship in affiliated aspects of Korean sign language, meaning transition and iconoclasm, and constructive behavior. In the semantic relationship, it explains the definition and type of semantic relationship, and the meaning in Korean Sign Language is explained as synonyms, confrontations, top-down relationships, idioms, proverbs. The semantic transfer was explained by dividing the aspects of semantic transfer, the cause of semantic transfer, and the multilingual phenomenon. In iconography, we divided it into visual, structural, and figurative objects and explained it through corresponding Korean sign language examples. In the parable part, it explains metaphor and metonymy worked with examples of Korean Sign Language. Role shift are described in terms of defining role shift, formal elements, content elements, and role transitions shown in discourse.

차례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1.1 연구의 목적	3
1.2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5
3. 연구의 전제 조건	5
4. 연구 방법 및 내용	6
4.1 연구 과정 진행도	6
4.2. 언어자료 수집	7
4.3. 전문가 검토	9
4.4. 수어 문장 기술 방법	9

II. 음운론 및 형태론 수정 보완

1. 용어 확정	15
2. 음운론 수정	16
3. 형태론 수정	28

III. 수어 사진 자료 제작

1. 수어 사진 자료 제작 절차	39
2. 수어 사진 자료 제작 과정	40
3. 수어 사진 자료 편집	41

IV. 통사론

1. 문장성분	47
1.1. 주성분	47
1.2. 부속성분	51
1.3. 독립성분	59
2. 문장구조	61
2.1. 기본문장	61
2.2. 문장의 확대	72
3. 문장종결	88
3.1. 평서문	88
3.2. 의문문	89
3.3. 명령문	92
3.4. 청유문	94
3.5. 감탄문	95
4. 부정법	96
4.1. 부정법의 정의와 연구	96
4.2. 부정법 구현 요소	97
4.3. 부정법의 특징	98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101
4.5. 부정표현 예시	106
5. 수어양식과 동사	119
5.1. 동사 유형	119
5.2. 공간동사의 정의	124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126
5.4. 동시적 결합이 나타나는 동사	133

V. 의미론

1. 의미 이론	139
1.1. 의미 이론의 접근법	139
1.2. 의미의 유형	143
2. 의미관계	144
2.1. 의미관계의 정의와 종류	144
2.2. 동의관계(synonymy)	145
2.3. 대립관계(antonymy)	146
2.4. 상하관계(hyponymy)	148
2.5. 관용표현	149
2.6. 속담	152
3. 의미전이	153
3.1. 의미전이의 양상과 원인	153
3.2. 다의어 현상	155
4. 도상성과 비유	158
4.1. 도상성	158
4.2. 비유	161
4.3. 영상적 도상성(imagic iconicity)	163
4.4. 구조적 도상성(structural iconicity)	164
4.5. 비유적 도상성(figurative iconicity)	165
5. 역할전환	170
5.1. 역할전환의 정의	170
5.2. 역할전환의 형식적 요소	171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174
5.4. 담화에서 나타난 역할전환	177

VI.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183
1.1. 음운론 및 형태론 수정 보완	183
1.2. 수어 사진 자료 제작	183
1.3. 통사론	184
1.4. 의미론	189
2. 제언	192
참고문헌	193
〈부록 1〉 한국수어 말뭉치 자료 목록	199
〈부록 2〉 음운론 사진 목록	202
〈부록 3〉 형태론 사진 목록	225
〈부록 4〉 통사론 사진 목록	231
〈부록 5〉 통사론 사진 목록	235

표 차례

〈표Ⅱ-1〉 용어 정비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표	15
〈표Ⅱ-2〉 음운론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표	16
〈표Ⅱ-3〉 형태론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표	28
〈표Ⅳ-1〉 서술격조사- 영어, 한국어, 한국수어 비교	63
〈표Ⅳ-2〉 한국수어와 한국어의 문장 형태의 차이	63
〈표Ⅳ-3〉 부사어로 기능하는 수어 어휘와 어순	69
〈표Ⅳ-4〉 한국수어 문장에서의 접속표지와 종결표지	73
〈표Ⅳ-5〉 한국수어에서 대등적으로 이어진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76
〈표Ⅳ-6〉 한국수어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79
〈표Ⅳ-7〉 부정표현에 사용되는 비수지요소	98
〈표Ⅳ-8〉 부정의 초점에 따른 부정표현	102
〈표Ⅳ-9〉 그 외의 부정표현	104
〈표Ⅳ-10〉 공간동사의 하위 유형	125
〈표Ⅳ-11〉 전체 개체 분류사와 취급 분류사	126
〈표Ⅳ-12〉 공간동사의 하위 유형	127
〈표Ⅴ-1〉 연상적 의미	144
〈표Ⅴ-2〉 한국수어 동의관계-동의어(유의어)	146
〈표Ⅴ-3〉 한국수어 대립관계-반의어	147
〈표Ⅴ-4〉 한국수어 상하관계-상의어/하의어	148
〈표Ⅴ-5〉 두 단어가 결합하였으나 관용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	149
〈표Ⅴ-6〉 한국수어 관용표현1	150
〈표Ⅴ-7〉 한국수어 속담	152
〈표Ⅴ-8〉 의미전이의 양상	154
〈표Ⅴ-9〉 의미전이의 원인	155
〈표Ⅴ-10〉 의미의 다양한 형태	159
〈표Ⅴ-11〉 한국수어 어휘 예시 - 자의성과 도상성	159
〈표Ⅴ-12〉 한국수어 도상성의 종류	160
〈표Ⅴ-13〉 한국수어 도상성의 특성	161
〈표Ⅴ-14〉 유사성과 인접성 예시	161
〈표Ⅴ-15〉 은유와 환유의 연상 기반 도표	161
〈표Ⅴ-16〉 한국수어 어휘 예시 - 은유	162
〈표Ⅴ-17〉 한국수어 어휘 예시 - 환유	163
〈표Ⅴ-18〉 한국수어 어휘 예시 - 영상적 도상성	163
〈표Ⅴ-19〉 한국수어 어휘 예시 - 양적 도상성	164

〈표 V-20〉 한국수어 어휘 예시 - 거리적 도상성	165
〈표 V-21〉 한국수어 어휘 예시 - 거리적-양적 도상성	165
〈표 V-22〉 한국수어 어휘 예시 - 공간적 은유(지향적 은유)	166
〈표 V-23〉 한국수어 어휘 예시 - 존재론적 은유	167
〈표 V-24〉 한국수어 어휘 예시 - 구조적 은유	168
〈표 V-25〉 한국수어 어휘 예시 - 환유적 도상성1	168
〈표 V-26〉 한국수어 어휘 예시 - 환유적 도상성2	169

그림 차례

[그림Ⅲ-1] 수어 사진 자료 제작 절차	39
[그림Ⅲ-2] 수형이 변한 경우 ①	41
[그림Ⅲ-3] 수형이 변한 경우 ②	41
[그림Ⅲ-4] 수위가 변한 경우	42
[그림Ⅲ-5] 수형과 수위가 변한 경우	42
[그림Ⅲ-6] 수동이 있는 경우	43
[그림Ⅲ-7] 수동이 있는 경우	43
[그림Ⅳ-1] 감탄표현	59
[그림Ⅳ-2] 초점화표지	71
[그림Ⅳ-3] 화제화표지	72
[그림Ⅳ-4] 나열관계	76
[그림Ⅳ-5] 대조관계	77
[그림Ⅳ-6] 선택관계	78
[그림Ⅳ-7] 인과관계	80
[그림Ⅳ-8] 조건표지(가정)	81
[그림Ⅳ-9] 조건표지(가정) - 어휘	81
[그림Ⅳ-10] 조건표지(제외)	81
[그림Ⅳ-11] 의도관계 - 목적	84
[그림Ⅳ-12] 양보관계 - 인정	85
[그림Ⅳ-13] 배경관계 - 배경	86
[그림Ⅳ-14] 인용관계	87
[그림Ⅳ-15] [이다/입니다]	89
[그림Ⅳ-16] 의문문을 위한 비수지표지	89
[그림Ⅳ-17] 의문사	90
[그림Ⅳ-18] [질문]	92
[그림Ⅳ-19] 명령문을 나타내는 [해라]	92
[그림Ⅳ-20] 청유문을 나타내는 어휘	94
[그림Ⅳ-21] [없다(손털기)]	101
[그림Ⅳ-22] [없다(손털기)] / [아직(한손)]	101
[그림Ⅳ-23] 부정접미사 역할을 하는 어휘 [없다(손 털기)]에 의한 부정	106
[그림Ⅳ-24] 사실부정	107
[그림Ⅳ-25] 상태부정	108
[그림Ⅳ-26] 완료부정	108
[그림Ⅳ-27] 능력부정	109

[그림Ⅳ-28] 상황부정	110
[그림Ⅳ-29] [불가능] 부정표현	111
[그림Ⅳ-30] [안되다] 부정표현	112
[그림Ⅳ-31] [안 돼] 부정표현	113
[그림Ⅳ-32] [안하다] 부정표현	114
[그림Ⅳ-33] 부정극어를 동반한 부정표현	115
[그림Ⅳ-34] 관용 어휘에 의한 부정표현	116
[그림Ⅳ-35] 모순관계에 의한 부정표현	117
[그림Ⅳ-36] 위치(존재)를 나타내는 공간동사	129
[그림Ⅳ-37] 자동차를 나타내는 수형	130
[그림Ⅳ-38] 이동을 나타내는 공간동사	130
[그림Ⅳ-39] 움직임 방식을 나타내는 공간동사	131
[그림Ⅳ-40] 취급을 나타내는 공간동사	132
[그림Ⅳ-41] 개체 수형이 포함된 동사: 자연현상	133
[그림Ⅳ-42] 개체 수형이 포함된 동사: 비행기의 비행	134
[그림Ⅳ-43] 개체 수형이 포함된 동사: 자전거의 이동	134
[그림Ⅳ-44] 취급 수형이 포함된 동사: 먹는 행위	135
[그림Ⅳ-44] 취급 수형이 포함된 동사: 악기 연주와 운동	135
[그림Ⅴ-1] 의미관계	145
[그림Ⅴ-2] 한국수어 다의어 현상 예시	157
[그림Ⅴ-3] 기호 삼각형으로 본 자의성과 도상성	158
[그림Ⅴ-4] 신체전환	172
[그림Ⅴ-5] 머리의 자세 변화	173
[그림Ⅴ-6] 얼굴표정	173
[그림Ⅴ-7] 시선응시	174
[그림Ⅴ-8] 인용된 화자의 말	175
[그림Ⅴ-9] 인용된 화자의 행위	176
[그림Ⅴ-10] 인용된 화자의 생각	176
[그림Ⅴ-11] 인용된 화자의 감정	177

기초연구 연구 기초연구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3. 연구의 전제 조건
4. 연구 방법 및 내용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연구의 목적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이후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 및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중 한국수어 문법을 정립하고 기술하는 일은 한국수어 관련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업인 동시에 한국수어 연구 및 교육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과제였다. 이에 2018년에는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를 통해 한국수어 문법 지식 항목과 모형을 제시하고 2019년에는 한국수어 문법 중 음운론과 형태론 분야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 문법 중 한국수어 음운론과 형태론 분야를 수정 보완함과 더불어 통사론과 의미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의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농인 화자의 언어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 한국수어 통사론 분야 문법을 기술한다.
- 한국수어 의미론 분야 문법을 기술한다.
- 한국수어 문법 용어를 정비하고 확정한다.
- 2019년 한국수어문법에서 기술한 음운론과 형태론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 한국수어 문법 설명에 필요한 사진 자료를 제작한다.
- 한국수어 문법 영역별 기술 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 한국어와는 다른 한국수어 문법 기술 체계 및 방법 정립 필요
- 한국수어 사용 농인이 언어생활에 기준으로 삼고 참고할 한국수어 문법서 개발 필요
- 한국수어 교육 및 교원 양성에서 활용할 한국수어 문법서 개발 필요
- 한국수어 능력의 향상 및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공할 한국수어 문법서 개발 필요
- 수어 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서 활용할 한국수어 문법서 개발 필요
- '19년 한국수어 문법 연구에서 제시한 음운론과 형태론 수정 및 보완 필요

- 한국수어 문법 기술 및 설명에 필요한 사진 자료 촬영 필요
- 한국수어 문법 통사론과 의미론 기술 필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동 법률에 따라 제1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2018-2022)이 만들어졌으며, 이 계획의 3대 중점 추진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는 “한국수어 능력 향상 및 보급”이다. 이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수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수어능력 검정 시험 및 수어교원 검정 시험 등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한국수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한국수어 문법서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이다.

그간 한국수어 교육 현장에서뿐 아니라 한국수어 연구 분야에서도 한국수어 문법을 정리하거나 기술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수어 연구 및 문법 관련 서적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 용어 및 개념 정의가 통일되지 않았으며, 이론적 문법 체계의 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법을 기술하므로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문법 연구의 절차 및 방법론에 관한 이론적 체계 없이 이루어진 문법 기술로 인해 적절한 한국수어의 문법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수어 문법서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한국수어를 보급·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기초 없이 건물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수어 교육 현장과 한국수어 교원을 양성하는 현장에서는 이것이 한국수어 문법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문법서의 개발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어 능력이나 한국수어 교육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한국수어 문법을 정립하여 제공할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으로 한국수어 문법을 기술하고 설명한 문법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한국수어 문법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연구 방법론이나 원칙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시각언어인 한국수어는 언어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언어학의 틀에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시각언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체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수어는 기본적으로 ‘시각’이라는 언어 양식이 그 문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수어의 조음에서부터 문법 구조에 이르기까지 설명하는 틀과 체계가 음성언어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어와는 다른 문법 체계로 문법적 기능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는 체계로 기술하려고 하면 많은 오해와 잘못된 편견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2018년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기초 연구가 실시되었다. 그 연구에서는 국내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하여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문법 체계를

정립하고 문법 지식을 범주화하였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한국수어 문법 모형을 제안하였다. 2019년에는 제시한 문법 기술 체계와 문법 지식을 수정 보완하고 음운론과 형태론 분야를 기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 음운론과 형태론을 수정 보완하고 통사론과 의미론을 기술한다. 동시에 한국수어 문법 기술에 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확정하며 한국수어 문법 설명에 필요한 사진 자료를 제작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수어 음운론과 형태론을 수정 보완함과 더불어 한국수어 통사론 및 의미론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방법론 및 세부 문법 지식을 확정하여 기술하는 단계로 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내 한국수어 통사론 및 의미론 관련 연구물 분석: 국내 한국수어 통사론 및 의미론 관련 연구물 및 한국수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문법의 내용 등을 고찰한다.
- ②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농인 화자의 언어자료 수집 및 분석: 한국수어 통사론과 의미론을 기술하기 위해 농인 화자의 언어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 ③ 한국수어 통사론과 의미론 기술: 한국수어 문법 기술 체계에 따라 통사론과 의미론을 집필한다.
- ④ 음운론 및 형태론 분야 내용 정비: 2019년에 기술한 한국수어 음운론 및 형태론 분야의 내용을 정비한다.
- ⑤ 한국수어 문법 설명에 필요한 사진 자료 제작: 한국수어 문법 설명에 필요한 사진 자료를 확정하고 촬영한다.
- ⑥ 전문가 검토: 한국수어 문법 기술 내용에 대해 농인 화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수정 보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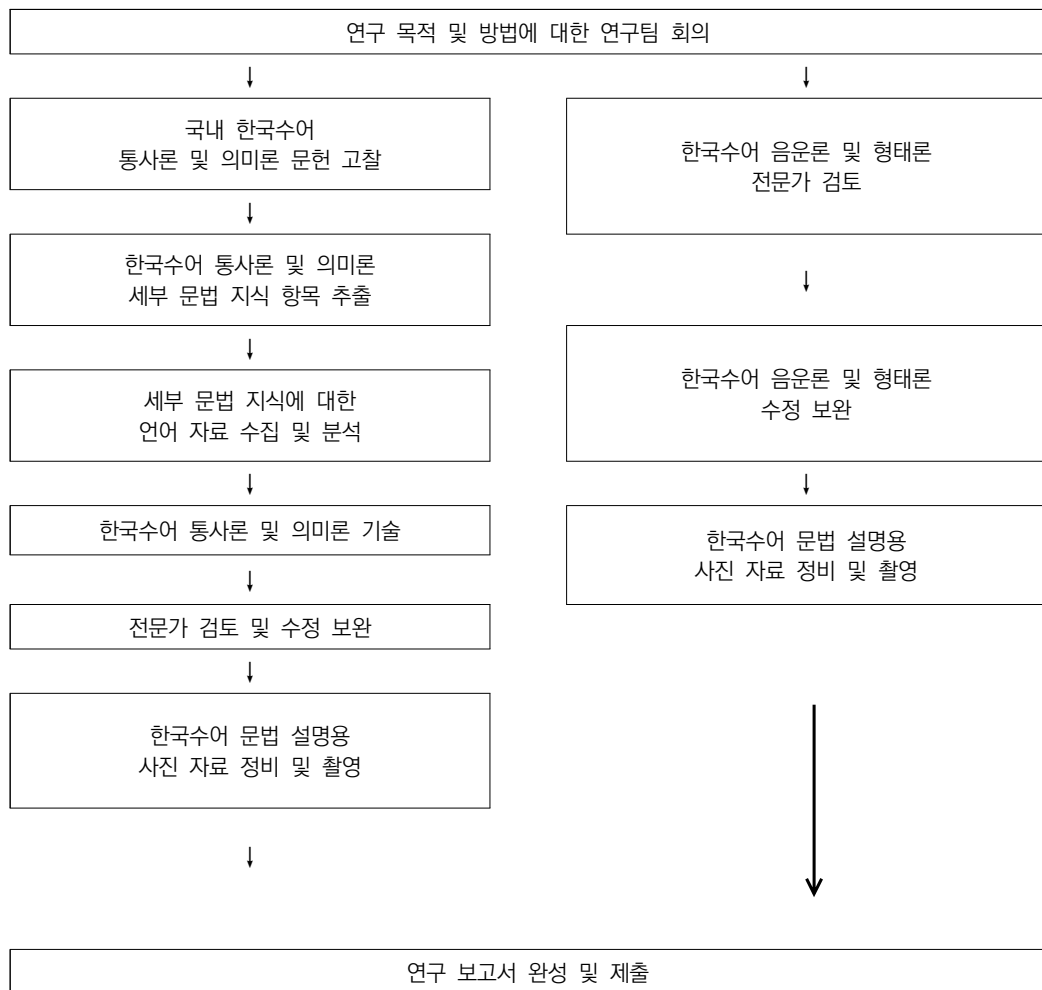
3. 연구의 전제 조건

- 2018년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와 2019년 한국수어 문법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실시한다.
- 한국수어 통사론 및 의미론 기술을 위한 언어자료는 한국수어 모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을 통해 추출하되, 기구축된 한국수어 말뭉치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활용한다.

4. 연구 방법 및 내용

4.1 연구 과정 진행도



[그림 1 - 1] 연구 과정 진행도

4.2. 언어자료 수집

4.2.1. 한국수어 말뭉치의 언어자료

한국수어 통사론과 의미론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언어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의 허락을 받아 한국수어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에서 한국수어 말뭉치 자료를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98개의 한국수어 말뭉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참고한 한국수어말뭉치 자료 목록은 〈부록 1〉에 첨부하였다.

한국수어 말뭉치를 통해 주로 한국수어 문장성분의 쓰임, 부정문의 종류와 기능 등을 확인하였으며, 문법 내용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자료는 가공하여 예시로 활용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수집된 한국수어 말뭉치에서 기본주석이 이루어진 분량과 주제가 한정적이어서 수어 말뭉치를 통해 다양한 언어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4.2.1. 농인 모어 화자의 언어 자료 자문

한국수어 통사론과 의미론을 기술할 때 제시하는 예시 언어자료의 확인 및 수집을 위해 한국수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2회 실시하였다. 자문회의는 한국어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청인들은 참석하지 않고 농인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1차 자문회의에 참여한 한국수어 모어 화자는 농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경기, 충남, 강원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농인 10명으로 선발하였다. 이중 5명을 선정하여 2차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온라인을 통해 자문을 수시로 진행하였다. 원활한 언어자료 확인 및 수집을 위해 자문회의의 진행은 농인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자문회의 실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 모어 화자 자문회의 - 1차

- ◎ 일시: 2020. 10. 23(금)
- ◎ 장소: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수어교원과(인학관 B동 508호)
- ◎ 인원: 10명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지역
1	김**	남	40대	서울
2	김**	여	30대	충남
3	심**	여	40대	경기
4	심**	여	50대	경기
5	유**	남	30대	충남
6	전**	여	40대	충남
7	정**	여	40대	경기
8	이**	남	80대	경기
9	천**	남	50대	충남
10	하**	남	40대	강원

2) 한국수어 모어 화자 자문회의 - 2차

◎ 일시: 2020. 10. 28(수)

◎ 장소: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수어교원과(인학관 B동 508호)

◎ 인원: 5명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지역
1	김**	남	40대	서울
2	심**	여	40대	경기
3	심**	여	50대	경기
4	이**	남	80대	경기
5	하**	남	40대	강원

추진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모어 화자 중 언어제공자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연령대를 고려하여 대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섭외하였다.

둘째, 문법 설명에 필요한 수어 예시문 중 자문이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각 연구진의 원고를 검토하여 자문 목록을 작성하였다.

셋째, 자문 목록의 내용을 한국수어 및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넷째, 자문 목록에 대한 설명, 질문 방법 등에 대해 농인 진행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4.3. 전문가 검토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통사론과 의미론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서면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는 수어 언어학 전공자 6명, 국어국문학 전공자 3명이며, 수어 언어학 전공자 중 2명은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이다.

전문가 검토 결과, 수정 요청은 총 169건으로 내용 기술에 관한 건이 136건, 예시자료에 관한 건이 33건이었다. 이 중 통사론에 관한 건은 총 128건으로 내용에 관한 건이 105건, 예시자료에 관한 건이 23건이었으며, 의미론에 관한 건은 총 41건으로 내용에 관한 건이 31건, 예시에 관한 건이 10건이었다. 검토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특히, 한국수어의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4.4. 수어 문장 기술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수어 문장을 기술하고자 한다.

1. 한국수어 단어는 글로스¹⁾를 사용하여 [] 안에 표기한다. 글로스에는 한국어 조사를 생략하며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단, 공간동사의 글로스는 조사와 띄어쓰기를 한다.

예: [그] [학생]
 [선생] [피아노치다]

 [책] [평평한 모양의 사물이 세워져 있다]ab
예: [국수] [컵] [원통형의 사물이 놓여 있다]ab

2. 휴지는 휴지가 나타나는 위치에 {휴지}로 표기한다.

예: [나] [과거] [아기] [때] {휴지} [공기] [깨끗하다]

3. 수어가 반복되는 경우 글로스 우측 상단에 +를 표기한다. 수어가 2~3회 반복되는 경우 +, 4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로 표기한다.

예: [어제] {휴지} [비]** [엄청나다]

4. 비수지표지는 { }안에 표기하며 한국어 조사를 생략하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비수지표지는 글로스 위쪽으로 비수지표지가 나타나는 위치에 모두 표기하며 위에서부터 머리

1) 글로스는 해당 수어에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해당 수어의 형태를 빠르게 떠올리기 위해 수어의 핵심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짓는다(국립국어원 2015).

-눈-코-입-어깨 순으로 작성한다.

예: $\frac{\{시선응시\}}{[선생님]} \quad \{휴지\} \quad \frac{\begin{matrix} \{고개숙이기\} \\ \{시선응시\} \\ \{상체숙이기\} \end{matrix}}{[기다리다]}$

5. 문법화된 완성형 비수지표지는 해당 표지를 표기한다.

- ① 설명의문표지: {눈썹올리기}, {눈크게뜨기} 등의 비수지표지가 동시에 나타남

예: $\frac{\text{설명문의문표지}}{[이름] \quad [무엇1]}$

- ② 판정의문표지: {눈썹올리기}, {눈크게뜨기}, {턱뚱쪽으로당기기} 등의 비수지표지가 동시에 나타남

예: $\frac{\text{판정의문표지}}{[영화] \quad [보다] \quad [원하다]}$

- ③ 초점화표지: {고개내밀기}, {눈썹올리기} 또는 {눈썹중립}, {시선교환} 등의 비수지표지가 동시에 나타남

예: $\frac{\text{초점화표지}}{[요리하다] \quad [손][누구] \quad \{휴지\} \quad \frac{\{고개끄덕이기\}}{[아들]}}$

- ④ 화제화표지: {고개끄덕이기}, {눈썹올리기}, {동공커짐}, {시선교환} 등의 비수지표지가 동시에 나타남

예: $\frac{\text{화제화표지}}{[책] \quad \{휴지\} \quad [품절]}$

- ⑤ 부정표지: {고개좌우로흔들기}, {눈썹내리기}, {입꼬리내리기} 또는 {눈썹찌푸리기}, {입술좌우로당기기} 등의 비수지표지가 동시에 나타남

※ 이외에 {고개가우뚱}, {눈썹올리기}, {눈썹찌푸리기}, {눈부릅뜨기}, {눈흘겨보기}, {턱내리기}, {혀내밀기}, {입술꼭다물기}, {입술벌리기}, {입술동그랗게만들기}, {공기내쉬기} 등의 비수지표지도 부정의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남

예:

	부정표지	
[나]	[술마시다]	[안하다]

6. 완성형 표지에 추가되는 비수지표지가 있는 경우 완성형 표지 아래에 순서대로 작성한다.

7. 공간표지는 글로스 옆에 아래 첨자로 표기한다. 평면 공간의 경우는 임의의 공간 a, b, c... 로 표기하며, 상하 공간의 경우 상, 하로 표기한다. 인칭 공간의 경우 1, 2, 3으로 표기한다.

예: [집]_a [지하철역]_b [걷다]_{a→b}

[엄마]_a [아빠]_b

_b {몸의방향} _a	{시선} _a
[좋다]	

1. 용어 확정
2. 음운론 수정
3. 형태론 수정

II. 음운론 및 형태론 수정 보완

5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2019년 집필한 음운론과 형태론에 대한 전문가 서면 검토를 실시하였다. 검토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국어학 전공자 1명, 수어학 전공자 4명이다. 전문가의 검토 의견은 총 143건으로 내용이나 용어 관련이 90건이며, 수어 자료 예시 관련이 53건이었다. 용어 정비에서는 8건 모두 반영하였으며 음운론에서 총 81건 중 68건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형태론에서는 54건을 모두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수어 자료 예시와 관련한 검토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수어의 변이형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예시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수동이 변별적 요소가 되는 최소대립쌍 수어 어휘로 [배우다]와 [밧]을 제시하였는데, 검토 의견에서는 [밧]이라는 수어에서 나타나는 내부 수동이 수형의 변화로 보여 수동뿐 아니라 수형의 변화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동에 의한 최소대립쌍의 예시를 [동물]과 [행동]으로 수정하였다.

이후 검토 의견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동 전문가에게 보내, 수정 내용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추가 보완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 2차 서면 자문 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을 완료하였다.

각 장별 검토 의견과 반영 여부 및 수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어 확정

〈표 II-1〉 용어 정비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표

2. 한국수어 문법 용어 정의

- ① ‘변이형’항목에서, 변이음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하여 수정
→ 변이음이란 음성적으로 구별되는 소리이나 의미 분화의 기능이 없어 언어 사용자가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를 이른다(여기서 ‘음성적으로’를 ‘물리적으로’로 바꿈).
- ② ‘시각적으로 다르게 보이더라도 의미 변별에 문제가 없는 형태 변화를 변이형이라고 한다.’라는 문장에서, ‘... 형태 변화’를 ‘변이형’이라고 한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않음. ‘... → ‘의미 변별에 문제가 없는 정도로 변화된 형태’를 ‘변이형’이라고 한다’로 수정함.
- ③ ‘수동소’항목에서 ‘최소대립 단어 쌍에 의해 개별 수어에서의 수동소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최소대립 단어 쌍’이 곧 ‘최소대립쌍’이 아닌가 함. 보고서의 앞부분에서는 ‘최소대립 단어 쌍’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최소대립쌍’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최소대립쌍’으로 통일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소대립쌍’으로 통일함.

- ④ ‘... 수동소를 분리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분리’한다는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음. ‘... 수동소를 분석해 낼 수 있다.’라거나 ‘... 수동소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으로 보임. 언어학에서는 이런 경우에(‘분리’보다는) 주로 ‘분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보고서 전체적으로 ‘분리’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만약 이 표현을 수정한다면, 모든 맥락에서 같은 표현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분석’으로 통일함.

- ⑤ ‘수향의 잉여성’ 항목에서 ‘운율적 측면에서’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때 ‘운율적 측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음(cf. 42쪽에서 ‘운율 자질’에 대한 설명이 나옴).

→ 반영함.

- ⑥ ‘조음’ 항목에서, ‘... 그러나 언어의 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므로 현대 수화언어학에서는 조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음.

→ 반영함.

- ⑦ ‘기본형’을 ‘활용하는 단어에서 활용형의 기본이 되는 형태를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일반적인 언어학에서의 ‘기본형’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의 ‘기본형’의 뜻을 이용하 기술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본형’ 개념이 수어문법에서 말하는 ‘기본형’ 개념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검토) 바람.

→ 반영함.

- ⑧ ‘일치’ 항목에서, ‘한국수어에서는 주어의 인칭, 수, 성에 맞게 동사의 형태를 변형하여 일치를 표현한다.’라고 하였는데, 사실상 한국어에서 이러한 ‘인칭, 수, 성’의 일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수어에서도 그러한 일치가 항상 실현되는 아니므로 보다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어의 경우, 주어의 인칭, 수, 성에 맞게 동사의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반영함.

2. 음운론 수정

〈표Ⅱ-2〉 음운론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표

1. 수어의 최소 단위

- ① ‘... 그 소리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별자질의 기능을 할 때 음소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변별자질(distinctive feature)’은 음운론에서 특정한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이므로 이러한 맥락에 사용될 수 없음. 따라서 위 문장은 ‘... 그 소리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별적 기능을 할 때 음소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함.

→ 반영함.

- ② [멋]과 [배우다] 수위가 같아도 수동 움직임뿐 아니라 수형 변화 있음과 없음의 차이 또한 있음.

→ 반영함.

- ③ 케림이라는 표현은 미국에서도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라는 것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21p

→ 반영함(주석에 내용 추가).

1.1. 수지 요소

- ① [배우다 - 멋]을 최소대립쌍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배우다]는 수형의 변화에 의한 수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주하다 - 열심히], [행동 - 활동] 수화가 수동 대립으로 어떨까요?

→ 반영함.

- ② 22쪽 [닭]은 손가락을 다 편 손 모양의 5지를 이마 중앙에 위치시키고 나머지 손가락을 흔드는 것으로 그리고 [경찰]이라는 수어는 1,2,5지를 편 손 모양에서 5지를 이마 중앙에 위치시키고 1,2지를 흔드는 움직임으로 산출한다고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 반영함.

- ③ ‘... 미국수어에서의 수어소를 분리하였다.’→ ‘... 미국수어에서의 수어소를 분석하였다.’

→ 반영함.

- ④ ‘... 수형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별자질이 된다.’→ ‘... 수형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별적 요소가 된다.’(음운론에서 ‘음소’는 ‘변별적 자질의 동시적 묶음’으로 정의되므로 ‘변별적 자질’은 음소의 하위 개념이 됨. 따라서 ‘음소’와 ‘변별자질’을 같은 층위에 두고 기술할 경우 혼동의 여지가 생김. 따라서 음소의 하위 개념으로서 ‘변별자질’을 언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혼동을 막기 위해 다른 표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반영함.

- ⑤ 배슨(Battison, 1973) → 배티슨(Battison, 1973) (cf. 32쪽 벤티스, 베티슨 → 배티슨)

→ 반영함.

- ⑥ ‘수형은 손바닥의 방향과 선택된 손가락 끝의 방향, 그리고 선택한 5지의 방향이 중요한 변별자질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때도 ‘변별자질’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보고서 전체적으로 ‘변별자질’이라는 용어를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반영함.

- ⑦ 22p, 7번째 줄: “이 두 수어 단어에서 수위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 반영함.

- ⑧ 수형 변화(예: 편 손이 주먹이 되는 경우는 기술되어 있지 않네요.

→ 반영함.

1.2. 비수지 요소

- ① 가장 많이 알려진 [귀엽다-아깝다] 이상으로 뚜렷한 어휘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인-맴다]는 비수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휘를 표현할 때 화자의 느낌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운 것을 먹어도 별로 느낌이 없다'는 내용을 할 때는 얼굴표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로 든 어휘 쌍의 비수지가 음운 요소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반영함.

2.1. 수형소

- ① '음성언어의 경우 조음기관이 구강과 성대이므로'라고 하였는데, '비강'도 조음에 관여하므로 '음성언어의 경우 주된 조음기관이 구강과 성대이므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함.

→ 반영함.

- ② '모든 수형이 의미의 변별자질로 작동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모든 수형이 변별적으로 기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는 '모든 수형이 의미 변별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는 '모든 수형이 변별적 기능을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등과 같이 수정 바람.

→ 반영함.

2.1.2. 수형의 최소대립쌍

- ① <표 2>의 어휘 선택

예시1 '손가락의 선택'은 성별 수화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아들-딸]. 제시된 예시는 손가락의 선택보다 손가락 전체의 자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 반영함.

- ② 예시2 '손가락의 자세'는 오히려 예시1에서와 같이 수형에서 손가락이 형성한 모양의 차이를 잘 설명할 것 같습니다. 또는 [기가 꺾이다?-오므린 손모양으로 코에 댔다가 옆으로 꺾는 수화]와 [안면몰수하고?-주먹 쥔 손으로 코에 댔다가 옆으로 꺾는 수화] 쌍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예시의 어휘들은 수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반영하지 않음(사진 촬영 시 기본값을 맞추는 것).

- ③ 예시1: 손가락의 선택만 다르지 않고 수동도 다른 것으로 보여요(그림상).

→ 반영함.

2.1.3. 수형소 분류 기준

- ① 예시1,2,3의 단어가 무엇인지 설명에 첨가하면 좋겠습니다.
→ 반영함.
- ② <표 2>에도 단어를 제시하면 어떨까요
→ 반영함.
- ③ ‘1) 변이형’에 대한 기술 중, ‘음성학적 변이가 시각화되면서 음운학적 자질로 혼동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왜 음성학적 변이가 시각화될 때 그것이 음운학적 자질로 혼동되는지, 이 기술만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음.
→ 반영함.
- ④ 26p‘손가락의 구부림 정도는 의미 변별 자질이 아닌 변이형이다.’, ‘손가락의 구부림 정도는 의미 변별자질이 되지 않으므로 수형의 원형이 아니라 특정 수어에 속한 변이형으로 계통 짓는 것이 타당하다.’,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의 근접 정도는 의미 변별자질이 아닌 변이형이다.’,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의 접촉 여부는 의미 변별자질이나 그 접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형은 변이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때에도 ‘변별자질’과 ‘변이형’이라는 용어의 사용 및 기술(표현)이 정확하지 않음. 예를 들면, ‘손가락의 구부림 정도는 의미 변별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변형은 변이형으로 간주된다.’와 같은 식으로 수정 바람.
→ 반영함.
- ⑤ 엄지에 대한 변이형은 없나요? 예: 주먹수형 경우 엄지가 주먹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검지 옆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 반영하지 않음. 검지 옆에 엄지가 붙은 수형이 최소대립쌍[곰][~줄] 등을 갖고 있고 ㅎ형과 원형-변이형 관계로 기술되어 있음.

2.1.4. 한국수어 수형소

- ① <표 7>의 5번 수형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형소와 변이형으로 제시된 두 개의 수형은 한국수화에서 전혀 쓰임이 다른 수형입니다. 수형소로 제시된 수형은 어떤 것을 집기 위한 수형보다 모양을 나타내는 고정된 형태에 대한 수형이고 변이형으로 제시된 수형은 두께, 집게 등에 쓰이는 독립된 수형 같습니다. 발화 상황이나 상태로 인한 변이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반영하지 않음(일부 동의하나 수형소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 ② <그림 7>의 최소대립쌍 두 번째 예시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위에서 정리할 때 수형을 조음자로 넣었으니 두 개의 수화어휘는 수형 뿐 아니라 수향이 다릅니다. 수향에 의하면 [깨끗하다]와 [나쁘다-손가락을 전부 편 형태]로 분명하게 조음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 반영하지 않음([깨끗하다]아니고 [천하다]임).
- ③ 27쪽의 <표 5>의 예시는 [정말]과 [감옥]인 것 같은데 아래 설명은 [정말]과 [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 반영함.

- ④ 29쪽의 9번 설명에서 [고양이]와 [곰]은 수형은 동일하고 수형에 의해 변별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영함(수형에 의한 변별이 기본 전제임. 그러나 수형 마우딩의 영향으로 의미 변별이 되기도 함).
- ⑤ 26쪽의 <표 3> 변이형 사진과 27쪽의 <표 5>, 29쪽의 <표 7>의 사진을 그림으로 통일하였으면 합니다.
→ 반영함(추후 사진 촬영).
- ⑥ <표 7>의 5번 부분, [선택하다]보다는 [뽑다]가 더 좋지 않을까요? [선택하다]하면 2지와 5지가 상호접촉이 일어나는 다른 수형.
→ 반영함.
- ⑦ <표 7>의 9번 부분, [곰], [고양이] 수형에 의해 의미변별.
수어소 보다는 해당 변이형일 때 마우딩에 의해서도 변별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반영함(기술에 추가함).
- ⑧ <표 7>의 1번 [거짓]에는 신체접촉이 일어날 때 변이형이 나오지만, [예쁘다]에도 해당되는지 의문.
→ 반영함(예시어 삭제).
- ⑨ 30p, 3) 한국수어 수형소와 최소대립쌍 - [건닝], [가지다] 같은데 수형소만 다른 게 아니라, 출발 도착 위치가 서로 달라요. 제안: [먹이다], [순갈로 먹이다]
→ 반영함(최소대립쌍 예시에서도 삭제 하고 [간음하다][자아]꼴다로 대체함).

2.2.1. 수위와 수위소

- ① '1)수위의 정의와 범주'에서, '각각의 위치가 의미 변별자질이 되는데 이를 수위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변별자질'과 '음소'를 동일한 층위에 놓는 셈이 되므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음. 이때에도 '변별자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각각의 위치가 의미 변별 기능을 지니는데 이를 수위라고 한다.' 또는 '각각의 위치가 변별적 요소가 되는데 이를 수위라고 한다.'와 같이 수정 바람(cf. 43~44쪽에서는 '변별자질'을 '음소(수어소)'의 하위개념(구성요소)으로 보고 있음).
→ 반영함.

2.2.2. 수위의 최소대립쌍

- ① <표 16> 예시2의 단어 제시에서 [곡기를끓다]를 [금식]으로 [관계를 끊다]를 관계단절로 37쪽의 설명과 일치시키면 좋겠습니다.
→ 반영함.

2.2.3. 수위소 분류의 기준

- ① 37p, [말만번지르르하다] 농인이 하는 수화를 많이 본적이 없어요. 거의 청인만 봄. 사실 여부 확인 필요.
→ 반영하지 않음(한국수화여행 293쪽 내용 참고).
- ② 그림9, 복장이 아쉬워요. 동일 옷으로.
→ 반영함(추후 사진 촬영).

2.2.4. 한국수어 수위소

- ① <그림 10>의 수위소 최소대립쌍 예 중 첫 번째 쌍 어휘는 수위와 수동 모두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쌍 두 번째 어휘가 첫 번째 어휘와 같은 수동을 보일 경우 음소적 차이보다 형태론, 통사론적인 차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결국 두 어휘의 수동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 반영함(예시 변경함).
- ② 38쪽과 39쪽의 그림이 무슨 단어인지 의미를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목(뒤)의 사진도 그림으로 통일하면 좋겠습니다.
→ 반영함(추후 사진 촬영).

2.2.6. 한국수어 수위소 제약

- ① 한국수어 예시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반영하지 않음(빈도에 대한 기술이므로 예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2.3.1. 수동과 수동소

- ① 42p 브렌타리(1998)의 견해에 따라, '운율 자질은 외부의 움직임에 의해 변화하는 자질로 수동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왜 '운율 자질(prosodic feature)'이 되는지 이해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음운론에서 말하는 '운율 자질'은 소리의 고저, 장단, 강약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운율 자질'과 '수동'의 연관성이 포착되지 않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반영함(부연설명 - 각주에 추가).

2.3.2. 수동의 최소대립쌍

- ① <표 20> 수동 최소대립쌍 예시1에 제시된 어휘 쌍이 수동뿐 아니라 수형과 수향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첫 어휘 [외치다]는 불인 손가락을 끝까지 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파하다]는 반드시 손가락을 떼어야 합니다. 그 차이의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 수향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유] - [활동하다] - [행동] 쌍은 어떨까요?
→ 반영함.

- ② <표 20> 예시1 [외치다], [전파하다] 21의 경로 수동을 만드는 변별자질을 참고할 때 ‘외치다’는 한번 하지만 ‘전파하다’는 반복 수동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수향이 서로 다름. 게다가 수형 또한 다름. ‘외치다’는 한 수형, ‘전파하다’는 수형변화가 있음
→ 반영함.

2.3.3. 수동소 분류의 기준

- ① 46p ‘3) 부차적 기준’에서 ‘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수동’이라고 할 때, ‘질적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 반영함(예시를 들어 설명함).
- ② ‘수동을 통해 의미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분을 ‘부차적 기준’에 속한 것으로 보았으며 수동의 속도, 수동의 강세, 수동의 반복 횟수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의미의 질적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주면 좋을 듯함.
→ 반영함(예시를 들어 설명함).

2.3.4. 한국수어 수동소

- ① 마지막 문장 ‘실제 언어의 걸음 뒤에서 신중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좀 더 쉽게 풀어쓰면 좋겠습니다.
→ 반영함.
- ② <그림13> 수동소의 최소대립쌍에도 단어의 의미를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 반영함.

2.4.1. 수향과 수향소

- ① ‘수형, 수위, 수동 외에도 수향이라는 변별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시각적인 변별자질이 된다고 하고 이를 수향소라 하였다.’에서 ‘변별자질’이라는 용어의 쓰임이 적절한지 의문임. 이러한 기술에 따르면 ‘변별자질’과 ‘음소(수어소)’는 대등한 층위의 요소가 됨. ‘변별자질’이라는 표현 대신 ‘변별적 요소’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반영함.
- ② 48p, 수향소 연구, 5번째 줄, F disch ?
→ 반영함(오타 정정-Födisch).

2.4.2. 수향 제약과 잉여성

- ① ‘운율적 측면에서 수향은 선택된 수형과 수위의 관계에 의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운율적 측면’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됨. 수어에서 말

하는 ‘운율적 측면’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 반영함(물리적 측면으로 바뀌서 기술 - 브렌타리는 수동을 운율 자질로 보았으며 그 맥락에서 기술된 내용임.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내용 일부를 수정).

2.4.3. 수향의 최소대립쌍

- ① <표 27> 예시 두 쌍 모두 수향의 최소대립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 쌍 모두 음소의 차 이보다 통사적 구조 속에서 문장의 논향에 차이를 갖습니다. 즉 문장 속에서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를 토는 필요한 논향수를 결정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수향에 의해 의미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 반영함([미워하다] [미움받다] 삭제하고 [내일] [어제] 예시로 수정).

- ② 첫 예시는 수향보다 수동에 의해 [조용하다]-[가라앉히다]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 반영하지 않음(수동에 의해 용인되는 측면이 있으나 기본형이 갖는 원 의미가 존재함).

- ③ 50쪽의 수향소의 최소대립쌍의 예시 중 [학교]와 [공부]는 수향소 뿐 아니라 수위소도 서로 다른 것이므로 예시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반영하지 않음. 최종본에는 수향 최소대립쌍 예시가 아니라 손바닥 방향의 변화를 통한 단어 생성 예시로 되어 있음.

- ④ 부록5의 1번 [나쁘다] [천하다] 글자가 사진과 다름.

→ 반영함(수정).

- ⑤ 부록5의 [후배], [선배] 수향의 의한 변별차이 이긴 보다는 수동에 의한 변별차이 같음. 게다가 수향의 변화도 없음. 선배일 때, 우세손이 선배로서 움직이고 후배일 때, 우세손이 후배로서 움직이는 양손의 역할이 바뀜.

[모으다]-[갈라놓다], [미래]-[과거], [내일]-[어제], [무너지다]-[무례], [높다]-[깊다] 수향이 다른 것뿐 아니라, 출발 도착점이 서로 다름 [나쁘다]-[동양] 수향뿐 아니라 움직임이 서로 다름.

→ 반영하지 않음(동의할 수 없음. 자문위원은 수위의 범주를 너무 좁게 잡은 것 같음).

2.4.4. 수향소의 분류 기준

- ① <그림 15>의 논향이나 굴절에 대한 설명은 수어의 음소(조음자)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은 문장론, 최소한 통사론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 반영함(통사론에서 다루겠다는 말을 덧붙임).

2.4.5. 한국수어 수향소

- ① <표 33>, <표 34>에서 단어 예시 부분에, 각 수어 단어가 나타내는 한국어(음성언어) 뜻을 명시해 주면 좋을 듯함.

→ 반영함.

- ② 57p <그림 16> 수향소의 최소대립쌍 예시에서도, 각 수어 단어가 나타내는 한국어(음성언어) 뜻을 명시해 주면 좋을 듯함.

→ 반영함(글로스 추가).

- ③ <그림 16>의 [모으다]-[갈라놓다], [높다]-[깊다] 수향이 다른 것뿐 아니라, 출발 도착점이 서로 다름. [나쁘다]-[동양] 수향뿐 아니라 움직임이 서로 다름.

→ 반영함.

2.4.6. 접촉과 제한

- ① 수향소의 최소대립쌍의 예시에 단어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록에 있지만...

→ 반영함.

3.1.1. 비수지 요소의 다양한 기능

- ① <표 33> 출처가 빠졌습니다.

→ 반영하지 않음(각주에 이미 기재함).

3.1.2. 조음 자질로서의 비수지 요소

- 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비수지에 대한 설명의 대부분이 조음 자질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깨 으쓱임은 수어자질인지 제스처인지 더 들여보아야 할 동작으로 판단됩니다. 수어 화자의 모든 움직임이 언어적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반영하지 않음(어깨 으쓱임은 관습적 제스처와 동일하다고 기술되어 있음).

- ② 만약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면 의미론으로 양보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분명한 것은 전혀 조음자질이 아닌 비수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 반영하지 않음(의미론에서 다룰 부분이 많음을 인정하지만, 한국어 [님][남]처럼 비수지 요소 하나로 인해 의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함.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조음자질이 아니라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음).

- ③ ‘... 단어를 변별하고 조음할 수 있는 자질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수형, 수위, 수동, 수향과 같은 수지 요소와 더불어 비수지 요소도 수어 단어 생성에 조음 자질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라는 부분에서, ‘수형, 수위, 수동, 수향’과 같은 수지 요소와 비수지 요소를 모두 ‘조음 자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이러한 표현은 ‘음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자질’개념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음.

→ 반영함(‘조음자질’ → ‘기여하는 요소’로 변경함).

- ④ 61p ① <표 36>과 <표 37>에서 왼쪽에 제시된, 한국어 번역 ‘행복하다’에 대응되는 얼굴표지가 서로 다른데,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음.

→ 반영하지 않음(설명은 이미 되어 있으나 표 위에 기술되어 있어 내용과 표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고 예시표의 내용도 오해 없도록 수정).

- ⑤ <표 37>의 왼쪽에 제시된 얼굴표지는 중립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고 그러므로 수어문에도 얼굴표지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얼굴표지가 무표지임을 통해 평서문을 나타내는 듯함(cf. 65쪽 참고)), 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반영함(추가 설명을 기술).

3.1.2. 조음 자질로서의 비수지 요소

- ① 심지어 아래에서 다루고 있는 얼굴표지에서 <표 36>은 정말 어이없는 예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어 음성언어에서 [행복하다]의 여획에 반드시 [행복한 음성으로]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반영함(위의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음. 다만 예시 표를 수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앴).

- ② 화용적 감정요소와 음운의 조음자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비수지의 문장부호, 문형, 감정 요소와 제스처, 문법정보 등을 통으로 버리시거나 혹은 의미론으로 옮기시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 반영하지 않음(비수지는 조음자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동의할 수 없음. 자문의원이 말하는 조음자질인지 문법정보인지의 기준이 한국어 번역에 의존되어 있다고 생각함).

- ③ '입 움직임 통칭하는 입움직임(마우스 액션)은...'으로 시작하는 문장 검토 후 수정 바람.

→ 반영함('통칭'을 '총칭'으로 수정함).

3.2.1. 얼굴표지의 정의와 자질

- ① 63p '얼굴의 아랫부분인 입, 볼, 턱의 움직임은 비수지표지로서 감정 정보와 문법 정보 등 여러 의미 변별자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여러 의미 변별자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변별 기능을 지닌 '여러 수어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지 검토 바람.

→ 반영함.

3.2.3. 얼굴표지에 의한 최소대립쌍

- 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17의 예 중 [청인][맵다], 쌍과 [생각][왜], [기분이 좋다][기분이 나쁘다]는 얼굴표지에 의한 최소대립쌍으로 보기 어렵고 화용적 요소가 강한 것 같습니다.

→ 반영하지 않음.

3.3.2. 마우딩

- ① 마우딩 예시 사진 없음 68p
→ 반영함(추후 사진 촬영).
- ② 마우딩 예시 사진 없음 68p
→ 반영함(추후 사진촬영).
- ③ 68p '3)마우딩 현상과 한국수어'에서, '수어자의 언어 경험과 내적 언어 환경, 그리고 ...'라는 문장에서, '내적 언어 환경'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 반영함(내적-> 개인적인).
- ④ 마우딩 예시 사진 없음 68p
→ 반영함(추후 사진 촬영).
- ⑤ 출처가 빠졌습니다: 이현화, 원성옥, 허일, 홍성은 (2018b). 한국수어의 마우딩, 수어학연구, 제1권 제1호, 1-7.
→ 반영함.
- ⑥ 마우딩 예시 사진 없음 68p
→ 반영함(추후 사진촬영).

3.4. 한국수어에서의 비수지 요소

- ① 비수지 요소와 비수지표지가 혼용되어 되어 있는데 비수지표지로 용어를 통일하면 어떨까요?
→ 반영함(전체 기조에 맞게 비수지 요소로 통일).
- ② '2)마우스 제스처 현상'에서, '마우스 제스처 중에는 수지 기호와 결합하지 않고도 형태소로 작용하는 자질들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형태소'라는 개념과 '자질'이라는 개념이 같은 층위의 것이 아니므로 '마우스 제스처 중에는 수지 기호와 결합하지 않고도 형태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 반영함.

4. 수어소의 결합: 동시성과 순차성

- ① '또한 의문문과 조건문 역시 비수지 요소를 동시에 표현하여 실현하는 것이 한국어와 다르다.'라는 문장에서, 문맥을 고려할 때 '한국어'를 '음성언어'로 수정해야 함.
→ 반영함.
- ② 72p '〈표 47〉 수어의 분절 구조'에서 정지 분절과 움직임 분절이 조음 자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사실상 각각의 '수어'는 의미를 지닌 하나의 '형태소' 내지 '단어'이므로 그것을 이루고 있는 수형, 수위, 수향 및 비수지 요소들은 '자질'이라기보다는 '음소(수어소)'에

대응되는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음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음소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자질’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관된 체계를 수립한 후 기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반영함.

5. 수어소의 변동

- ① ‘첨가, 축소, 동화, 치환, 비우세손 탈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5.4.의 제목에서는 ‘비우세손 생략’, 5.5.의 제목에서는 ‘전환’으로 되어 있으므로 용어 통일 바람. 표현상 ‘비우세손 탈락’보다는 ‘비우세손 생략’이 더 자연스러움. ‘metathesis’를 ‘전환’이나 ‘치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임. ‘metathesis’를 음운론에서는 보통 ‘(음운)도치’(또는 음위전환)라고 번역함.

→ 반영함.

5.1. 첨가

- ① [교사+화내다]에서 [교사]의 원래 수동 2번 두드림이 뒤에 [화내다]로 인해서 수동이 1번으로 축소되어 (74쪽의 설명처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사]와 [화내다]사이에 움직임이 첨가 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산], [기차], [입장], [건대] 등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5지의 첨가현상을 다루면 어떨까 합니다(물론 단어와 단어가 발화될 때의 현상은 아니지만 음운론 (단어의 구조안)에서 일어나는 ‘첨가’ 현상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반영함.

5.2. 동화(Assimilation)

- ① ‘상호작용으로 인해 수어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동시 조음이라 하고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동화라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동시 조음’과 ‘동화’의 구별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 ‘작은 변화’와 ‘큰 변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 음성(변이음) 차원의 변동인지 음소 차원의 변동인지와 같은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반영함.

3. 형태론 수정

〈표Ⅱ-3〉 형태론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표

1.2. 형태소의 유형

- ① P85 〈표 51〉의 바로 아래 수화의 의존형태소 설명에서 [운전하다] 에 대한 수화의 발화와 발화 태도를 전부 형태소로 구분하고 특히 태도를 의존형태소로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어 음성언어에서도 말을 여유 있고 느리게 전개하는 것과 빠르고 급하게 전개하는 방식을 통해 정보를 설명하거나 부과할 수 있지만 이를 언어적 요소로 특히 형태소 가져오지 않습니다. 수화가 대부분 문자언어가 아닌 구술 언어로 언어연구자에게 제공됨으로써 오는 혼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반영함.
- ② 85쪽 ‘-개월’설명에서 손가락을 튕기는 수동을 구부린 손가락을 펴는 수동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분’설명에서 앞으로 튕기는 수동도 앞으로 내미는 수동이라고 해야 적절한 것 같습니다.
→ 반영함.
- ③ ‘-꽃-’과 ‘-먹-’은 의미가 있는 실질형태소이지만 홀로 쓰이지 못하므로 의존 형태소이다.’라고 하였는데, ‘-꽃-’은 접사이므로 실질형태소가 아닌 형식형태소임. 접두사의 경우, 접미사에 비해서는 실질적 의미가 좀 더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실질형태소와는 구별되는 ‘접사’에 해당하므로 ‘형식형태소’로 간주됨.
→ 반영함.
- ④ 1.2 형태소의 유형에서 1.3 도상성으로 넘어갈 때 연결이 없어 읽기 조금 어렵습니다.
→ 반영함.
- ⑤ 형태소의 유형 부분에 분류사 수형이 안 나타나네요!
→ 반영함.

1.3. 도상성

- ① [나무]는 ‘나뭇가지가 뻗는 것’으로 나무를 형상화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가지]라는 단어라고 생각하며, 각주의 설명도 일면 그럴 수 있지만, 혹설에 의하면 한자의 나무 ‘목’자에서 차용한 단어라고도 합니다.
→ 반영함.
- ② 87쪽의 [TREE] 사진을 그림으로 변경
→ 반영함.

1.3.2. 환유와 은유

- ① 은유 부분에서 김철관님의 연구의 예시가 너무 난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자님들의 은유에 대한 적절하고 쉬운 예시와 설명이 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반영함.
- ② Wilcox(2004) 또한 환유는 무언가의 일부를 사용하여 무언가의 전체를 의미한다고 언급 하였고요. '강아지/개'를 중국수어에서는 강아지의 손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면서 마우딩 으로는 '와와'로 표현하지만, 한국수어는 개의 귀를 표현하면서 개의 혀움직임을 나타낸 비수지와 함께 실현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를 의미하지, '개의 손'이나 '개의 귀'를 의미하지 않다는 친절한 설명과 중국과 한국수어 비교 사진을 올렸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 반영함.
- ③ 제목과 내용이 약간 불일치한 것 같습니다. 내용에 맞는 제목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반영함.

2.1.2 양손 단어

- ① <표 55> 예시 d에서 [모욕]은 과거에는 [모욕]이었는데 요즘은 [도전]으로 더 많이 사용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면 어떨까요
→ 반영함.

2.1.3 한손 단어와 두 손 단어의 결합

- ① <그림72>에서 b [일]의 수형이 좀 정확한 것으로 실으면 좋겠습니다
→ 반영함.

3. 단어 형성

- ① '다만 '책들'에서는 '-들'이라는 굴절접사가 붙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이라는 복수의 의미를 추가한다. 또한 '걸었다', '걷는다'에서 굴절접사 '-었-'과 '-는-'이 붙어서 각각 과거시제와 미래시제를 표현한다.'라고 하였는데,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는 '굴절 접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흔히 '복수 접미사'라고 부르는). '-들'은 '파생 접사(파생 접미사)'로 간주되며, '-었-'과 '-는-'은 '어미(선어말어미)'로 간주됨. 그리고 '-는-'은 '미래시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시제'를 표현함.
→ 반영함.
- ② 94p '복합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와 두 개 이상의 어근 즉 두 개 이상의 자립 형태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가 있다.'고 하였는데, '자립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로 수정 바람. 모든 '어근'이 자립 형태소인 것도 아니며, 문맥상 해당 위치에 '자립 형태소'가 올 수 없음(cf. '어근' 외에 '어기'라는 개념도 있음. 학자에 따라서는 '합성어'를

두 개 이상의 어기가 결합된 것으로 보기도 함. 같은 관점에서, 파생어를 ‘어기’와 ‘접사’가 결합된 것으로 보기도 함).

→ 반영함.

- ③ 93p, 밑에서 4번째 줄 오타: Johnston

→ 반영함.

3.1.1. 순차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합성어

- ① 96p “‘뜻사과’는 ‘뜻’과 ‘사과’로 나뉘며 이 중에서 ‘뜻-’은 ‘아직 익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홀로 쓰일 수 없는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라는 문장 (표현) 수정 바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부자연스러우며, 그 사이에 기술된 내용의 수식 관계가 불분명하여 중의성이 생김.

→ 반영함.

3.1.3. 순차적 결합으로 만든 파생어

- ① <그림 77> [힘이 있다]-[힘이 없다] 한손 보다는 양손 동시에 사용. 한손으로는 ‘없다’보다 ‘아직’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음.

→ 반영함.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 ① ‘... 자립 형태소의 결합인 합성어로 보기 어렵다.’ → ‘... 실질 형태소의 결합인 합성어로 보기 어렵다.’ 합성어는 실질 형태소의 결합이지, 자립 형태소의 결합이 아님.

→ 반영함.

- ② [간단]=[수고]+[없다]에서 그 [없다]를 [불가능]으로 보임. 그 [불가능]사진 보다 [공짜:돈+없다(터는)]로 가는 것이 어떨런지요? ‘수고+공짜’를 ‘간단’하게 된다고 의미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불가능]하면 의미적으로 이상해보임.

→ 반영함.

3.2.1. 두 단어의 동시적 결합

- ① ‘두 손은 각각 자립 형태소이므로 합성어로 볼 수 있다’→ ‘두 손은 각각 실질 형태소이므로 합성어로 볼 수 있다.’

→ 반영함.

3.2.2. 두 단어의 일부 동시적 결합

- ① ‘두 다른 원천에서 음운적 매개변수를 가져와 단어를 만드는 방법’에서 ‘음운적 매개

변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음.

→ 반영함.

- ② '떡볶이'와 '라면'이 합쳐진 '라볶이' → '라면'과 '떡볶이'가 합쳐진 '라볶이'

→ 반영함.

- ③ 98p '또한 합성어로 보려면 합성어의 구성성분은 자립 형태소인데 두 구성성분은 자립 형태소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는데, '자립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로 바꿔야 함.

→ 반영함.

3.2.3. 지숫자의 동시적 결합

- ① 99쪽 <그림 81>에서 a사진 [1살]은 그림으로 b는 [위다]보다는 [1살 위], c는 [아래다]보다는 [1살 아래]로 표기하면 좋겠습니다.

→ 반영함.

- ② '자립 형태소인 어근과 독립해 사용할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인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에서 '자립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로 바꾸고 '의존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로 바꿔야 함. '어근'은 '자립 형태소'가 아닌 경우도 있음. '접사'의 경우에도 문맥상 '형식 형태소'로 바꾸어야 함.

→ 반영함.

3.2.4. 지문자의 동시적 결합

- ① <그림 86>의 문자-카카오톡도 그림으로 통일하면 어떨까요

→ 반영함.

3.2.5. 마우딩의 동시적 결합

- ① <그림 89>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마우딩으로 동시에 나타나기에 별도로 [계절]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림 89>는 혼동이 느껴짐요.

→ 반영함.

4. 단어 변형

- ① '한국어에서 보면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는 굴절접사 '-들'로 명사를 복수형으로 표현하거나 굴절접사 '-었-'으로 과거시제를 표현하는 것 등이다.'라고 하였는데, 한국어 문법에서 '-들'은 파생 접미사로 간주되며, '-었-'은 (선어말)어미로 간주되므로 수정 바람. 한국어 문법에서는 '굴절접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음.

→ 반영함.

4.1. 복수

- ① <표 56>의 순서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 반영함.
- ② '한국어에서 복수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굴절접사 '-들'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에서도 '굴절 접사'를 '파생 접사'나 '복수의 접미사'와 같이 수정 바람.
→ 반영함.

4.1.1. 사물의 복수 표현

- ① <그림 90>에서 [모자]보다는 [모자] [세 개]하고 지숫자 3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림 91> 사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 반영함.

4.1.2. 사람의 복수 표현

- ① <그림 93> 사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림 94>의 c [사람들/가다]보다는 [몰려가다]로 하면 어떨까요 108쪽의 <그림 96> 사진은 두 명의 농인으로 인해 단어 제시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 반영함.
- ② 사물과 사람의 복수 표현이 뭐가 달라요?
- 사물: 수사, 분류사
- 사람: 수사, 분류사, 부사, 지시, 특정어휘
→ 반영함.
- ③ 부사, 지시, 특정 어휘도 사물에 해당 되지 않나요?
→ 반영함.

4.2.1. 시제

- ① '... 발화의 내용인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발생 시)의 선후 관계'에서 '발생 시'를 '사건시'로 수정 바람.
→ 반영함.
- ② '... 책을 읽고 있는 시점은 현재시제이며 책을 읽었던 시점은 과거시제이고 앞으로 책을 읽을 시점은 미래시제이다.'라고 하였는데, '시점'과 '시제'가 동의어가 아니므로 표현 수정 바람. '시제'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을 표시하는 문법 요소'임. 따라서 위 문장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을 듯함. → '... 책을 읽고 있는 시점은 현재이며 책을 읽었던 시점은 과거이고 앞으로 책을 읽을 시점은 미래이다.' <그림 101>에서 현재 시제의 예문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어.'를 '나는 지금 책을 읽어.'로 수정 바람. '읽고 있어'는

‘상’(진행상)과 연관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시제의) 예문과 대등하지 않음. 또, 뒤의 예문 (1b)도 ‘지금 책을 읽어.’라고 되어 있으므로 대응되는 예문을 통일해야 함.
→ 반영함.

4.2.2. 상

- ① 115쪽 b는 [걷다]가 아니라 [서다]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 반영함.
- ② ‘발화의 내용인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발생시)의 선후 관계’에서 ‘발생시’를 ‘사건시’로 수정 바람.
→ 반영함.
- ③ ‘이 문장에서 보조적 연결어미 ‘-고’와 보조동사 ‘-있다’가 동사에 붙어서 완료상을 표시한다.’라고 하였는데, 예문(... 앉아 있다)에 사용된 보조적 연결어미는 ‘-아’이므로 수정 바람. 그리고 보조동사 ‘-있다’에서 ‘있다’는 의존 형태소가 아니므로 ‘-’를 삭제해야 함.
→ 반영함.
- ④ 상태 동사의 예를 들면서, “영희는 똑똑하다”에서 동사 ‘똑똑하다’는 그 자체로 영희가 똑똑한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하였는데, ‘똑똑하다’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로 간주되므로 ‘똑똑하다’ 대신 ‘사랑하다’나 ‘알다’와 같은, 다른 상태 동사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동사’로 간주하고 이들을 각각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부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형용사’라는 품사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기술을 위해서는 ‘똑똑하다’를 ‘동사’로 기술해서는 안 됨(cf. 5.2. 동사(128쪽) 부분에서도 동사를 ‘사물의 움직임’을 주로 과정적으로 표시하는 품사’라고 정의하였음). 현재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도 일반적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각각의 품사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휘상’을 기술하는 대목에서만 이러한 구분을 없애서는 안 되며,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똑똑하다’대신 다른 상태 동사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반영함.
- ⑤ 113p ‘1) 완료상’에서 ‘완료상은 완료의 의미를 표현하는 자립 형태소[완료하다], [끝] 그리고 비수지 기소로 표현한다.’라고 하였는데, 문맥상 ‘자립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로 바꿔야 함. ‘형식 형태소(문법 형태소)’에 의해 완료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에 의해 완료상을 나타낸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자립 형태소’나 ‘의존 형태소’냐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임.
→ 반영함.
- ⑥ 114p <그림 104> ‘완료상을 표지하는 자립 형태소’를 ‘완료상을 표지하는 실질 형태소’로 수정 바람.
→ 반영함.
- ⑦ 115p <그림 106> ‘b. [걷다]’를 ‘b. [서다]’로 수정해야 할 듯함. 대응되는 예문의 내용이

‘서다’임.

→ 반영함.

- ⑧ [완료하다], ‘빠’마우딩제스처가 나옵니다. [끝]할 때도 ‘빠’ 사용됩니다. 다른 마우딩제스처 ‘맨’ 또한 나오는데 그런 언급이 없네요 문법적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반영함.

4.3.1. 수어 공간과 지시 지점

- ① 공간 소개는 되어 있지만 동사 유형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음

→ 반영함.

4.3.2. 동사 유형

- ① 120쪽 <그림 112>의 b [놓다]보다는 [두다]로 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 반영함.

- ② ‘반대로 수어자의 몸과 떨어진 위치에서 ... 끝난다.’라는 문장의 주어가 없음. 문맥상 ‘[반다]는’이 맨 앞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반영함.

- ③ 각 동사 유형이 어떤 공간을 사용하는지 제시하면 어떨까요?

→ 반영함.

- ④ 유형1-4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유형1이 plain verb랑 뭐가 달라요? [일하다]의 경우 위치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는데 유형1 인가요 아니면 plain verb인가요?

→ 반영함.

- ⑤ 유형 1-4를 소개했지만 나중에 유형 1과2를 합친다면 처음부터 한 유형으로 소개하는 것이 어떨까요?

→ 반영함.

- ⑥ 유형4는 제외되니 소개를 안 하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음

→ 반영함.

4.3.3. 인칭 일치

- ① 한국 일치동사 연구를 하면서 수화인들은 일치동사 사용할 때 1인칭을 포함시키는 것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림 92>를 참고한다면 b-a, b-c, a-b, c-b 형이 많이 안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가 그녀한테 주다 내용을 할 때도 일치동사 경로는 수화인으로 부터 시작한다는 뜻. 서양 선행연구에도 많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 반영함.

4.3.4. 수 일치

- ① 질문하다_반원 (내가 학생들한테 주다)와 질문하다_지그재그 (내가 학생들한테 각각 주사)의 차이가 나 나타나네요.

→ 반영함.

- ② <그림 93> 예시가 지그재그 형 같으나 양 손을 사용하는 거라 다르죠? (<그림 93>와 윗 글로스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 반영함.

4.3.5. 성 일치

- ① 일치동사 중 사람 나타내는 수형이 생략될 때도 있음.

→ 반영함.

5. 단어 부류

- ① ‘word classes’는 일반적으로 통사 및 형태적 행동에 따른 단어의 분류를 나타낸다. 본 문법서에서는 단어 분류(word classes)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에서 ‘단어의 분류’를 모두 ‘단어의 부류’로 수정 바람.

→ 반영함.

5.1 명사

- ① ‘문장은 문장의 주인으로 동작이나 행동을 하는 주체인 주어와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로 구성된다.’라는 문장 표현 수정 바람(중의성이 많으며, 이로 인해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반영함.

- ② ‘명사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흔히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의 틀에서 ‘무엇’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명사이다.’라는 문장 수정 바람(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문임).

→ 반영함.

5.2 동사

- ① <그림118>의 b은 [무너지다]보다는 [집/무너지다]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앞의 명사에 따라 [무너지다]라는 표현이 다르므로.

→ 반영함.

- ② ‘동사를 검증하는 틀로 ‘무엇이 어찌한다’와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의 ‘어찌한다’의 자리를 채운다.’라는 문장 수정 바람(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문임).
→ 반영함.

5.3 명사-동사

- ① 동사-명사 쌍에서 발현된 수화가 동사인지를 명사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번역어에서 찾으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앉다]가 해석에 의해서 [의자]가 되는 것인지, [들다]가 해석에 의해서 [소리]가 되는 것인지, [이야기], [일], [공부] 모두 석연치 않습니다. 통사적 장치들이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보고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반영함.
- ② 중간 단락에서 [먹다]라는 동사는 앞에 명사인 [밥], [라면] 등의 명사 수형에 따라 [먹다]가 표현 된다고 하면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일치동사 중 사람 나타내는 수형이 생략될 때도 있음.
→ 반영함.

5.3.2 소리-듣다 쌍

- ① 듣다 부분, ‘들어’, ‘들어’, ‘듣다’는 마우딩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듣’, ‘들’부분은 마우딩 같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아’는 그 소리에 놀라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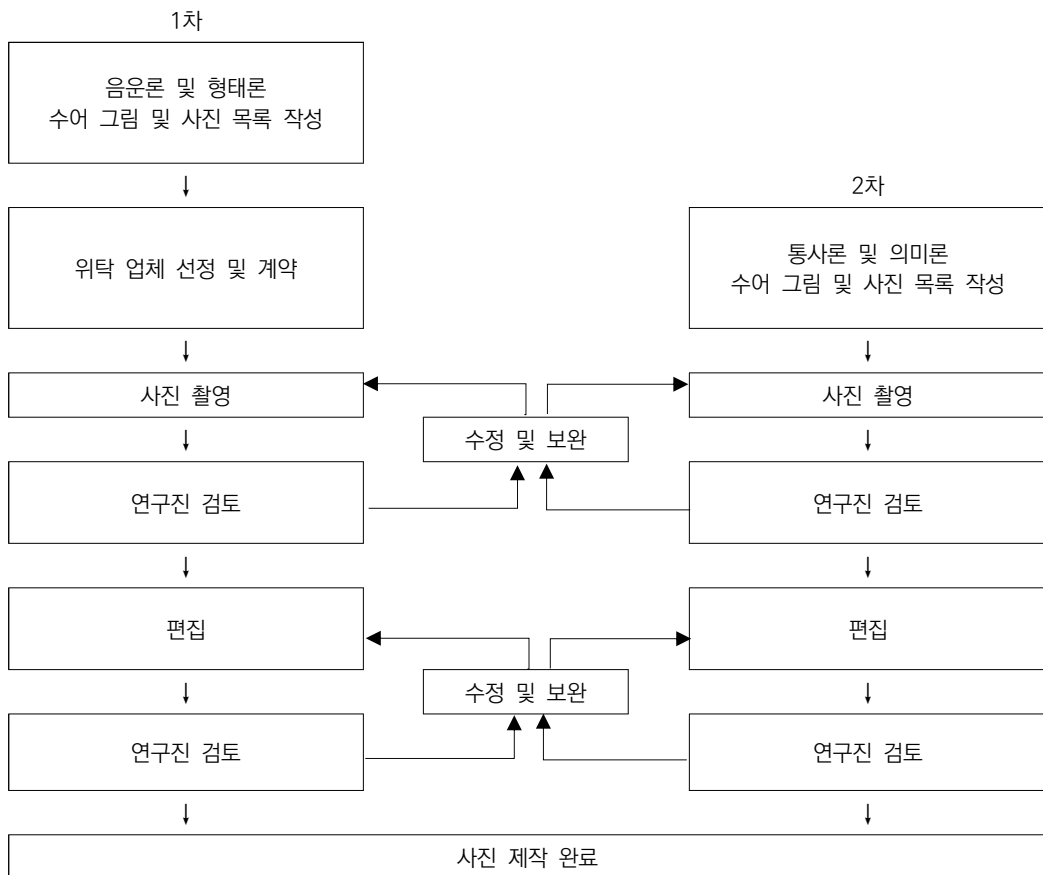


Ⅲ. 수어 사진 자료 제작

1. 수어 사진 자료 제작 절차
2. 수어 사진 자료 제작 과정
3. 수어 사진 자료 편집

Ⅲ. 수어 사진 자료 제작

1. 수어 사진 자료 제작 절차



[그림Ⅲ-1] 수어 사진 자료 제작 절차

2. 수어 사진 자료 제작 과정

2019년에 기술한 한국수어 음운론 및 형태론과 2020년 기술한 한국수어 통사론 및 의미론에 제시된 예시자료 중 한국수어 문법 설명에 필요한 사진 자료를 확정하고 제작하였다.

수어 사진 자료 제작은 수어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농인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수어 사진 제작에 필요한 수어 모델 및 감수자 섭외, 사진 촬영 및 편집 등을 위탁하였다. 기간은 2020년 8월 1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하였다. 수어 사진은 설명하고자 하는 한국수어 문법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촬영하였으며, 가능하면 한 장의 사진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1) 1차 음운론 및 형태론 사진 제작

1차 수어 사진 자료 제작을 위해 2019 한국수어문법연구(음운론 및 형태론)에서 필요한 수어 어휘 1009개를 추출하였다. 그중 중복되는 어휘를 제외하고 음운론에서 필요한 수어 어휘 569개와 형태론에서 필요한 수어 어휘 158개, 총 727개를 선정하여 촬영하였다. 세부 사진 목록은 〈부록 2〉으로 첨부하였다.

수어 모델은 수어 사진 모델로 경험이 있는 남녀 각 1명으로 하였으며, 한국수어문법의 이해 및 수어 감수 경험이 있는 감수자가 촬영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사진 촬영 시 원고에 제시된 글로스를 잘못 이해하여 다른 수어로 촬영하였거나 문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수어가 구사되지 못한 경우, 수어 사진에 대한 추가 설명과 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진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여 제공하였다. 사진 촬영 후 연구자가 사진을 1차 검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재촬영을 진행하였다. 이후 편집을 완료하고 2차 검토를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재촬영 또는 수정 보완하였다.

2) 2차 통사론 및 의미론 사진 제작

1차 음운론과 형태론에 필요한 수어 사진 자료 제작이 완료된 후에 2차 수어 사진 자료 제작을 진행하였다. 2차 수어 사진 자료 제작에 필요한 수어를 2020 한국수어문법연구(통사론 및 의미론)에서 추출하고 그중 중복되는 수어를 제외한 통사론 127개, 의미론 179개, 총 306개를 선정하여 촬영하였다. 촬영 및 편집은 1차 수어 사진 자료 제작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3. 수어 사진 자료 편집

1) 수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수어가 시작할 때의 수형 투명도를 80%로 하고 끝날 때의 수형 투명도를 100%로 하여 두 수형을 합성하여 편집한다.



[그림 Ⅲ-2] 수형이 변한 경우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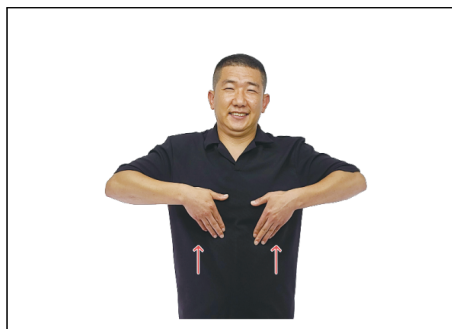
투명도로 수형의 변화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좌측 상단에 네모를 상자 안에 시작할 때의 수형을 제시한다.



[그림 Ⅲ-3] 수형이 변한 경우 ②

2) 수위에 변화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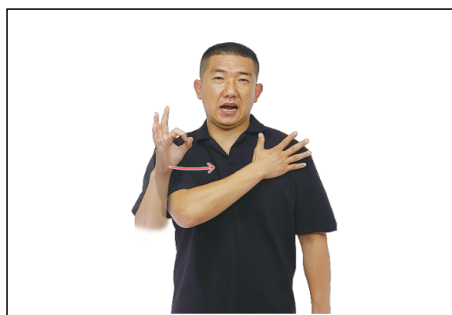
시작하는 위치에서 끝나는 위치를 화살표로 표시한다.



[그림 Ⅲ-4] 수위가 변한 경우

3) 수형과 수위에 변화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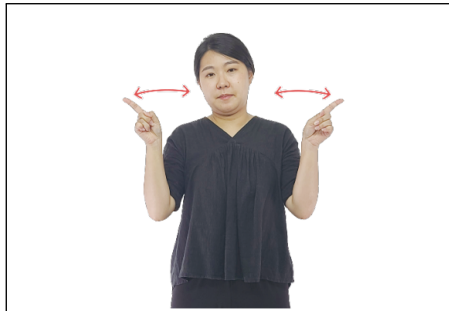
시작할 때의 수형 투명도를 80%로 하고 끝날 때의 수형 투명도를 100%로 하여 두 수형을 합성하고 시작하는 위치에서 끝나는 위치를 화살표로 표시한다.



[그림 Ⅲ-5] 수형과 수위가 변한 경우

4) 경로 수동의 반복이 있는 경우

경로 수동의 방향을 '↔'로 표시한다.



[그림 Ⅲ-6] 수동이 있는 경우

5) 내부 수동의 반복이 있는 경우

내부 수동의 움직임 모양을 '《 》'로 표시한다.



[그림 Ⅲ-7] 수동이 있는 경우

1. 문장성분
2. 문장구조
3. 문장종결
4. 부정법
5. 수어양식과 동사

IV. 통사론

언어 단위에서 뜻을 가진 단위는 형태소, 단어, 문장이다. 우리는 앞장 형태론에서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인 형태소와 단어를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을 다룬다. 통사론은 문장을 기본 대상으로 하여 문장의 구성 요소, 문장의 구조나 기능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1. 문장성분

문장이란 사고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이다. 문장은 단어들의 연쇄로 이루어진다. 문장은 건물에 비유할 수 있는데 화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단어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연결하여 문장이라는 건물을 짓는다.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 즉 문법을 지키지 않으면 비문법적인 문장을 만들게 된다. 또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다양한 건축재료가 필요하듯이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성분들이 필요한데,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문장성분이라고 한다. 문장성분은 문장을 구성할 때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주성분과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에 뜻을 더하는 부속성분으로 나눈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다른 문장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성분이 있다.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1. 주성분

주성분은 문장의 성립에 필수적인 것으로 주성분이 빠지면 완전한 문장이 되지 못한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주성분이다.

1.1.1. 주어

문장은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남기심 외 2020). 여기서 주어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의 주체를 표현하는 말이다.

- (1) 가. [남자] [달리다]
 나. [고양이] [검다]
 다. [철수] [학생]

(1)에서 [남자], [고양이], [철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인 주어이다. 문장의 의미는 각각 ‘남자가 달리다’와 ‘고양이가 검은색이다’ ‘철수가 학생이다’이다.

- (2) 가. [산] [아름답다]
 나. [둘이서] [친구]
 다. [지시]a [성격] [예민하다]

명사, 수사, 대명사 등 체언이 문장의 주어가 된다. (2가)는 ‘산이 아름답다’이며 (2나)는 ‘두 사람은 친구이다’, (2다)는 ‘그는 성격이 예민하다’라는 의미이다. (2나)에서 [둘이서]는 인원수를 지숫자 2수형으로 나타내는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임으로써 지시대상을 가리킨다. 즉 수사와 지시의 역할을 동시에 가진다. (2다)에서 [지시]는 3인칭 대명사 ‘그’에 해당한다.¹⁾ [지시]a가 가리키는 사람이 대화 상황에 함께 존재할 때 그를 직접 가리킬 수도 있고 대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이나 수어이름을 언급한 후 화자와 청자의 공간 외 공간을 지시하여 인칭대명사를 실현한다. [지시]는 겹지만 편 수형으로 발화 상황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은 지시대상을 가리킨다.

1.1.2. 서술어

서술어는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다(남기심 외 2020). 즉 주어의 행위,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말이다. 위 두 문장에서 서술어 [달리다], [검다], [아름답다], [예민하다], [학생], [친구]는 주어의 행위, 상태 및 특성을 설명한다.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명사로 이루어진다. 한국수어에서 특이한 문법적 현상은 서술어 자리에 명사가 단독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가 주어의 상태와 특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서술어가 사람과 동물 등을 가리키는 유정명사일 때 주어 또한 유정명사이어야 한다. 역으로 서술어가 식물이나 무생물처럼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는 무정명사가

1) (2다)의 주어는 ‘그’와 ‘성격’으로 두 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주어가 여러 개 나타나는 문장을 한국어 문법에서는 ‘이중 주어문’ 혹은 ‘주격 중출문’이라는 용어로 불러 왔으나 단문에 주어가 두 개 이상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남기심 외 2020: 267). 본 보고서에서도 단문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어를 [그]로 보고 [성격] [예민하다]를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 관계(주술 관계)를 가진 서술절로 보기로 한다.

을 때 주어도 부정명사가 와야 한다. 이는 서술어가 어울릴 수 있는 말을 가진다는 선택 제약을 보여준다. 명사가 서술어로 쓰인 아래 문장들에서 서술어의 선택 제약을 살펴보자.

- (3) 가. [아버지] [교사]
 나. [형] [국가대표]
 다. [남편] [농인]
 라. [그것] [책]
 마. *[강아지] [학생]

(3)는 명사가 서술어로 쓰인 예들이다. 문장은 ‘아버지가 교사시다’, ‘형이 국가대표이다’, ‘남편이 농인이다’, ‘그것은 책이다’라는 뜻이다. (3라)와 (3마)를 제외하고 (3가)-(3다)의 주어가 모두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그러므로 서술어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올 수 있다. (3라)의 주어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이므로 서술어는 사물을 가리키는 [책]이 올 수 있다. (3마)에서 주어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므로 서술어 [학생]과는 어울릴 수 없다. 이처럼 서술어로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올 때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인 주어가 와야 함을 알 수 있다. (3마)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한 문장으로 세상에 대한 지식에는 어긋나지만 구조적으로는 문법적인 문장이다(이건수 2000: 294).

문장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서 주어만 필요할 수도 있고 주어 외의 다른 성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서술어가 문장 안에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성분을 논항이라고 한다.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에서 필요로 하는 논항의 수가 다르다. 위 (1) 문장에서 [달리다]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 자신에게만 미치고 다른 사물에는 미치지 않는 동사이며 이러한 동사를 자동사라고 한다. 자동사는 주어 논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하는데 타동사는 움직임의 대상인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이다. 따라서 타동사는 주어와 목적어 논항이 있어야 한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다루는 1.1.3.절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 (4) 가. [학생] [웃다]
 나. [핸드폰] [고장나다]
 다. [남자] [걷다]

(4)는 ‘학생이 웃다’, ‘핸드폰이 고장나다’, ‘남자가 걷다’라는 의미이다. 이 문장들에서 [웃다], [고장나다], [걷다]는 자동사로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완전한 문장을 이룬다.

1.1.3. 목적어

목적어는 주어, 서술어와 함께 문장의 주성분이다. 목적어는 타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성분이다.

			완료입표지
(5)	가. [남자]	[책]	[사다]
			완료입표지
	나. *[남자]	[사다]	
	다. [엄마]	[아들]	[야단치다]
	라. [교사]	[피아노치다]	

(5가)에서 타동사 [사다]는 두 개의 논항을 가진다. 첫 번째 나타나는 논항은 행위의 주체가 되는 주어인 [남자]이며, 두 번째 나타나는 논항은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인 [책]이다. [사다]에 완료입표지가 동시에 나타나서 ‘남자가 책을 샀다’라는 책을 구매하는 사건이 끝났음을 표시한다. 그에 비해 (5나)는 논항이 하나이다. 따라서 남자가 무엇을 산 것인지 나타나지 않아 완전한 문장이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문장 앞에 *표시를 두었다. [사다]와 같은 타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취해야 완전한 문장을 이룬다. (5다)는 ‘엄마가 아들을 야단치다’라는 의미이다. 타동사 [야단치다]에서 비우세손은 엄지만 편 주먹 수형으로 목적어 ‘아들’을 표현한다. 목적어가 딸일 때는 비우세손의 수형을 소지만 편 주먹 수형으로 바꾼다.²⁾ 이처럼 생명체를 나타내는 수형을 포함한 동사들은 양손 단어이다.³⁾ 일반적으로 우세손은 타동사가 의미하는 행위를 표현하고 비우세손은 타동사의 목적어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변강석 2012: 20).⁴⁾ (5라)는 목적어가 빠지고 주어와 서술어만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동사에 목적어가 드러난다. 문장은 ‘교사가 피아노를 치다’라는 의미이다. 한국수어에는 동사와 목적어가 합쳐져서 동시에 표현되는 타동사가 있다. 예를 들어 [피아노치다], [모자쓰다], [컵들다] 등에서 사물을 취급하는 수형이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물인 목적어를 나타내고 수동은 동사의 의미인 동작을 나타낸다. 이러한 동사 유형은 5. 수어양식과 동사에서 더 살펴보기로 한다.

2) 한국수어는 성별을 구별하는 수형이 존재한다. 엄지손가락을 세운 수형은 남성을 의미하고 새끼손가락을 세운 수형은 여성을 의미한다(변강석 2012).

3) 수어의 단어는 한 손으로 구성된 한손 단어와 두 손으로 구성된 양손 단어가 있다. 전자의 예는 [가다], [오다] 등이 있고 후자의 예는 [만들다], [혼내다] 등이 있다.

4) [야단치다] 외에도 [들다], [가르치다], [아부하다], [존중하다], [칭찬하다], [초대하다], [미워하다], [양육하다] 등의 일치 동사 중에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수형이 비우세손에 포함된 유형이 있고 [주다], [이메일을 보내다] 등 비우세손에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수형을 포함하지 않은 유형이 있다.

1.1.4. 보어

보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와 함께 문장에서 필수적인 주성분에 속한다. 보어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것을 보충하여 뜻을 보완하는 말이다.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는 [아니다], [되다], [변하다] 등으로 아래 문장 속에서 보어의 역할을 보자.

- (6) 가. [지시]a [체육] [대회] [아니다1]
 나. [나] [당변] [아니다1]
 다. [남자] [맹인] [되다]
 라. [얼굴] [색] [변하다] [보라]
 마. [옛날] {팔자주름} {뒷머리묶다} [변하다] [엄마]

(6가)는 농인들의 체육대회 참여가 스포츠 본연의 목적보다 친교에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문장은 ‘그것은 체육대회가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6나)는 ‘나는 당변이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두 문장에서 서술어 [아니다1]는 보어가 필요하다. 앞 문장에서는 ‘체육대회’, 뒤 문장에서는 ‘당변’이 보어이다. (6다)는 [되다]가 포함된 문장으로 ‘남자가 맹인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주어 ‘남자’와 보어 ‘맹인’이 모두 있어야 문장이 완성된다. (6라)는 [변하다]를 포함한 문장이다. 학창시절 경험했던 귀신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얼굴색이 보라색으로 변했다’는 의미이다. [변하다] 다음에 변화된 결과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6마)는 한국수어에서 엄마를 의미하는 단어는 예전에는 팔자주름과 쪽 찐 머리로 표현했는데 현재는 [엄마]라는 단어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변하다] 뒤에 보어 [엄마]라는 단어가 온다. (6라)와 (6마)의 어순에서 보어가 서술어 뒤에 온다는 점이 특이하다. [변하다] 동사 앞과 뒤에 변화 이전 상태와 변화 이후 상태를 위치시켜 변화된 결과를 강조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부속성분

부속성분은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에 뜻을 더하는 성분이다. 부속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있다.

1.2.1. 관형어

한국어에서 관형어는 주어와 목적어 같은 문장성분 앞에 붙어 그것을 꾸며주는 말이다(남기

(10)의 예들은 색채어가 포함된 문장들이다. (10가)는 도로표지판을 설명하는 상황이다. 보통 색채어가 수식을 받는 말 뒤에 위치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색과 모양이 뚜렷한 도로표지판을 설명하는 맥락으로 [검정] 다음에 표지판의 모양 정보를 설명한다. 이 문장은 ‘검정색 세모 표시의 도로표지판이 신기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사물의 특징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어순도 가능하다. (10나)에서 [검다]는 수식을 받는 말 뒤에 오는데 ‘사과가 검다니 정말 신기하다’는 의미에서 사과와 색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다. [신기하다]와 함께 나오는 입모양은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 마치 한국어 ‘오’처럼 보인다. 이 입모양은 신기함, 놀람의 의미를 전달한다. (10다)는 ‘어제 검은색 바지를 샀다’라는 뜻이다. 보통은 ‘어제 바지 샀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바지 색을 강조할 때 [검다]를 [바지] 다음에 위치한다. 마찬가지로 (10라)는 ‘선생님은 빨간색 옷을 즐겨 입으신다’라는 뜻으로 문장 끝에 있는 [지시]는 대화 상대방 선생님을 가리킨다.⁸⁾ 선생님을 가리키면서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 마치 한국어 ‘오’와 같은 입모양을 동반하여 화자의 느낌 혹은 평가를 드러낸다. 덧붙여 ‘빨간색 옷’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빨강]의 동작을 천천히 한다.

다음 예문에서 보면 수식어가 체언 앞에 오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지시]는 체언 앞에 위치하는 수식어로 보이지만 문장 속에서 그 쓰임은 지시어이다.

		a{응시}	
(11)	가.	[지시]a	[책]a [읽다]
	나.	[책]a	a{응시} [지시]a [읽다]
	다.	?[책]a	[읽다]

(11가)와 (11나)는 ‘저 책은 읽었다’라는 의미이다. [지시] [책] 어순과 [책] [지] 어순 모두 가능하다. 두 문장에서 [지시]는 지시어로써 쓰이고 있으므로 체언 앞과 뒤에 자유롭게 올 수 있다. [지시]를 산출할 때 시선도 지시하고 있는 책을 응시한다. 발화 상황에서 [지시]가 먼저 나오므로써 수많은 책 중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특정한 책을 한정한다. 지시어를 통해 화자는 특정한 책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발화 상황에서 (11다)처럼 [책] [읽다]라고 말하면 책을 특정하지 않아 자연스럽지 않다.⁹⁾ 지시어로서의 쓰임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은 아래에서도 찾을 수 있다.

8) 이 문장에서 [즐기다]는 주먹 쥔 한 손을 턱에 대고 스치는 동작이다.

9) 문장 앞에 ? 표시를 두었다.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문법성이 의심스러움을 표시한 것이다.

$\frac{a\text{응시}}{\quad}$				
(12)	가.	[지시]a	[가게]a	[작년] [열다]
$\frac{a\text{응시}}{\quad}$				
	나.	[지시]a	[작년] [가게]a	[열다]

(12)는 ‘저 가게는 작년에 문을 열었다’라는 의미이다. [지시]를 지시어로 볼 수 있는 이유는 (12나)처럼 [지시]와 [가게] 사이에 [작년]이 위치해도 문장은 자연스럽다. (12나) 문장에서도 [지시]는 화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13)	가.	[나]	[친구]a	[자동차]a	[자동차에 타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나.	[나]	[선생님]a	[책]a	[보았다]	

(13가)에서 [친구] [자동차]는 ‘친구의 자동차’를 뜻하며 (13나)에서 [선생님] [책]은 ‘선생님의 책’을 뜻한다. 체언이 체언 앞에 위치하여 수식한다. 이때 수어 화자는 수어 공간을 활용한다. [나]는 수어 화자 몸에 접촉하여 산출하고 [친구], [자동차]와 [선생님], [책]은 수어 화자 몸과 떨어진 공간에서 산출한다. ‘친구/자동차’와 ‘선생님/책’을 수어 화자의 몸과 떨어진 공간에서 산출하여 친구와 선생님의 소유임을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낸다.

1.2.2. 부사어

부사어는 수의적인 성분의 하나로서 서술어의 뜻을 한정하여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이다(남기심 외 2020). 앞의 부사를 성분 부사어라고 하고 뒤의 부사를 문장 부사어라고 한다.

$\frac{\{입술오므리기\}}{\quad}$				
(14)	가.	[아이]	[마르다]	
	나.	[아이]	[마르다]	

(14가)는 ‘아이가 너무 말랐다’라는 뜻으로 [마르다]를 수어하면서 동시에 입술을 오므리고 양쪽 볼이 폭 들어가도록 하여 마른 정도를 강조할 수 있다. (14나)는 부사적인 의미를 가진 비수지표지가 없으며 의미는 ‘아이가 말랐다’이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생략해도 문장의 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부속성분이다.

한국수어에서 부사어는 비수지표지, 수어 공간 이용, 용언 반복, 한손 단어를 양손 단어로 표현,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부사어 실현 방법 중 한국수어 특징적인 것부터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비수지표지

용언이나 다른 부사의 정도를 한정하는 정도부사의 실현에서 비수지표지의 역할이 크다.

(15) 가.	[나]	[처음]	[입학하다]	[때]	[건물]	{입벌리기}	[크다]	[어마어마하다]
						{입술오므리기}		
						{상체숙이기}		
나.	[졸업]	[후]	[학교]	[방문하다]		[좁다]		
							{고개기울이기}	
							{입술다물기}	
다.	[원형]	[원으로 돌아]	[차들이 원으로 회전하다]			[깨끗하다]	[차들이 원으로 회전하다]	
			{턱좌우로움직이기}					
	[아니다2]	[차들이 뒤죽박죽 진행하다]						
						{턱좌우로움직이기}		
라.	[글씨쓰다]	[바르다]	[글씨쓰다]	[좋다]		[글씨쓰다]		[말다]

(15가)는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학교가 아주 크다고 생각했었다’는 의미이다. 서술어 [크다]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어 발음과 유사하게 ‘커’라는 입모양을 동반하여 학교의 큰 규모를 강조한다. 이와 반대로 (15나)에서 ‘졸업 후에 학교에 다시 가 보니 학교는 매우 작았다’고 표현하면서 입술을 작게 오므리고 상체의 앞으로 숙임도 동시에 나타난다. 사물의 크기가 크면 수어 화자는 시선을 약간 위로 향하게 하여 가상의 건물 높이를 표현하고 작은 건물일 때는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고개와 상체를 아래로 숙인다. 건물의 크기를 [크다], [작다]라는 어휘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몸 앞에서 양손의 간격을 크게 벌리면 건물이 크다는 의미이며 간격을 좁히면 건물이 작다는 의미이다. 양손의 간격을 벌리고 좁히냐에 따라 어깨는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좁혀진다. 양손의 간격과 입의 벌림 정도가 건물의 크기와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15다)는 원형 로터리를 지나가는 차들의 모습을 표현한 예이다. 수어 화자는 원형 로터리를 설명한 후 차들이 원형 로터리를 따라 각자의 차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주행하는 모습에서는 [차들이 원으로 회전하다]를 산출하면서 동시에 입을 다물고 양쪽 입꼬리에 힘을 준다. 혹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 입을 동그랗게 하고 바람을 내뿜듯이 입모양을 하며 천천히 동작을 한다. 그러나 [차들이 뒤죽박죽 진행하다]를 표현할 때는 턱을 좌우로 반복하여 움직인다. 원형 로터리에서 차들이 차선을 잘 지키며 회전하지 못하고 뒤죽박죽 엉킨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15라)는 ‘글씨를 바르게 쓰는 게 좋다. 삐뚤빼뚤 쓰지 말라’는 의미이다. [삐뚤빼뚤]이라는 부사가 있지만 턱의 반복적인 좌우 움직임으로 부사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턱의 반복 움직임은 ‘뒤죽박죽’, ‘삐뚤빼뚤’을 뜻한다. 차들의 행렬, 글씨를

10) [삐뚤빼뚤]은 엄지와 검지만 구부리고 다른 손가락은 접은 양손을 얼굴 가까이에서 상하로 위치한 후 양손을 좌우로

써놓은 모습, 사람들의 행렬을 표현할 때도 함께 나타난다.

한국수어에서 입모양, 턱 움직임, 상체 움직임 등 비수지표지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2) 수어 공간 이용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적 의미를 표현할 때 수어 공간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판정의문표지			
(16)	가. [내일]	[학교]	[가다]
	나. [집]a	[지하철역]b	[걷다]a→b

(16가)는 내일 학교에 가는지를 상대에게 묻는 판정의문문이다. [가다]를 수어하면서 동시에 눈썹을 올리고 눈을 크게 뜨고 턱을 수어 화자의 몸쪽으로 살짝 당기는 판정의문표지가 나타난다. (16나)는 ‘집에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다’라는 뜻이다. 두 문장에서 보듯이 한국수어에서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는 체언만으로 표현 가능하며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 [장소]가 꼭 결합할 필요는 없다. (16나)는 수어 공간을 이용한다. [집]은 수어 화자의 몸(a)과 가까이 따로 지시 지점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지하철]은 수어 화자의 몸에서 떨어진 수어 공간의 한 위치(b)에서 산출할 수 있으므로 지시 지점을 설정한다. 이어서 수어 화자는 자신의 몸 가까운 위치(a)에서 [지하철]을 위한 지시 지점(b)으로 [걷다] 동사를 이동시킨다. 이때 [지하철]을 한 지점에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동사 [걷다]를 [집]에서 [지하철] 위치로 이동한다. [장소] 어휘를 넣지 않아도 수어 공간에서의 동사의 위치 이동으로 지시체의 이동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3) 용언 반복

용언을 반복함으로써 부사어를 실현할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부사 없이도 서술어를 반복하여 ‘굉장히’, ‘늘’, ‘여기저기에’, ‘모두’라는 부사어를 표현할 수 있다(엄미숙 1996: 46-7).

(17)	가.	[교황]	[화나다]+
	나.	[왕]	[아부하다]+
	다.	[성당]	[세우다]ab
	라.	[전]	[교황] [정지시키다]ab

(17가)는 ‘교황은 굉장히 화를 내었다’는 의미이고 (17나)는 ‘왕은 늘 아부하였다’는 의미이다. 두 문장에서 [화나다]와 [아부하다] 동사를 반복하여 부사를 어휘적으로 추가하지 않고 ‘굉장

엇갈려 움직인다.

히'와 '늘'과 같은 부사어를 표현한다. (17다)는 '성당을 여기저기에 세웠다'라는 의미이며 (17라)는 '전 교황의 직무를 모두 정지시켰다'라는 의미이다. [세우다]와 [정지시키다] 동사를 수어 공간에 분산하여 산출하여 '여기저기', '모두', '전부'라는 부사어를 실현할 수 있다.

4) 한손 단어를 양손 단어로 표현

감정을 나타내는 용언의 경우 원래 한손 단어이지만 양손 단어로 표현하여 원래 의미를 강조한다(이주애 2016).

- (18) 가. [상] [받다] [신나다]
 나. [시험문제] [어렵다] [골치아프다]

(18가)는 '상을 받아 아주 신나다'라는 의미이고 (18나)는 '시험문제가 어려워 골치가 아프다'라는 의미이다. [신나다]와 [골치아프다]는 모두 한손 단어인데 다른 손을 추가함으로써 '아주', '매우', '너무' 등 부사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 외에도 [경멸하다], [몰염치하다], [우스꽝스럽다], [무식하다] 등의 용언은 한손 단어이지만 양손으로 표현할 경우 '아주', '너무'의 의미를 부가한다(이주애 2016).

5) 부사어 역할을 하는 어휘

부사는 의미를 기준으로 시간부사, 빈도부사, 정도부사, 일반부사로 분류한다(임홍빈 외 2010: 85-7). 한국수어에서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로는 [어제], [내일], [별써], [요즘] 등이 있다. 동작이나 상태가 발생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어휘로는 [가끔], [항상], [자주] 등이 있다. 정도를 나타내는 어휘로는 [더], [엄청], [굉장히] 등이 있다. 시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어제], [내일] 등 어휘로 표현하나 정도를 나타낼 때는 어휘보다 비수지표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어순에 한국수어 단어를 대입하여 표현하는 수지한국어에서는 [너무], [매우]와 같은 정도부사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국수어에서는 비수지표지의 쓰임이 자연스럽다. 끝으로 일반적인 부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는 각기 특별한 뜻을 나타내며 [함께], [빨리], [꼭] 등이 있다.

부사어 역할을 하는 어휘로 실현된 문장을 살펴보자.

- | | | | | | | 완료입표지 | {양쪽볼부들리기} |
|------|-----------|------|-------------------|-------------------|--------|-------|------------------------------|
| (19) | 가. [요즘] | [농인] | [지시]반원수동 | [운전면허] | [1종] | [2종] | [취하다] ⁺¹¹⁾ {증가하다} |
| | 나. [요즘] | [가뭄] | [심하다] | | | | |
| | 다. [별써] | [과거] | [유럽] ^a | [지시] ^a | [인공와우] | | [금지하다] |
| | 라. [도착하다] | [별써] | | | | | |

(19)는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요즘]과 [벌써]가 포함된 문장이다. (19가)는 ‘요즘 1종, 2종 운전면허를 따는 농민들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양쪽 볼을 부풀린 비수지표지가 함께 나타난다. (19나)는 ‘요즘 가뭄이 심하다’는 의미이다. [요즘]은 강조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제], [내일] 등의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처럼 문장 앞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요즘]은 [어제]와 [오늘]보다는 지시하는 시간의 범위가 넓지만 보통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가 문장 앞에 위치하여 문장의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적 특징과 연결되어 문장의 시제를 특정해주기 위해 문장 앞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9다)는 ‘유럽은 이미 오래전에 인공와우를 금지했다’는 의미이다. [벌써]는 문장 앞에 위치하여 ‘이미 오래전에’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9라)는 ‘벌써 도착하였다’는 의미로 [벌써]가 문장 끝에 위치하여 ‘예상(생각)보다 빨리’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illegible]

(20)은 빈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 [항상]과 [가끔]이 포함된 문장이다. (20가)는 앞에 [내] [친구] [우울] [하나] [없다]가 생략된 것으로 문장 전체 의미는 ‘내 친구는 전혀 우울해하지 않고 항상 밝다’이다. (20나)는 ‘(농인들 중에는) 결혼한 후에 생각이 달라져 아이를 낳고 인공와우 수술을 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는 뜻이다. (20다)는 ‘외국의 경우 수화통역사협회를 설립한 나라가 종종 있다’라는 의미이다. [세우다]와 함께 나타나는 입모양은 입술을 위아래로 벌려 마치 한국어 ‘어’와 같으며 어휘적 의미 ‘있다’를 표현한다. [항상]은 (20가)처럼 보통 문장 앞에 온다. [가끔]은 문장 끝이나 서술어 앞에 오는 것으로 보아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으나 문장 맨 앞에 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21) 가. [수술] [하지마] [금지] [더] [낮다]
나. [가족] [농] [때문] [얼굴이름] [빨리] [만들다]
다. [체육] [전국]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시험]+ [꼭] [목적] [아니다1]

(21)은 정도를 나타내는 어휘 [더]와 일반적인 부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 [빨리]와 [꼭]이 포함된 문장이다. (21가)는 ‘(인공와우를) 수술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이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 [더]는 [낫다]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기밀한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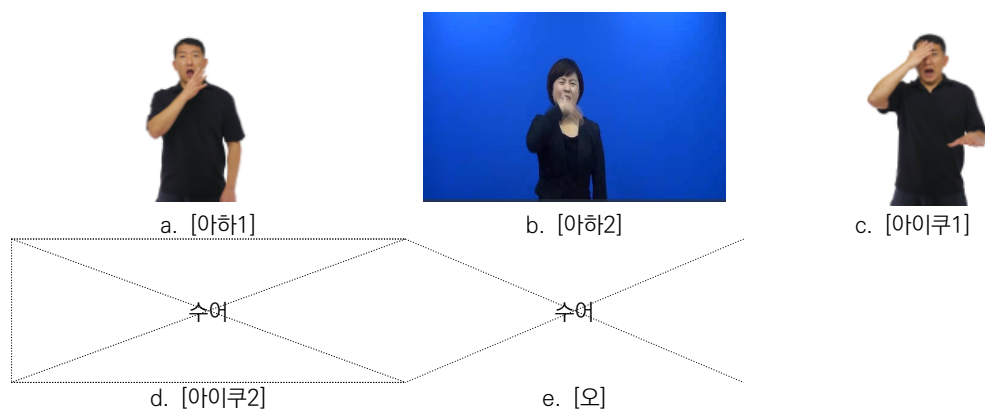
11) [취하다]+는 비우세손 손바닥 위에서 우세손을 스치면서 주먹을 쥐면서 몸쪽으로 잡아당기는 동작을 반복한다.

관계를 보여준다. 강조하기 위해 [났다] [더]로 표현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21나)는 ‘농가죽이기 때문에 얼굴이름을 빨리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21다)는 ‘전국체육대회에 오는 많은 사람이 시합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덧붙여 [전국] [체육]이라는 어순이 가능하지만 [체육]을 문장 앞에 놓으면서 이야기의 주제가 체육이라는 점을 먼저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

한국수어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어휘의 위치는 그것이 한정하는 말 뒤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강조와 같은 표현 효과를 위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1.3. 독립성분

독립성분은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쓰이는 문장성분이다.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독립어에는 말하는 사람의 본능적 놀라움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 표현, 남을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말할 때 버릇처럼 내는 단어 등이 속한다. 독립어 중에서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감탄표현과 남을 부르는 말의 쓰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Ⅳ-1] 감탄표현

(22)는 실수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탄표현이 포함된 문장들이다.

(22 가. [말하다]	[대답하다]	[안하다]	<u>{굳은표정}</u> [기분나쁘다]	[얼굴]	[굳다]	[아하1]	
나. {옆보다}	{뒤통수맞다}	{눈동자흔들리다}	{뒤보다}	[지시]a	[선생]	<u>{당황한표정}</u> [아하1]	
다. [가방바뀌다]	[가방들고오다]	[무겁다]	[이상하다]	[가방보다]		<u>{놀란표정}</u> [아하1]	
라. [나]	[택시]	[내리다]	[우산]	[깜박하다]	<u>{놀란표정}</u> [아하1]		

(22가)는 버스에서 농인과 청인이 나란히 앉은 상황이다. ‘청인이 농인에게 말을 걸었는데 농인이 대답을 안 했더니 청인이 기분이 상해서 얼굴이 굳어졌다’라는 의미이다. 농인이 청인이 기분이 상했음을 감지하여 놀람 혹은 당황한 감정을 표시하기 위해 [아하1]를 사용한다. (22나)는 ‘(학생이) 커닝을 하려고 옆을 보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다. 두 눈동자가 심하게 좌우로 흔들렸다. 너무 놀라 뒤를 돌아보니 선생님이셨다’라는 뜻이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선생님인 것을 확인하고는 당황하며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아하1]를 표현한다. 이때의 감탄표현의 의미는 자신이 커닝한 것을 들킨 다음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구’ 정도이다. (22다)는 수업이 끝나고 가방이 바뀐 채로 들고 오다가 가방이 무거워 이상하다고 생각해 확인해보니 가방이 바뀐 상황에서 놀라며 [아하1]를 표현한다. ‘아차’, ‘앗’의 의미이다. (22라)는 택시에 우산을 놓고 내린 후 자신의 실수를 인식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탄표현이다. 이 문장에서 [아하1] 대신 [아이쿠1]¹²⁾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23)에서 사용된 감탄표현은 누군가의 말이나 설명을 듣고 자신이 몰랐던 사실이나 현상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 그렇구나’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23) A: [2012]	[부터]	[농인]	[운전면허]	[1종]	[취득]	[가능하다]
	<u>{고개끄덕이기}</u>					
B:	[아하2]					

(23)는 대화 상대방 A의 말에 B가 맞장구를 치는 대화 상황이다. 대화 상대방 A가 ‘2012년부터 농인들이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어’라고 알려주자 대화 상대방 B가 ‘아 그렇구나’라고 대답을 한다. [아하2]는 한 손을 모두 펴서 얼굴 앞에서 혹은 몸과 떨어진 위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동작이다. 이 감탄표현은 상대방의 말을 통해 어떤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사용하며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정도의 의미이다. 따라서 [아하2]는 (22) 예문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4) <u>{감탄표정}</u>
[오] [그림] [멋지다]

12) [아이쿠1]은 한 손 손바닥을 이마 중앙에 댄다.

(24)는 ‘우아, 그림 멋지다’라는 의미이다. 멋진 그림을 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느낌을 표현할 때 [오]가 쓰인다. [오]는 문장 앞이나 뒤에서 자유롭게 나타나며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신의 예상이나 기대에 빗나갔을 때 사용되는 감탄표현은 [아이쿠1]과 [아이쿠2]가 있다.

					$\frac{\{\text{놀란표정}\}}{\{\text{상체속이기}\}}$	
(25)	가. [사람]	[지시]완원수동	[해결하다]	[가능하다]	[생각하다]	[아이쿠1]
				$\frac{\{\text{상체속이기}\}}$		[사고나다]
	나. [책]	[받다]	[책보다]	[아이쿠2]	[다른]	[한자]
						[책]

(25가)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만 수습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라는 의미의 문장으로 [아이쿠1]을 표현한다. 이 감탄표현은 ‘예상과 달리’ 정도의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로 (25나)는 친구가 새로 나온 수어책을 준다고 해서 받아 보니 말했던 책이 아니라 한자책이었다는 맥락이다. 여기서 사용된 [아이쿠2]는 자신의 기대에 벗어나 ‘실망감’, ‘허탈감’, ‘속은 느낌’ 등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¹³⁾

끝으로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illegible]

(26)는 대화 상대방을 부르며 ‘잠깐 대화할 수 있는지’ 묻는 문장이다. 상대방을 부르듯이 상대방을 향해 한 손을 움직이는데 이러한 표현도 독립어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수어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보편적인 방식이다.

2. 문장구조

한국수어에서 문장의 구조는 전통적인 문장 구성과 마찬가지로 서술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수어는 주어-서술어 구성이 한번만 이루어져 서술 기능을 한번만 수행하는 기본문장과 주어-서술어 구성이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는 문장, 즉 서술 기능을 두 번 이상 수행하는 확대된 문장으로 나뉜다(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 2014: 611).

2.1. 기본문장

기본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등으로 이루어져 서술 기능을 한 번 수행하는 문장이다.

13) [아이쿠2]는 한 손 주먹의 엄지와 검지 부분을 이마 중앙에 댄다.

2.1.1. 기본문장의 특성

1) 문장의 종결방식

한국수어에서 문장의 종결은 {휴지}, {시선 주기}, {수지기호 해제(손 풀림)}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다]나 [질문하다]라는 단어로 문장을 종결하는 것은 한국수어가 아니라 수지한국어이다.¹⁴⁾ 한국어가 개입된 인위적인 언어 환경이 아닌 한, 한국수어 원어민들은 수어 단어 [~이다]나 [질문하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종결하지 않는다. [질문하다]라는 수어 단어는 오히려 의문문의 시작하기 전에 제시됨으로써 ‘질문이 있다.’, ‘질문을 하겠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1)	가.	[아들]	[공부]		/‘무엇이 어찌하다’
	나.	[딸]	[겸손]		/‘무엇이 어찌하다.’
	다.	[엄마]	[선생]		/‘무엇이 무엇이다.’ (무동사절)
	라.	[아빠] _a	[엄마] _b	$\frac{a\{시선\}_b}{[좋다]}$ $\frac{감정표지}{[좋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하다.’

한국수어에서 서술어 자리에 오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명사이며 이때 서술격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서술어 자리에 동사 외에 형용사가 올 때는 be동사가 함께 나타나는 영어나 서술어 자리에 명사가 올 때는 서술격조사 ‘-이다’가 함께 나타나는 한국어와는 다른 현상이다.

위 (1가)는 ‘무엇이 어찌하다’ 형태로써 ‘아들이 공부한다.’라는 의미이다. 이때 [공부]는 명사와 동사 모두에 해당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로 기능을 하는 동사이다. (1나)는 ‘무엇이 어찌하다’ 형태로 ‘딸이 착하다.’라는 의미이다. 이때 [겸손]은 명사와 형용사 모두에 해당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로 기능을 하는 형용사다. (1다)는 ‘무엇이 무엇이다’ 형태로 ‘엄마는 교사이다.’라는 의미이다. 이 문장은 [엄마]와 [선생]이라는 명사 두 개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의 경우 서술격조사¹⁵⁾가 없다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지만, 한국수어의 경우 비수지표지(휴지, 지시 등)의 개입만으로 이런 형태의 문장을 완성한다. 간혹 문장(1다)에 [~이다]라는 단어를 덧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영향을 받은 수지한국어 방식으로 한국수어가 아니다.¹⁶⁾

이상 (1가)~(1다)에서와 같이 한국수어에서는 형용사 뿐 아니라 명사도 서술격조사의 도움

14) [~이다]는 한국어 ‘~이다. ~입니다.’에, [질문하다]는 한국어 ‘~인가? ~입니까?’에 대응하는 수어 단어로 많이 인식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 단어는 한국어 문장에 수어 단어를 대응하는 환경 속에 파생된 결과물로 한국수어의 특징이 아니라 한국어의 특징을 갖고 있어 수지한국어에 해당한다.

15) ‘서술격조사’ 대신 ‘계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계사(Copula:繫辭)는 연결 동사(linking verb)로서 be, become처럼 주어와 주격 보어를 이어주는 동사를 의미하며 한국어 문법 ‘-이다’와 같은 서술격조사와 일맥상통한다. 학계에서는 ‘계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학교문법에서 ‘서술격조사’로 지칭하므로 본서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서술격조사’를 용어로 선택하였다.

16) [~이다]는 한국어의 개입이 강한 환경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이다]가 존대어에 대응한다고 여기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 또한 바른 이해는 아니다.

없이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다음의 문장은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한국수어에서 동사 외에 형용사와 명사가 서술어 기능을 할 때 나타나는 서술격조사의 예시이다.

〈표Ⅳ-1〉 서술격조사- 영어, 한국어, 한국수어 비교

	문장1		서술격조사	문장2		서술격조사
영어	Yuna is beautiful.		○	Yuna is a teacher.		○
한국어	윤아는 아름답다.		×	윤아는 교사이다.		○
한국수어	[윤아]	[아름답다]	×	[윤아]	[교사]	×

이는 다른 나라 수화언어에도 나타나는 현상(Trevor Johnson 2012)으로 결국 한국수어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 형용사, 명사가 다 올 수 있고 서술격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1라)는 ‘무엇이 무엇을 어찌하다.’형태로 ‘아빠는 엄마를 좋아한다.’라는 의미이다. 이 문장은 [좋아하다]라는 일반동사가 쓰여 어순의 제약이 있으나 비수지표지가 조사의 역할을 하여 어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결국 한국수어에서 명사, 형용사, 동사는 모두 서술어로 사용되며 명사가 서술어로 사용될 때 서술격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국수어에서는 공간활용과 비수지표지가 한국어의 조사와 서술격조사에 해당하는 문법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국수어와 한국수어의 문장 형태의 차이이다.

〈표Ⅳ-2〉 한국수어와 한국어의 문장 형태의 차이

	한국수어						한국어		
					조사	서술격조사		조사	서술격조사
[명사]+[동사]				종결표지	×	×	윤아는 공부한다.	○	×
	[윤아]	{휴지}	[공부]	{휴지}					
[명사]+[형용사]				종결표지	×	×	윤아는 아름답다.	○	×
	[윤아]	{휴지}	[아름답다]	{휴지}					
[명사]+[명사]				종결표지	×	×	윤아는 교사이다.	○	○
	[윤아]	{휴지}	[교사]	{휴지}					

한국수어의 경우, [명사][동사] 결합, [명사][형용사] 결합, [명사][명사] 결합 모두에서 한국수어는 조사와 서술격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휴지}가 조사와 서술격조사의 역할을 한다.¹⁷⁾ 반면 한국어에서는 [명사][동사] 결합, [명사][형용사] 결합, [명사][명사] 결합 모두에서 ‘는’이라는 조사가 사용되고 [명사][명사] 결합에서는 서술격조사 ‘-이다’가 사용되고 있다. 접속과 종결에 관여하는 {휴지}의 역할에 대하여는 2.2. 문장의 확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주성분과 어순

앞서 제시된 바 있는 (1라)는 ‘무엇이 무엇을 어찌하다.’형의 문장으로 단어 변형(modification)이 되지 않는 일반동사가 서술어로 쓰였다. 아래 (2가)와 (2나)도 (1라)와 같이 ‘아빠는 엄마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문장의 의미를 끌어가는 문법장치에는 차이가 있다.

- (2)
- 가. [아빠] [엄마] [좋다]
- 나. [엄마]_a [아빠]_b $\frac{{}_b\{\text{몸의방향}\}_a \quad {}_a\{\text{시선}\}_a}{{}_b\{\text{좋다}\}}$

(2가)에서는 먼저 제시된 명사가 주어, 나중에 제시된 명사가 목적어가 된다. 이는 일반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왔기 때문인데, 이렇게 서술어의 주어와 목적어(주체와 대상)가 비수지표지 또는 역할전환과 같은 문법적 표지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순의 제약이 발생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한국수어 문장이 구현될 때에는 지시와 휴지, 얼굴표지 등 비수지표지가 동반된다. (2나)처럼 공간활용과 역할전환 등의 비수지표지가 더 정교하게 개입되면 주어 목적어 제시 순서가 바뀌더라도 의미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 한국수어는 어순의 제약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이는 한국

17) 한국수어에서는 아주 잘나적인 {휴지}가 조사와 서술격조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어문 주석에서는 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접속표지보다도 더 약하고 짧은, 이 표지를 통한 조사와 서술격조사 실현은 모든 수어문에 나타나 가장 기본적으로 너무나 당연시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18) 한국수어는 다른 나라 수어와 비슷하게 시각언어이고 공간을 활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프리 오더(free order)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Tervoort 1968; Friedman 1976; Neidle et al. 2000; Bouchard & Dubuission 1995). 우리나라에서는 프리 오더(free order)라는 용어가 ‘어순이 자유롭다’, ‘어순에 제약이 없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서 한국수어에서는 단어를 자유롭게 나열해도 되고 어순이 자유로우므로 한국어 어순 그대로 해도 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하지만, 한국수어가 프리 오더(free order)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농인의 언어인 수어는 어순이라는 문법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문법장치(공간 활용, 일치동사, 몸의 방향과 눈의 응시와 같은 비수지정보[NMS, Non Manual Signal])를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특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순은 중요하지 않으며, 한국수어 문장에서 어순이 아닌 다른 문법요소에 의해 주어와 목적어 특정과 같은 문법정보가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허일·김경진 2013: 4).

수어가 다양한 문법장치를 통해 어순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국 수어에서는 어순 이외에 다양한 문법 장치를 사용하여 문장의 논항구조를 완성한다. 물론 한국 수어에서도 어순의 제약이 나타나는데 판정의문문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순의 제약은 공간의 통사론적 활용, 지시(Indexing), 눈 응시(Eye Gazing), 몸의 방향전환(Body Shift), 역할 전환(Role Shift), 구성된 행위(Constructed Action), 화제화(topicalization) 등을 통해 쉽게 넘어설 수 있다(원성옥 2013: 원성옥 등 2013: 남기현 등 2011).

(3)

한 가.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좋아한다.

국

어 나. 그 여자를 그 남자가 좋아한다.

- (4) 가. [남자]_a [여자]_b $\frac{a\{시선\}_b}{[좋다]}$
- 나. [여자]_a [남자]_b $\frac{b\{시선\}_a}{[지시]_a}$ [좋다]
- 다. $\frac{화제화표지}{[좋다]}$ {휴지} [남자]_a [여자]_b $\frac{a\{시선\}_b}{[지시]_b}$
- 라. $\frac{화제화표지}{[좋다]}$ {휴지} [여자]_a [남자]_b $\frac{b\{시선\}_a}{[지시]_a}$

(3가), (3나)에서 보듯이 한국어 문장은 조사를 통해 어순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런데 (4가)~(4라)에서 보듯이 한국수어에서는 문법장치들을 동시에 이용하여 [남자 여자 좋다] [여자 남자 좋다] [좋다 남자 여자] [좋다 여자 남자] 등의 어순을 모두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가)~(4라)의 경우 어순은 다 다르지만,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한국어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한국수어는 비수지표지(시선, 공간 활용 등)가 있기 때문에 어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게다가 한국수어는 한국어보다 더 자유롭게 어순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 한국수어는 주어와 목적어를 특정할 때 어순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어순 이외의 다양한 문법장치를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특정할 수 있다. 한국수어는 지시와 시선, 휴지 등 비수지표지에 의해 어순이 보정되며 전환이 용인된다. 이것은 수화언어가 3차원 공간을 통해 펼쳐지고 비수지표지를 통해 여러 문법정보를 동시에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수어의 특성은 수지한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고유의 특징이다.¹⁹⁾

서술어 자리에 일반동사가 아닌 일치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수어 공간 위에서 동사가 이동하거나 손바닥의 방향을 바꾸어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할 수 있다. 즉, 수어 공간 안에서 동사의 시작점과 끝점, 동사의 방향이 주어와 목적어를 결정하기 때문에 두 논항의 어순은 중요하지 않다. 공간동사의 경우도 동사의 변형을 통해 주어와 목적어가 실현된다. 서술어 자리에 일치동사나 공간동사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5. 수어양식과 동사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3) 부속성분과 어순

한국수어는 비수지표지를 통해 주성분의 어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반면 부속성분으로 기능하는 어휘들의 어순은 제약을 받는데 이 또한 한국수어의 특징이다.

(1) 체언을 꾸며주는 수어 어휘와 어순

한국수어에서는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즉 체언을 꾸며주는 어휘와 용언을 꾸며주는 어휘가 각각 체언과 용언 뒤에 위치한다.²⁰⁾ 이때 용언을 꾸미는 어휘는 용언 뒤에 위치하여도 수식어로 기능하므로 주어 서술어가 하나인 문장을 유지하지만, 체언을 꾸미는 어휘는 체언 뒤에 위치함으로써 수식어가 아니라 서술어로 기능하여 주어-서술어가 두 개 이상인 문장의 형태를 띠게 된다.

(5)	가	[아네]	[날다]	[떨]	[예쁘다]		기본문장+기본문장	
	*나	[아네]	[예쁘다]	[떨]	[날다]		기본문장+기본문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div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padding-top: 5px;">{사선교환}</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bottom: 5px;">{공간활용}</div> </div> <div> <div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padding-top: 5px;">설명의문표지</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bottom: 5px;">설명의문표지</div> </div> </div>							
	다.	[포도주]	[희다] _a	[빨갈다] _b	[~든지] ²¹⁾	[원하다]	[무엇]	기본문장+기본문장
	라.	[집]	[부패] _a	[좁다] _b	[~든지]	[원하다]	[무엇]	기본문장+기본문장

19) 한국수어에서 명사에 해당하는 두 세 개의 단어를 보았을 때(명사 명사 동사, NNV) 선불리 주어와 목적어로 특정지어서는 안 된다. [나 너]나 [남자 여자]와 같은 명사 혹은 대명사 나열을 보자마자 '나는 너를'이라고 해석하면서 수어를 보게 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뒤에 오는 동사와 앞에 제시한 다양한 NMS(손 이외에 다른 부분에 담긴 정보, Non Manual Signal)와 공간 활용을 통해 한국수어 사용 농인들은 자신을 주어로도 목적어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어의 free order 특성, 즉 어순을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특정 짓지 않고 다른 문법 장치를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특정 가능한 한국수어의 특성은 조사와 어순이 너무나 중요한 한국어 사용자들의 수어 학습과 통역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순이라는 문법장치를 신경 쓰지 않고 수어를 하는 농인(한국수어 사용자)과 주어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한국어나 수지 한국어(SK) 사용자가 대화하는 상황이란 의사소통 단절 및 오해의 축적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주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허일·김경진 2013: 5)

20) 한국어에서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을 수식하는 관형어는 체언 앞에 오고 용언(동사, 형용사)을 수식하는 부사어는 용언 앞에 위치한다.

21) [~든지]는 비우세손으로 지숫자 2를 하고 우세손 1지(검지손가락)로 비우세손 1지와 2지를 번갈아 지시하는(비접촉) 수지기호이다.

(5나)는 한국어 화자들이 한국수어 문장을 만들 때 흔히 하는 실수이기도 하다. ‘아내는 예쁜 딸을 낳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관형어를 체언의 앞에 두는 한국어 방식으로 수지 기호를 구성하는 경우, 실제 의미는 ‘예쁜 아내가 딸을 낳았다.’가 된다. 따라서 꾸미는 말이 꾸며주는 말 뒤에 위치하는 한국수어 문법 특성에 맞는 문장은 (5가)이다. [예쁘다]가 [딸]의 뒤에 위치함으로써 예쁜 주체가 딸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5가)와 (5나)는 한국어 번역으로는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인 기본문장으로 보이지만 한국수어에서는 기본문장이 두 개가 이어진문장이 될 수 있다.

(5다)는 ‘화이트와인과 레드와인 중에 어느 걸 원하나요?’라는 의미로 역시 [희다]와 [빨강다]가 [포도주] 앞이 아니라 뒤에 제시되면서 [포도주]를 수식하고 있다. (5라) 또한 [넓다+넓다]와 [좁다+새롭다]서 [집] 다음에 제시되면서 [집]을 수식하고 있으며, 의미는 ‘평수 넓은 구옥과 평수 좁은 새집 중에 어느 것이 좋은가요?’이다. 한편, 예시 (5다), (5라)에서와 같이 공간을 분할하여 목적어를 수식할 경우, 서술격조사가 없는 한국수어의 특성상 {휴지}의 장단 등에 따라 이어진문장으로 보이거나 단문의 나열로도 보일 수 있다. 즉 (5다)는 ‘화이트와인과 레드와인이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로 (5라)는 ‘한 집은 넓지만 구옥이다. 다른 한 집은 좁지만 신축이다. 당신은 어느 집을 선택할 것인가?’로 읽힐 수 있다. 한국수어 문장의 접속과 종결에 대해서는 2장. 문장의 확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결과적으로 한국어에서 관형어에 해당하는 성분은 한국수어에서 대부분 체언 다음에 위치하여 형용사, 즉 수식어가 아닌 서술어로 작용한다. 관형어로 인식되는 한국수어 문장 중 상당수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시일 수 있다.²²⁾

(6) 가. [나] [과거] [아기] [때] {휴지} [공기] [깨끗하다]

나.. [나] [결혼] [후] [10년] [결과] {휴지} *[새롭다+집] [곳] [이사]

간혹 한국수어 문장에서 체언을 꾸미는 어휘가 체언 앞에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크다][아버지](‘큰아버지’), [독][감기](‘독감’)처럼 한국어 의미 대응 방식으로 체언 앞에 수식언이 붙어 통용되다 합성어의 영역으로 넘어간 경우들이다.²³⁾ 물론 체언을 꾸미는 어휘가 체언 앞에 오는 현상이 문장 단위에서도 없지 않다. (6가)는 ‘나 어릴 적에는 공기가 좋았다.’라는 의미로 [아기]가 [때]를 꾸며주고 있고 (6나)는 ‘나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새집으로

22) 베이커(Baker)는 ‘수어 문장에서 의미 기능과 문법 기능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여러 음성언어들은 격을 통해 문법 기능을 표지한다. 그러나 지금껏 연구된 수어에서는 문법 기능의 차이가 표현의 차이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Baker et al. 2016).

23) [크다][아버지], [새롭다][집]과 같은 단어들은 한국어의 영향을 받은 어휘로 볼 수 있다.

이사했다.’라는 의미로 [새롭다]가 [집]을 꾸며주고 있다. 그러나 이 (6가)와 (6나) 역시 꾸며주는 말이 꾸미는 말 앞에 왔다고 해서 단어 변형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한국어 서술어 ‘아름답다.’와 관형어 ‘아름다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어휘가 한국어에서 서술어로 사용될 경우와 관형어로 사용될 경우에 어휘의 활용 형태는 달라진다. 그러나 한국수어에서는 [윤희][아름답다]의 어순을 *[아름답다][윤희]²⁴⁾로 바꾼다 하여도 [아름답다]는 활용 형태는 동일하며 변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국수어는 영어의 체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수식어인 [아름답다]를 [윤희] 앞에 둘 경우, 한국수어에서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6나)의 경우에도 [새롭다+집]은 한국어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집+새롭다]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결국 한국수어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어휘는 서술어로 보아야 하나,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관형어로 받아들여지는 것뿐이다.

(2) 용언을 꾸며주는 수어 어휘와 어순

용언을 꾸며주는 수어 어휘는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한다. 한국수어에서 부사의 의미를 실현하는 방식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²⁵⁾ 첫째는 비수지표지를 통한 의미 실현, 둘째 수어 공간 이용을 통한 의미 실현, 셋째 용언의 반복을 통한 의미 실현, 넷째 한손-양손 수어를 통한 의미 실현, 다섯째 어휘를 통한 부사어 의미 실현이다. 첫째에서부터 넷째까지의 방식은 그 특성상 용언과 동시에 제시되는 반면 다섯째 방식은 용언을 꾸며주는 수어 어휘를 필요로 한다.

한국수어에서 용언을 꾸며주는 수어 어휘는 특정성분, 즉 서술어를 수식하며 성분부사어로 기능한다.²⁶⁾ 성분부사어로 기능하는 한국수어 어휘들은 일반적인 양태를 나타내는 어휘, 정도를 나타내는 어휘, 빈도를 나타내는 어휘로 나눌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서술어인 용언 다음에 위치한다.

(7) 가.	[나]	[건다]	[무심히]	일반적인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기능
나.	[아들]	[공부]	[열심히]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기능
다.	[나]	[등산]	[가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기능

24) [아름답다][윤희]는 한국수어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어순이다.

25) 1장 문장성분에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26) 성분부사란 특정성분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 부사어를 말한다(유현경 외 2018: 428).

(7가)는 양태를 나타내는 어휘 [무심히]가 [걷다]와 결합된 문장으로 ‘나는 무심히 걸었다.’라는 의미가 된다. (7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어휘 [열심히]가 [공부]와 결합된 문장으로 ‘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의미이다. (7다)는 [가끔]이라는 빈도를 나타내는 어휘가 [등산]과 결합하여 ‘나는 가끔 등산을 한다.’라는 의미를 실현한다. 이렇게 한국수어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어휘는 용언 다음에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⁷⁾

(8) 가.	[나]	$\frac{\text{[무심한표정과느긋한동작으로]}}{\text{[걷다]}}$	일반부사어로 기능
나.	[아들]	$\frac{\text{[집중하는얼굴과빠르고강한수동으로]}}{\text{[공부]}}$	정도부사어로 기능

한편, (7다)와 같이 서술어의 빈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수어 어휘가 필요한 반면, (7가)와 (7나)와 같이 서술어의 양태나 정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수어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수지표지와 공간활용을 통해 실현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8가)는 앞에 제시된 (7가)와 같이 ‘나는 무심히 걸었다.’라는 의미이나, [무심히]라는 어휘 대신 비수지표지가 사용되었다. (8나)는 (7나)와 같이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의미이나 [열심히]라는 어휘 대신 비수지표지가 사용되었다.

(3)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수어 어휘와 어순

한국수어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어휘들은 서술어를 수식하여 성분부사어로 기능하는 어휘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여 문장부사어로 기능하는 어휘로 나뉜다. 한국수어에서 서술어를 수식하여 성분부사어로 기능하는 어휘는 주로 서술어 다음에 위치하는 반면 문장부사어로 기능하는 어휘는 주로 문장의 첫머리나 말머리에 위치하는 편이다.

〈표Ⅳ-3〉 부사어로 기능하는 수어 어휘와 어순

	성분부사어로 기능하는 어휘	문장부사어로 기능하는 어휘
어휘	[무심히], [열심히], [자주] 등	[어제], [요즘], [다행], [혹시] 등
어순	서술어 뒤에 위치	문장의 첫머리나 말머리에 위치

문장 전체를 수식하여 문장부사어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어휘들에는 [어제], [요즘], [과거]와 같이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와 [다행], [확실히], [혹시], [만약]과 같이 화자의 심리적

27) 수어 어휘를 통해 부사어를 실현한 문장은 관형어를 실현한 문장과는 달리 문장의 확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가 있다.²⁸⁾ 이러한 어휘들은 문장의 첫머리나 말머리, 혹은 첫머리와 말머리 모두에 제시²⁹⁾되기도 하는데 문장 중간에 위치하지는 않는다.

(9) 가. [요즘] {휴지} [나] [외출]⁺ [안하다] [집안에머뭄]

나. [나] [요즘] {휴지} [외출]⁺ [안하다] [집안에머뭄]

(9가)와 같이 한국수어에서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는 주로 문장의 첫머리에 온다.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앞에 용언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9나)와 같이 주어로 기능하는 체언만이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앞에 올 수 있다. (9가)에서는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요즘]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수어에서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보이는 또 하나의 특성은 어휘 제시 후엔 짧은 {휴지}가 따라붙는다는 점이다.

(10) 가. [다행] {휴지} [협상]₄ [타결]

나. [협상]⁺ [타결] [다행]

다. [혹시] {휴지} ₃[오다]₁ [결석]

라. ₃[오다]₁ [결석] [혹시]

(10가)~(10라)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보여주는 어휘를 통해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 (10가)와 (10나)는 ‘다행히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의미로 [다행]은 문장의 첫머리(10가)나 말머리(10나) 모두에 올 수 있다. (10다)와 (10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며 ‘혹시 그가 안 올지도 모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10가)와 (10다)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보여주는 어휘가 문장 앞머리에 제시될 경우 위의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에서와 같이 수어 어휘 제시 후 짧은 {휴지}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한국수어에서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보여주는 어휘를 통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방식은 한국수어의 또 다른 문장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초점화·화제화와 꺾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8) 한국어에는 ‘과연’, ‘설마’, ‘모름지기’, ‘확실히’, ‘만일’, ‘제발’, ‘부디’ 등 수식하는 문장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많은 편이다(유현경 외 2018: 42).

29) 이러한 경우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2. 초점과 화제

1) 초점화

고개	살짝 내밀기	동시적	<div>수어</div>	{휴지}
눈썹	눈썹 올리기 or 중립			
눈	시선교환			
초점화표지				

【그림Ⅳ-2】 초점화표지

초점화는 수신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새로운 정보를 명확히 강조하는 문장 방식을 의미한다. 한국수어에 나타나는 초점화표지는 한국수어 설명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의문표지와 유사하나 내용적으로는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수어 초점화는 겉보기에는 설명의문문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강조구문을 갖는 분열문에 해당한다.³⁰⁾ 또한 한국수어 초점화에서는 초점화표지 다음에 잠깐의 {휴지}가 나타나며, 실제 초점 정보(단어 혹은 구)는 문장의 끝에 제시되면서 약간의 ‘고개 끄덕이기’를 동반한다. 다음은 초점화 문장의 예시이다.

- (11) 가. 초점화표지 {고개끄덕이기}
 [요리하다] [손][누구] {휴지} [아들]
- 나. 초점화표지 {고개끄덕이기}
 [나] [말]₂ [원하다][무엇] {휴지} [너] [술] [끊다]

(11가)는 ‘요리를 한 사람은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초점 정보인 [아들]이 문장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다. (11나) 또한 [너][술][끊다]라는 초점 정보를 문장 말미에 제시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 술 좀 끊으라는 거다.’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2) 화제화

화제화란 수신자와 공유된 특정 주제나 대상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강조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한국수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정보를 문장의 맨 처음에 제시함으로써 주의를 끌

30) 의문문은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으로 나뉜다. 판정의문문은 예/아니오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고 (예: -밥 먹었어?/-응), 설명의문문은 구체적인 설명(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예: -뭐 먹었어?/- 라면).

거나 강조한다. 이때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성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문장 맨 앞에 제시할 수 있다.

고개	끄덕이기	동시적	<div>수어</div>	지시	{휴지}
눈썹	눈썹 올리기				
눈	동공 커짐 시선교환				
화제화표지					

[그림Ⅳ-3] 화제화표지

이러한 화제화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요소는 바로 비수지표지이다. 화제화는 문장 시작부분에서 해당 단어를 제시함과 동시에 비수지표지(눈과 눈썹, 고개 등)를 표지하며 {휴지}를 갖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때 화제화로 제시된 단어의 특성에 따라 {지시}가 동반되기도 한다. 다음은 화제화 문장의 예시이다.

- (12) 화제화표지
가. [책] {휴지} [바닥나다]
- 화제화표지
나. [어제] {휴지} [비]** [엄청나다]

(12가)의 화제 정보는 [책]이고 (12나)의 화제 정보는 [어제]이다. 두 문장 모두 화제 정보를 문장 맨 앞에서 제시하고 화제화표지를 통해 각각 ‘그 책은 품질되었다.’와 ‘어제는 비가 무섭게 왔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2.2. 문장의 확대

2.2.1. 문장의 접속과 종결

한국수어에서 어떤 문장이 기본문장의 나열인지 문장의 확대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맥락’이다. 이는 한국수어가 시각언어이며 구어체(대화체)의 언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장의 나열과 문장의 확대를 가르는 기준이 한국수어에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수어에서 문장의 확대 혹은 나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접속표지’

와 ‘종결표지’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한국수어 문장에서 문장의 확대 여부는 접속표지의 유무 혹은 종결표지의 위치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이다. ‘접속표지’가 절과 절 사이의 쉼표나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표지라면, ‘종결표지’는 말 그대로 문장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접속과 종결을 규정짓는 표지요소는 비수지기호인 휴지, 시선 응시, 고개 숙이기 그리고 수지기호의 형태와 위치에 있다. 아래 <표Ⅳ-4>는 한국수어 문장에서의 접속표지와 종결표지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Ⅳ-4> 한국수어 문장에서의 접속표지와 종결표지

표지			접속표지	종결표지
비수지기호	{휴지}	길이 ³¹⁾	짧은 휴지	긴 휴지
	고개	숙이기 여부	보편적	선택적
	시선 ³²⁾	응시 여부	선택적	보편적
수지기호	형태와 위치	유지 여부	수지기호 유지 (손 유지)	수지기호 해제 (손 내림 혹은 손 풀림)

한국수어 문장 접속표지에서는 짧은 {휴지}, 고개 숙이기, 수지기호의 유지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종결표지에서는 긴 {휴지}, 시선 응시, 수지기호의 해제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1) {휴지}의 길이

한국수어에서 문장의 접속과 종결 등에 가장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비수지표지는 바로 {휴지}이다. {휴지}란 수어문장 구현 중 다음 단계(단어나 절)로 넘어가기 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멈추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러한 {휴지}는 그 자체가 찰나적인 표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짧은 휴지’와 ‘긴 휴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짧은 휴지’는 문장의 접속에서 ‘긴 휴지’는 문장의 종결에서 나타난다. 앞서 기본문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 아래 예시들은 {휴지}의 길고 짧음에 따라 문장의 확대와 나열을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1) ‘짧은 휴지’와 ‘긴 휴지’는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휴지}는 기본적으로 1초를 전후의 길이를 갖는 아주 빠르고 짧은 표지이다. 다만 종결표지와 접속표지를 비교할 때에 접속표지에서 나타나는 {휴지}가 종결표지에 나타나는 {휴지}에 비해 더 빠르고 짧다.

32) 모든 비수지표지는 기본적으로 찰나적이고 절제되어 있다. 시선응시 또한 매우 짧게 일어나며 대화문에서 자기 이야기를 마치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갖고 있다.

(1)	<div><div><div>{시선교환}</div><div>가</div><div>[포도주]</div><div>[히다]_a</div><div>[빨갈다]_b</div><div>{휴지}</div></div><div><div>짧게</div><div>[돌(선택)]</div><div>[원하다]</div></div></div>						<div>설명어문</div> <div><div>표지</div><div>길게</div></div>		문장의 확대 (이어진문장)
	<div><div><div>{시선교환}</div><div>나</div><div>[포도주]</div><div>[히다]_a</div><div>[빨갈다]_b</div><div>{휴지}</div></div><div><div>길게</div><div>[돌(선택)]</div><div>[원하다]</div></div></div>						<div>설명어문</div> <div><div>표지</div><div>길게</div></div>		문장의 나열 (두 개의 문장)
<div><div><div>{공간활용}</div><div>다</div><div>[집]</div><div>[넙다+ 부패]_a</div><div>[좁다+ 새롭다]_b</div><div>{휴지}</div></div><div><div>짧게</div><div>[돌(선택)]</div><div>[원하다]</div></div></div>						<div>설명어문</div> <div><div>표지</div><div>길게</div></div>		문장의 확대 (이어진문장)	
<div><div><div>{공간활용}</div><div>라</div><div>[집]</div><div>[넙다+ 부패]_a</div><div>[좁다+ 새롭다]_b</div><div>{휴지}</div></div><div><div>길게</div><div>[돌(선택)]</div><div>[원하다]</div></div></div>						<div>설명어문</div> <div><div>표지</div><div>길게</div></div>		문장의 나열 (두 개의 문장)	

(1가)~(1라)는 모두 문장 말미에 긴 {휴지}를 비롯한 종결표지를 제시함으로써 문장의 종결을 표현하고 있다.³³⁾ 그런데 (1가)와 (1다)는 문장 선행절 끝에 짧은 {휴지}를 동반함으로써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를 이어주고 있으며 (1나)와 (1라)는 선행절 끝에 긴 {휴지}를 제시함으로써 문장이 끝나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가)와 (1다)는 문장의 확대가 일어난 이어진문장으로 (1나)와 (1라)는 두 개의 문장이 나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시선의 응시’ 여부

한국수어에서는 문장의 접속과 종결 부분에 화자가 수신자에게 시선을 주는 응시 표지가 나타난다.³⁴⁾ 시선 응시는 {휴지}에 동반되어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시선 응시는 문장종결표지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접속표지에는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3) ‘고개 숙이기’³⁵⁾ 여부

한국수어에서 고개 숙이기는 문장의 접속표지에 많이 나타나며 이어진문장의 대등적 연결과 종속적 연결에 모두 나타나는 표지이다. 반면 종결표지에는 고개 숙이기가 동반되지 않는 것이

33) 종결표지는 수어문 끝에 반드시 나타나는 표지이다. 그래서 수어문을 기술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결표지를 따로 기재하지는 않는다.

34) 한국수어는 시각언어이기 때문에 문장을 실현하는 내내 화자가 수신자를 응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수어 화자가 수어문을 실현하는 내내 수신자를 응시하지는 않는다.

35) 모든 비수지표지는 기본적으로 참나적이고 절제되어 있다. ‘고개 숙이기’ 표지도 인사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개를 아주 작은 각도로 살짝 숙이는 형태이다.

일반적이며 청유문과 같은 특정 의미 맥락에서만 동반된다.

4) ‘수지기호의 형태와 위치’ 유지 여부

한국수어에서 문장의 접속과 종결을 가르는 결정적 표지 중 하나가 문장 끝에 제시된 수지기호의 형태와 위치 유지 여부이다. 이어진문장에서 선행절 끝에 제시된 수어 단어는 짧은 {휴지} 등의 표지가 제시되는 동안 형태와 위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써 수신자는 문장이 종결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반면 종결표지의 경우에는 {휴지} 등 비수지표지가 제시되면서 문장의 마지막 수어 단어 즉 수지기호의 형태와 위치가 해제된다. 여기에서 수지기호의 해제란 손 내림이나 손 풀림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수신자는 비수지표지와 더불어 수지기호의 해제 현상을 통해 문장이 종결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2.2.2. 확대된 문장의 특성

1) 이어진문장의 형태를 취한다.

한국어의 경우, 확대된 문장에는 앞뒤 문장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이어진문장과 어떤 문장 속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는 안은문장이 존재한다(한국어 교육학 사전 2014: 611). 그러나 한국수어의 경우, 문장을 확대할 때 이어진문장 형태를 띠며 안은문장 형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수식언이 체언과 용언 뒤에 제시되는 한국수어 특성상, 한국어에서는 안은문장 형태가 한국수어에서는 이어진문장 형태로 바뀌기 때문이다.

2) 비수지표지가 접속사 역할을 한다.

한국수어에서 문장의 확대는 이어진문장으로 나타난다. 이어진문장이란 둘 이상의 기본문장이 접속어 등으로 이어져 이루어진 이어진문장을 말한다. 이어진문장에는 두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과 하나의 절이 다른 절에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이 있다. 전자를 대등 접속문, 후자를 종속 접속문이라고도 한다. 한국수어에서는 두 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접속어(수어 단어)뿐만 아니라 비수지표지도 담당하고 있다. 많은 경우 한국수어에서 절과 절의 연결은 고개의 끄덕이기나 눈과 눈썹의 움직임 등 비수지표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2.2.3. 대등적 연결

이어진문장에는 대등관계를 바탕으로 두 문장이 결합하여 한 문장을 이루는 형식이 있다. 여기서 더 큰 문장 속의 한 문장을 흔히 절(clause)이라 부르고 그 절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선행절과 후행절로 구분한다. 대등관계로 이어진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가 바뀌어도 의미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대등관계로 이어진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관계를 가진다(이정옥 2012: 남기현 2014: 242). 한국수어에서 대등적으로 이어진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Ⅳ-5〉 한국수어에서 대등적으로 이어진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대등적 연결	비수지표지	접속 어휘	관계 어휘
나열관계	머리·굴표지, 휴지	또	마치다. 완료
대조관계	머리·얼굴표지, 휴지, 공간활용, 역할전환	그러나	선행절과 후행절에 대조 어휘
선택관계	머리·얼굴표지		~든지, 둘 중 하나

1) 나열관계



[그림Ⅳ-4] 나열관계

- (2) 가. [아빠] {고개숙이기} [공무원] {휴지} [엄마] [교사]
- 나. [아침] [8시] {고개숙이기} [장사] [출발] {휴지} [밤] [9시] [마치다]
- 다. [오늘] [점심] {고개숙이기} [결혼식] [참석] [또] {휴지} [저녁] [동창-모임] [참석]

한국수어에서 나열관계는 수어 단어 [또]가 연결어 역할을 하는 경우와 비수지표지인 {휴지}가 연결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2가)는 ‘아빠는 공무원이시고 엄마는 교사입니다.’, (2나)는 ‘아침 8시에 장사를 시작하여 밤 9시에 마친다.’라는 의미로 각각 선행절 끝에 {휴지}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어말 정지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2다) 문장은 접속사 [또]를 사용하여 나열관계를 표현한 예인데 ‘(나는) 오늘 점심에는 결혼식에 가고 저녁에는 동창회에 간다.’라는 의미로 사건이나 현상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2) 대조관계(대립)

주요요소	선택요소	
{고개숙이기} {휴지}	{공간활용} {역할전환}	 [그러나]

[그림 IV-5] 대조관계

- (3) 가. [여행] [고생] [많다] [그러나] [눈-습득] [아~] [보람] [크다]
 나. [어제] [행사] [잘] [마치다] [그러나] [수사-1,2,3,4.] [불평]
 다. [첫째-아들]。 [집-머물다]。 [취미] {휴지} [둘째-아들]。 [외출]_b++ [취미]
 라. [나] [물] [춡다] [싫다] {휴지} [따뜻하다] [좋다]
 마. [부부] {휴지} [아내]_a [날다] [3] [원하다] {휴지} [남편]_b [날다] [1] [원하다]
 바. [귀신]_a [사람]_b [부르다]⁺⁺ [지옥]_a {휴지} [천사]_c [사람]_b [부르다]⁺⁺ [천국]_c상

한국수어에서 대조관계는 대조되는 어휘의 사용과 접속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3가)와 (3나)는 접속사 [그러나]를 통해 대조 관계를 표현한 문장으로 (3다)는 ‘고생스런 여행이었지만 보고 배운 것도 많다.’, (3나)는 ‘어제 행사는 잘 끝났는데, 몇몇이 불평을 했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모든 대조관계에 접속사 [그러나]가 사용되지는 않는다. 한국수어의 특성상 {휴지}와 {공간 활용(분할)}이 문장의 의미를 더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다)는 ‘첫째 아들은 늘 집 안에만 있고 둘째 아들은 늘 밖을 나다닌다.’, (3라)는 ‘나는 찬물은 싫고 따뜻한 물이 좋다.’라는 의미인데, 한국수어에서는 (3다)의 [집-머물다]와 [외출]_b++, (3라)의 [춡다]와 [따뜻

하다와 같이 대조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대조 관계를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때는 (3다)와 (3라)문장처럼 대조되는 양 절 사이에 {휴지}가 들어간다.

한국수어에서는 대조관계를 표현할 때 공간을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문장 (3마)와 (3바)처럼 추상적이고 대립적인 상황과 내용을 비교할 때에는 흔히 선행절과 후행절을 화자의 공간에 분할 배치하여 표현함으로써 접속사의 개입 없이 대조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남기현 2013: 244-245). (3마)에서는 [아내]와 [남편]을 수어공간 수평면 a(좌), b(우)에 각각 배치하고 a공간으로 몸을 살짝 틀어 [아내][낳다][3][원하다]를 구현한 다음 b공간으로 몸을 살짝 틀어 [남편][낳다][1][원하다]를 구현함으로써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자녀를 셋 낳기를 원하는 반면, 남편은 자녀를 하나만 낳기 원한다.’라는 의미를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다. (3바)에서는 공간을 좀 더 다층적으로 활용한다. 수어공간 수직면을 좌·중·우, 상·하로 나누어 a(좌), b(중) c(우), a(좌)하, c(우)상 이렇게 다섯 개의 공간을 지정한 다음 ‘인간’은 b(중), ‘악마’는 a(좌), ‘천사’는 c(우)에, ‘지옥’은 a(좌)하, 천국은 c(우)상에 위치시켜 [부르다]는 일치동사와 {역할전환}을 통해 악마는 인간을 지옥으로 유인하고 천사는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3) 선택관계

주요요소	선택요소			
{고개숙이기} {휴지}	{지시} {공간활용} {역할전환}		수어 	
		[~든지]	[둘 중 하나]	[수사]

[그림Ⅳ-6] 선택관계

(4) 가. [첫번째] [잠자다] [두번째] [밤새다] [~든지] [나] [자유]

나. [제주도] [여행+방법] {휴지} [비행기]_a [배]_b [지시]_{ab}⁺ {휴지} [둘 중 하나]_{의문표지}

한국수어 이어진문장에서 선택관계 실현에 사용되는 주요 수어 단어는 [~든지]와 [둘 중 하나]이며 이 두 단어에는 [수사]와 {지시}가 동반되기도 한다. (4가)는 ‘잠을 자든 밤을 새든

내 마음이다’라는 의미로 [~든지]를 사용하여 선택관계를 표현한 이어진문장이다. [수사-서수]와 {지시}가 동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택 관계를 표현할 때 반드시 [수사]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4가)의 경우 서수[첫 번째][두 번째]의 생략이 가능하다. 한편, 선택 관계를 표현할 때 공간은 중요한 문법표지가 된다. (4나)는 ‘제주도 여행을 비행기로 갈까요, 배로 갈까요?’라는 의미로 각각의 선택지를 화자의 앞 공간에 수평면으로 배치(a, b)하여 제시한 후 두 공간(a, b)을 차례로 지시하고 수어 단어[둘 중 하나]를 통해 문장의 선택 관계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4. 종속적 연결

이어진문장에는 종속관계를 바탕으로 두 문장이 결합하여 한 문장을 이루는 형태들이 있다. 이렇게 종속관계로 이어진문장은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해 인과, 조건, 의도, 양보, 배경, 인용 등의 의미관계를 갖는다. 종속관계로 이루어진 문장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관계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두 절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수어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Ⅳ-6〉 한국수어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종속적 연결	비수지표지	접속 어휘	
인과관계(이유)	휴지, 고개숙이기 등(머리·얼굴표지)	때문에 자연	
조건관계(가정/제의)	휴지, 고개숙이기 등(머리·얼굴표지), 공간활용, 역할전환	가정	만약, 혹시, *~면
		제의	(만약)
의도관계(목적)	휴지, 고개숙이기 등(머리·얼굴표지)	목적	
양보관계(인정)	얼굴표지(눈가늘게뜨기, 눈썹찌푸리기)	무엇	
배경관계(배경)	휴지	*그러나	
인용관계(인용)	휴지, 고개숙이기 등(머리·얼굴표지), 일치동사, 역할전환, 공간 활용	말하다+무엇	

1) 인과관계(이유)

주요요소	선택요소		
{휴지} {고개숙이기}	{눈썹올리기} {시선응시}	 [때문에]	 [자연]

[그림Ⅳ-7] 인과관계

- (5) 가. [나] [바쁘다] [때문에] {휴지} [회의] [참석] [못하다]
 나. [나] [바쁘다] {휴지} [회의] [참석] [못하다]
 다. [나] [운동] [매일]⁺⁺ {휴지} [자연] [동동➡날씬]

인과관계란 선행절의 사건이나 사태가 원인이 되어 후행절의 사건이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관계를 말한다. 한국수어 이어진문장에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어 단어는 [때문에]³⁶⁾이며 수어 단어 [자연]도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접속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휴지}를 비롯한 비수지표지도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5가)와 (5나)는 ‘바빠서 회의에 참석을 못합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5가)의 경우 [때문에]를 통해 인과관계를 표현하였는데, (5가)는 (5나)와 같이 [때문에]를 생략하고 {휴지} 등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5다)는 ‘매일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날씬해졌다.’라는 의미로 수어 단어 [자연]도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접속어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접속어 [자연]은 선행절의 현상으로 인해 후행절의 결과가 도출되는 상황일 때 많이 사용된다. 반면, [때문에]의 쓰임은 좀 더 넓다. 선행절에 기술된 상황으로 인한 결과뿐 아니라 선행절의 이유로 인해 후행절과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접속어 [때문에]가 없어도 인과관계를 {휴지}를 비롯한 비수지표지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데, 인과관계 특히 귀책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할 때에는 [때문에]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36) [때문에]는 귀책사유와 관련한 문장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이때 귀책사유와 관련된 문장은 [때문에] 외에도 [{지시+} 잘못], [{위차+} 동기]등의 단어의 활용이 더 적절할 때가 많은데 [때문에], [잘못], [동기] 모두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2) 조건관계(가정/제의)

조건표지 (가정)	고개	끄덕이기 or 기울이기	동시적		지시	{휴지}
	눈썹	올리기				
	눈	사선위로뜨기				

[그림Ⅳ-8] 조건표지(가정)

어휘 (가정)			
	[만약]	[혹시]	*[~면]

[그림Ⅳ-9] 조건표지(가정) - 어휘

조건표지 (제의)	고개	상호끄덕이기	동시적		지시	멈춤 {휴지}
	눈썹	올리기				
	눈	크게뜨기 사선주기 상호응시				

[그림Ⅳ-10] 조건표지(제의)

조건관계란 임시로 인정 혹은 가정한 선행절의 사건이나 사태를 조건으로 하여 후행절의 결과가 도출되는 관계를 말한다. 한국수어에서 이어진문장은 접속사와 비수지표지를 함께 이용하거나 비수지표지만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한국수어 종속접속문에서 조건관계는 크게 가정(假定)과 제의(提議)로 나눌 수 있다.

가정이 담긴 조건문

(6)	가.	[만약]	[내일]	[비오다]	<u>조건표지</u>	{휴지}	[등산]	[취소]
	나.	[혹시]	[내일]	[비오다]	<u>조건표지</u>	{휴지}	[등산]	[취소]
	다.	[내일]	[비오다]	<u>조건표지</u>	{휴지}	[등산]	[취소]	
	*라.	[만약]	[내일]	[비오다]	[~면]	{휴지}	[등산]	[취소]

가정이 담긴 조건문

(7)	가.	[만약]	{휴지}	[걷기]**	[1시간]	<u>조건표지</u>	{휴지}	[당뇨]	[저온]	[가능]	
	*나.	[혹시]	{휴지}	[걷기]**	[1시간]	<u>조건표지</u>	{휴지}	[당뇨]	[저온]	[가능]	
	다.	[걷기]**		[1시간]	[매일]**	<u>조건표지</u>	{휴지}	[당뇨]	[저온]	[가능]	
	*라.	[만약]	{휴지}	[걷기]**	[1시간]	[매일]**	[~면]	{휴지}	[당뇨]	[저온]	[가능]

(6가)~(6라)는 ‘만약 내일 비가 오면 등산은 취소된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수어 단어 [만약]과 [혹시]는 가정 조건문에 사용 가능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나)와 (7나)문장을 비교해 보면 [혹시]라는 단어는 [만약]과는 달리 모든 가정 조건문에 어울리는 단어는 아님을 알 수 있다. (6가)~(6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6다)이며, 한국어 영향을 받은 (6라)가 가장 어색한 문장이다. (6다)에서와 같이 한국수어 화자가 [만약]등의 단어를 생략한 채 눈표지(눈썹 올리기)와 머리표지(고개 기울임), 휴지 등의 비수지표지만으로 가정 조건문을 표현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7가), (7다), (7라)는 ‘날마다 1시간씩 걸으면 당뇨 수치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7나)는 ‘날마다 1시간씩 걸으면 당뇨 수치가 떨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6나)의 경우와 달리 (7나)는 한국수어에서는 의미적으로 어색한 문장이다. 이로써 [혹시]의 쓰임은 의미에 따른 제약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7다)~(7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7다)이며 (7나)는 의미적으로 어색한 문장, (7라)는 한국어 영향을 받은 수지한국어 문장이다.

(8) 가.		$_2$ [위협] ₁	{휴지}	$_1$ [위협] ₂	{휴지}	$_2$ [돕다] ₁	<u>조건표지</u>	$_1$ [돕다] ₂
제								
의	*나.	[만약]	$_2$ [위협] ₁	[~면]	$_1$ [위협] ₂	[또]	$_2$ [돕다] ₁	[~면] $_1$ [돕다] ₂
가								
담			{목걸이사원증	{마우딩'O'}				
긴			표현}	조건표지				
조			<hr/>				{마우딩'파'}	
건								
문 다.	[회사]	[명찰]	[있다]	{휴지}	{활인}	[위로] ₂	[가능]	

단순 의견이나 상호 협의 과정에서의 제안 등이 담긴 제의 조건문은 [만약], [혹시]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8가)와 (8나)는 ‘만약, 네(A)가 나(B)를 해코지하면 나(B)도 너(A)를 해코지할 것이고 네(A)가 나(B)를 도우면 나(B)도 너(A)를 돕겠다.’의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8나)는 한국어 영향에 의한 수지한국어 문장으로 어색한 문장인 반면, (8가)는 문법적으로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8가)에서와 같이 제의와 관련한 조건문에서 수신자와 피수신자는 거의 동시적으로 눈썹·눈표지(눈썹 올리기, 시선 교환 등)와 머리표지(고개 끄덕이기)를 실현함으로써 조건 관계를 완성한다. 문장 (8다)는 ‘사원증이 있으면 할인 혜택 가능합니다.’라는 의미로 단순한 의견을 담고 있는 조건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눈썹·눈표지(눈썹 올리기, 시선 응시 등)와 머리표지(고개 끄덕이기)를 통해 조건 관계를 완성한다. 이때 [있다]에 동반되는 입모양 ‘O’는 마우딩으로서, 조건절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다.

(6라), (7라), (8나)에서와 같이 조건 관계를 표현하는 문장에서 [~면]을 접속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한국어에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불필요한 접속사이며, 비수지표지를 통해 조건문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의도관계(목적)

주요요소	선택요소	
{휴지}		
	설명문의문표지 [왜]	[목적]

[그림Ⅳ-11] 의도관계 - 목적

(9) 가. [나] [오늘] [휴가] 설명문의문표지 [왜] {휴지} [친구] [결혼식] [참석] ([목적])

화제화 설명문의문표지 부정표지
나. [남자] [너] [아부][위로] [왜] {휴지} [돈] [목적]

의도관계란 한 절의 사건이나 사태가 목적 혹은 의도가 되어 다른 절의 사건이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한국수어에서는 목적이 되는 절과 영향을 받은 절의 선후가 자유로운 편이다. (9가)는 ‘나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오늘 휴가를 냈다.’라는 의미이고 (9나)는 ‘저 남자가 너에게 잘하는 건 네 돈을 노려서야.’라는 의미이다. 한국수어에서 (9가)와 (9나)에 서와 같이 의도관계는 수어 단어 [왜], [목적] 등을 통해 구현되며, 이때도 역시 비수지표지가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어 단어 [왜]는 영향을 받은 절이 문장의 앞 절에 위치할 때만 앞 절 끝에 나타나며, 수어 단어 [목적]은 목적이 되는 절의 끝에 나타난다. 또한 목적이 되는 절과 영향을 받은 절의 선후가 자유로운 편이기는 하나 목적이 되는 절이 후행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4) 양보관계(인정)

주요 요소		선택요소	기타
{휴지}	 눈·눈썹찌푸름 [아무리]	 수어 [~에도 불구하고]	*[도]

[그림Ⅳ-12] 양보관계 - 인정

(10)	가.	<u>{눈·눈썹찌푸름}</u> [아무리]	[노력]	{휴지}	[이익]	[없다]
	*나.	<u>{눈·눈썹찌푸름}</u> [아무리]	[노력]	[도]	{휴지}	[이익] [없다]
	다.	<u>{눈·눈썹찌푸름}</u> [아무리]	₂ [부탁] ₁	{휴지}	[허락]	[불가능]
	*라.	<u>{눈·눈썹찌푸름}</u> [아무리]	₂ [부탁] ₁	{휴지}	[도]	[허락] [불가능]
	마.	[부탁] <u>{시선응시}</u>	[상]	[가지다] <u>{시선교환}</u>	[실패]	[불구하고] {휴지} [노력] [이루다]

양보관계란 선행절의 사건이나 사태로부터 나타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상황이나 조건을 인정하면서, 후행절에서는 의미상 상반되는 내용을 제시하는 일종의 반전 관계이다.³⁷⁾ (10가), (10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라는 의미로 (10다), (10라)는 ‘(나에게) 아무리 부탁해도

37) [양보 讓步]에 대한 한국어 의미는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음.’에 있다. 반면 일본어 의미에는 ‘1. 상대방의 의견에 중점을 두고 해결로 이끄는 것. 자신의 주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굽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맞추는 것’과 더불어 ‘2. (문법)역접의 일종으로 앞의 문장을 옳다 인정하고 (또는 옳다고 하지만) 뒤의 문장에서는 앞의 문장에서 당연히 귀결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을 밝히는 것’이 있다.

따라서 ‘양보관계’라는 문법용어는 영어문법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 문법용어를 한국어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고착된 산물로 보인다. ‘양보관계’는 한국어 사용자로서는 개념이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는 어색한 용어이다. 이에 대한 대안 용어인 ‘인정 관계’도 문법적 개념을 명료하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보인다. 향후 좀 더 문법적 의미에 적합한 대안적 용어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소용없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나 (10가)와 (10다)가 한국수어 문법에 더 가깝다. (10가)와 (10다)에서와 같이 양보관계 또한 {휴지}를 통해 두 절을 연결할 수 있다. (10가)와 (10다)에서는 [무엇2]³⁸⁾를 통해 ‘아무리 ~~해도’라는 의미를 구현한다. 이러한 양보관계 문장에서 (10나)와 (10라)에서와 같이 [무엇2]에 [~도]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실제 양보관계 구현에 필요하지 않은 요소이다. 한편, (10마)에서와 같이 [불구하고]는 양보관계를 구현하는 문장에 사용 가능한 수어 단어이며, ‘임상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합시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5) 배경관계(배경)



[그림Ⅳ-13] 배경관계 - 배경

					{시선교환}				
(11)	가.	[나]	[요즘]	[골프]	[배우다]	[중]	{휴지}	[중독]	[반가움(흥)]
	*나.	[나]	[요즘]	[골프]	[배우다]	[중]	*[그러나]	[중독]	[반가움(흥)]

배경관계란 후행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선행절에서 미리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11가), (11나)는 ‘나는 요즘 골프를 배우는데, 아주 재미있다(나는 요즘 골프 배우기에 푹 빠져있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나 (11나) 보다는 (11가)가 문법적으로 더 적절한 문장이다. 한국수어는 (11가)에서와 같이 선행절 끝에 시선을 교환하고 휴지를 갖는 것으로 배경 관계를 구현할 수 있다. (11나)와 같이 [그러나]를 접속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최근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어(-인데, -하는데) 영향에 의한 것으로 배경관계를 표현하는 한국수어 문장에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38) [무엇2]는 [무엇1]과 유사하나 수동의 범주를 넓게 잡고 수동을 강하게 하는 동시에 눈썹과 눈을 찌푸리는 비수지표지를 동반한다.

6) 인용관계(인용)

주요요소			선택요소
{휴지} {역할전환}			
	[말하다]	[말하다](A→B/A←B)	설명의문표지 [무엇1]

[그림Ⅳ-14] 인용관계

설명의문표지					{역할전환}						
(11)	가.	[민수]	3[말하다]1	[무엇1]	{휴지}	[나]	[일]	[퇴사]	[원하다]	{휴지}	3[말하다]1

3. 문장종결

문장을 끝맺는 방법을 문장종결법이라 하는데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 있다. 한국수어에서 문장종결의 실현 방법은 비수지표지이다.

3.1. 평서문

평서문은 한 문장을 평범하게 진술하는 문장 유형이다(남기심 외 2020). 평서문을 구사할 때 동작의 강조와 얼굴표정을 동반하더라도 청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이나 감정을 진술하는 것이다. 한국수어에서 평서문의 실현은 문장 끝에서 대화 상대방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비수지표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발화 상황이 아닌 경우 평서문에서 위 비수지표지가 의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고개끄덕이기}
							{시선응시}
(1)	가.	[나]	[지난주]	[부터]	[운전면허]	[시험]	[준비]
					{입술꼭다물기}		[중]
	나.	[학생]	[한국수어]	[공부하다]	{열심히}		
	다.	[강아지]	[귀엽다]				

(1가)는 ‘나는 지난주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진술하는 평서문이다. 수어 화자는 문장을 마치면서 대화 상대방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한국수어는 일종의 구어로 존재하는 언어이므로 대화 상대방과의 시선응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발화 상황이 아닌 단순히 문장을 진술하는 평서문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응시하는 비수지표지가 생략될 수 있다. (1나)는 ‘학생이 한국수어를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실을 진술한 문장이다. 수어 화자는 [열심히]를 수어할 때 입술을 굳게 다문다. 이 입모양은 평서문 표지는 아니며 공부에 힘쓰는 학생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부사어 [열심히]에 호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다)는 ‘강아지가 귀엽다’라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문장으로 혼잣말처럼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상대방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비수지표지를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평서문은 다른 문장종결 방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수지표지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한국수어 평서문의 종결형태에서 [이다/입니다]의 사용을 살펴보자. [이다/입니다]는 농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대응 단어로 생성된 대표적인 어휘이다. 한국어가 개입된 인위적인 언어 환경이 아닌 한, 한국수어 화자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³⁹⁾ 한국

39) [이다/입니다]로 번역되는 이 수어 단어는 한국어 대응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농인들이 평소 대화에 사용하지 않으

수어 평서문의 끝맺음은 [이다/입니다]로 실현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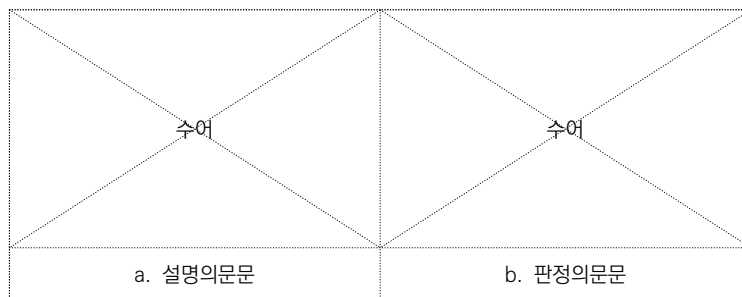


[그림Ⅳ-15] [이다/입니다]

3.2. 의문문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의문문은 의문사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으로 구분한다. 설명의문문은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으로 청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판정의문문은 의문사를 포함하지 않으며 청자에게 구체적인 진술이 아닌 ‘예’ 혹은 ‘아니요’라는 대답을 요구한다.

한국수어 의문문의 실현에서 비수지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명의문문은 눈썹을 올리고 눈을 크게 뜬다. 판정의문문은 눈썹을 올리고 눈을 크게 뜨는 비수지표지는 설명의문문과 같으나 턱을 약간 몸쪽으로 당기는 비수지표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Ⅳ-16] 의문문을 위한 비수지표지

나, 한국어로 제시된 문장을 수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존대어로 인식하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어의 태생 자체가 [재미있다], [기쁘다]와 같은 지문자 파생어처럼 한국어 대응을 강요당하는 언어 환경에 기인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한국수어 문법에 맞는 어휘로 보기 어렵다.

한국수어에서 설명의문문은 어순의 제약이 명확히 드러난다. 의문사에는 [무엇1], [언제], [왜], [누구], [어떻게], [어디]가 있다.



a. [무엇1]



b. [언제]



c. [왜]



d. [누구]



e. [어떻게]



f. [어디]

[그림Ⅳ-17] 의문사

한국수어에서 설명의문문의 가장 큰 특성은 어순이다. 문장 끝에 의문사가 위치하고 눈썹 올리기, 눈 크게 뜨기라는 설명의문문을 나타내는 비수지표지가 동반된다.

(2)	가.	[이름]	<u>설명의문표지</u>	
			[무엇1]	
나.	[방학]		<u>설명의문표지</u>	
			[언제]	
다.	[도착하다]	[아직]	<u>설명의문표지</u>	
			[왜]	
라.	[지시]a	[앞다]	<u>설명의문표지</u>	
			[누구]	
마.	[책]	[주문]	<u>설명의문표지</u>	
			[방법]	

(2)는 의문사 [무엇1], [언제], [왜], [누구], [어떻게]가 포함된 문장들이다. [어디]가 포함된 문장은 아래 (3) 예문에서 보기로 한다. (2)의 예문들은 각각 ‘이름이 무엇입니까?’, ‘방학이 언제입니까?’, ‘왜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저기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책 주문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의미이다.⁴⁰⁾ (2마)에서 [무엇1]이 생략되고 [방법]으로만 표현했

지만 설명의문문을 위한 비수지표지가 동반되어 의문문이 된다.

				설명어문표지	
(3)	가.	[결혼]	[여행]	[원하다]	[어디]
				설명어문표지	
	나.	[결혼]	[여행]	[원하다]	[곳] [무엇1]
				설명어문표지	
				마우딩	
	다.	[결혼]	[여행]	[원하다]	[곳]+

(3)은 모두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장소를 묻는 의문문이다. 세 문장의 의미는 같으나 설명의문문을 표현한 방식은 약간씩 다르다. 먼저 (3가)는 의문사 [어디]⁴¹⁾가 포함된 문장이다. (3나)는 의문사 [무엇1]로 의문문을 나타낸다. 바로 앞에 [곳]이 있으므로 장소를 질문하는 것이 확실하다. (3다)는 [곳]을 반복함으로써 확정되지 않은 장소의 의미를 전달한다. [곳]과 함께 나타난 설명의문문의 비수지표지와 ‘어디’라는 마우딩⁴²⁾은 의문문을 분명하게 표시한다. 세 문장에서 장소를 묻는 의문사는 다르더라도 어순은 동일하게 문장 끝에 온다.

한국어 ‘-ㄴ니까’에 대응하는 의문표지로서 문장 맨 뒤에 [질문]을 두어 표현하기도 하지만 생략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엄미숙 1996; 윤병천 2003). [질문]이 의문문 끝에서 의문문의 표지로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수어가 아니라 수지한국어이다. 한국어의 의문형 종결어미 ‘-ㄴ니까/-습니까’에 대응하기 위해 [질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구태여 [질문]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면, 의문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시함으로써 ‘질문이 있다.’, ‘질문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시선응시}								설명어문표지	
(4)	[질문]	[원하다]	{휴지}	{수어노래}	{지시}	{대하여}	{휴지}	[너]	[생각] [무엇1]

(4) 문장은 ‘질문이 있는데요’라고 말을 시작한 후에 ‘수어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화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 [원하다] 다음에 대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시선응시와 잠시 멈추는 휴지가 있다. 그다음 수어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는 내용을 표현한다.

40) 한국어 번역에서 사용된 종결형 어미는 번역을 위해 선택한 것으로 해당 수어 문장이 상대를 높이는 맥락에서 발화된 문장으로 가정하여 선택한 종결어미이다.

41) 의문사 [어디]는 [무엇1]과 [곳]이 합성되면서 음운 축약이 일어나 [무엇1]의 좌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42) 마우딩은 입움직임의 하나로 음성언어 발화와 관련이 있다. 수어 단어를 산출하면서 수어 단어에 대응하는 음성언어 전체 음절 혹은 일부를 소리 없이 입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이다(원성옥 외 2019: 7).



[그림Ⅳ-18]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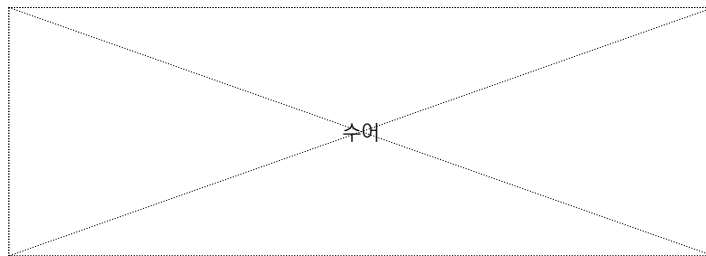
판정의문문은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진술이 아닌 ‘예’, ‘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판정의문문의 비수지표지는 눈썹을 올리고 눈을 크게 뜨고 턱을 약간 몸쪽으로 당기는 것이다.

		<u>판정의문표지</u>	
(5)	가. [영화]	[보다]	[원하다]
	<u>판정의문표지</u>		
	나. [일]	[끝나다]	

(5가)는 대화 상대방에게 영화를 보고 싶은지 물어보는 문장이다. (5나)는 일을 마쳤는지 물어보는 문장이다. 의문사가 포함되지 않는 대신 눈을 크게 떠서 자연스럽게 눈썹도 위로 올라가고 턱을 몸쪽으로 약간 당기는 비수지표지가 나타난다. 대화 상황이므로 두 문장 모두에서 주어 [네]를 생략할 수 있다.

3.3. 명령문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 유형이다. 명령문에서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대화 상대방에게 시선을 응시한다. 이러한 비수지표지와 더불어 단호하고 절도 있는 다소 경직된 수동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Ⅳ-19] 명령문을 나타내는 [해라]

(6)	가.	[깨끗이]	[정리하다]	<u>{시선응시}</u> [해라]	
	나.	[시험]	[가깝다]	[공부]	<u>{시선응시}</u> [해라]
	다.	[먹다]	<u>{시선응시}</u> [해라]		
	라.	[일]	<u>{시선응시}</u> [가다]		

명령문은 눈을 치켜 뜸 그리고 손의 강경한 움직임으로 나타난다(엄미숙 1996: 54). (6가)-(6다)는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는 명령문이다. (6가)는 아이에게 어질러진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말할 때, (6나)는 시험이 가까우니 공부하라고 말할 때 (6다)는 밥을 먹지 않고 판짓을 하는 아이에게 밥을 먹으라고 말할 때 [해라]로 명령문을 표현한 것이다. [해라]는 겹지만 편 한 손을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힘주어 이동하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해라’라고 표현하겠다. [해라]는 명령을 받는 사람이 명령을 수행하는 장소와 연결된다. (6가)는 부모가 아이에게 방을 치우라고 명령하는 상황이고 (6나)는 부모가 아이에게 방에 가서 공부하라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모 즉 수어 화자의 위치에서 아이의 방을 의미하는 수어 화자와 떨어진 위치에서 [해라] 동작이 끝난다. 그러나 (6다)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아이에게 밥을 먹으라고 다그치는 상황이므로 [먹다] [해라]로 표현하되 [해라]는 수어 화자 쪽에서 아이의 위치 쪽으로 움직인다. 덧붙여, 아이에게 식탁에 와서 먹으라고 다그칠 때는 아이 위치에서 식탁 위치로 [해라]를 이동할 수 있다. (6라)는 동료가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을 때 가서 일하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직장 동료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이때는 [일] [가다]를 단호한 동작으로 표현하되 직장 동료와 수어 화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공간에서 일하는 공간을 향하여 [가다]를 움직인다. 화자가 청자에게 자기의 의도대로 행동할 것을 요청할 때 수어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다. 동료에게 일하러 가라고 말할 때 수어 화자와 가까운 위치가 아닌 동료의 위치에서 [일]과 [가다]를 표현한다.

(6)에서는 대화 상대방이 수어 화자보다 손아랫사람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 그리고 직장 동료 사이에서 사용되는 명령문을 살펴보았다. 다음 문장에서는 손윗사람, 화자보다 지위가 높은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명령문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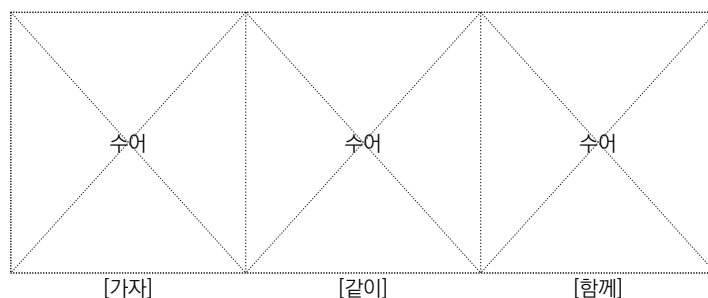
(7)				{고개숙이기}	
	<u>{시선응시}</u> [선생님]	{휴지}		<u>{시선응시}</u> {상체숙이기}	
				<u>{상체숙이기}</u> [기다리다]	

(7)은 선생님께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이다. 손윗사람, 화자보다 지위가 높은 상대 표현할 때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상체와 고개를 숙여 정중한 태도를 보인다.

한국수어 명령문에서 특정 어휘는 청자에 따라 사용이 제약된다. [해라](검지만 편 손을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강경하게 움직임)는 손아랫사람이나 친구에게는 사용할 수 있으나 손윗사람이나 화자보다 지위가 높은 상대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4. 청유문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 유형이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는 명령문과 달리 청유문은 화자와 청자가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행위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한국수어에서 청유문의 실현은 상대를 향한 시선응시, 고개와 상체의 숙임의 비수지표지와 더불어 문장을 구사하는 전체적인 수동이 부드럽고 조심스럽다.



[그림Ⅳ-20] 청유문을 나타내는 어휘

(8)	가.	[점심]	<div style="text-align: center;"> {시선응시} <hr/> [가자]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먹다] {고개숙이기} {시선응시} {상체숙이기} </div>		
나.	[교수]	[커피]	<div style="text-align: center;"> [가다] {고개숙이기} {시선응시} {상체숙이기} </div>		
다.	[영화관]	[같이]	[가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괜찮다] {고개숙이기} {시선응시} {상체숙이기} </div>	
라.	[학교]	[발전]	[위해]	<div style="text-align: center;"> [함께] [노력] [부탁] </div>	

(8가)는 상대방에게 점심 먹으러 가자고 말할 때 [가자] 어휘로 청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가자]는 상대방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하는 방향으로 동사의 방향이 일치한다. 혹은 [가자]라는 어휘 없이 수어 화자의 머리를 이동의 방향으로 기울여서도 ‘가자’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8나)에서 교수님께 커피숍으로 이동하자고 요청할 때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공손한 태도를 취하며 말한다. 이때 [가자] 어휘는 상대방이 자신보다윗사람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 문장에서 [커피]라고 했지만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의미이다. 이 문장에서 [교수]는 교수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된다. 문장 전체에서 상대를 응시하고 상체와 고개를 살짝 숙이는 비수지표지가 나타난다. (8다)에서 [같이]라는 부사가 청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선생님께 영화관에 같이 가시자고 요청하는 청유문이다. 고개와 상체를 살짝 숙여 정중한 태도를 보인다. 문장 끝에 [괜찮다]를 표현하여 의향을 정중히 확인한다. (8라)에서 부사 [함께]가 없다면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세요’라는 청자에게 부탁하는 정중한 명령문이 된다. 한국수어에서 [함께], [같이] 등의 부사는 청유문을 구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수어는 대화 상황에서 실현되는 일종의 구어이므로 대화 상대방에게 적절한 태도를 보여 상대방을 향한 대우를 표현한다. 청유문에서도 명령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어휘는 청자에 따라 사용이 제약된다. [가자](편 한 손을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임)는 손아랫사람이나 친구에게는 사용할 수 있으나 손윗사람이나 화자보다 지위가 높은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5. 감탄문

감탄문은 화자가 자신의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화자의 기쁨, 슬픔, 놀람 등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다. 한국수어에서 감탄문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둥그렇게 벌리는 비수지표지와 감탄의 표정으로 표현한다.

(9) 가.	[한국수어]	$\frac{\begin{matrix} \{\text{눈크게뜨기}\} \\ \{\text{입둥그렇게하기}\} \end{matrix}}{\text{[못하다]}}$	
		$\frac{\begin{matrix} \{\text{눈크게뜨기}\} \\ \{\text{입둥그렇게하기}\} \end{matrix}}{\text{[합격하다]}}$	
나.	[운전면허시험]		[오]

(9가)는 상대가 한국수어를 못할 줄 알았는데 제법 잘하는 것을 보고 감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감탄문이다. 감탄의 의미로 사용될 때 [못하다]의 비수지표지가 다르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둥그렇게 벌리는 감탄의 표정이 나타난다. 상대가 못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잘할 경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상대가 해냈을 때 등 상대의 행동에 감탄할 때 사용한다. [못하다]

외에도 한 손 팔뚝을 다른 손 손바닥으로 좌우로 반복하여 스치는 동작의 단어는 ‘어떻게 그 일을 해냈지?’, ‘어떻게 된 거야?’ 등 감탄의 의미를 표현한다. 두 어휘는 그 자체로 감탄의 의미가 있는 경우이다. (9나)는 ‘(네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라는 뜻의 감탄문이다. [합격하다]에 감탄 표정이 함께 나오면 충분히 감탄문이 된다. [오]는 문장 전과 후에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감탄표현으로 쓰인다.

4. 부정법

4.1. 부정법의 정의와 연구

부정법이란 부정의 의미가 있는 요소를 사용하여 ‘그렇지 않다’ 의미를 실현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한국어는 ‘안’, ‘못’, ‘말-’, ‘않-’ 등의 부정사를 통해 부정표현을, 한국수어는 ‘부정어’와 비수지표지를 통해 부정표현을 실현한다. 또한 한국수어는 한국어에 비해 부정표현에 사용되는 부정어가 많으며 무엇을 부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부정어들이 정해져 있다.

엄미숙(1996)은 한국어의 부정법 실현에는 ‘아니다’, ‘못하다’, ‘말다’ 부정법 등이 있으나 한국수어에는 보다 다양한 부정표현 방법이 있다고 하였으며, 한국수어 부정표현으로 [없다], [아직], [못하다], [아니다], [안되다], [말다], [모르다]를 제시하였다. 또한 부정법에서는 고개 좌우의 움직임, 눈의 움직임, 입술의 움직임 등이 통합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엄미숙 1996: 56-61).

윤병천(2004)은 한국수어 부정법에서 수어 단어와 함께 얼굴을 좌우로 흔들고 눈썹을 내리는 부정의 비수지 형태소가 대부분 나타난다고 하였다(윤병천 2004: 61-63).

양경숙(2007)은 한국수어 부정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아래 제시된 조건 I 과 조건 II 를 만족시키는 수어문은 통사적 부정문, 조건 II와 조건 III을 만족시키는 수어문은 어휘적 부정문으로 보았다(양경숙 2007: 25-26).

조건 I : 부정문은 그 서술어에 부정소 ‘안’이나 ‘못’,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건 II : 부정문에 대당 긍정문이 있어야 한다.

조건 III : 부정극성⁴³⁾ 성분과 온전한 공기관계⁴⁴⁾를 보이는 ‘없다, 모르다, 아니다’를

43) 부정극성이란 부정 문맥에서만 쓰일 수 있는 부정 자질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어휘를 ‘부정극어’ 혹은 ‘부정극성어’라고 한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4) 공기(共起) 관계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한 문장 안에 함께 나타나는 관계를 말한다(출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가진 문장도 부정문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후 김만영(2013)은 양경숙(2007)의 부정문 정의를 받아들이되 조건의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하며, ‘기존의 한국어 관점에서 한국수어의 언어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그 번역문이 {아니}, {안}, {못}, {말-}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정문이라고 생각해왔던 견해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건 i: 부정문은 명사나 서술어 다음에 부정어 [아니다], [안하다], [없다], [~적없다], [아직~하지않다], [못하다], [할 수 없다], [금지], [거절], [불가능], [말다]를 문장의 마지막에 두어야 한다.

조건 ii: 부정문에 대한 대당 긍정문이 있어야 한다.

조건 iii: 모순관계를 보이는 단어([모르다], [낯설다], [뭉개뭉개지모르다] 등)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 부정문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김만영(2013)은 부정의 개념을 의미론적으로 해석한 ‘의미론적(어휘적) 부정문’(박형우 2004)에 근거하여 한국수어에서 나타난 부정문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부정어 [아니다]는 사실 부정, [안하다]는 의지부정, [없다]와 [~적없다]는 상태부정, [아직~하지 않다]는 완료부정, [못하다]와 [할수없다]는 능력부정, [금지]·[거절]·[불가능]·[말다]는 상황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김만영 2013: 115-117).

4.2. 부정법 구현 요소

4.2.1. 부정어

안, 못, 말-과 같은 부정 요소를 사용하는 한국어와 달리 한국수어는 조사나 보조용언을 활용하지 않는 언어이다. 한국수어에서는 부정접미사 역할을 하는 [없다(손털기)]를 비롯하여 [아니다], [없다], [아직], [아직(비우세손 결합)], [못하다^{1,2}], [말다], [불가능^{1,2}], [안되다], [안 돼], [안하다] 등의 ‘부정어’를 활용하여 부정법을 구현한다.

4.2.2. 비수지표지

한국수어에서 부정법을 구현할 때 부정어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비수지표지이다.

〈표Ⅳ-7〉 부정표현에 사용되는 비수지요소

부정표현에 사용되는 비수지요소			
	주요요소	선택요소1	선택요소2
머리(고개)	{고개좌우로흔들기}		{고개기울이기}
눈썹	{눈썹내리기}	{눈썹찌푸리기}	{눈썹올리기}
눈			{눈부릅뜨기} {눈흘려보기}
입	{입꼬리내리기}	{입술좌우로당기기}	{입술꼭다물기} {입술벌리기} {입술동그랗게만들기} {공기내쉬기}
혀			{혀내밀기}
턱			{턱내리기}

비수지표지 중 {고개좌우로흔들기}, {눈썹내리기}, {입꼬리내리기}는 부정표현 전반에 나타나는 주요 요소이다. {눈썹찌푸리기}, {입술좌우로당기기}는 부정표현에서 자주 선택되는 요소이다. 이 외에 {고개기울이기}, {눈썹올리기}, {눈부릅뜨기}, {눈흘려보기}, {턱내리기}, {혀내밀기}, {입술꼭다물기}, {입술벌리기}, {입술동그랗게만들기}, {공기내쉬기} 등도 부정의 대상에 따라 선택되는 요소이다.

4.3. 부정법의 특징

4.3.1 부정어가 서술어 뒤에 나타난다.

- (1) 가.

		부정표지
	[나]	[술마시다] [안하다]
- *나.

		부정표지
	[나]	[안하다] [술마시다]

 ← 한국어 영향
- 다.

		부정표지		
	[나]	[고기]	[먹다]	[못]
- *라.

			부정표지
	[나]	[고기]	[못] [먹다]

 ← 한국어 영향

한국수어에서 부정어는 서술어 뒤에 나타난다. (1가)와 (1나)는 ‘나는 술을 안마시겠다(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1다)와 (1라)는 ‘나는 고기를 못 먹는다(나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1가)~(1라) 중에 한국수어 부정법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문장은 (1가)와 (1다)이며, (1나)와 (1라)는 바른 사용법이 아니다. 물론 한국수어에서도 간혹 부정어가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1나)와 같은 ‘안’ 부정에 해당하는 의지부정 표현에서보다는 (1라)와 같은 ‘못’ 부정에 해당하는 능력부정 표현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의지부정의 경우는 서술어 뒤에 부정어가 놓이며 서술어 앞에 부정어를 제시할 경우 (1나)와 같이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되는 반면, 능력부정의 경우 (1라)와 같이 그 어색함이 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어가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방식은 한국어 영향이며, 한국수어에서는 부정어가 서술어 뒤에 위치하는 것이 바른 구현 방식이다.

4.3.2. 의미적(어휘적)으로 부정표현으로 쓰이는 단어가 많고 쓰임새가 엄격하다.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달리 부정문에 사용되는 수어 단어가 다양하고 그 쓰임새가 각각 다르며 엄격한 편이다. 또한 한국수어 부정어는 한국어 부정어와 의미범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아니다’를 사용하는 부정문을 한국수어에서는 ‘없다’ 부정문으로 표현해야 하는 문장이 있다. 또한 이후에 다룰 사실부정, 상태부정, 완료부정, 능력부정, 상황부정이라는 범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수어는 무엇을 부정할 것인지에 따라 ‘부정어’가 달라진다.

4.3.3 이중부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중부정(二重不定)이란 한 문장 혹은 절 내에 부정의 요소가 둘 있음에 따라 부정한 내용이 다시 부정되어서 결국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표현을 말한다(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 2014: 643). 한국어는 이중부정이 발달한 언어이며 이중부정이 사용된 의문문도 발달하였다.

반면, 한국수어는 이중부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수어문에 이중부정이 나타난다면 해당 수어문은 한국어 영향을 받은 수지한국어 문장이다. 실제로 한국수어 화자들은 한국어의 이중부정 문장을 어색하게 여기며 문장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에 수고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한국수어에서는 이중부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수지표지와 다양한 수어 단어의 사용, 단어의 강세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다음은 한국어 이중부정문 중 하나를 한국수어로 번역한 예시이다.

- (2) 가. 한국어 '네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 나. *수지한국어 [너] [가다] [아니다] [~면] [안 돼] ← 한국어 영향
- 다. 한국수어 [너] [꼭] [가다] [하다]+
- {시선교환} {고개끄덕이기}

(2나)는 ‘네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한국어 문장 (2가)에 대한 수지한국어 번역문이다. 한국어 이중부정문이 수지한국어 문장으로 제시되는 경우 한국수어 화자 대부분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다. 왜냐하면 한국수어에서는 이중부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다)와 같이 한국수어로 번역하여 ‘네가 꼭 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⁴⁵⁾ (2가)에 대한 한국수어 번역 예시는 표현 가능한 여러 문장 중 하나에 불과하며 한국어 문장 ‘네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의 맥락에 따라 여러 수어 단어와 비수지표지가 활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의 예시를 통해 한국수어에서 이중부정은 사용되지 않으며 어휘와 비수지표지의 다양한 선택과 결합을 통하여 이중부정이 드러내고자 했던 강한 긍정을 구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4. 부정을 나타내는 비수지표지가 문장에 앞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 (3) 가.

부정표지	> <	부정표지
[나]	[버섯]	[못하다]
-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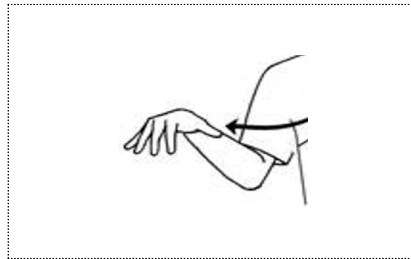
부정표지				부정표지	
[아니다2]	{휴지}	[너]	[말하다]	[내용]	부정표지
					[맞지 않다]

한국어는 부정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비수지표지(얼굴표지)를 통해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3가)는 ‘나는 버섯을 못 먹는다.’, (3나)는 ‘네가 한 말은 (대화 주제 혹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3가)와 (3나) 모두 부정표지가 문장에 앞서 나타난다. 결국에 (3가)와 같이 기본문장에서의 부정표지는 부정문에 앞서 나타나 부정문을 마칠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 또한 부정문의 경우 부정어가 문장의 시작과 마지막에 두 번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 (3나)에서와 같이 부정어 혹은 부정표지가 먼저 제시되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며 그에 대한 결론이 부정어로 다시 한번 제시되는 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문장의 확대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5) (2다)에서 [가다][하다]는 '가야 한다'에 대한 번역이 아니다. [하다]는 의지와 강조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어문에 자주 나타나는 방식이다.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4.4.1. 부정접미사 역할을 하는 어휘에 의한 부정표현



[그림Ⅳ-21] [없다(손털기)]

위에 제시된 수지기호 [없다(손털기)]는 한국수어에서 부정접미사 역할을 한다. 이 수지기호는 [아직(한손)]과 많이 유사하나 수동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직(한손)]은 기본적으로 상하운동이고 [없다(손털기)]는 몸의 좌우바깥 방향으로 손가락을 뿌리듯이 움직인다. 아래는 [없다(손털기)]와 [아직(한손)]이 수어 단어와 결합하였을 때의 의미 차이를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수어	수어		수어
*[결혼]+[없다(손털기)]	[결혼]+[아직(한손)]	[보다]+[없다(손털기)]	[보다]+[아직(한손)]

[그림Ⅳ-22] [없다(손털기)] / [아직(한손)]

한국수어에서 ①은 어색한 표현이다. 한국수어에서는 [결혼]과 [없다(손털기)]의 결합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수어에서 결혼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할 때에는 ②와 같이 [결혼]+[아직(한손)]의 결합을 보여준다. 따라서 [없다(손털기)]와 [아직(한손)]은 원형-변이형의 관계가 아니라 의미 범주가 일치하지 않는 개별 단어임을 알 수 있다.

③과 ④는 둘 다 ‘보지 않은’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나 맥락과 의미는 다르다. ③은 영화, 뉴스, 게시물 등등 초점이 되고 있는 대상이나 주제를 아직 보지 못했다는 의미로서 찾아서 보겠든가 관심 없다든가 하는 화자의 의중에 대한 정보는 없다. 반면 ④는 봐야 하거나 보고자

하는 무언가(내용)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화자가 언젠가 그 대상을 살펴볼 것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다.

4.4.2. 부정의 초점에 따른 부정표현

한국수어에서는 부정의 초점⁴⁶⁾, 즉 부정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부정어가 정해져 있다. 다음은 부정의 초점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수어 부정표현의 종류와 기능이다.⁴⁷⁾

〈표Ⅳ-8〉 부정의 초점에 따른 부정표현

부정의 초점에 따른 부정 표현				
범주		요소		쓰임
		부정어	비수지표지	
사실부정	①	 [아니다1]	{고개좌우}or {고개기울이기} {눈썹내리기} {입술좌우로당기기} {턱내리기}	어떤 사실을 단순 부정할 때
	②	 [아니다2]	{고개좌우}or {고개기울이기} {눈썹내리기}or {눈썹올리기} {입꼬리내리기}	어떤 사실을 단순 부정할 때 ⁴⁸⁾ #아니야!
상태부정	①	 [없다]	{입꼬리내리기}	상태, 성질, 존재 등을 부정할 때.
	②	 [아직(한손)]	{고개좌우} {혀내밀어물기} or {입꼬리양쪽으로벌리기}	앞서 제시된 상태가 아님을 표현할 때 #취업 아직 #밥 아직

46) 한국어교육학 사전에서는 ‘부정의 초점’을 부정의 중의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한국어교육학 사전:644), 본서에서는 부정하는 대상에 따른 어휘 선택의 관점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47) 본 〈표〉는 [한국수화의 부정문 유형구분](김만영 2013: 121-123)에 기초하였으며, 범주와 내용은 수정 보완되었다.

48) 사실부정 [아니다2]는 의지부정 [안하다]와 수지기호는 같고 비수지기호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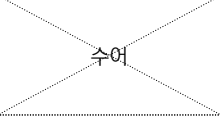





49) 수지기호 [말다]는 ‘일을 그만두다’라는 의미에도 사용되는 어휘이다. 부정표현으로 사용할 때와 비수지기호가 다르다.


부정의 초점에 따른 부정 표현				
범주		요소		쓰임
		부정어	비수지표지	
완료부정	①	 [아직(비우세손 결합)]	{고개좌우} {입벌리기}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완결되지 않았음을 표현할 때 #일을 다 마치지 못함
능력부정	①	 [못하다1]	{눈썹내리기} {입꼬리내리기} {입술꼭다물기}	주체의 의지는 있으나 능력부재, 외부적 요인 등으로 할 수 없을 때(불능)
상황부정	①	 [못하다2]	{눈썹찌푸리기} {입술꼭다물기}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면 안되는 상황임을 알리고 강제할 때(금지)
	②	 [말다] ⁴⁹⁾	{눈썹찌푸리기} {눈부릅뜨기} {입술꼭다물기}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강제할 때(제지)


4.4.3. 그 외의 부정표현


한국수어에는 범주화하기는 어려우나 사용빈도가 높고 의미적으로 중요한 부정표현들이 있다. 다음은 사용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부정표현들이다.


〈표Ⅳ-9〉 그 외의 부정표현

그 외의 부정표현				
어휘		요소		쓰임
		부정어	비수지표지	
[불가능] ⁵⁰⁾ 부정표현	①	 [불가능1]	{눈썹내리기} {입모양-‘오/후’} {공기내쉬기} >> 수지기호는 약하고 짧게 2번 이상 수행	어떤 행위나 동작을 시도해도 원하는 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음을 나타낼 때(불가능). #소리를 들을 수 없다.
	②	 [불가능2]	{눈썹내리기} {입모양-‘오/후’} {공기내쉬기} >> 수지기호는 강하고 길게 한번 수행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해도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나타낼 때(불가능/ 가망 없음)
[안되다] ⁵¹⁾ 부정표현	①	 [안되다](손가락 반복)	{고개기울이기} {눈썹올리기}or {눈썹내리기} {입술벌리기}	주체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행위나 동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시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능) #작동이 안되다
[안 돼] ⁵²⁾ 부정표현	①	 [안 돼]	{눈썹내리기} {입꼬리내리기}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때(거절)
[안하다] 부정표현	①	 [안하다]	{눈썹내리기} {입꼬리내리기} {몸통뒤로빼기 (주어가 화자일 때)} 수어공간-화자가 가까이	주체가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고 싶지 않음을 나타낼 때 #안 하겠다
	②	 [안하다]	{눈썹내리기} {입꼬리내리기} 수어공간-상대가가 가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나 동작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때 #그러지 마라

50) [불가능1]은 수형 10형()을 입 앞에 위치시킨 후 경로 없이, 혹은 짧은 경로로 5지와 검지를 튕겨 벌리는 동작을 2회 정도 반복한다.

[불가능2]는 수형 10형()을 입 앞에 위치한 후 앞 방향으로 길게 움직이며 5지와 1지를 강하게 튕겨 벌리는 동작이다.

51) [안되다]는 2지와 5지를 붙인 수형()의 1지를 콧방울에 대고 2지와 5지를 튕겨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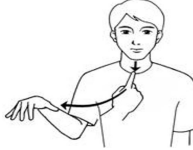
52) [안 돼]는 2지와 5지를 붙인 수형()의 1지를 콧방울에 대고 2지와 5지를 강하게 튕겨 펴면서 손 전체를 앞으로 보내는 형태이다.

그 외의 부정표현				
어휘		요소		쓰임
		부정어	비수지표지	
부정극어에 의한 부정표현	①	 [절대로1]	{눈썹내리기} {입술좌우로당기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조하여 표현할 때
		 [절대로2]	{고개좌우} {눈썹내리기}	
관용어휘에 의한 부정표현	①	 [강하다1]	{입술좌우로벌리기}	'꼬떡없다.' 뜻이 내포된 강한 부정의 의미를 표현할 때
	②	 [강하다2]	{고개기울이기} {입술벌리기}	'꿈쩍도 하지 않는다(뜻대로 되지 않음).'라는 뜻이 내포된 강한 부정의 의미를 표현할 때
모순관계 어휘에 의한 부정표현	①	 [모르다]	{고개좌우} or {고개기울이기} {입술다물기} {입술내밀기} {어깨으쓱하기}	모순관계에 있는 어휘를 통해 부정을 표현할 때
	②	 [못생기다]	{눈썹내리기} {입술좌우로당기기}	
	③	 [잘하지못하다]	{눈썹내리기} {입술좌우로당기기}	

4.5. 부정표현 예시

4.5.1. 부정접미사 역할을 하는 어휘 [없다(손 털기)]에 의한 부정

부정접미사 역할을 하는 어휘인 [없다(손 털기)]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과 결합하여 부정표현을 실현한다.

① 	② 	③ 	④ 
[맛있다]+[없다(손털기)]	[보다]+[없다(손털기)]	[맛]+[없다(손털기)]	[반가움(흥)]+[없다(손털기)-양손]
⑤ 	{고개좌우} {입조금벌리기} {혀내밀기}		⑥ 
[~적없다(손털기)]	의미: 경험 없음		[~적없다(손털기)]
			의미: 결백함

[그림Ⅳ-23] 부정접미사 역할을 하는 어휘 [없다(손 털기)]에 의한 부정

①[맛있다], ②[보다], ③[맛], ④[반가움(흥)]은 각각 [없다(손털기)]와 결합하여 ①‘맛없다’, ②‘본적 없다.’, ③‘싱겁다’ 혹은 ‘성에 차지 않다.’, ④‘(아주) 재미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⑤와 ⑥의 경우에는 둘 다 [~적없다(손털기)]라는 수지기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비수지표지가 다르다. 이렇게 각기 다른 비수지표지를 통해 ⑤는 어떤 행위나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음을 ⑥은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는 ‘~적 없다(경험 없음)’ ⑥은 ‘그런적 없다(결백함)’의 의미로 쓰인다. 아래는 ⑤와 ⑥을 사용한 부정표현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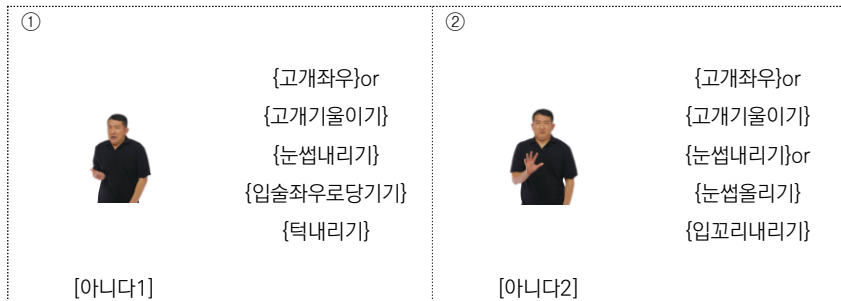
(4) 가. [나] [파리] 부정표지⑤
[~적없다]

나. [나] [빼앗다] 부정표지⑥
[~적없다]

(4가)는 [~적없다]와 ⑤의 부정표지를 통해 ‘나는 파리에 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경험 없음을, (4나)는 [~적없다]와 ⑥의 부정표지를 통해 ‘나는 빼앗은 적이 없다.’라는 결백함을 표현하고 있다.

4.5.2. 부정의 초점에 따른 부정표현

1) 사실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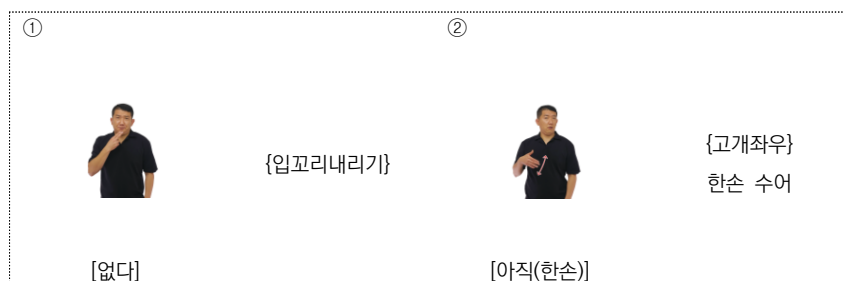
[그림Ⅳ-24] 사실부정

사실부정이란 어떤 사실을 단순 부정할 때 사용되는 부정표현이다. 다음은 사실부정을 사용한 부정표현 예시이다.

(5)	가.	$\frac{\{응시\}_3}{[저]_3}$	{휴지}	[고양이]	$\frac{\text{부정표지①}}{[아니다]}$	{휴지}	[#삶]
나.		$\frac{\text{부정표지②}}{[안하다]}$	{휴지}	[똑같이]	[나눠주다]	{휴지}	[넋다]

(5가)는 ‘저것은 고양이가 아니라 삶이다.’라는 의미로 부정표현 [아니다1]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부정을 표현하였다. [아니다1]은 양손수어로도 표현 가능하다. (5나)는 [아니다2]를 통해 ‘아니야. 공평하게 나눠 주는 게 나아.’라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아니다2]는 [안하다]와 수지기호가 같으나 비수지표지에서 차이가 난다.

2) 상태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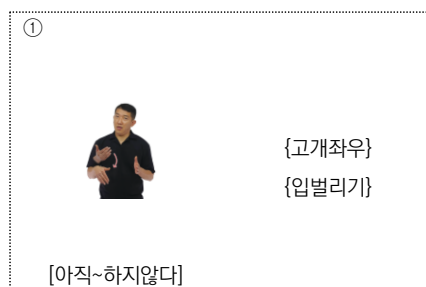
[그림Ⅳ-25] 상태부정

상태부정이란 상태, 성질, 존재 등을 부정할 때 사용되는 부정표현이다. 다음은 상태부정을 사용한 부정표현 예시이다.

				부정표지①
(6)	가.	[지금]	[비]	[없다]
				부정표지②
	나.	[나]	[결혼]	[아직]

(6가)는 [없다]를 통해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6나)는 [아직]을 통해 ‘나는 미혼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한편, 상태부정② [아직]을 다음에 제시되는 경험부정[~적없다]와 같은 단어, 즉 손을 터는 동작의 단어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상태부정 ①과 ②를 크게 구분 없이 사용하는 언어 현상도 있으므로 향후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완료부정





[그림Ⅳ-26] 완료부정

완료부정이란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완결되지 않았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부정표현이다. 앞서 상태부정에 속한 [아직]과는 비우세손 유무로 갈리는데 비우세손이 있는 완료부정의 경우 동작과 행위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상태부정의 [아직]은 우세손만 사용하여 동작과 행위 자체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임을 표현한다. 다음은 완료부정을 사용한 부정표현 예시이다.

		부정표지	
		{양손거리길게}	
(7)	가.	[밥]	[아직~하지않다]
		부정표지	
		{양손거리초근접}	
	나.	[밥]	[아직~하지않다]
		부정표지	
		의문표지	{양손거리길게}
	다.	[지시]3	[아직~하지않다]
		[숨쉴좋다]	

(7가)와 (7나)는 [아직~하지않다]의 양손 거리 조정을 통해 미완의 정도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7가)는 ‘(밥을)아직 다 먹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7나)는 ‘(밥을) 거의 다 먹었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이렇게 완료부정의 경우 비우세손과 우세손 사이의 거리 조정을 통해 미완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 (7다)에서도 [아직~하지않다]의 양손 거리를 길게 유지함으로써 ‘그는 아직 실력이 좋지 않다(그는 고수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의미를 구현하였다. 양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완료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진행이 한참 남아 있는 상태를, 양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진행이 거의 다 되어 곧 완료될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양손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지면 수어문 자체는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으로 번역될 수 있다.

4) 능력부정

①	②
	
{눈썹내리기}	{눈썹내리기}
{입꼬리내리기}	{입모양-‘오/후’}
{입술꼭다물기}	{공기 내쉬기}
[못하다1]	[불가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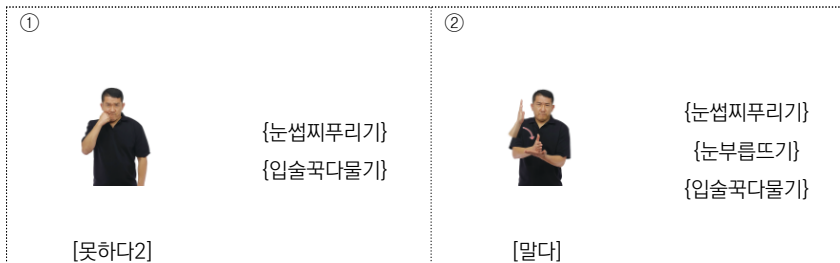
[그림Ⅳ-27] 능력부정

능력부정이란 주체의 의지는 있으나 능력부재, 외부적 요인 등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내거나 어떤 행위나 동작을 시도해도 원하는 대로 기능하지 않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부정표현이다. 다음은 능력부정을 사용한 부정표현 예시이다. [못하다1]은 금지를 나타내는 [못하다2]와 수지 기호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며 [못하다2] 부정표지에 나타나는 단호한 표지가 없다. [불가능1]도 [불가능2]와는 다르게 단어를 구현할 때 반복되고 수동의 경로도 짧다. 다음은 능력부정을 사용한 부정표현 예시이다.

		부정표지				부정표지	
(8)	가.	[나]	[지시] ₃	[눈치]	{휴지}	[참석]	[못하다1]
		부정표지					부정표지
	나.	[나]	[이]	[아프다]	[심하다]	{휴지}	[밥]
							[못하다1]

(8가)와 (8나)는 [못하다1]을 통해 의지는 있으나 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8가)는 업무 상급자의 눈치가 보여 원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눈치가 보여 참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며, (8가)는 먹고는 싶지만 치통으로 인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이가 너무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5) 상황부정



[그림Ⅳ-28] 상황부정

상황부정이란 상황에 대한 주체의 의사를 부정표현으로 실현하는 방식으로 위에 제시된 단어들은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화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제지할 때 사용된다. 다음은 상황부정을 사용한 부정표현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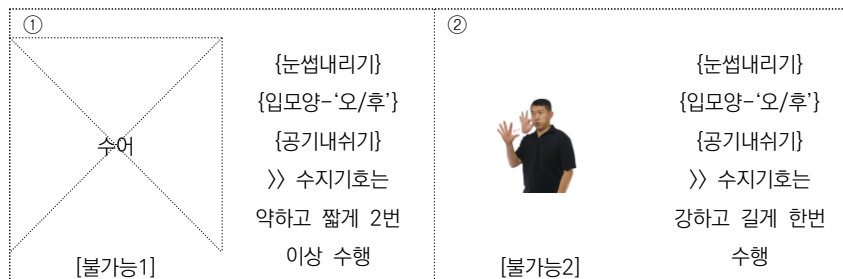
					부정표지
(9)	가..	[이슬람교]	[신자]	[지시] ₃	[돼지고기] [못하다2]

					부정표지
나..	[너]	[독감]	[때문에]	[집(머물다)]	[외출] [말다]

(9가)는 ‘무슬림들에게 돼지고기는 금기 식품이다(무슬림들은 (교리 상)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못하다2]는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금지와 금기와 관련한 부정표현에 사용된다. 문장의 예시처럼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체질이어서가 아니라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금기시하고 있다. 통제부정에 사용된 [못하다2]는 능력부정 [못하다1]과 많이 혼동을 일으키는 어휘이다.⁵³⁾ 이는 한국수어가 구어체 언어에 가깝고 비수지 표지가 의미의 변인에 큰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나타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두 단어가 분명 다른 수형과 쓰임새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9나)는 ‘너는 독감에 걸렸으니 외출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라는 의미로 청유문과 명령문에서만 나타나는 부정표현이다.

4.5.3. 그 외의

1) [불가능] 부정표현



[그림Ⅳ-29] [불가능] 부정표현

[불가능1]과 [불가능2]는 주체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지하거나 그렇게 판단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보여주는 부정표현에 사용된다. [불가능1]은 수동의 경로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짧은 내부수동이 반복된다. [불가능2]는 내부수동의 반복이 없으며 수동 경로가 길고 강하게 한번 구현된다. 그리고 다음은 실현부정을 사용한 부정표현 예시이다.

53) 능력부정 [못하다1]는 부드러운 거절, 상황부정 [못하다2]는 강한 거절로 이해하는 현상도 발견된다.

(10)	부정표지						부정표지①	
	가.	[나]	[이]	[아프다]	[심하다]	{휴지}	[밥]	[불가능1]
	나.	[사람]	[백일]	[금식]	{휴지}	[생명+존재]	의문표지	부정표지①
							[가능]	{휴지}
	다.	[사람]	[백일]	[금식]	{휴지}	[생명+존재]	의문표지	부정표지②
[가능]							{휴지}	[불가능2]
라.	부정표지						부정표지②	
	[너]	[매일]++	[백수]	[놀다]	{휴지}	[시험]	[합격]	[불가능2]

(10가)는 ‘나는 이가 너무 아파서 밥을 전혀 먹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다. (10나)는 [불가능1]을 통해 ‘사람이 백일 동안 금식하고도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이 문장은 (10다)에서와 같이 [불가능2]를 통해서도 표현 가능한데 이런 경우 (10나)에서보다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점이 더욱 강조된다. (10라) 또한 [불가능2]를 통해 ‘네가 매일매일 노는 걸 보니 시험 합격은 아예 틀렸다.’라는 의미를 실현하였다.

2) [안되다] 부정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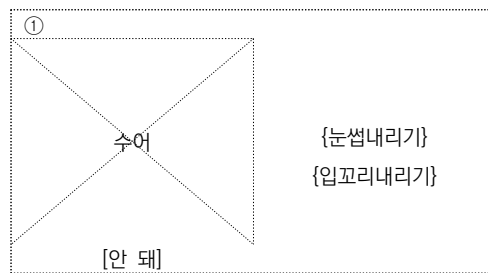
[그림 IV-30] [안되다] 부정표현

[안되다]는 주체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행위나 동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용되는 부정표현으로서 주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안되다]는 내부수동이 반복되기 때문에 [호기심]수어와 유사해 보이지만 수향에 차이가 있다. 다음은 [안되다]를 사용한 부정표현 예시이다.

(11) 가. [컴퓨터] [갑자기] 부정표지
[안되다]

(11가)에서와 같이 [안되다]는 사용에 문제가 없던 물건이나 기계가 갑자기 작동이 되지 않을 때, 매뉴얼대로 고쳐보는데 잘 되지 않을 때와 같은 상황에 자주 쓰인다. (11가)는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라는 의미이다.

3) [안 돼] 부정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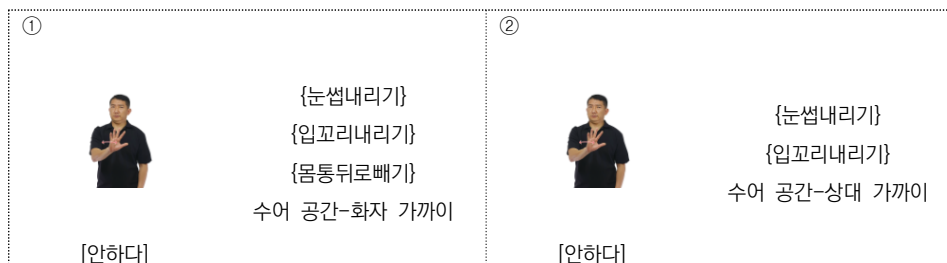
[그림Ⅳ-31] [안 돼] 부정표현

[안 돼]는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때 사용되는 부정표현이다. 앞서 제시된 [안되다]와 수형은 같으나 수동이 다르다. 다음은 [안 돼]를 사용한 부정표현 예시이다.

(12) 가. [시험] [날짜] 부정표지③
[연기] [안 돼]

(12가)는 ‘시험날짜는 연기해 줄 수 없다.’라는 의미로서 단순한 호불호의 의미가 담긴 거절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청에 대한 분명한 거절을 표현하고 있다.

4) [안하다] 부정표현



[그림Ⅳ-32] [안하다] 부정표현

[안하다]는 주체가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고 싶지 않음을 나타낼 때, 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나 동작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때 사용되는 부정표현이다. [안하다]는 앞서 제시된 사실부정의 [아니다₂]와 수지기호는 같으나 비수자표지가 다르다. 다음은 [안하다]를 사용한 부정표현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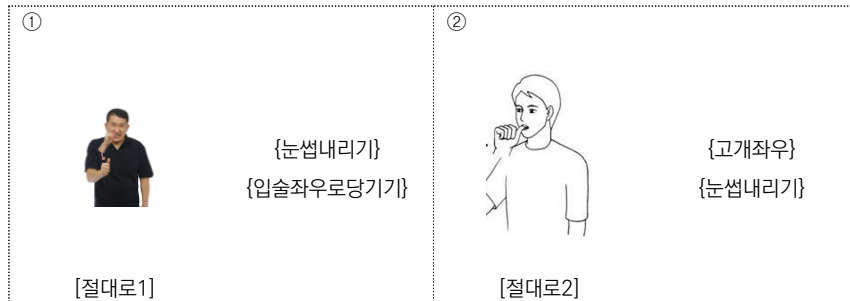
부정표지①				
{공간-화자가가이}				
(13) 가.	[나]	[회의]	[참석]	[안하다]

부정표지②				
{공간-상대가가이}		{시선교환}		
나.	[안하다]	{휴지}	[조용하다]	[예의] ⁵⁴⁾

(13가)는 ‘나는 회의에 참석 안하겠다.’라는 의미로 특정 행위에 대한 주체의 선택, 부정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때 [안하다]는 화자 가까이에서 구현되는데 이를 통해 화자 자신의 ‘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반면 (13나)는 ‘그러면 안 된다. 조용히 있어야지.’라는 의미로 [안하다]를 상대방 가까이에서 구현하여 상대방에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54) 이 수어문에서 [예의]는 사람들 앞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쓰였는데 이런 맥락의 수어문에 자주 등장한다.

5) 부정극어를 동반한 부정표현



[그림Ⅳ-33] 부정극어를 동반한 부정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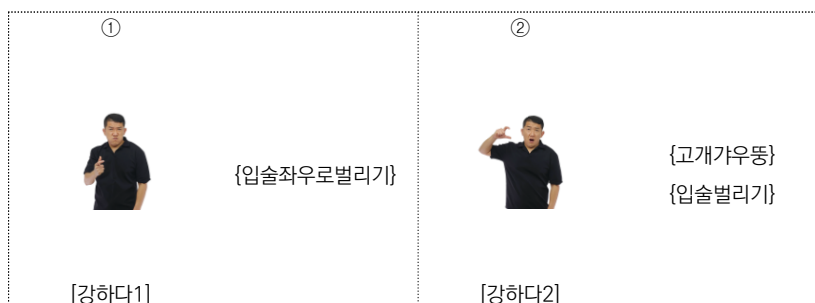
부정극어란 부정표현에만 호응하는 특정 단어를 말한다. 부정극어는 부정의 의사를 강조하여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부정표현 요소이다. 부정극어 [절대로1]과 [절대로2]는 단어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나 의미에는 차이가 없으며, 의지부정에 사용되는 [안하다]와 함께 주체가 1인칭인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⁵⁵⁾다음은 부정극어 [절대로1], [절대로2]를 사용한 부정표현 예시이다.

		부정표지①		부정표지	
(14)	가.	[나]	[절대로1] {휴지}	[술마시다]	[안하다]
		부정표지		부정표지②	
나.	[나]	[용서]	₁ [주다] ₃ {휴지}	[안하다]	[절대로2]

(14가)는 부정극어 [절대로1]을 통해 표현한 부정표현으로 ‘나는 결단코 술을 마시지 않겠다.’의 의미로 쓰였다. (14가)는 부정극어 [절대로2]를 통해 표현한 부정표현으로 ‘내가 그를 용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절대로1]과 [절대로2]는 같은 의미로 호환이 가능하다.

55) [절대로]는 통제부정에 사용되는 [안 돼]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6) 관용 어휘에 의한 부정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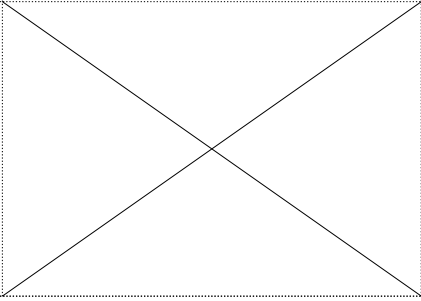
[그림Ⅳ-34] 관용 어휘에 의한 부정표현

관용 어휘란 단어를 구성한 요소들의 축자적(逐字的) 의미의 합과는 무관한 제삼의 의미를 가진 어휘를 말한다. 관용 어휘에는 해당 언어 공동체의 역사·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다(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 2014: 557-558). 수어 단어 [강하다1]은 흔히 ‘힘이 세다’나 ‘튼튼하다’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의미는 ‘끄덕없다’이다. 더 나아가 관용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표현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면서 부정표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강하다1]과는 비수지표지에 차이가 발생하여 [강하다2]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관용 어휘 [강하다1]과 [강하다2]를 사용한 부정표현 예시이다.

부정표지①			
(15)	가.	[깨지다]	{휴지} [강하다1]
부정표지②			
	나.	[전화]**	{휴지} [강하다2]
부정표지②			
	다.	[비] [기다리다]	{휴지} [강하다2]

(15가)는 [강하다1]를 사용한 부정표현으로 ‘여간해서는 고장 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물건의 튼튼함을 강조하였다. (15나)와 (15다)는 [강하다2]를 사용한 부정표현으로 (15나)는 ‘아무리 전화해도 도무지 전화를 받지 않는다.’, (15다)는 ‘아무리 비를 기다려도 도대체 비소식이 없다(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표현하였다.

7) 모순관계 어휘에 의한 부정표현

<p>①</p>  <p>{고개좌우} or {고개기울이기} {입술다물기} {입술내밀기} {어깨으쓱하기}</p> <p>[모르다]</p>	<p>②</p>  <p>{눈썹내리기} {입술좌우로당기기}</p> <p>[못생기다]</p>
<p>③</p>  <p>{눈썹내리기} {입술좌우로당기기}</p> <p>[못하다]</p>	

[그림Ⅳ-35] 모순관계에 의한 부정표현

모순관계 어휘란 부정표현에만 호응하는 특정 단어를 말한다. 부정극어는 부정의 의사를 강조하여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부정표현 요소이다. 다음은 모순관계 어휘 [모르다], [못생기다], [못하다]를 사용한 부정표현 예시이다.

(16)	긍정문	가.	[나]	[저] ₃	[교사]	{휴지}	[알다]	
	부정문 (상태부정어 사용)	나.	[나]	[저] ₃	[교사]	{휴지}	[알다]	부정표지 [없다]
	부정문 (모순관계 어휘 사용)	다.	[나]	[저] ₃	[교사]	{휴지}	[모르다]	부정표지 [없다]

(16가) ‘나는 저 선생님을 안다.’라는 의미의 긍정문으로 이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변환할 때에는 (16나)와 같이 상태부정어 [없다]를 사용하는 방식과 (16다)와 같이 모순관계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16나)와 (16다)는 형식은 다르나 ‘나는 저 선생님을 알지 못한다(나는 저 선생님을 모른다).’라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17)	긍정문	가.	[나]	[아들]	{휴지}	[얼굴]	[예쁘다]	
	부정문 (상태부정어 사용)	나.	[나]	[아들]	{휴지}	[얼굴]	[예쁘다]	$\frac{\text{부정표지}}{[\text{없다}]}$
	부정문 (모순관계 어휘 사용)	다.	[나]	[아들]	{휴지}	[얼굴]	[못생기다]	$\frac{\text{부정표지}}{[\text{못생기다}]}$

(17가) ‘내 아들은 얼굴이 예쁘다.’라는 의미의 긍정문으로 이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변환할 때에는 (17나)와 같이 상태부정어 [없다]를 사용하는 방식과 (17다)와 같이 모순관계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17나)와 (14다)는 형식은 다르나 ‘내 아들은 얼굴이 예쁘지 않다(내 아들은 얼굴이 못생겼다).’라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18)	긍정문	가.	[나]	[여동생]	{휴지}	[운동]	[잘하다]	
	부정문 (상태부정어 사용)	나.	[나]	[여동생]	{휴지}	[운동]	[잘하다]	$\frac{\text{부정표지}}{[\text{없다}]}$
	부정문 (모순관계 어휘 사용)	다.	[나]	[여동생]	{휴지}	[운동]	[못하다]	$\frac{\text{부정표지}}{[\text{못하다}]}$

(18가) ‘내 여동생은 운동을 잘한다.’라는 의미의 긍정문으로 이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변환할 때에는 (18나)와 같이 상태부정어 [없다]를 사용하는 방식과 (18다)와 같이 모순관계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18나)와 (18다)는 형식은 다르나 ‘내 여동생은 운동을 잘 못한다.’라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5. 수어양식과 동사

한국수어에서 동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로서 시각언어의 특성상 음성언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동사의 유형에 따라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인칭을 표시하는 방법, 주어와 목적어의 단수와 복수를 표시하는 방법,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가 어디서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방법 등이 다르다.

5장은 크게 동사의 유형과 동사의 유형 중 공간동사의 정의와 하위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5.1절 동사 유형에서는 패든(Padden 1988)이 제안한 동사의 세 가지 분류인 일반동사, 일치동사, 공간동사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문법 장치들을 살펴본다. 5.2절에서는 공간동사에 대해 살펴본다. 공간동사는 분류사동사, 움직임과 위치 동사, 묘사동사 등 여러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도상성과 생산적수어의 차원에서 사용되는 동사이기도 하다. 그만큼 공간동사는 일치동사와 일반동사에 비해 동사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과 특성이 다양하여 학자마다 여러 용어로 불려왔다. 공간동사를 둘러싼 용어 문제와 하위 부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5.1. 동사 유형

방향성은 제스처 양식으로 표현되는 수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Fischer 외 1978). 여기서 제스처 양식이라는 의미는 언어와 언어가 아닌 것을 가르는 구분이 아니라 음성이 아닌 수지요소와 비수지요소로 산출된다는 의미이다. 방향성은 동사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수어 동사의 초기 기술에서 동사는 방향성을 가진 것과 방향성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누었다(Fischer 외 1978; Supalla 1982; Padden 1986).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동사 분류는 패든(Padden 1988)이 제안한 것으로 일반동사(plain verb), 일치동사(agreement verb), 공간동사(spatial verb)로 나눈다. 이 동사 분류는 각국 수어에도 적용되었고 한국수어에서 동사 연구에도 폭넓게 인용되었다. 동사 유형별 인칭과 상, 수에 대한 동사의 형태 변화는 형태론에서 다루었으므로 이번 5장에서는 동사 유형에 따라 문장의 주성분인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하는 문법적 장치와 어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5.1.1 일반동사

패든(1988)은 동사와 결합하는 접사에 기초하여 동사를 분류한다. 단순동사라고도 불리는 일반동사는 인칭, 수를 위해 동사의 형태를 바꾸지 않지만 일부 일반동사는 상을 위해 형태를

바꾼다. 일반동사에서 위치는 동사 산출을 위해 기능할 뿐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한국수어에서 [좋아하다]와 [싫어하다] 두 동사는 각각 코와 턱에서 산출되는데 두 위치는 주어와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일반동사가 사용된 문장에 비수지표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SOV 어순, 즉 동사 앞에 먼저 제시된 명사가 주어이고 동사 다음에 제시된 명사가 목적어인 어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원성옥 외 2013). 시선응시나 특정 공간 가리키기, 몸의 방향 바꾸기 등과 같은 비수지표지와 함께 동사 표현이 나타나면서 주어와 목적어를 나타낸다. 아래 (1)과 (2)에서 [좋아하다]와 [싫어하다] 동사는 방향이나 수형, 위치 등을 변형시킬 수 없는 일반동사이다. 따라서 이 경우 두 동사를 하면서 시선이 어디를 응시하는지, 동사를 산출하기 전이나 혹은 산출하면서 동시적으로 특정 공간을 지시하는지, 몸의 방향을 특정 방향으로 틀면서 동사를 산출했는지, 수어 화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나 제3자가 되어서 수어를 하는지(역할전환) 등을 볼 수 있어야 주어와 목적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허일 외 2013).

- | | | | | | |
|-----|----|-------------------|-------------------|---------------------|--------|
| (1) | 가. | [남자] | [여자] | [좋아하다] | |
| | | | | {시선응시} | |
| | 나. | [남자] _a | [여자] _b | [지시] _{a→b} | [좋아하다] |

(1가)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다’, (1나)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하다’라는 의미이다. 두 문장은 어순이 같기 때문에 각각의 문장에서 먼저 제시된 [남자]가 주어가 되고 나중에 제시된 [여자]가 목적어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1나)에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수어 공간의 a위치와 b위치에서 산출하여 두 위치를 두 논항과 연결한다. 그리고 나서 두 위치를 지시하면서 시선응시도 함께 따라온다. 그런 후에 동사 [좋아하다]를 표현한다. (1나)에서 [지시]a → b 없이 여자와 연결된 b위치를 응시하고 상체도 b위치를 향하면 같은 의미의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

지시를 이용한 공간활용과 시선응시, 상체의 향함 등 비수지표지가 동반될 때 비수지표지는 지시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두 문장의 어순은 같지만 지시대명사 역할을 하는 지시를 통한 공간활용과 시선응시, 상체의 향함이 동반된다면 (1가)는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를 담은 문장이 되고 (1나)는 특정 대상으로서의 ‘그 남자’와 ‘그 여자’라는 의미를 담은 문장이 된다.

- | | | | | | |
|-----|----|-------------------|-------------------|---------------------|--------|
| (2) | 가. | [남자] | [여자] | [싫어하다] | |
| | | | | <u>{시선응시}</u> | |
| | 나. | [남자] _a | [여자] _b | [지시] _{b→a} | [싫어하다] |

(2)의 두 문장은 어순이 같지만 지시를 통한 공간활용과 시선응시, 상체의 향함 등 비수지표지를 통해 주어와 목적어가 반대인 문장이 되었다. (2나)에서 [남자]가 먼저 제시되고 [여자]가 나중에 제시되어 [남자]가 주어처럼 읽힐 수 있으나 [남자]는 a위치에 [여자]는 b위치에 지정한 상태에서 시선응시와 지시가 b에서 시작하여 a로 옮겨갔기 때문에($b \rightarrow a$),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싫어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반면 (2가)는 어순대로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2나)에서 [지시] $b \rightarrow a$ 없이 남자와 연결된 a위치를 응시하고 상체도 a위치를 향하면 같은 의미의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

(1나)와 (2나)는 지시를 통한 공간활용과 시선응시, 상체의 향함이 지시대명사 역할을 함으로써 [남자], [여자]가 일반적인 대상이 아닌 특정한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한국수어는 수어 공간의 활용과 시선응시와 몸의 방향 바꾸기와 같은 비수지표지를 통해 주어 목적어 관계를 특정하므로 수어 단어를 한국어 어순에 맞춰 나열하는 수지한국어로는 한국수어 문법을 구현할 수 없으며 한국수어 문장을 이해할 수 없다(원성옥 외 2013).

5.1.2. 일치동사

일치동사는 인칭, 성, 수, 상에 따라 변하는 동사이며, 위치 접사는 취하지 않는다(Padden 1988). 일치동사는 수어 공간에서 동사의 이동 경로와 방향의 변화로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표현한다. 일치동사는 앞에 어떤 어순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이 나열되어 있더라도 공간 활용을 통해 각각의 단어에 특정 공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시작점과 끝점, 혹은 방향에 의해 주어와 목적어를 결정할 수 있다.

수어 공간을 사용하고 역방향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일치동사는 수어 문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일치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 어순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수어 공간의 지시 지점과 연결된 명사는 제시된 순서와 상관없이 일치동사의 시작점과 도착점에 따라 주어와 목적어가 결정되고 의미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장에 필요한 의미 단위들도 일치동사에 내포되어 있거나 방향의 전환을 통해 표현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와는 달리 많은 단어가 시각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3) 가. [뚝다] $a \rightarrow b$

나. [뚝다] $b \rightarrow a$

(3)은 일치동사 [뚝다]가 포함된 문장이다. 일치동사는 한국수어 문장의 효율을 높여준다. 왜냐하면 일치동사는 공간활용을 통해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3)은 대화 상대자가 수어 화자 앞에 있을 경우 주어와 목적어인

[나]와 [너]를 생략하고도 무리 없이 담화를 이어간다. 한국수어 담화 시에 화자와 대화 상대자 모두 주어와 목적어를 이해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간활용과 지시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치동사는 이러한 효율을 더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 (4) 가. [그]a [골탕먹이다]a→b
나. [그]a [골탕먹이다]b→a

(4)에서 동사의 방향을 전환한 것만으로 문장의 의미를 반대로 전환시킬 수 있다. 또한 (4가)에서는 목적어 [나]b가 일치동사 [골탕먹이다]a→b를 통해 표현되어 생략되었고 그 의미는 ‘그가 나를 속이다’이다. (4나)에서는 주어 [나]b가 일치동사 [골탕먹이다]b→a를 통해 표현되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장의 의미는 ‘내가 그를 속이다’이다.

- | | | | | | | | |
|-----|----|------|------|----------|----------|----------|----------|
| | | | | [부르다]a→b | | [건네다]a→b | |
| (5) | 가. | [아빠] | [아들] | [2] | [부르다]a→c | [선물] | [건네다]a→c |
| | | | | | [부르다]a→b | | [건네다]b→a |
| | 나. | [아빠] | [아들] | [2] | [부르다]a→c | [선물] | [건네다]c→a |

또한 일치동사는 (5)에서와 같이 논항과 연결된 위치들 사이를 이동하며 이를 통해 논항들 사이의 의미관계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 (5가)는 ‘아빠가 아들 둘을 불러 선물을 주었다’라는 의미이다. [부르다]⁵⁶⁾를 두 번 표기한 것은 수어 화자가 두 손으로 동시에 [부르다] 동사를 산출하여 두 아들을 부른 것을 표현함을 나타낸 것이다. 일치동사 [건네다]는 아빠인 수어 화자의 위치(a)에서 아들 둘의 위치(b와 c)로 이동한다. (5나)는 ‘아빠가 아들 둘을 불러 선물을 받았다’라는 의미이다. 일치동사 [건네다]는 아들의 위치(b와 c)에서 아빠의 위치(a)로 동시에 움직인다. 일치동사의 역전환과 공간을 이용한 반복 등 다양한 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어 문장을 더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한다.

끝으로 한국수어의 일치동사 중 일부, 예컨대 [부탁하다], [돕다], [위로하다] 등에서 목적어의 성별을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동사들에서 나타난 엄지만 편 주먹 수형은 기본적으로 ‘남성’이 아닌 ‘사람’을 표현한 것으로서 일치동사의 기본형에는 성별 개념이 들어 있지 않다.

56) [부르다]는 상대방을 부르듯이 한 손을 접으며 몸쪽으로 당긴다. 한국수어사전에서 [부르다]는 사람을 나타내는 엄지만 편 수형의 비우세손이 포함된 형태이나 이 문장에서는 비우세손이 생략되고 우세손으로만 산출된다.

5.1.3 공간동사

공간동사는 인칭, 수, 상에 따라 동사 형태를 바꾸지 않으나 위치 접사를 가진다 (Paden 1990). 형태론적 측면에서 일치동사와 공간동사는 매우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둘 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의 차이는 위치가 가진 문법적 역할이다. 일치동사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주어와 목적어를 위한 위치이자 복수를 표현할 때는 일치동사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위치이다. 그러나 공간동사에서 출발점과 도착점은 지시체가 이동하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이라는 점에서 동사의 주어, 목적어 논항을 표시하지 않는다.

		{놀란표정}		{위를응시}		
(6)	가.	[해안가]	[파도]	[큰 파도가 일다]	[사람]	[혼비백산]
	나.	[개]	[2]	[고양이]	[4]	[개와 고양이가 엉켜싸우다]

(6)의 두 문장에는 다양한 수형과 수동이 통사적 의미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6가)는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자 수많은 사람이 혼비백산하여 뛰었다’라는 의미이다. 수어 화자는 밀려오는 파도를 쳐다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장을 표현한다. 매우 놀란 얼굴표정이 함께 나타난다. [큰 파도가 일다]는 집채만 한 파도의 높이와 규모를 수형과 수동 그리고 위를 향한 시선응시로 동시적으로 표현한다. [혼비백산]은 많은 사람이 파도를 피해 우왕좌왕 도망가는 모습이다. 수어 화자의 양손 모든 손가락은 사람들을, 손가락의 움직임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뛰다]와 같은 일반동사만으로는 문장의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없으며 공간동사를 구사해야만 문장이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6나)에서도 ‘개 두 마리와 고양이 네 마리가 엉켜 싸우고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으로 수형과 수동을 통해 서로 물어뜯고 엉켜서 싸우고 있는 개와 고양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개와 고양이의 수는 앞에서 수사 [2]와 [4]로 정확히 표현하고 [개와 고양이가 엉켜 싸우다]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나타내는 양손 손가락으로 서로를 물듯이 표현하여 수를 표지하는 수형은 사라진다. 고정어휘⁵⁷⁾인 [싸우다]로는 이 문장의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없다.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형과 수동이 동원되어야 하는 문장이다.

공간동사와 일치동사는 수어 공간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위치의 쓰임에서 차이가 있다.

57) 고정어휘는 맥락이 없이도 이해가 가능한 수어 단어로 전통적으로 사전에 실리는 수어 어휘를 이른다(원성욱 외 2019: 7).

- (7) 가. [그]a [남자]a [저기]b [걸어가다]a→b
 나. [탁자]a [컵]b [놓다]b→a

(7가)는 ‘그 남자는 저쪽으로 걸어가다’라는 의미이다. 수어 화자는 수어 공간에 남자를 위한 위치(a)와 저쪽을 위한 위치(b)를 설정한 후 동사 [걷다]를 a위치에서 b위치로 이동한다. [걷다] 동사의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는 주어와 목적어가 아니라 남자의 처음과 나중의 위치 관계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7나)는 ‘탁자에 컵을 놓았다’라는 뜻으로 [놓다] 동사를 컵의 위치(b)에서 탁자의 위치(a)로 이동한다. 물론 이때 [놓다] 동사는 컵을 잡은 손의 모양을 취한다. 이처럼 일치동사가 사용하는 위치는 주어와 목적어를 나타내는 문법적 쓰임이 있고 공간동사가 사용하는 위치는 지시체의 지형적인 위치 정보를 나타낸다.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달리 동사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일반동사는 어떤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이고 목적어인지 나타내기 위해 어순뿐만이 아니라 비수지표지, 공간의 통사론적 사용, 공간 가리키기, 눈의 응시(시선변화), 몸의 방향 바꾸기, 역할전환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일치동사는 공간을 문장의 주성분인 주어와 목적어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지만, 공간동사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5.2. 공간동사의 정의

공간동사는 여러 명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 절은 공간동사의 여러 명칭과 하위 유형을 살펴본다.

공간동사의 예로는 ‘-에 가다’, ‘-로 운전해가다’, ‘이동하다’, ‘-에서 이동하다’, ‘-에 놓다’, ‘-를 들다’와 같은 동사와 ‘사람이 걸어가다’, ‘자동차가 지나가다’, ‘네 다리를 가진 동물이 걸어가다’와 같은 움직임과 위치 동사(verbs of motion and location)를 포함한다. 움직임과 위치 동사는 분류사동사(classifier verbs)로도 부르는데 분류사동사가 가진 수형이 ‘사람’, ‘자동차’, ‘네 다리를 가진 동물’ 등 명사 부류⁵⁸⁾를 표현하기 때문이다(Padden 1988: 40).⁵⁹⁾ 공간동사가 분류사동사보다 더 큰 부류이며 모든 공간동사는 결합하는 접사에 따라 몇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눈다

58) 명사 부류는 명사의 특정 범주이다. 명사는 성(gender), 유정성(animacy), 모양(shape)과 같은 지시체의 특징에 따라 부류에 속할 수 있다. 여기서 유정성은 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생명·의식 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분류사동사는 사람, 자동차, 동물이라는 유정성에 따라 수형이 달라진다.

59) 프리쉬버그(Frishberg 1975)는 방향동사를 하위 구분하는 특징으로 수형을 꼽았다. 그리고 동사의 논항의 의미적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한 방향을 취한 수형을 ‘분류사(classifier)’라고 불렀고 분류사 수형을 포함한 어휘들을 ‘분류사 서술어’ 혹은 ‘움직임과 위치 동사’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걷다, 자동차가 가다, 네 다리를 가진 동물이 걸어간다는 뜻을 가진 각각의 동사에서 ‘사람’, ‘자동차’, ‘동물’, 즉 명사의 부류를 수형으로 표현하고 이 수형을 ‘분류사 형태소’로 기술한 것이다. 사람, 자동차, 동물의 분명한 특징에 따라 수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Padden 1990: 119). 서턴-스펜스 외(1999: 145)는 움직임과 위치 동사, 분류사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간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공간동사의 하위 유형은 패든(1990)과 수팔라(1986)의 제안과 거의 유사하다. 아래 <표IV-10>은 패든(1990: 119)에서 가져온 것이다.

<표IV-10> 공간동사의 하위 유형

하위 유형	설명	미국수어의 예
유형1	위치 접사를 포함한 동사	‘이동하다’, ‘놓다’
유형2	위치, 도구-분류사, 방식 접사를 포함한 동사	‘손으로 들다’, ‘손으로 지우개를 잡다’
유형3	위치, 방식, 명사-분류사 접사를 포함한 동사	‘차가 직진하다’, ‘사람이 이동하다’ ‘네 다리를 가진 동물이 이동하다’
유형4	신체에 위치 접사를 가진 동사	‘몸통에 총을 겨누다’, ‘눈을 때리다’ ‘머리에 총을 겨누다’
유형5	위치 접사와 신체 부분 명사 분류사를 포함한 동사	‘편 날개’, ‘발’, ‘꽉 쥔 주먹’

서턴-스펜스 외(1999)는 <표IV-10>에서 제시된 유형5를 제외하고 유형1~유형4는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유형별로 제시된 예는 영국수어이다. 공간동사의 유형1은 위치와 움직임 정보는 포함하지만 행위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것을 거기에 놓다’ 혹은 ‘그것을 여기에 올려놓다’를 뜻하는 문장에서 동사 PUT은 취급되는 사물의 종류를 보여주기 위해 수형을 바꾸지 않는다. 유형2는 행위에 참여하는 사물의 모양과 사물이 취급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가방을 들다’, ‘아기를 안다’, ‘상자를 들다’에서 동사 CARRY는 무엇을 드느냐에 따라 수형이 달라진다. 유형3은 위치와 의미 분류사를 포함한다. ‘차가 좌회전하다’, ‘두 남자가 서로 마주 걷다’, ‘한 남자가 다리 밑에 서 있다’, ‘배가 거친 바다를 건너다’에서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대상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움직임이 빠르는지, 대상이 속한 의미 부류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유형4는 신체 일부를 이용한 행위의 의미를 포함한 동사이다. 그러므로 동사의 위치는 신체 자체이다. HIT(‘때리다’), PAINT(‘칠하다’), WASH(‘씻다’) 등이 예이다(Sutton-Spence 외 1999: 145).

위 표에서 도구-분류사, 명사-분류사, 신체 부분 명사 분류사는 움직임과 위치 동사에서 수형과 수어 화자의 신체로 표현된다. 최근 수팔라(1986)가 제시한 유형을 단순화된 분류사 유형으로 제안한다(Zwisterlood 2012).⁶⁰⁾ 두 가지 범주는 전체 개체 분류사(Whole Entity

60) 수팔라의 분류사 유형은 크기와 모양 특정자(Size and shape specifiers: SASSes), 의미 분류사(semantic classifiers), 신체 분류사(Body classifiers), 신체 부분 분류사(Bodypart classifiers), 도구 분류사(Instrument classifiers)이다. 이 중에서 크기와 모양 특정자는 정지 크기와 모양 특정자와 모사 크기와 모양 특정자로 나뉘고 도구 분류사는 도구 취급 분류사와 기구 분류사로 구분한다. 수팔라의 유형 중에서 모사 크기와 모양 특정자와 신체 분류사가 제외된 이유를 살

classifiers)와 취급 분류사(handling classifiers)이다. 전체 개체 분류사는 수형을 통해 사물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고 취급 분류사는 수형을 통해 사물의 취급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래 표는 전체 개체 분류사와 취급 분류사의 설명과 이에 해당하는 수팔라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Ⅳ-11〉 전체 개체 분류사와 취급 분류사

유형	설명	수팔라 유형
전체 개체 분류사 (whole entity classifiers)	특정 의미 및/또는 모양 특징을 나타내어 지시체를 직접 표현하는 분류사	의미 분류사 정지 크기와 모양 특징자 신체 부분 분류사 일부 기구 분류사
취급 분류사 (handling classifiers)	행위자가 개체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 분류사	도구 취급 분류사 신체 부분 분류사 일부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연구자마다 공간동사의 용어와 하위 유형을 조금씩 다르게 구분하였다. 미국수어에서는 묘사동사(depicting verbs)로 호주수어에서는 다구성동사(polycomponential verbs)로 네덜란드수어에서는 분류사동사(classifier verbs)로 명명하였다. 〈표Ⅳ-12〉는 미국수어, 호주수어, 네덜란드수어에서 제안된 공간동사의 하위 유형을 각 수어별로 정리한 것이다(Liddell 2003; Schembri 2001; Zwisterlood 2012).

펴보자. 첫째, 모사 크기와 모양 특징자는 다른 분류사 유형과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이다. 모사 크기와 모양 특징자는 지시체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윤곽을 그리는 움직임이다. 네모 모양의 사물에서부터 별 모양의 사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모양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사 크기와 모양 특징자가 가진 이러한 수동은 움직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 또한 다양한 통사적 맥락에서 동사뿐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형을 분류사로 보는 측면에서 모사 크기와 모양 특징자는 그에 부합할 수 없다. 둘째, 신체 분류사가 제외된다. 신체 분류사는 수형이 아닌 몸으로만 표현하는 것으로 지시적 전환(referential shift)으로 간주한다.

〈표Ⅳ-12〉 공간동사의 하위 유형

수어	하위 유형
미국수어 (Liddell 2003)	1. 장소에 놓여 있는 사물을 묘사하는 동사 2. 모양을 묘사하는 동사 3. 개체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동사 3-1. 개체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동사 3-2. 사물의 취급을 묘사하는 동사
호주수어 (Schembri 2003)	1. 움직임과 위치 동사 2. 취급 동사 3. 시각적-기하학적 묘사동사
네덜란드수어 (Zwisterlood 2003)	움직임, 위치, 존재 동사 모사 크기와 모양 특정자 움직임 방식 동사

미국수어에서 묘사동사는 최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Liddell 2003).⁶¹⁾ 유형1은 장소에 위치하는 개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동사이다. ‘자동차(사람/사물 등)가 어떤 장소에 있다’ 등 개체의 존재를 표현하는 동사이다. 유형2는 표면의 모양과 범위를 표현하는 동사이다. ‘평평하고 넓은 표면’, ‘울퉁불퉁하고 넓은 표면’, ‘작고 원통형 표면’ 등 표면의 모양과 범위를 표현하는 동사이다. 보통 두 손으로 동일한 수형으로 산출한다. 이때 한 손은 정지한 상태이고 다른 한 손을 한 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며 이동한다. 유형3은 경로에 따른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이다. ‘자동차가 가다’, ‘사람이 걸어가다’ 등이 그 예이다. 유형4의 동사에서 수형은 취급 분류사 혹은 도구 분류사로 불린다. ‘평평하고 얇은 사물을 집다’, ‘얇은 사물을 집다’, ‘컵 같은 사물을 집다’, ‘컵 같은 사물을 놓치다’ 등이다. 호주수어에서는 다구성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 동사의 하위 유형 분류는 수형과 수동의 특정 결합의 의미에 기초한다(Schembri 2003). 수형은 개체(entity), 취급(handle), 크기와 모양 특정자(SASS)이다. 네덜란드수어에서도 움직임, 위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모사 크기와 모양 특정자, 움직임 방식을 나타내는 동사로 제안하였다.

61) 리델(Liddell 2003)은 공간동사 대신 ‘묘사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동사는 일반적으로 행위와 상태 관련 의미를 표현하는데 묘사동사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 외에 묘사를 포함한다. 묘사동사는 어휘적으로 고정된 자질에 의미를 가진 형태가 추가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수어에서 동사 ‘-에 사람이 있다(UPRIGHT-PERSON-BE-AT)’를 산출할 때 1 수형(검지만 편 주먹 수형)은 수직으로 향하고 살짝 아래로 내린 후 멈춘다. 이것은 이 동사를 산출할 때마다 동일하지만 손의 위치와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매 순간 다르다. 또 다른 예로 동사 ‘사람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걸어가다(UPRIGHT-PERSON-WALK-TO)’에서 1 수형은 수직으로 향하고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직선으로 움직인 후 마지막 지점에서 멈춘다. 손바닥은 마지막 지점을 향한다. 손의 시작점과 끝점은 가변적이고 두 지점에 따라 경로가 결정된다. 손바닥의 방향은 경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손바닥 방향도 가변적이다. 묘사동사를 구성하는 방향과 위치는 가변적인 것으로 어휘적 표상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간동사의 하위 유형들을 정리하면 공간동사는 지시체의 위치, 존재, 이동, 취급, 모양과 범위, 움직임 방식을 표현한다. 여기서는 지시체의 위치(존재), 이동, 움직임 방식, 취급, 그리고 모양을 묘사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예문과 함께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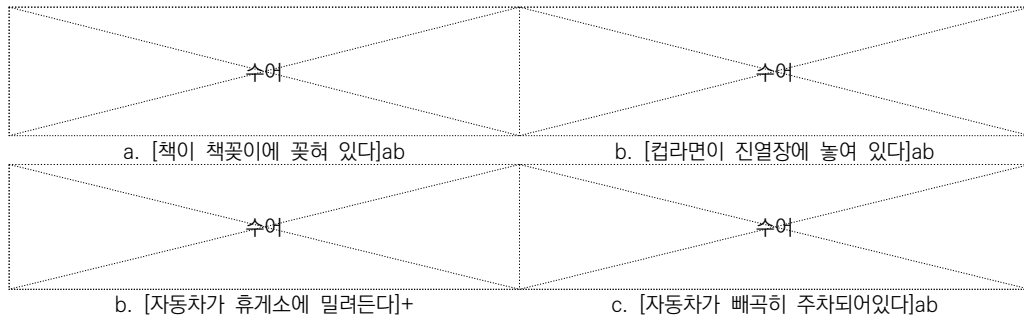
5.3.1. 위치(존재)를 나타내는 공간동사

공간동사는 지시체가 어떤 장소에 존재, 위치한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 (8) 가. [책] [평평한 모양의 사물이 세워져 있다]ab
나. [국수] [컵] [원통형의 사물이 놓여 있다]ab

(8가)에서 수어 화자는 [책] 다음에 평평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한 수형인 엄지와 모든 손가락을 편 수형의 양손을 수어 공간 수직면에 나란히 위치했다가 한 손은 고정하고 다른 한 손은 옆으로 이동하면서 책을 책꽂이에 꽂는 듯한 동작을 한다. 엄지와 모든 손가락을 편 수형은 책을 평평한 사물로 표현한 것으로 전체 개체 분류사가 포함된 경우이다. 문장은 ‘책들이 책꽂이에 꽂혀 있다’라는 의미이다. 또 다른 예로 컵의 경우를 보자. (8나)에서 수어 화자는 [국수] [컵] (‘컵라면’)이라고 한 다음에 원통형을 나타내는 엄지와 모든 손가락을 구부린 알파벳 C와 같은 수형의 양손을 수어 공간에서 나란히 위치했다가 동시에 양손을 벌림으로써 ‘컵라면이 진열장에 놓여 있음’을 표현한다. 여기서 문법적인 특징은 책이나 컵라면과 같은 지시체를 나타내는 주어를 먼저 언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평평한 사물이 꽂혀 있다’, ‘원통형의 사물이 놓여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뿐이다.

자동차들이 줄지어 휴게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수어 화자는 자동차를 나타내는 수형의 양손을 앞뒤로 나란히 배치하여 한 지점(a)으로 동시에 이동한다. 여기서 수어 공간의 한 지점(a)은 휴게소를 의미한다. 자동차가 휴게소에 진입하는 모습을 양손으로 표현한 것이다. ‘휴게소에 자동차들이 밀려든다’라는 의미이다. 이어진 표현 ‘자동차가 여러 줄로 빼곡히 주차되어 있다’는 한 손은 정지한 상태로 유지하고 다른 손을 바로 옆에 아래로 살짝 내리는 움직임을 여러 번 반복한 후 다음 줄에 다시 아래로 살짝 내리는 움직임을 반복한다. 아래로 살짝 내리는 움직임은 압인 움직임(stamping movement)이라 하는데 이 움직임을 반복하여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여러 줄로 주차된 상태를 나타낸다.



[그림Ⅳ-36] 위치(존재)를 나타내는 공간동사

다음은 공사 현장에서 트럭에 커다란 돌들을 싣고 와서 바닥에 쏟는 장면이다.

- | | | | |
|-----|-----------------|-----------------|---------------------------------|
| (9) | [돌] | [크다] | <u>{양쪽볼을부풀리기}</u>
{돌의 둥근 모양} |
| | [트럭의 짐칸을 기울이다] | [트럭에서 돌이 쏟아지다]+ | |
| | [돌들이 바닥에 흩어지다]+ | | |

(9)는 ‘돌들이 매우 크며 트럭에서 돌들을 바닥에 쏟아 돌들이 바닥에 흩어지다’라는 뜻이다. [크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돌의 크기를 설명했으나 바로 이어서 손가락 사이를 모두 벌린 수형의 두 손을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돌의 둥근 모양을 표현한다. 돌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는 바로 전에 돌의 둥근 모양을 표현했던 수형을 다시 이용한다. 돌들이 바닥에 있는 상태이므로 수어 공간 수평면 위에 한 손을 고정하고 다른 손을 한 손 앞으로 일렬로 아래로 살짝 내리는 압입 움직임을 반복한다. 일렬로 반복함으로써 돌들이 많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아래로 살짝 내리는 압입 움직임을 통해 돌들이 어느 장소에 있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다’와 ‘컵라면이 진열장에 놓여 있다’, ‘돌들이 흩어져 있다’ 모두 지시체의 위치(존재)를 나타낸 예들이다. 사물들이 공간에서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그 배치를 시각적으로 묘사한다.

5.3.2. 이동을 나타내는 공간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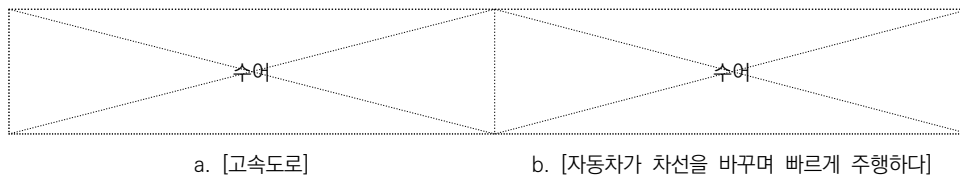
지시체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자동차의 이동을 보면, 우선 한국수어에는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여러 수형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평평하게 편 수형을 가진 손은 노면을 나타내고 위에 위치한 손은 자동차를 나타낸다. [자동차], [버스], [트럭] 등 교통수단의 이동을 표현할 때 자동차를 나타내는 손이 수어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 노면을 나타내는

손은 생략될 수 있다. 그리고 노면을 나타냈던 손은 ‘오르막길, 도로 울타리, 나무, 전신주’ 등 배경이 되는 사물을 표현하여 자동차와 배경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산을 자동차로 오르다’를 표현할 때 한 손은 산을 나타내어 정지하고 다른 손은 자동차를 나타내어 차가 산을 구불구불 오르는 모습을 표현한다.



[그림Ⅳ-37] 자동차를 나타내는 수형

고속도로에서 어느 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빠르게 주행해 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수어 화자는 자동차를 나타내는 수형의 한 손을 좌우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빠르게 앞으로 움직인다. 자동차의 이동 모습을 묘사한다.



[그림Ⅳ-38] 이동을 나타내는 공간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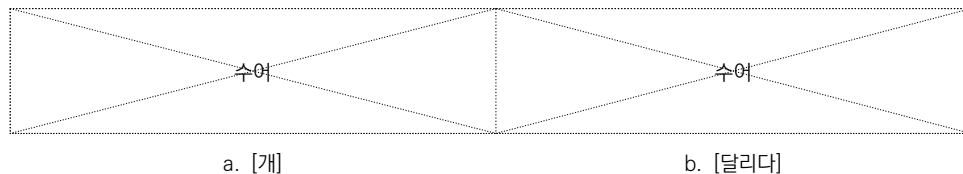
5.3.3. 움직임 방식을 나타내는 공간동사

지시체의 움직임 방식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이 동사에서 한 손 혹은 양손은 신체의 일부를 표현한다. 수팔라의 유형에서는 신체 부분 분류사에 해당한다. 수어 화자의 손, 팔, 발, 다리의 움직임을 사용하여 지시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표현한다.

- (10) 가. [개] [달리다]
나. [아이] [걷다]

움직임 방식은 지시체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10가)는 개가 한 장소에서 다른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정보를 표현하지 않고 개가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표현한다. 개가 달릴 때의 앞발의 움직임을 묘사한다. 개의 앞발은 양손을 주먹 쥐 수형으로 표현한다. (10나)는 ‘아이가 걸어간다’라는 의미이다. 아이의 발을 나타내는 수형은 엄지와 모든 손가락을 편 모양이다. 이 수형을 취한 양손을 교대로 움직인다. 이 동작도 이동 정보가 아닌 움직임의 방식을 나타낸다.



[그림Ⅳ-39] 움직임 방식을 나타내는 공간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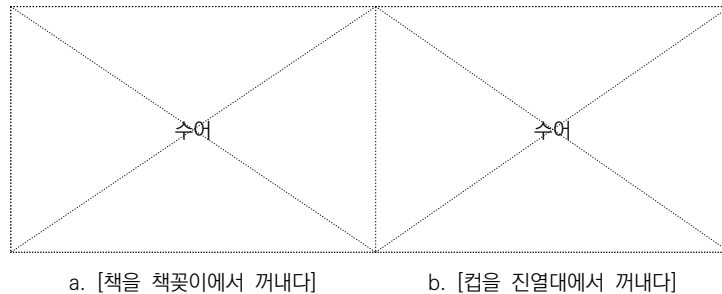
5.3.4. 취급을 나타내는 공간동사

지시체의 취급을 나타내는 공간동사는 주로 인간이 행위자가 되어 사물을 다루는 수형을 통해 드러낸다. 동화를 이야기할 때는 의인화된 동물이 행위자가 될 수도 있다. 사물을 취급하는 방식은 잡거나 밀거나 만지는 등 다양하다. 사물을 취급할 때 사물의 외형에 따라 수형은 달라진다.

- (11) 가. [책] [평평한 모양의 사물을 꺼내다]
- [입벌리기]
-
- 나. [탁자] [책] [탁자에서 평평한 사물이 아래로 떨어지다]
- 다. [컵] [원통형의 사물을 꺼내다]
- [입벌리기]
-
- 라. [탁자] [컵] [탁자에서 원통형의 사물이 아래로 떨어지다]

(11가)는 ‘(책꽂이에서)책을 꺼내다’라는 의미이다. 책꽂이에 꽂혀 있는 제법 두꺼운 책을 꺼낼 때 엄지와 모든 손가락을 펴서 구부린 수형의 한 손을 수어 화자의 몸 앞에서 몸 가까운 쪽으로 움직인다. 책이라는 동일한 사물이지만 책 자체를 표현할 때와 책을 취급할 때 수형이 달라진다. (11나)는 ‘탁자에서 책이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떨어지다’에서 사용된 수형은 엄지와 모든 손가락을 편 수형으로 평평한 책의 모양을 나타낸다. (11다)에서 엄지와 모든 손가락을 알파벳 C모양으로 구부린 수형의 손을 수어 화자의 몸 앞에서 몸 가까운

쪽으로 움직일 때 수형은 컵을 잡은 손을 의미하는 취급 수형이다. 컵을 잡은 수형은 손잡이가 있는 경우 주먹을 쥔 형태도 가능하다. (11라)에서 ‘떨어지다’ 동사에 포함된 수형은 엄지와 모든 손가락을 알파벳 C모양으로 구부린 모양이다. 책 자체를 나타낼 때와 책을 취급할 때 수형이 다르다. (11나)와 (11라)에서 {입벌리기}는 다물었던 입을 벌리는 것으로 ‘떨어지다’처럼 동사가 표현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사와 함께 나타난다.



[그림Ⅳ-40] 취급을 나타내는 공간동사

5.3.5. 모양 묘사를 나타내는 공간동사

지시체의 크기와 모양을 묘사하는 동사이다. 수팔라의 유형에서 정지 크기와 모양 특정자는 지시체의 이동을 표현할 때 나타나고 윤곽을 그리는 크기와 모양 특정자는 사물의 모양을 묘사할 때 나타난다.

- (12) 가. [나무] {나무 기둥과 나뭇잎의 윤곽을 그리기}
 나. [탁자] {둥근 모양의 윤곽 그리기} [사다]

(12가)는 나무의 외형을 묘사한 경우이다. 잎이 풍성한 나무의 외형을 표현할 때 수어 공간 아래 위치에서 위 위치로 양손을 함께 이동하면서 양손의 간격과 손가락 사이의 간격을 점차 벌린다. 나무의 기둥과 풍성한 잎을 표현할 때 동작의 끊김이 없이 수형과 수위의 변화로 전체적인 윤곽을 묘사한다. 이 문장은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라는 의미이다. (12나)는 둥근 모양의 상판을 가진 탁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고정어휘인 [탁자]를 먼저 표현한 뒤 이어서 양손 검지로 동시에 원을 그리거나 혹은 한 손 검지를 한 장소에 고정하고 다른 손 검지로 원을 그린다. 탁자의 모양이 둥글다는 의미이다. 문장의 의미는 ‘둥근 탁자를 사다’이다.

5.4. 동시적 결합이 나타나는 동사

공간동사는 실세계에서 지시체들이 존재하거나 이동하는 방식 그대로 수어 공간의 위치에서 표현된다. 그러므로 수어 공간의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절은 개체 수형과 취급 수형이 포함된 어휘로 굳어진 동사들을 살펴본다. 아래에서 살펴볼 동사들은 형태와 의미가 관습적으로 연결된 고정어휘들로 한국수어사전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 동사들에서 수형은 논항을 나타낸다. 달리 말하면 동사와 논항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5.4.1. 개체 수형이 포함된 동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꽃이 피고 지는 등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동사의 동작 자체가 자연현상의 내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무엇이 동사이고 무엇이 논항인지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단어 단위에서 문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수어사전에 기본형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수동의 변화를 통해 창조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별도로 부사를 추가하지 않아도 동사 수동을 수어 공간의 여러 위치에서 반복하거나 수동의 속도를 느리게 혹은 빠르게 조절함으로써 부사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a. [바람불다]



b. [꽃피다]



c. [나비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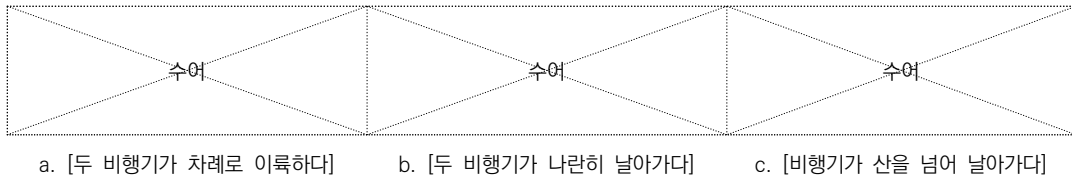


d. [낙엽떨어지다]

[그림Ⅳ-41] 개체 수형이 포함된 동사: 자연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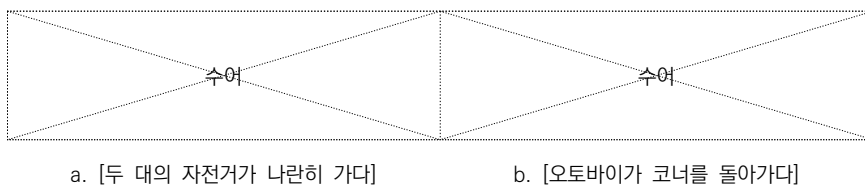
사물의 움직임과 이동을 표현할 때도 동시적인 특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비행기, 자동차,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비행기]의 원어 정보는 날아가는 비행기를 나타내는 동작으로 비행기의 여러 이동과 움직임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다. ‘비행기가 이륙하다’, ‘비행기가 착륙하다’, ‘두 대의 비행기가 나란히 날아가다’, ‘두 비행기가 차례로 이륙하다’, ‘비행기가 산을 넘어 날아가다’ 등 실제 세계에서 비행기가 존재하는 방식을 도상

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도의 부사를 포함하지 않아도 수동의 변화와 비수지표지의 동시결합으로 부사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Ⅳ-42] 개체 수형이 포함된 동사: 비행기의 비행

교통수단 중에서 승용차, 버스 등은 단어의 기본형에서 변형을 통해 자동차의 움직임과 이동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각각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동작과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동작이다. 두 단어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작동시키는 사람의 발과 손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두 단어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행위자의 모습은 표현할 수 있으나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는 표현할 수 없다.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를 표현하기 위해 바퀴의 둥근 모양의 특징을 잡아 검지와 엄지 손끝을 붙인 수형을 취해 이동 경로와 움직임의 구체적인 정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지나갈 때 둥근 바퀴와 닮은 엄지와 검지 손끝을 붙인 수형인 양손을 전후로 배치하여 직선으로 나란히 이동한다.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아갈 때 엄지와 손끝을 붙인 수형의 한 손을 코너를 돌듯이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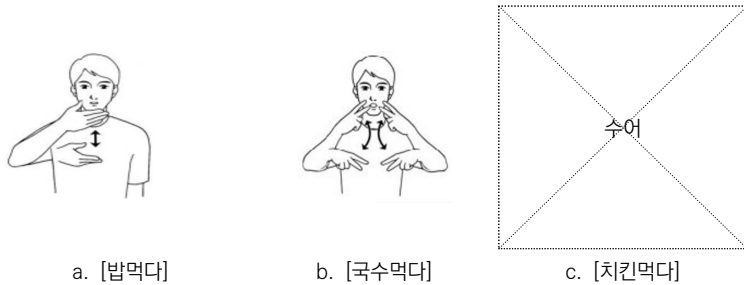
[그림Ⅳ-43] 개체 수형이 포함된 동사: 자전거의 이동

5.4.2. 취급 수형이 포함된 동사

취급 수형이 포함된 동사에는 목적어 논항이 포함된다. 취급의 대상과 취급하는 내용을 표현할 때 수어 화자는 그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주가 된다.

첫 번째 예로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먹는 방식에 따라 여러 수형이 포함된 형태를 취한다.

‘국수’를 먹을 때는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는 모습으로 ‘치킨’을 먹을 때는 치킨을 잡고 뜯어 먹는 모습으로 표현한다. 물론 국수든 치킨이든 구체적인 동작이 아닌 고정어휘 [먹다]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점심을 먹었다든지 혹은 점심을 먹지 않았다든지 등 사실을 진술할 때는 구체적인 동작이 드러나는 표현을 할 필요 없다. 마시는 행위도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그림Ⅳ-44] 취급 수형이 포함된 동사: 먹는 행위

다음은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이다. ‘피아노를 치다’, ‘피리를 불다’, ‘바이올린을 쳐다’ 등 악기 연주를 나타내는 표현은 실제 행동을 모방한다. 수어 화자의 손의 움직임은 악기를 연주하는 동작을 나타낸다. 행위자와 행위 내용을 분리할 수 없다. 운동도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골프를 치다’, ‘배드민턴을 치다’, ‘볼링을 치다’ 등이 있다.



[그림Ⅳ-44] 취급 수형이 포함된 동사: 악기 연주와 운동

가나다라마

바^ㅏ자^ㅑㅎ

가나다라마바

V. 의미론

1. 의미 이론
2. 의미관계
3. 의미전이
4. 도상성과 비유
5. 역할전환

V. 의미론

의미론(semantics)이란 언어 표현의 의미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노대규 2002: 30).

1. 의미 이론

1.1. 의미 이론의 접근법

의미의 본질에 대한 접근은 전통적으로 철학과 심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미의 본질에 대한 언어학적 논의는 철학 또는 심리학과와 경계를 넘나들면서 계속 되고 있다(윤평현 2020: 35). 다음은 의미 이론의 주요 학설들¹⁾이다.

1.2.1. 지시설

이론	지시설 referential theory
정의	단어나 문장과 같은 언어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이 지시하는 지시물이다.
장점	고유명사처럼 고유한 개체를 가지고 있는 언어표현에서는 의미 규정이 부합한다.
한계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 지시물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현상과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 수많은 접속어나 조사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다.

지시설은 언어 표현의 의미를 그 표현이 실제로 지시하는 사물, 즉 지시체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지시적 관점(referential theory-referential approach)은 전통적인 철학적·논리적 관점이다. 지시적 관점은 의미를 언어와 언어외부 세계 사이의 관련 관계로 이해한다. 지시적 관점에서 보면 언어 표현이 세상의 사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사물을 지시한다. 고유명사는 가장 전형적인 지시 표현이다(강범모 2005: 189). 그러나 지시적 관점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지시체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언어 표현은 있으나 지시체가 없는 경우²⁾에 대해서 한

1) 의미 이론의 주요 학설은 노대규(2002)의 '한국어의 화용의미론' 30-57쪽을 참고하고 윤평현(2020)의 '새로 펴낸 국어 의미론' 35-49쪽을 인용하였다.

〈표〉한국수어 도상성의 특성은 임지룡(2018)의 '한국 수어의 도상적 양상과 의미 특성(*국어교육연구 제 68집)'을 인용하였다. (임지룡 2018: 81)

2) 언어표현은 있으나 지시체가 없는 경우란, 첫째,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언어 표현으로는 존재하는 경우(산타 클로스, 용, 불사조 등), 둘째, 두 개 이상 지시체를 가진 경우(풀, 풀을 먹이다. 풀이 죽다 등)를 말한다(남기현 2014: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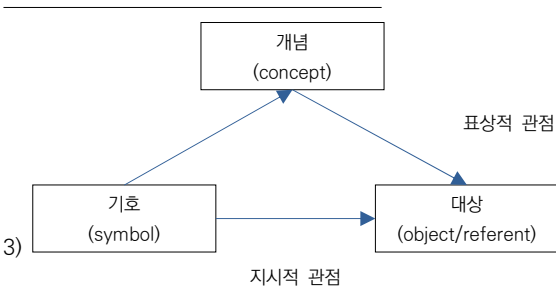
계를 드러낸다(남기현 2014: 275).

1.2.2. 개념설

이론	개념설 conceptual theory
정의	어떤 단어나 문장의 의미는 그 표현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 속에서 그 표현과 연합되어 있는 관념 또는 개념이다.
학자	소쉬르F.d.Saussure(1916), 오그덴과 리처즈Ogden and Richards(1923)
장점	‘용’, ‘도깨비’처럼 실제 대상이 없어도 의미를 생각해 낼 수 있다.
한계	개념이나 영상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를 어떻게 객관적인 의미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개념설은 표상적 관점(conceptual theory- representational approach) 즉 심적 표상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언어 사용자가 세상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어 표현이 직접 사물을 지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화자가 가지는 세상에 대한 심적 모형을 통한 간접적 연결 때문이라고 여긴다(강범모 2005: 197). 표상적 관점은 전통적인 심리학적 관점으로 의미를 언어표현에 대하여 화자의 마음속에 연관되어 형성되는 관념이나 개념으로 이해한다. 가령, ‘자유, 정의, 진리’와 같이 추상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시각적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념(concept)이 상정되었다³⁾.

1.2.3. 행동설



오그덴과 리처즈의 기호삼각형을 통해 본 지시설(지시적 관점)과 개념설(표상적 관점)이다. 오그덴과 리처드(Ogden and Richards 1923)는 단어 혹은 표현으로 확인되는 외적 세계의 물체 혹은 사태(state-of-affairs)에 대하여 ‘지시물’(refer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강범모 역 2011: 277).

이론	행동설 behaviorist theory
정의	한 언어 표현의 의미는 화자가 그 표현을 발화하는 상황과 그 상황이 청자에게 일으키는 반응이다.
학자	블룸필드 L. Bloomfield(1933)
장점	의미를 추상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이전의 심리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언어표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중심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계	상황에 따라 화자와 청자의 반응이 항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의미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기 어렵다. 수많은 접속어나 조사의 의미를 행동설 역시 설명하지 못한다.

행동설은 언어표현의 의미를 화자가 그 표현을 발화하는 상황과 그 표현이 청자로부터 유도되는 반응으로 보는 견해이다. 행동설에 의하면 언어행위는 실질적인 화자의 자극과 청자의 반응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언어적 반응과 청자의 반응은 다양각색일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 이론을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윤평현 2020: 42-43).

1.2.4. 용법설

이론	용법설 use theory
정의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의 용법이다 ⁴⁾
학자	비트겐슈타인 L. Wittgenstein(1953)
장점	접속사나 조사 따위의 의미를 다른 의미 이론보다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단어의 의미를 습득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적절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한계	무수히 많은 의미와 변화해가는 의미를 다 따라잡으며 열거할 수 없다.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용법설에 따르면 한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의 사용법을 앎으로써 결정지을 수 있다. 용법설은 의미를 개념 또는 영상으로 보는 개념설과는 대립관계에 있으며 화용론적 입장에서 언어표현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다(윤평현 2020: 44).

4) 단어가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인정하지 않고 단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용법이 그 단어의 의미라고 보는 태도이다(윤평현 2020: 43).

1.2.5. 진리조건설

이론	진리조건설 truth-conditional theory
정의	우리가 문장을 안다는 것은 그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안다는 것이다.
장점	어느 한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한계	문장의 의미로서 그 문장이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는 상황조건을 밝힐 수는 있으나, 단어나 어미의 의미를 밝힐 수는 없다.

진리조건설에 따르면 우리가 어느 한 문장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문장이 어떤 상황적 조건에서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가를 안다는 것을 뜻한다. 진리조건설에서는 문장의 진리 조건을 가지고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 모순 관계와 함의 관계, 그리고 논리적 전제 관계 또는 의미론적 전제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진리조건설은 문장보다 작은 단위, 즉 단어나 어미에서의 의미를 밝힐 수는 없으며 경험적인 진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노대규 2002: 42-49).

1.2.6. 의의관계설

이론	의의관계설 sense relation theory
정의	단어의 의미는 단어와 단어의 의의관계에 의해서 파악된다.
학자	라이온스 J. Lyons(1963)
장점	단어 사이의 의의관계를 통해 동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등을 파악하기 좋다.
한계	의미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의의관계라는 간접적이고 이차적인 장치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의관계설에서 한 언어표현의 의미는 그 언어표현의 지시(reference)와 의의(sense)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지시’라는 것은 어느 한 언어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을 뜻하고 ‘의의’라고 하는 것은 대상들의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뜻한다. 의의관계설에서는 두 언어표현이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더라도 의의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노대규 2002: 49-51).

1.2.7. 개념화설(인지의미론)

이론	개념화설 conceptualization theory
정의	언어표현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표현을 촉매제로 해서 의미를 구성한다.

인지의미론에서는 언어표현의 의미를 개념화(conceptualization)라고 말한다. 인지의미론

에서 개념화는 의미를 구성하는 동적 과정이다. 동일한 상황에 대한 주의가 사람마다 다르고 사태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 상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해석(construal)이라고 말한다. 인지의미론에서는 한 언어표현에는 그 표현의 개념적 내용과 그 내용을 해석하는 화자의 특정한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윤평현 2020: 49-49). 우리는 지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지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사물은 신체화된 경험으로부터 도출된다. 개념이 반영되고 언어로 기술할 수 있는 외부 실재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외부 실재는 인간 고유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규정된다(임지룡 · 김동환 역 2020: 30-52).

1.2. 의미의 유형

1.2.1.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

개별 단어는 개념을 개입시켜 언어 밖 사물이나 현상과 이어져 있다. 개념을 이루는 것은 뇌 속에서의 심리적 작용이지만 개념을 이루는 데에는 많은 적든 언어 밖의 사물이나 현상이 참조된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가 개념적 의미이며 사전적 의미와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수어에서 고유명사들이 이에 해당된다.

예시/ [서울], [부산], [대한민국]

1.2.2. 연상적 의미(associative meaning)

연상적 의미에는 내포적 의미, 사회적 의미, 정서적 의미, 반영적 의미, 언어적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연상적 의미의 종류와 설명이다.

〈표 V-1〉 연상적 의미

연상적 의미	내포적 의미 (connotative meaning)	한 언어 표현이 갖고 있는 개념적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 부차적 의미
		예시/[눈-싸다]
	사회적 의미 (문체적 의미) (stylistic meaning)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이 다름을 드러내는 의미
		예시/[굴1]-[굴2]
	정서적 의미 (affective meaning)	화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태도 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의미
		예시/[너-똑똑하다{눈 흘겨봄}]
	반영적 의미 (반사적 의미) (reflected meaning)	한 언어표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개념적 의미 가운데 하나가 다른 뜻으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의미
		예시/[지루하다]
	연어적 의미 (배열적 의미) (collocative meaning)	한 언어 표현이 함께 배열된 다른 단어 때문에 얻게 된 의미
		예시/[영화-맛없다]

1.2.3. 주제적 의미(thematic meaning)

같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조직될 수 있고 그 결과로 특별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는데 이를 주제적 의미라고 한다. 한국수어에서 주제적 의미는 어순이나 특정 단어의 강세 비수지표지의 사용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수어 초점화 문장에 잘 드러난다.

{고개끄덕이기}

예시/ [아들] [취미]+ [먹다] [무엇1] {휴지} [삼겹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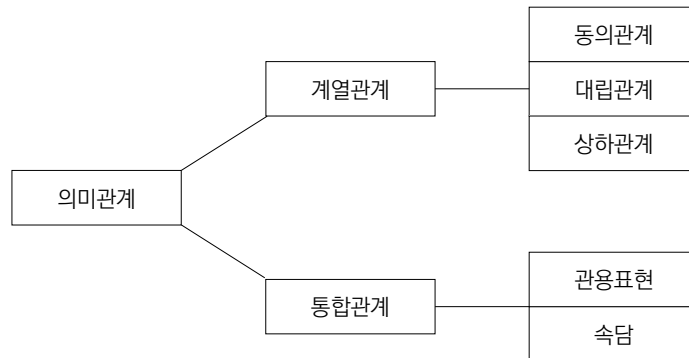
2. 의미관계

2.1. 의미관계의 정의와 종류

의미관계는 언어를 구조화된 하나의 총체로 간주하고 그 구성 요소들을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의미관계란 어휘들 간의 의미가 상호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관념이다.⁵⁾ 개념을 원형으로 파악하든 다른 방식으로 파악하든, 우리가 흔히

5) 이렇게 언어를 구조적으로 보는 관점은 소쉬르(F. Saussure)로부터 시작되었다. 소쉬르는 언어를 그 구성 요소들의 상호관계로 설명한다. 그 가운데 어휘들 간의 의미가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의미관계이다(한국어교육학 사전:730).

어휘라고 부르는 각각의 개념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망을 형성하며 각 개념들 사이에는 상호간에 여러 가지 관계가 성립된다(강범모 2005:168-169). 이렇게 어휘들 간의 의미가 상호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의미관계이다. 한국수어에서도 어휘들은 의미망을 형성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 있다.



[그림 V-1] 의미관계

이러한 어휘들 간의 의미관계는 어휘 분석 방법에 따라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로 나눌 수 있다⁶⁾. 계열관계는 어느 한 언어 표현에 있어서 서로 교체될 수 있는 어휘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가리킨다(노대규 2002: 87). 통합관계는 어느 한 언어 표현을 이루고 있는 구성단위들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며 결합관계라고도 한다.⁷⁾ 계열관계는 다시 동의관계, 대립관계, 상하관계로⁸⁾, 통합관계는 관용표현, 속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2. 동의관계(synonymy)

동의관계는 형태적으로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둘 이상의 단어 의미가 서로 동일하거나 매우

6) 계열관계는 어휘 항목이 종적으로 대체되는 관계로서 그 계열적 축인 '선택'은 세로의 선을 지향한다. 결합관계는 어휘 항목이 횡적으로 결합되는 관계로서 그 결합적인 축인 연쇄는 가로의 선을 지향한다(임지룡 2018: 159).

7) '남자/여자'의 경우, '남자'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서 '여자'라는 단어의 대립적 상상을 통해 의미가 분명해진다. 반면, '춘추'는 실존하는 두 계절 '봄'과 '가을'의 통합을 통해 '나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 전자는 계열관계이고 후자는 통합관계이다(한국어교육학사전 2014: 731).

계열관계	어휘 이름	예시 한국어	한국수어
동의관계	동의어/유의어	'아빠'-'아버지'	[상처1]-[상처2](수향 다름)
대립관계	반의어	'사랑'-'미움'	[순종]-[불순종]
상하관계	상위어/ 하위어	'동물'-'새'	[색]-[빨강]

비슷한 의미가 있는 관계를 말한다. 동의관계는 서로 다른 표현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실제로는 완전한 동의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동의관계는 두 어휘가 아무런 의미 차이 없이 모든 문맥에서 치환될 수 있는 절대적 동의관계와 두 어휘 간의 개념과 의미가 동일하고 문맥상 치환이 가능한 상대적 동의관계로 나뉜다. 전자는 동의어라고 하며 후자는 유의어라고 한다(한국어교육학사전 2014: 731-732). 다음은 한국수어에서의 동의관계 예시이다.

〈표 V-2〉 한국수어 동의관계-동의어(유의어)

수어	수어	수어	수어
[인형1]	[인형2(대구방언)]	[굴1]	[굴2]

수어	수어	수어	수어
[승리1]	[승리2]	[오이1]	[오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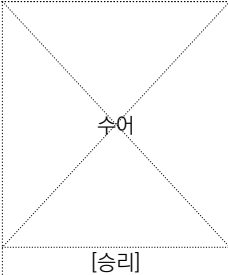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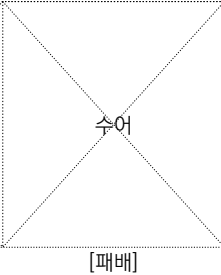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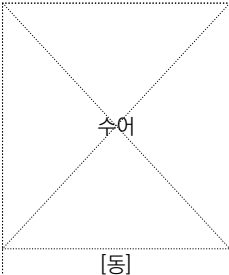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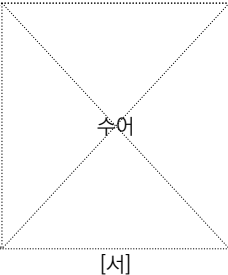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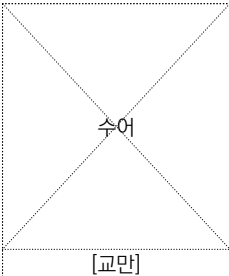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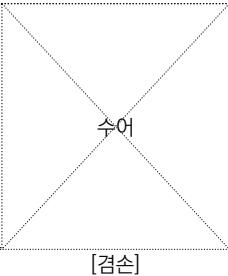


한국수어에서 동의관계는 이형동의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승리1]-[승리2]나 [오이1]-[오이2]는 전형적인 이형동의어 관계를 보여준다. [인형1]-[인형2]에서 [인형2]는 대구지역에서 통용되는 단어로 지역어의 특성을 드러낸 동의어이다. [굴]-[굴2]에서 [굴2] 또한 지역어(제주)의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굴을 소비하는 입장과 재배하는 입장의 차이에서 온 단어라는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도 소비와 생산의 입장에 따라 이형동의어가 발생한다는 점은 한국수어의 독특한 언어적 특징이다.

2.3. 대립관계(antonymy)

대립관계는 단어 간의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휘 간에 대립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의미 자질 가운데서 비교 기준으로 삼은 하나의 의미 자질이 달라야 한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은 ‘인간’이라는 의미 영역 안에서 동질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동시에 서로가 대립하는 배타성⁹⁾으로 인해 대립관계가 성립된다(한국어교육학사전 2014: 732-733).

9) 인간이라는 의미자질을 공유하면서 성별의 차이로 대립관계가 성립된다.

〈표 V-3〉 한국수어 대립관계-반의어

 [잘]	 [잘못]	 [알다]	 [모르다]
 [줄어들다]	 [늘어나다]	 [승리]	 [패배]
 [동]	 [서]	 [무식하다]	 [유식하다]
 [교만]	 [겸손]	 [동양]	 [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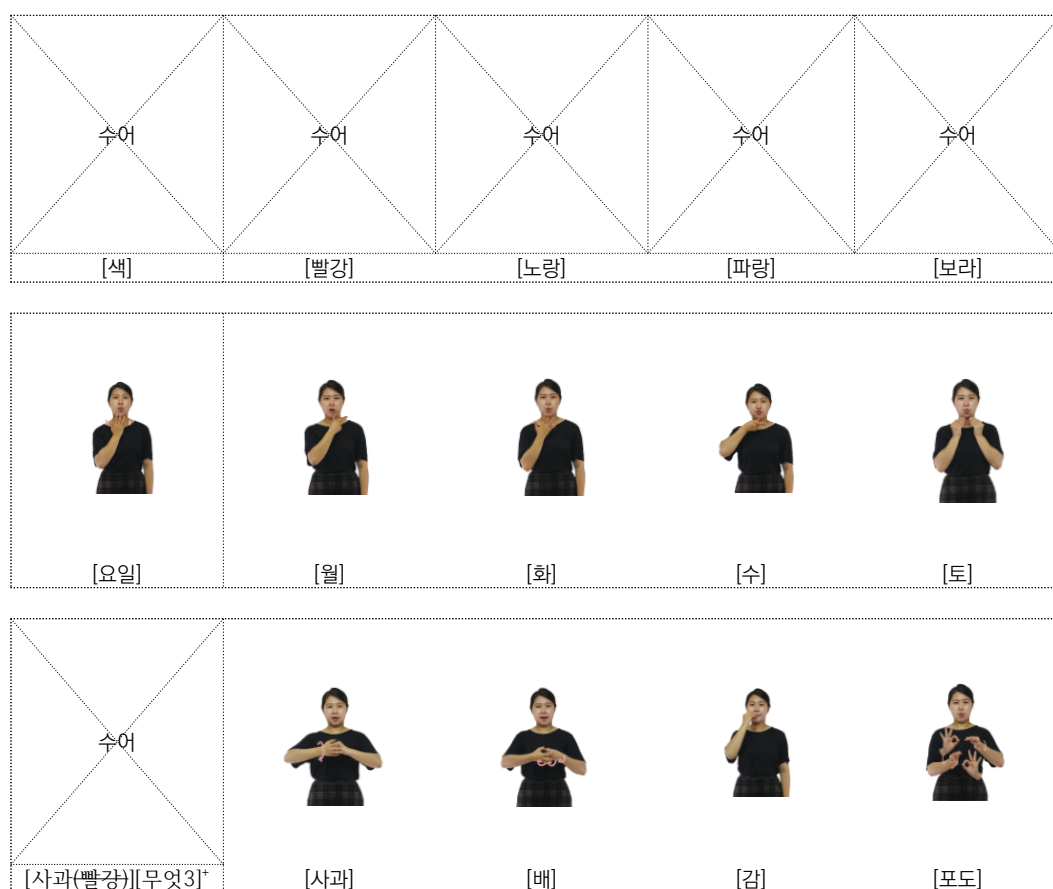
한국수어에서 대립관계는 같은 수형을 기반으로 수동의 경로를 전환(대비)시킨 형태가 많이 나타나며 묘사동사를 활용한 형태도 나타난다. [잘]-[잘못], [알다]-[모르다], [줄어들다]-[늘어나다], [무식하다]-[유식하다], [승리]-[패배], [동]-[서]는 같은 수형을 기반으로 수동의 경로를 전환(대비)시킨 형태의 대립관계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수어 대립관계에서는 의미 차원의 대립만이 아니라 형태 차원의 대립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교만]-[겸손],

[동양]-[서양]은 묘사동사를 통해 대립관계를 형성한 단어들이다. 한국수어에서 대립관계는 근본적으로 도상성에 기반을 갖고 있다.

2.4. 상하관계(hyponymy)

상하관계는 어휘소 의미의 계층적 구조에서 한 어휘소의 의미가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관계를 의미한다(한국어교육학사전 2014: 732-733).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계층 구조에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 영역을 지니고 있는 어휘를 상의어(상위어)라고 하고 구체적이고 특수적인 의미 영역을 지니고 있는 어휘들을 하의어(하위어)라고 한다(노대규 2002: 101). 다음은 한국수어 상하관계에 대한 예시이다.

〈표 V-4〉 한국수어 상하관계-상의어/하의어





제시된 예시에서와 같이, 한국수어에는 세가지 형태의 상의어-하의어 군이 나타난다. 첫째는 한국어에도 나타나는 [색]-[빨강][파랑][노랑]/ [동물]-[곰][개][고양이] 형태이다. 둘째는 [요일]-[월][화][수] 형태이다. 한국수어에서는 [요일]보다 [월+화+수]가 ‘요일’을 의미하는 수어로 더 널리 통용되었으며, 이후 [요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한국수어 화자들은 요일을 물을 때 ‘의문표지를 동반한 [요일]’보다는 ‘의문표지를 동반한 [월화수]+[무엇1]’를 더 명확하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는 [배추]+[무엇3][무엇3][무엇3] 형태이다. ‘과일’, ‘채소’등의 상의어-하의어 군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하의어 중 대표되는 단어 한 개와 [무엇3]의 반복을 통해 상의어를 표현한다. 이런 형태가 ‘대표 하의어’+[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지한국어로서 한국수어 문법에 적절하지 않다.¹⁰⁾

2.5. 관용표현

관용표현은 습관적으로 굳어져 익숙하게 쓰이는 표현이되 둘 이상의 언어 기호가 단순한 의미의 합으로 쓰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한국어교육학사전 2014: 553). 즉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었을 때 각각의 의미는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는 것을 관용표현이라고 한다. 다음은 단어의 결합이 관용표현으로 작용하지 않고 합성어가 된 사례이다.

〈표 V-5〉 두 단어가 결합하였으나 관용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






10) [여러 가지]는 ‘~들’이라는 한국어에 대응하며 파생된 수지한국어 용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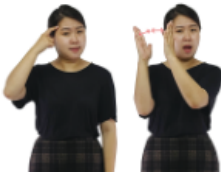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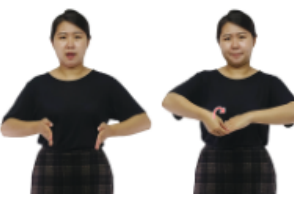
‘우주’를 나타내는 [하늘(지시)+땅(지시)]는 각각 어휘적 요소 ‘하늘’, ‘땅’의 의미가 모두 남아 있다. ‘코스모스’를 나타내는 [코+꽃], ‘맨드라미’를 나타내는 [닭+꽃], ‘추석’을 나타내는 [송편+잔치]의 경우에도 한국어 의미로는 어휘적 요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시각언어인 한국수어의 관점에서는 첫 음절이 ‘코’를 연상시키는 ‘꽃’, 모양이 ‘닭 벉슬’과 닮은 ‘꽃’, ‘송편’과 ‘잔치’라는 모든 의미가 남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 단어들이 아니어서 관용표현이 되지 않는다.

관용표현의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표현된 의미가 구성요소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여야 한다. 그리고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관용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수어에서의 관용표현 요건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단어의 의미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야 하며,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화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다(남기현 2018: 100).

다음은 한국수어 관용표현에 대한 예시이다.

〈표 V-6〉 한국수어 관용표현1

 <p>[눈+보석] '잘 찾아내다.'</p>	 <p>[눈+싸다] '잘 못 찾아내다.' '실수로 못 알아보다.' '한눈팔다'</p>	 <p>[눈+귀신] '어떻게 알았지!' '귀신같이 알아내다.'</p>
<p>수어</p> <p>[쥐+빠먹다] '모은 돈을 조금씩 아껴 쓰다.'</p>	<p>수어</p> <p>[쥐+동전 끌어오기] '근근이 살만큼 벌다' '조금씩 벌어들이다'</p>	<p>수어</p> <p>[쥐+구불구불 움직이기(1형)] '지름길로 가다'</p>

 <p>[말+갈등]</p> <p>‘말이 안 된다(비문이다).’</p>	<p>수어</p> <p>[말+심심하다]</p> <p>‘할 말을 잃다’</p>	<p>수어</p> <p>[스스로+이야기]</p> <p>‘꾸며낸 이야기(자작극)’</p>
<p>수어</p> <p>[맛+없다(손 털기)]</p> <p>‘기대에 못 미친다.’</p> <p>‘기대 이하라 실망이다.’</p>	<p>수어</p> <p>[맛+아직]</p> <p>‘아직 더 원한다.’</p> <p>‘성에 차지 않다.’</p>	 <p>[생각+박수]</p> <p>‘알아서 처리하다’</p>
<p>수어</p> <p>[일+힘]</p> <p>‘기복 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잘하다’</p>	<p>수어</p> <p>[부러지다+강하다]</p> <p>‘망가지지 않는다.’</p>	<p>수어</p> <p>[깨끗하다+주다]</p> <p>‘솔직히 말하다’</p>
<p>수어</p> <p>[기억+악취]</p> <p>‘오래도록 기억하다.’</p>	 <p>[길+병신]</p> <p>‘막다른 길이다.’ 등</p>	<p>수어</p> <p>[돈+죽대]</p> <p>‘돈이 궁하다’</p>

이상 <표V-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수어에서는 다양한 어휘들이 서로 결합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 즉 관용표현을 생성해냄을 알 수 있다. 위의 예시 중 대표적인 관용표현인 [눈]_관용표현과 [귀]_관용표현을 살펴보자.

[눈]은 ‘보는 기능’을 의미하는데, [보석], [짜다], [귀신] 등의 단어와 결합하여 유추하기 힘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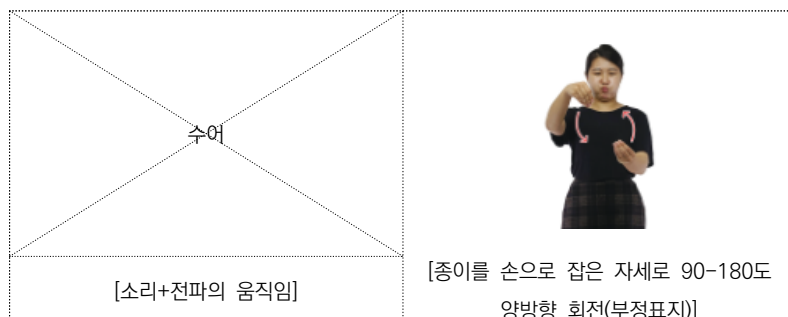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눈+보석]은 ‘잘 찾아낸다.’라는 의미로 찾고자 하는 대상을 남들보다 금방 찾아내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눈+싸다]는 앞의 [눈+보석]과는 반대되는 상황에 쓰이는데 ‘잘 못 찾아낸다’, ‘실수로 못 알아보다’, ‘한눈팔다’라는 의미이다. [눈+귀신]은 ‘어떻게 알았지!’, ‘귀신같이 알아내다’라는 의미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거나 빠르게 눈치 챘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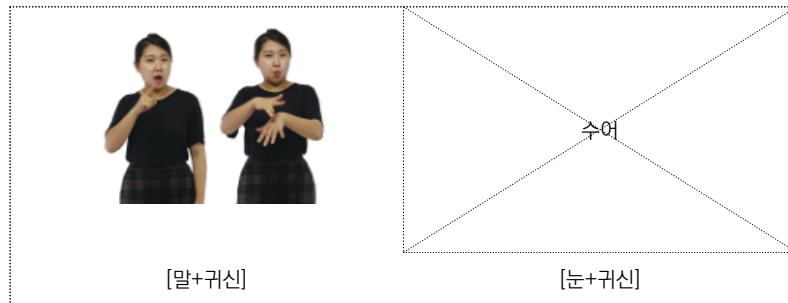
한국수어에는 동물의 특징을 이용한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동물이 ‘쥐’이다. [쥐]는 몸집이 작고 움직임이 조심스러운 동시에 빠른 동물이다. 이러한 특성이 [빠먹다], [동전 끌어오기], [구불구불 움직이기(1형)] 등의 단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쥐+빠먹다]는 ‘모은 돈을 조금씩 아껴 쓰다’라는 의미로 [쥐+동전 끌어오기]는 ‘근근이 살만큼 벌다’ 혹은 ‘조금씩 벌어들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지출과 수입의 규모가 아주 작게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쥐+구불구불 움직이기(1형)]은 ‘지름길로 가다’라는 의미로 몸집이 작은 쥐가 좁은 길을 빠르게 누비며 다니듯이 이동함을 보여준다.

2.6. 속담

속담은 풍자적, 교훈적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어느 한 언어 표현의 의미가 그 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전혀 다른 별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추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노대규 2002: 669). 속담은 이러한 비축어적 표현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한국수어의 경우 한국어의 속담과는 별개로 독특한 관용표현들을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풍자적이고 교훈적인 비유를 속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래 예시는 한국수어 속담 예시이다.

〈표 V-7〉 한국수어 속담





[소리+전파의 움직임]에서 [소리]¹¹⁾는 ‘정보’를, [전파의 움직임]은 ‘찰나에 전달이 됨’을 의미하며 말이 순식간에 짹 퍼지는 상황을 빗처럼 빠른 전파에 비유하였다. 한번 내뿜은 말은 수습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수어표현이다. 한국어 속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가 쓰이는 맥락과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종이를 손으로 잡은 자세로 90-180도 양방향 회전(부정표지)]는 까막눈이어서 문서의 위아래를 구분 못하는 상황을 풍자한 수어표현이다. 한국어 속담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가 쓰이는 맥락과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말+귀신]은 귀신이 재주라도 부린 듯 부지불식간에 정보가 새어나가는 상황을 교훈한 수어표현이며 [눈+귀신]은 시각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어 시각 정보 습득이 아주 빠르고 정확한 농인들에게 대화내용이 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다짐해두는 수어표현으로 한국어 속담 ‘낮말은 귀가 듣고 밤 말은 새가 듣는다.’가 쓰이는 맥락과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3. 의미전이

언어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 언어는 세월을 거치며 어떤 어휘는 생성되고 어떤 어휘는 소멸되며 어떤 어휘는 의미의 변화를 겪는다. 이 세 가지 현상 중 언어가 의미의 변화를 겪는 현상을 ‘의미전이’라 한다. 의미전이(transfer of meaning)는 한 언어 표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구체적인 의미나 추상적인 의미를 그 외의 것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기본 의미에 변동이 일어난 것을 말한다. 언중(言衆)은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나타났을 때나 표현상의 효과를 위해 기존 단어의 의미를 전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이는 의미의 변동을 가져오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의미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한국어 교육학 사전 2014: 735).

11) [소리]는 ‘듣다’, ‘소리’, ‘소식’, ‘정보’의 의미를 갖고 있다.

3.1. 의미전이의 양상과 원인

3.1.1. 의미전이의 양상

의미전이는 아래 제시된 세 가지 양상으로 진행된다.

〈표 V-8〉 의미전이의 양상

의미전이의 양상									
양상	의미 확대			의미 축소			의미 이동		
설명	어떤 단어가 본래의 의미보다 그 뜻의 적용범위가 확장된 경우			어떤 단어의 의미가 본래의 뜻보다 적용 범위가 줄어든 경우			어떤 단어가 나타내는 뜻이 예전과는 달라져 본래의 의미와는 상당히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예시	[생명]			*[반가움(흥)] ¹²⁾			*[계모]/[계부] ¹³⁾		
	‘숨 쉬다’ ‘생명’	→	‘보험’ ‘예비용’	‘행복하다’ ‘기쁘다’ ‘반갑다’ ‘즐겁다’ ‘신난다’	→	‘반갑다’	‘계모’ ‘계부’	→ →	‘이모’ ‘외동딸’ ‘고모’ ‘삼촌’ ‘외아들’

3.2.2. 의미전이의 원인

언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의미전이의 원인¹⁴⁾은 아래의 네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12) 한국수어 [반가움(흥)]의 경우 여전히 ‘행복하다’, ‘기쁘다’, ‘반갑다’, ‘즐겁다’, ‘신난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어의 간섭으로 인하여 지문자 파생어로 인식되면서 ‘반갑다’라는 의미로 축소되는 과정에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며, 본래의 의미대로 포괄적인 사용을 견지하는 것이 한국수어의 고유특질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13) 한국수어 [계모]와 [계부]는 최근 들어 [계모]는 [이모]와 [외동딸]로, [계부]는 [고모], [외아들], [삼촌]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계모’는 [새롭다+엄마], ‘계부’는 [새롭다+아빠]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수어사전에는 [계모]와 [계부]가 표제어로 되어 있다.

14) ‘의미전이의 원인’은 노대규(2002)의 한국어의 화용의미론 124-131쪽을 참고하고 한국수어 예시를 찾아 보강하였다.





〈표 V-9〉 의미전이의 원인

의미전이의 원인		
원인	설명	예시
언어적 원인	- 접촉에 의한 변화: 어느 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 자주 접촉하여 사용됨으로써, 어느 한 쪽 단어의 의미가 다른 한 쪽 단어의 의미로 전이되어 한쪽 단어에 없던 의미가 생겨나거나, 다 같이 새로운 의미로 바뀌는 것	[맛+털기]/ ‘맛없다’→‘기대 이하’, ‘잡치다’
	- 차용에 의한 변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 또는 장소의 명칭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국어나 외국어의 단어를 빌어다가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원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	[미8군]/ ‘미8군’→‘이태원’
역사적 원인	- 사물이나 제도나 관념 등이 역사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그를 가리키던 단어의 의미 내용도 아울러 바뀌는 것	[계모]/‘계모’→‘이모’ [농담]/ ‘광대’, ‘만담’→‘농담’
사회적 원인	- 사회적 집단의 계층이나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이 변화함으로 인하여 단어의 의미가 바뀌는 것	[병 따다]vs [톡 쏘다] ‘탄산음료’ [굴1(까다)]vs[굴2(자르다)] ‘굴’
심리적 원인	- 유사성에 의한 단어 의미 변화: 형태나 의미에 대한 심리적 연상 작용으로 인하여 한 단어의 의미가 바뀌는 것	[공산주의] [시계 죽다]
	- 완곡어법이나 금기에 의한 단어의 의미변화: 발화자가 수신자에게 수치감이나 불쾌감이나 또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단어의 사용을 피하고 그러나 감정들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완곡한 단어로 바꾸어 말함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산(12형)]/ ‘산’→‘남자형제’ 15)

3.2. 다의어 현상

3.2.1. 다의어의 정의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 사고 등이 생겨나면 그것을 지시할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으로 새 말을 생성하거나 외래어를 차용하기도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의미의 영역을 넓혀서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적 현상으로 인해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다의어’라고 부른다(윤평현 2020: 173).

15) 한국수어에서 수형  (사내형)은 본래 ‘남자형제’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수형이었으나 미국의 제스처(욕)와 같은 모양인 관계로 청인들의 지속적인 간섭을 받아오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과거 ‘산’에만 사용되었던 수형  (12형)이 오늘날 ‘남자형제’를 표현하는 수형에 사용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산’을 표현할 때에는  (12형)보다  (17형)이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3.2.2. 한국수어에서의 다의어 현상

한국수어에는 동음이의어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피다’나 ‘타다’는 동음이의어이나 한국수어에서는 주체, 대상, 수단 등에 따라 사용되는 어휘는 달라지기 때문에 동음이의어가 아니다.¹⁶⁾ 또한 음운·형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엄격한 의미의 다의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¹⁷⁾ 왜냐하면 비수지표지(얼굴표지와 마우딩)가 변별적 자질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수어에서 흔히 다의어로 인식되고 있는 많은 어휘들이 마우딩을 변별자질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지기호 차원에서의 다의어 현상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며 이러한 현상이 한국수어의 특징인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다.¹⁸⁾ 따라서 ‘수지기호 차원의 다의어 현상’을 광의(廣義)의 의미에서 ‘다의어’로 수용하고 살펴볼 필요와 가치가 있다. 다음은 한국수어 다의어 현상 예시이다.

3.2.3. 한국수어 다의어 현상 예시

- 16) 한국수어에서 동음이의어로 구분할 만한 어휘 중 하나가 ‘심심하다’, ‘인천’ 등의 의미를 가진 [심심하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수어에서는 같은 어원에 뿌리를 둔 다의어 형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수지기호의 범주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7) 한국어에서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구분한다.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하나의 형태에 여러 의미가 결합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이나 다의어는 의미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동음이의어는 의미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국어	어휘	예시
다의어	‘속’	서랍 속/ 속 쓰리다/ 속으로는/ 속이 팍 차다
동음이의어	‘눈’	눈이 부시다/ 눈이 트다/눈을 속이다/ 그물의 눈

그러나 대상 어휘가 다의어인지 동음이의어인지에 대한 판단이 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다의어 판정의 준거인 동일 어원과 의미의 유사성 여부가 분명히 드러나는 어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휘도 있기 때문이다(윤평현 2020: 190-194).

한국어 동음이의어	한국수어 동음이의어 아님		
‘배’			
	[배(신체)]	[배(과일)]	[배(운송수단)]

한편, 한국어에서 다의어나 동음이의어인 어휘들이 한국수어에서는 다의어나 동음이의어가 아닌 경우,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들이 많다. 또한 한국수어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수지 표지를 통한 명료한 혹은 미세한 변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 18) 본서에서는 수지기호 범주에서 일어나는 다의어 현상을 ‘넓은 의미의 다의어’로 수용하고 기술하였다. 또한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대응 생성되는 어휘들이 반드시 다의어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경계하였다.

수어	수어	수어	수어
[나무] '나무' '목요일' '목포'	[보족하다] '뽀족하다' '가시' '에민하다'	[여우] '여우' '교활하다' '스타킹'	[소개] '소개' '통역' '변호'
수어	수어	수어	수어
[춡다] '춡다' '차갑다' '아이스(커피)' '냉정하다' '몸살'	[쇠] '쇠' '절대로(하지 않겠다)'	[뿌리] '뿌리' '기초'	[일] '일하다' '직업'
수어	수어	수어	수어
[염소] '염소' '명동'	[생명] '숨(호흡)' '생명' '보험' '예비용'	[시원하다] '시원하다' '개운하다' '평화롭다' '평화'	[위로] '보살피다' '위로하다' '대접하다' '서비스'

[그림 V-2] 한국수어 다의어 현상 예시

다의어의 준거 기준은 동일어원과 의미의 유사성에 있다(윤평현 2020: 192). 위에 제시된 예시들은 이러한 준거 기준에 부합한다. [나무]는 '나무'와 더불어 지명에 '나무의 의미(木)'을 갖고 있는 지명 '목포'라는 의미로 쓰이며, [여우]는 '여우'와 더불어 여우의 특성인 교활함과 윤기 있는 털에 근거한 '교활하다'와 '스타킹'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쇠]는 '쇠(철)'와 더불어 그 단단하고 강한 속성에 근거한 '절대로(하지 않겠다)'의 의미로도 쓰인다. [염소]는 턱수염을 근거로 한 어휘로 동물 '염소'의 뜻과 더불어 '명동¹⁹⁾'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생명]은 '숨(호흡)'을 근거로 '생명'의 의미로 쓰이다 생명보험의 출현과 더불어 '보험'이라는 의미로 확대 되었고 '보험'이란 의미가 작용하여 '예비용(대비용)'의 의미로

19) '명동'은 조선말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명례방-명치정-명동이라는 명칭의 변화를 겪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일왕의 턱수염이 상징화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철관 1998: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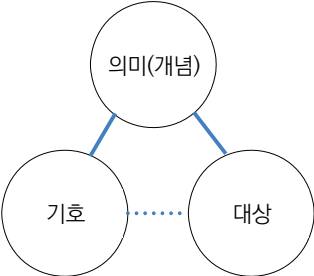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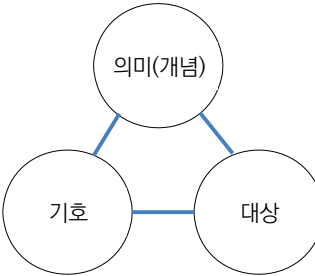


까지 확대된 사례이다. [시원하다]는 ‘시원하다.’, ‘개운하다’, ‘평화롭다’, ‘평화’ 등의 의미로 쓰이는 어휘이다. ‘시원하다’와 ‘평화’는 유사성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모두 ‘고민이나 생각이 다 청소되어 없어진 상태’를 근거로 한 어원에서 출발하였다(김칠관 1998: 199). [위로]는 ‘돌보고 보살피다’라는 의미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 어휘이다. 사람을 위로하거나 밥을 사주거나 하는 ‘돌보는 행위’와 관련한 의미에 사용되며 최근에는 ‘서비스업’을 표현하는 어휘로도 사용되고 있다.

4. 도상성과 비유

4.1. 도상성

4.1.1. 도상성과 자의성

‘도상성(iconicity)’²⁰⁾은 ‘자의성(arbitrariness)’과 대립되는 용어로 언어 기호의 형태가 의미와 체계적으로 닮아 있음을 뜻한다(임지룡 2018: 64). 즉, 언어 기호가 지시된 대상과 유사하여 의미로부터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²¹⁾

기호 삼각형-자의성		기호 삼각형-도상성	
			
<p>언어 기호는 지시체인 대상과 아무런 자연적, 인과적 관계가 없이 오직 관습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호와 대상이 점선으로 이어져 있다. 예시/[선생]</p>		<p>언어 기호는 지시체인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기호는 즉각적으로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기호와 대상이 실선으로 이어져 있다. 예시/[집]</p>	
			

[그림 V-3] 기호 삼각형으로 본 자의성과 도상성

20) 수어학에서는 도상성과 자의성의 대조가 중심이 되어왔지만, 여러 연구자들은 도상성이라는 용어 대신 동기성(motiv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남기현 2014: 277).

21) 도상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한국수어문법연구 음운형태론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시각언어인 수어는 음성언어에 비해 도상성이 매우 강한 언어이다. 수어발화자는 손과 얼굴, 공간 등 시각적 장치를 사용하여 담화대상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수어수신자는 시각적으로 의미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표V-10〉 의미의 다양한 형태

의미	형태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한국수어
	tangerine [ˈtændʒəriːn]	橘子 [júzi]	귤 [gu:l]	
	자의성	자의성	자의성	도상성

한국수어에는 고정어휘와 생산적 어휘가 존재하며 한국수어 담화에서 생산적 수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고정된 수어를 사용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담화 과정에서 수어화자가 즉각적으로 만들어 내는 생산적 수어는 대부분 도상성과 연결되어 있다.

〈표V-11〉 한국수어 어휘 예시 - 자의성과 도상성

〈예시〉 한국수어 어휘-자의성 ²²⁾			〈예시〉 한국수어 어휘-도상성		
		수어			
[선생]	[시골]	[학생]	[집]	[달]	[원숭이]
수어		수어			
[못(하다)]	[가능하다]	[핑계]	[물고기]	[마시다]	[야구]
		수어			
[매력]	[간단하다]	[글자]	[달다]	[마라톤]	[궁궐]

도상성은 한국수어의 의미전이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한국수어 어휘 중에는 도상성에서 출발하여 자의성을 가진 어휘로 전이된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어휘의 경우 여전히 도상성이 남아 있지만 자의성이 강화되어 불투명한 도상성을 드러낸다. 도상성은 한국수어 어휘는 물론 문장 차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4.1.2. 한국수어 도상성의 종류와 특성

1) 한국수어 도상성의 종류

한국수어에서 도상성은 영상적 도상성, 구조적 도상성, 비유적 도상성으로 나뉜다. 다음은 한국수어 도상성의 종류이다.

〈표 V-12〉 한국수어 도상성의 종류

범주	세부 범주	설명
영상적 도상성	생김새	기호의 형태가 사물의 형태와 닮음
	움직임	
구조적 도상성	양적 도상성	기호의 형태적 특징이 의미 구조의 양상과 대응함
	거리적 도상성	
비유적 도상성	은유	기호의 형태와 내용이 은유적, 환유적 관계로 맺어짐
	환유	

2) 한국수어 도상성의 특성

시각언어인 한국수어는 도상성이 강한 언어이며 음성언어에서의 도상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은 한국수어 도상성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22) [선생], [학생], [핑계], [글자]는 모두 도상성에서 출발한 어휘이다. 그러나 한국수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의미를 유추하기 힘들므로 자의성을 갖고 있는 어휘로 분류하였다.

〈표 V-13〉 한국수어 도상성의 특성

한국수어 도상성의 특성 ²³⁾	
1	한국수어의 도상성은 영상적, 구조적, 비유적 도상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흔하다.
2	한국수어는 도상적 양상 가운데 비유에 의한 환유적 도상성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해당 의미에 대한 특징적인 모양이나 동작을 포착하여 어휘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3	한국수어의 은유적 도상성에는 공간적(방향적) 도상성이 많이 나타난다.
4	신체부위를 가리킬 때 지시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5	한국수어의 반의어는 한국어에 비해 의미와 형태의 관계가 도상적이다.

4.2. 비유

비유는 인간의 경험과 사고를 확장하는 인지 체계의 하나이며, 비유적 표현은 인지 전략에 따른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언어생활의 한 단면이다(윤평현 2020: 198). 비유는 의미전이의 방식으로서, 유사성과 인접성을 기반으로 한 의미 연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은 유사성과 인접성에 대한 예시이다.

〈표 V-14〉 유사성과 인접성 예시

	유사성	인접성
어형	어형의 유사성	어형의 인접성
	[언니][여동생]	[하양][눈]
의미	의미의 유사성	의미의 인접성
	[꼬덕 없다][고집]	[부드럽다][두부]

유사성이란 서로 비슷한 성질을 의미하고 인접성이라 서로 닿아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유사성(similarity)에 기반하고 있는 의미전이를 은유라고 하며, 인접성(contiguity)에 기반하고 있는 의미전이를 환유라고 한다(한국어 교육학 사전 2014: 736). 다음은 은유와 환유의 연상 기반 도표이다.

〈표 V-15〉 은유와 환유의 연상 기반 도표

	연상 기반	내용
은유(metaphor)	유사성(similarity)	모양, 색채, 재료, 기능, 상태 등
환유(metonymy)	인접성(contiguity)	공간, 시간, 인과 관계 등

23) 〈표 V-13〉 한국수어 도상성의 특성은 임지룡(2018)의 ‘한국 수어의 도상적 양상과 의미 특성(*국어교육연구 제 68집)’을 인용하였다(임지룡 2018: 81).

4.2.1. 은유의 개념

은유는 하나의 개념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은유는 보통 ‘A는 B이다.’의 구조를 가지며 기본적으로 유사성에 근거하는 인지 기제이다. 은유는 ‘봄이 오다.’, ‘사랑에 빠지다.’와 같은 단순한 일상 언어에서부터 ‘내 마음은 호수요.’와 같은 시적 은유에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은유에는 공간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구조적 은유가 있다.

〈표 V-16〉 한국수어 어휘 예시 - 은유

	공간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구조적 은유
예시				
	[결혼] '결혼하다'	[이혼] '이혼하다'	[잊다] '잊어버리다'	[정직하다] '정직하다'

[결혼]-[이혼]에서와 같이 ‘공간적 은유’는 앞과 뒤, 위와 아래, 높고 낮음과 같은 공간적 정보에 의존한다. 공간적 은유는 지향적 은유라고도 불린다. ‘존재론적 은유’에서는 추상적인 개체, 상태, 사건을 사물처럼 취급한다. [잊다]는 ‘기억’을 사물처럼 취급하여 ‘놓친’ 것을 기호화한 것이다. ‘구조적 은유’는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해 만들어지는 은유이다. [정직하다]는 ‘일직선’이란 개념을 통해 기호화된 단어이다(남기현 2014: 301-307, 최영주 2017: 132-138).

4.2.2. 환유의 개념

환유는 어떤 개체와 관련되는 같은 영역의 개체를 지시하기 위해 그 개체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사물의 한 부분이나 그 속성을 들어서 전체나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환유는 인접성에 기반을 둔 과정으로 한 영역의 일부를 가지고 그 영역 전체를 나타내는 확대 지칭과 한 영역의 전체를 가지고 그 영역의 어느 일부분을 나타내는 축소 지칭에 바탕을 둔다(한국어교육학사전 2014: 736).

환유는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 기제이다.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환유가 은유보다 더 기본

적이고 의미 확장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본다. 환유가 우리의 신체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은유와 유사하지만 두 사물이 인접해 있어서 의미적 연상, 즉 의미전이가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한국어교육학사전 2014: 736).

〈표 V-17〉 한국수어 어휘 예시 - 환유



한국수어에서는 환유의 확대 지칭 현상, 즉 사물의 한 부분이나 그 속성을 들어서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하마]와 [오리]는 생김새의 일부(입)를, [대한민국]은 전통 복장의 일부를, [일본]은 생김새의 일부(수염)를 기호화하여 전체를 표현하였다.

4.3. 영상적 도상성(imagic iconicity)²⁴⁾

영상적 도상성은 기호의 ‘형태’와 ‘지시 대상물’간에 시각적 영상이 유사한 것을 가리킨다. 영상적 도상성은 수어의 형태가 사물의 형태와 닮은 것으로 생김새와 움직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임지룡 2018: 67, 71). 다음은 한국수어 어휘에서의 영상적 도상성 예시이다.

〈표 V-18〉 한국수어 어휘 예시 - 영상적 도상성



24) 영상적 도상성에 대한 설명과 예시는 임지룡(2018)의 ‘한국 수어의 도상적 양상과 의미 특성(*국어교육연구 제 68집)’을 인용하였다(임지룡 2018: 71-73).



[다리], [달], [얼굴]은 대상의 생김새를 기호화한 것이며, [나팔], [마시다], [걷다], [돌다], [야구]는 대상의 움직임을 기호화한 것이다.

4.4. 구조적 도상성(structural iconicity)

구조적 도상성은 기호의 형태적 특징이 의미 구조의 양상과 대응하는 것을 가리킨다(임지룡 2018: 67-68). 구조적 도상성에는 ‘양적 도상성’과 ‘거리적 도상성’이 있다.²⁵⁾ 다음은 한국수어 어휘 관련 구조적 도상성의 예시이다.

〈표 V-19〉 한국수어 어휘 예시 - 양적 도상성



양적 도상성에서는 개념의 복잡성 정도가 언어적 재료의 양과 비례한다(임지룡 2018: 67). [사람]-[사람들]에서와 같이 수어동작을 반복하거나, [일대일 회의]-[다자 회의]에서와 같이 손가락을 통해 양을 표현할 수 있다.

25) 임지룡(2018)은 구조적 도상성을 ‘양적 도상성’, ‘순서적 도상성’, ‘거리적 도상성’으로 구분하고 ‘순서적 도상성’을 ‘시간적 순서, 자연성 및 우선성의 정도가 수어의 구조에 도상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2월], [백두산]을 그 예시로 제시하였다(임지룡 2018: 75). 그러나 한국수어에서는 어휘적 요소인 도상성이 동시적으로 제시되거나 제시 순서의 역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순서적 도상성’ 개념을 배제하였다.

〈표 V-20〉 한국수어 어휘 예시 - 거리적 도상성

거리적 도상성				
	[가깝다]	[멀다]	[조상]	[후손]

거리적 도상성에는 개념적 거리와 언어적 거리가 비례관계를 형성한다(임지룡 2018: 67-68). 화자 몸 가까이 있는 비우세손을 기점으로 우세손의 거리를 조정하여 [가깝다]와 [멀다]를 표현하고 있으며 화자의 위-아래를 기준으로 거리에 비례를 둬으로써 [조상]과 [후손]을 표현하고 있다.

〈표 V-21〉 한국수어 어휘 예시 - 거리적-양적 도상성

거리적-양적 도상성				
	[그제]	[어제]	[내일]	[모레]

[그제], [어제], [내일], [모레]는 거리적 도상성과 양적 도상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어휘이다. 화자를 중심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더 먼 과거를 앞쪽으로 갈수록 더 먼 미래를 표현할 수 있으며 예시에서와 같이 지숫자를 통해 복잡성의 정도를 도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4.5. 비유적 도상성(figurative iconicity)²⁶⁾

기호의 형태와 내용이 환유적, 은유적 관계로 맺어진 도상성이다. 비유적 도상성은 수어의 형태가 의미와 개념적 유사성을 갖는 ‘은유적 도상성’, 수어의 형태가 의미와 부분-전체의 인접성을 갖는 ‘환유적 도상성’으로 나뉜다(임지룡 2018: 68-76).

26) 비유적 도상성에 대한 설명과 예시는 임지룡(2018)의 ‘한국 수어의 도상적 양상과 의미 특성(*국어교육연구 제 68집)’과 최영주(2017), [한국수화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를 참고하였다.

4.5.1 은유적 도상성

1) 공간적(지향적) 은유

‘공간적 은유’는 ‘지향적 은유’라고도 불린다. 한국수어는 공간을 활용하는 시각언어이기에 한국수어에는 앞과 뒤, 위와 아래, 바깥과 안, 높고 낮음과 같은 공간적 기호를 사용한 공간적 은유가 많이 나타난다.

〈표 V-22〉 한국수어 어휘 예시 - 공간적 은유(지향적 은유)

공간적 은유 (지향적 은유)				
	[결혼] '결혼하다'	[이혼] '이혼하다'	[가볍다]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 '중요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나쁘다] '나쁘다', '악'	[이기다] '이기다'	[지다] '지다'
	수어	수어	[과거] '과거' '예전에'	[미래] '미래' '앞으로'
	[발전] ²⁷⁾ '발전하다'	[퇴보] '퇴보하다'		

27) 은유적 도상성에 제시된 예시 [발전], [퇴보], [과거], [미래]는 구조적 도상성인 동시에 은유적 도상성이다.

[결혼]-[이혼]은 좌우축을 기준으로 바깥과 안쪽의 기호를 통해 결합과 헤어짐을 기호화하고 있다. [가볍다]-[무겁다]는 물건이 가벼울 때는 쉽게 위로 들어 올릴 수 있고 무거울 때는 아래로 내려가기 쉽다는 경험에 바탕을 둔 개념화이다(최영주 2017: 134). [훌륭하다], [이기다], [발전]과 같이 긍정적인 의미의 수어는 수동의 경로가 위로 [나쁘다], [지다], [퇴보]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의 수어는 수동의 경로가 아래로 표현된다. [과거]-[미래]는 화자의 뒤와 앞 공간을 나누어 신체의 뒤쪽은 과거로 신체의 앞 쪽은 미래로 표현하였다.

2) 존재론적 은유²⁸⁾

한국수어에는 생각이나 감정 등을 사물처럼 취급하여 표현하는 ‘존재론적 은유’가 나타난다.

〈표 V-23〉 한국수어 어휘 예시 - 존재론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p>[기분+가볍다] '흥가분하다'</p>	 <p>[기분+없애다] '상쾌하다'</p>	
	 <p>[생각+뒤틀리는 동작] '영똥하다'</p>	 <p>[기억] '기억하다'</p>	 <p>[잊다] '잊어버리다'</p>

[기분+가볍다]와 [기분+없애다]는 같이 ‘기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가볍거나 없앨 수 있는 물건으로 개념화한 은유로 각각 ‘흥가분하다’와 ‘상쾌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생각+뒤틀리는 동작]은 ‘생각’을 뒤틀 수 있는 물건으로 개념화하여 ‘영똥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기억]과 [잊다] 역시 ‘기억’을 잡거나 놓칠 수 있는 물건으로 개념화 하여 ‘영똥하다’ ‘기억하다’와 ‘잊어버리다’를 표현하고 있다.

28) 존재론적 은유와 구조적 은유의 예시는 최영주(2017), [한국수화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를 138쪽을 인용하였다.

3) 구조적 은유²⁹⁾

‘구조적 은유’는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해 만들어지는 은유이다.

〈표 V-24〉 한국수어 어휘 예시 - 구조적 은유

구조적 은유		
	[정직하다] '정직하다'	[바르다] '바르다', '점잖다', '예의 있다.'

[정직함]은 수직 ‘일직선’으로 [바름]은 수평 ‘일직선’으로 개념화되고 있다(남기현 2014: 301-307, 최영주 2017: 132-138).

4.5.2 환유적 도상성

한국수어에서는 환유의 확대 지칭 현상, 즉 사물의 한 부분이나 그 속성을 들어서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한국수어에서 환유는 단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V-25〉 한국수어 어휘 예시 - 환유적 도상성¹

			
[소] '소'	[닭] '닭'	[돼지] '돼지'	[낙타] '낙타'

29) 존재론적 은유와 구조적 은유의 예시는 최영주(2017), [한국수화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를 138쪽을 인용하였다.



한국수어에서는 동물, 직업, 신분에 관한 단어에서 비유적 도상성인 환유가 강하게 드러난다(남기현 2014: 297-300). [소], [닭], [돼지], [낙타]는 각각 ‘뿔’, ‘벼슬’, ‘코’, ‘등’이라는 생김새의 부분을 기호화하여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신사], [회원], [군인], [사제]도 각각 ‘양복’, ‘배지’, ‘총’, ‘로만 카라’라는 복장(생김새)의 부분을 기호화하여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표 V-26〉 한국수어 어휘 예시 - 환유적 도상성2



[배_넓다]는 몸의 특정 부위로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환유방식으로 ‘관대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여우]와 [코흐르다+왼쪽가슴손수건]은 하나의 범주로 그 범주의 속성을 가리키는 환유방식이다. [여우]는 ‘교활함’을 [코흐르다+왼쪽가슴손수건]은 ‘유치함’을 비유하고 있다(최영주 2017: 142-143). [바르다]는 ‘일직선’이라는 개념으로 형성된 은유와 하나의 속성으로 전체를 가리키는 환유가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이다. 한국수어에서 도상성이 강한 어휘들 중에는 이와 같이 은유와 환유가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다.

5. 역할전환

수어에는 사람들의 말, 생각, 느낌, 감정, 행동을 표현할 때 머리, 얼굴, 시선, 팔, 몸통 등 수어 화자의 신체를 이용한 표현 장치가 있다. 이 표현 장치를 부르는 용어는 다양한데 역할전환(role shift, role switching), 관점 서술어(point of view predicate), 지시적 전이(referential shift), 구성된 행위(constructed action) 등이다(Cormier 외 2013: 119).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이어 자신의 경험담 이야기, 동화 구연, 담화 등 다양한 담화 형태에서 나타나는 한국수어에서 역할전환을 살펴보기로 한다.

5.1. 역할전환의 정의

역할전환의 정의를 보면, 역할전환이란 ‘수어 화자는 해당 맥락에서의 행위자를 모방적으로 묘사하는 매우 풍부한 비수지표지에 의존하여 다른 맥락에서 행위자(캐릭터)의 발화, 생각, 혹은 행동을 보고하는 광범위한 현상이다. 그러한 비수지표지는 시선응시의 방향, 얼굴표정, 머리와 몸의 자세가 포함될 수 있으며 대개 수지요소와 동시에 산출된다(Quer 2018: 277).’다음, 구성된 행위의 정의는 ‘지시체의 행동, 발화, 생각, 느낌,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수어 화자의 얼굴, 머리, 신체, 손, 그리고 다른 비수지적인 단서를 사용하는 담화전략’으로 수어에서 폭넓게 사용한다(Metzer 1995; Cormier 외 2013: 119 재인용).

두 용어의 정의는 크게 다르지 않다. 구성된 행위라는 용어는 구성된 대화(constructed dialogue)에 관한 태넨(Tannen 1986)의 작업에 의거하여 메츠거(Metzer 1995)가 고안한 것이다. 메츠거는 지시체의 대화 또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 태넨의 용어 ‘구성된 대화’를 사용하였고 상상이든 실제이든 다른 사람이 행한 의사소통의 비-음성적 측면, 예를 들어 행동, 느낌,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구성된 행위라는 용어를 만들었다(Cormier 외 2015: 2-3). 즉 메츠거의 구성된 행위는 구성된 담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우리는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역할전환’을 사용하기로 한다. 역할전환은 수어 특유의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으나 음성언어에서도 화자는 누군가의 발화만이 아니라 생각, 행위, 느낌을 인용한다(Cormier 외 2013: 120). 예를 들어 음성언어에서 화자는 ‘나는 차에서 내렸고 그냥 [돌아서 보이지 않는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시범]’라고 말할 수 있다. [] 안에 들어간 내용은 행동의 시연이다(Cormier 외 2013: 121).

역할전환 현상을 다루는 접근은 두 가지로 나눈다(Quer 2018: 277). 하나는 역할전환으로 표지되는 모든 현상을 구성된 행위라는 용어로 묶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용적 사용(구성된

대화)과 행위자에 의한 행위를 언급하기 위한 사용(구성된 행위)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역할 전환의 인용적 사용과 비인용적 사용의 구별은 1인칭 대명사의 유무로 판단한다(Lillo-Martin 2012).³⁰⁾

		역할전환: 남편			
(1)	가.	[남편]	[나]	[일]	[가다]
		역할전환: 남편			
	나.	[남편]	[일하다]		

(1가)에서 수어 화자는 [남편]이라고 수어하고 나서 남편의 말을 인용하기 위해 자신의 상체를 한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수어 발화([나] [일] [가다])를 한다. 신체를 살짝 한쪽으로 돌림으로써 남편의 역할로 전환한 것이며 역할전환과 함께 산출한 발화는 남편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남편이 “나 일하러 가”라고 말했다’라는 의미이다. (1나)는 ‘남편이 말했다. “일하고 있어”’라는 의미이다. 바로 앞에서 역할전환이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는 기능은 1인칭 대명사의 유무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1가)에는 1인칭 대명사가 있으며 1인칭 대명사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수어 화자가 아니라 남편으로 해석된다. (1나)에는 1인칭 대명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도상적인 수단을 통해 행위자의 행위를 생생한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행위의 역할전환(action role shift)으로 보았으나 행위자의 관점에서 행위의 보고는 역할전환과 함께 동시에 산출하는 실제 단어들로(여기서는 [일하다]) 전달된다(Schlenker 2017; Quer 2018: 277에서 재인용). 즉 역할전환이 사용된 문장에서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행위를 표현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역할전환이 실현된 문장에서 누군가의 말과 행위의 구분이 수어마다 차이가 있다 (Quer 2018: 278). 미국수어에서는 둘의 차이가 분명한데 반해 프랑스수어에서는 덜 그러하다고 한다. 한국수어에서도 1인칭 대명사의 유무만으로 (1)의 두 문장이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행위를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역할전환 하에서 1인칭 대명사는 현재 발화하고 있는 화자가 아니라 인용되고 있는 화자임은 분명하다.

5.2. 역할전환의 형식적 요소

역할전환을 표현하는 형식적 요소는 신체전환, 얼굴표정, 머리의 자세 변화, 시선이다(Quer 2011). 이 비수지표지들은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즉 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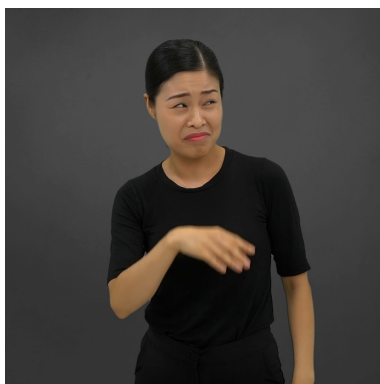
30) (1)은 미국수어에서 예문(Padden 1986: 49-50)을 한국수어에 맞게 내용을 바꾸어 제시한 것이다. 원문에는 ‘역할 전환: 남편’이라는 표기로 해당 부분이 남편의 말, 행동을 전달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리의 자세 변화와 시선응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역할전환의 형식적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료를 통해 각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는 농인과 청인 문화에서 잘 알려진 동화 「해와 바람」을 농인 화자가 구현한 영상자료이다(국립국어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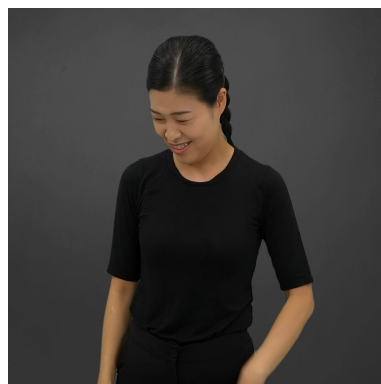
5.2.1. 신체전환

신체전환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과 연결된 쪽으로 신체를 살짝 돌리는 것이다. 동화 「해와 바람」에서 수어 화자는 신체전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수어 화자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양손을 활용한다. 왼손으로 [바람]을 오른손으로 [해]를 차례로 산출하여 이야기 속의 두 주인공 ‘바람’과 ‘해’를 수어 화자의 왼쪽 공간과 오른쪽 공간과 연결 짓는다. 이후부터는 [바람]과 [해]를 다시 표현하지 않아도 수어 화자의 신체전환을 통해 대화 상대자는 해가 말하고 있는지 바람이 말하고 있는지 등장인물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a.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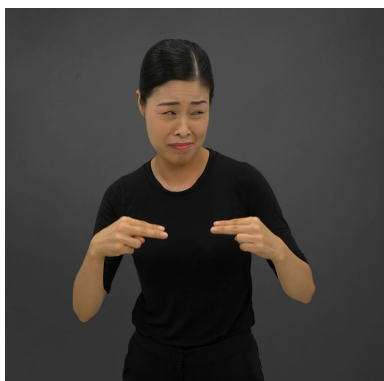


b.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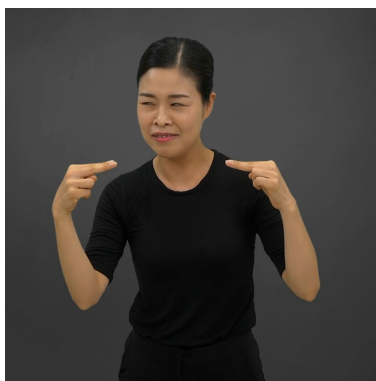
[그림 V-4] 신체전환

5.2.2. 머리의 자세 변화

바람과 해가 서로 논쟁을 할 때 한 남자가 지나간다. 바람과 해는 그 남자를 동시에 쳐다보고는 금세 서로를 바라본다. 신체전환처럼 눈에 확 띄 만큼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서로를 바라보는 머리 자세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바람과 해의 역할을 구분한다. 물론 이때 시선응시도 동시에 나타난다.



a.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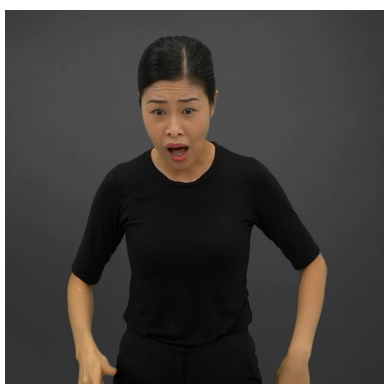


b.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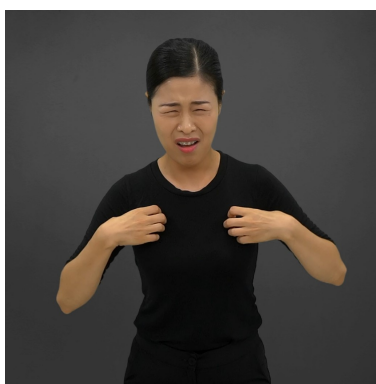
[그림 V-5] 머리의 자세 변화

5.2.3. 얼굴표정

이야기 속 주인공의 언어적, 감정적 얼굴표정이다. 힘껏 바람을 불어 남자의 외투를 벗기려던 바람은 도리어 외투를 뽁뽁 여미는 남자를 보고 놀란다. 길을 가던 남자는 갑자기 바람이 부는 상황에 몹시 당황해한다. 상체와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만 얼굴표정으로 등장인물을 파악할 수 있다.



a. 바람의 놀란 얼굴표정



b. 남자의 당황한 얼굴표정

[그림 V-6] 얼굴표정

5.2.4. 시선응시

수어 화자는 동화를 들려줄 때 대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본다. 그러나 역할전환을 표현하는 동안 수어 화자는 이야기 속 대화 상대자를 응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실제 대화 상대자와의 시선 접촉을 하지 않는다. 수어 화자는 역할전환을 표현하는 동안 매우 유연하게 시선응시에 변화를 준다.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 잠시 대화 상대자를 쳐다본다거나 이야기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대화 상대자를 쳐다보는 것이다.



a. 해를 쳐다봄



b. 바람을 쳐다봄



c. 대화 상대자를 쳐다봄

[그림 V-기] 시선응시

신체전환, 머리의 자세 변화, 얼굴표정, 시선응시는 모두 비수지표지들이다. 비수지표지들은 수지표지들과 동시에 산출되고 조화를 이룬다. 물론 역할전환을 표현하는 동안에 비수지표지 모두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수지표지들은 종종 매우 미묘해서 원어민이 아닌 수어자들은 놓치기 쉽다(Quer 2011).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역할전환의 내용요소를 잘 보여주는 예로 중고등학교 시절 농학교를 통학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주제로 한 「빈 도시락」³¹⁾(국립국어원 2020)을 보기로 한다. 수어 화자는 누군가의 말, 생각, 느낌, 행동을 전달하므로 지금 말하고 있는 수어 화자와 인용된 화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31) 「빈 도시락」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수어 문학의 한 장르에 속한다. '개인적인 경험 내러티브(Narratives of Personal Experience)'라고 하는데 이는 농공동체 이야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개인적인 경험은 이야기꾼의 개별적인 경험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 사이에 공유된 경험의 감각을 만들기 위해 종종 이야기된다. 개인적인 경험 내러티브는 여러 이야기를 결합할 수 있게 하여 농공동체 구성원들을 더욱 결속시킨다(위키피디아 참조).

5.3.1. 인용된 화자의 말

「빈 도시락」에서 현재 말하고 있는 수어 화자는 인용된 화자와 일치한다. 수어 화자가 바로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을 말하고 있는 인용된 화자이다. 그러나 수어 화자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혹은 동화를 구연할 때 인용된 화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아래는 인용된 화자의 말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V-8] 인용된 화자의 말

「빈 도시락」에서 인용된 화자가 아침에 등교 준비를 마치고 도시락을 싸달라고 말하는 부분이다([그림 V-8]). 수어 화자는 [아침] [도시락] [만들다] [주세요] [말하다]('아침에 도시락 만들어 주세요')를 연속적으로 수어하였고 문장 끝에 있는 [말하다]를 통해 인용된 화자의 말임을 알 수 있다. 수어 화자가 인용된 화자의 말을 전달한 것이다.

5.3.2. 인용된 화자의 행위

수어 화자는 인용된 화자의 행위를 표현한다.



[걸어가다]

[그림 V-9] 인용된 화자의 행위

수어 화자는 인용된 화자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람이 겉듯이 양팔을 앞뒤로 흔든다([그림 V-9]).

5.3.3. 인용된 화자의 생각

수어 화자는 인용된 화자의 생각, 느낌, 감정을 표현한다.



a. [나]



b. [얼굴]



c. [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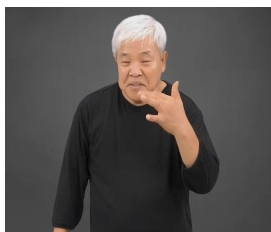
d. [아니다]



e. [어깨으쓱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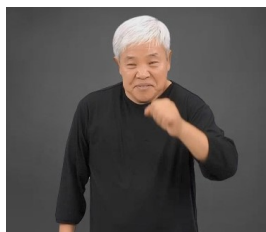
f. [아마도]



g.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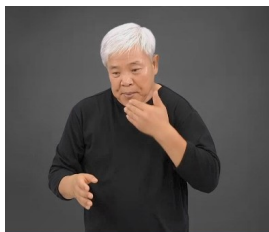
h. [기분]



i. [좋다]

[그림 V-10] 인용된 화자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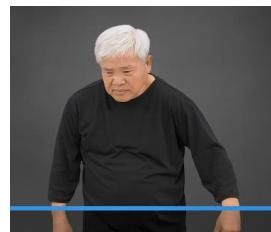
인용된 화자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인용된 화자를 쳐다본다. 수어 화자는 [나] [얼굴] [미남] [아니다]('내 얼굴이 미남인가?') 어깨를 으쓱거린 후 이어서 [아마도]('아마도')라고 표현한다([그림 V-10 a-f]). 이때 어깨를 으쓱하는 행동은 인용된 화자의 행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어서 나온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다] [기분] [좋다]('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니 기분이 좋네')라는 표현은 인용된 화자의 생각 혹은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그림 V-10 g-il]). 이 이야기는 한 명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인용된 화자가 누군가에게 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인용된 화자의 생각 혹은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어 화자는 인용된 화자의 생각 혹은 감정을 표현한다.



a. [도시락]



b. [도시락을 가방에서 꺼내다]



c. [도시락을 앞뒤로 흔들다]

[그림 V-11] 인용된 화자의 감정

[그림 V-11]은 [도시락] [도시락을 가방에서 꺼내다] [도시락을 앞뒤로 흔들다]('도시락을 가방에서 꺼내 앞뒤로 흔들다')이다. 물론 도시락을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것은 인용된 화자의 행동을 표현한 것이다. 이야기 내내 얼굴표정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수어 화자는 [도시락을 앞뒤로 흔들다]를 표현한 후 잠시 멈추고 아래를 응시하였다가 다시 도시락을 흔든다. 도시락을 다시 흔든 뒤의 동작은 도시락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 수어 화자의 얼굴표정에서 놀람의 감정이 드러난다. 학교를 통학하면서 4년이 넘도록 도시락통 속에 넣어 온 젓가락이 도시락통과 부딪히면서 냈던 소리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본 것은 자신이 미남이어서가 아니라 도시락통 속에서 젓가락이 부딪치면서 나는 요란한 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인용된 화자의 감정이 얼굴표정으로 전달된다.

5.4. 담화에서 나타난 역할전환

역할전환은 농인들의 일상적인 담화 상황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수어 화자들은 정보 전달이라는 담화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역할전환을 사용한다. 아래에서 볼 예문은 시사적인 이슈를 한국수어로 쉽게 설명해주는 방송 일부이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영상의 일부 내용을 가져왔다.³²⁾

{당황한표정}									
{고개오른쪽위향하기}									
{상체오른쪽위향하기}									
(3)	가.	[한국]	[안하다]	[안되다]	[돈]	[크다]	[안하다]	[기다리다]	{상대응시}
{단호한표정}									
{고개왼쪽아래향하기}								{입벌리기}	
{상체왼쪽아래향하기}								판정의문표지	
나.	[미국]	{고개좌우흔들기}	[조르다]	[미국]	[군대]	[철수]	{원하다}		
{단호한표정}									
{고개왼쪽아래향하기}									
{상체왼쪽아래향하기}				{상대응시}		{고개끄덕이기}			
다.	[트럼프]	{화내다}++							

(3) 문단 앞에 이미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3) 문단의 내용을 수어 화자는 한국측과 미국측 입장을 역할전환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준다. 수어 화자는 (3가)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상체와 고개를 오른쪽 위를 향해 완전히 돌려 역할전환의 시작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역할전환의 형태적 표지와 거의 동시에 [한국]이라는 어휘를 표현하여 이어지는 대화가 한국의 입장임을 알려준다. ‘한국측은 매우 당황하며 방위비 분담 비용이 너무 크다 좀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는 의미이다. 실제 한국측이 말하는 것처럼 얼굴표정을 지으며 표현한다. 한국측의 발화를 표현하는 내내 수어 화자는 상체와 고개를 오른쪽 위를 향하는 것을 유지한다. 수어 화자는 한국측의 발화를 말한 뒤 뉴스 설명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잠시 쳐다본다((3가)에서 {상대응시}). 바로 이어서 (3나)에서 수어 화자는 고개와 상체를 왼쪽 아래를 향하고 단호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어휘가 나오면서 미국측의 발화가 이어진다. 미국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한국측이) 계속 입장을 고수하면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기를 원하느냐?’라고 강하게 발화한다. [조르다]에서는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 눈을 크게 뜨고 눈썹을 위로 올려 제의 조건문을 표현한다. (3다)에서 수어 화자는 고개와 상체를 왼쪽 아래를 응시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화를 내는 모습을 표현한다. 수어 화자는 발화를 마치면서 청중과의 시선을 마주하며 고개를 끄덕여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확인한다((3다)에서 {상대응시})와

32) 성북구수어통역센터 농아인센터 역량강화교육 “농 뉴스룸” 중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하였다.

{고개끄덕이기}).

(3)에서 수어 화자는 미국과 한국의 역할을 맡아 표현한다. 상체와 머리의 자세 변화, 얼굴 표정 등 비수지표지가 해당 역할에 따라 분명한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역할이 하는 말이나 행동 전에 [미국], [한국], [트럼프]라는 주체를 분명히 나타낸다. 이 영상은 어려운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한국수어로 설명해주는 담화로써 정보 제공의 성격이 강하다. 수어 화자는 서술문으로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으나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치 미국측과 한국측이 실제 협상을 하듯이 역할전환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정보 전달이라는 담화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었다. 역할전환은 동화 구연, 개인적인 경험 내러티브 등 수어 문학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인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정보 제공과 사교적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담화전략이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VI.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제언

VI.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연구된 한국수어 음운론과 형태론 분야를 수정 보완함과 더불어 한국수어의 연구 및 교육 등에서 필요한 한국수어 문법 중에서 통사론과 의미론을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 통사론과 의미론을 기술하고 한국수어 문법 연구 영역별(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고 수정 보완하며, 문법 설명에 필요한 사진 자료를 제작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음운론 및 형태론 수정 보완

2019년에 기술한 한국수어 음운론 및 형태론 분야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 국어국문학 전공자 1명과 수어 언어학 전공자 4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전문가 검토 의견은 총 143건으로 내용이나 용어와 관련이 90건, 예시자료 관련이 54건이었다. 검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한국수어 문법 용어를 확정하였다. 또한 수어 예시와 관련한 내용은 이견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예시로 수정하였다.

1.2. 수어 사진 자료 제작

2019년에 기술한 한국수어 음운론 및 형태론과 2020년 기술한 한국수어 통사론 및 의미론에 제시된 예시자료의 수어 사진 제작을 진행하였다.

사진 제작은 수어가 가능한 제작 업체를 선정하여 2020년 8월 1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하였다. 수어 사진 촬영 및 편집 일체를 위탁하여 진행하였으며, 예시자료에 대한 이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연구자가 직접 영상을 촬영하여 제공하였다. 수어 사진은 설명하고자 하는 수어 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가능한 한 장의 사진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수어 사진 자료는 음운론 및 형태론은 1,009개, 통사론 및 음운론은 306개 총 1315개를 제작하였다.

1.3. 통사론

통사론은 문장성분, 문장구조, 문장종결, 부정법, 수어양식과 동사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3.1 문장 성분

문장성분에서는 주성분과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주성분에서는 ‘무엇이 어찌하다’[남자] [달리다] ‘무엇이 어떠하다’[고양이] [잡다], ‘무엇이 무엇이다’[교사] [농인]이라는 문장 속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목적어가 필요한 수어 동사 [잡다]와 [피아노치다] 그리고 보어가 필요한 수어 동사 [아니다] [되다] [변하다]가 들어간 수어 문장 예시를 통해 목적어와 보어를 설명하였다.

부속성분에서는 관형어와 부사어 그리고 독립어를 기술하였다. 관형어는 체언을 한정하는 것으로 수어 문장 예시를 통해 꾸밈을 받는 체언 뒤에 오는 경우와 체언 앞에 오는 경우를 설명하였다.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체언 앞에 오는 한국어와는 달리, 한국수어에서는 [선생님] [옷] [빨강] [즐기다]에서와 같이 [빨강]이 [옷] 뒤에 와서 꾸민다. 그러므로 관형어라는 용어 대신 ‘수식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론 [나] [친구] (‘내 친구’), [선생님] [책] (‘선생님의 책’)와 같은 경우는 체언 앞에 수식어가 온다.

부사어는 서술어를 한정하는 말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어휘 [가끔], [항상], [별써], [요즘] 등이 들어가는 문장 예시를 통해 문장 처음에 오는 부사와 문장 마지막에 오는 부사를 소개하였다. ‘굉장히’, ‘늘’, ‘여기저기’에 ‘모두’라는 의미의 부사어는 별도의 부사 어휘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사를 반복하여 실현됨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장소의 이동과 관련된 부사적 의미는 공간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집에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간다’는 문장은 [걷다]라는 동사의 시작점은 [집]이라는 수어를 한 공간이며 끝점은 [지하철역]이라는 수어를 한 수어 공간이 된다. 또한 ‘매우’와 같은 정도 부사는 비수지표지로 실현됨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독립어는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쓰이는 문장성분으로 실수했을 때,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기대와 예상에 어긋났을 때 등 자신의 느낌,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감탄표현 [아하1], [아하2], [오], [아이쿠1], [아이쿠2] 등을 소개하였다.

1.3.2 문장구조

문장구조는 기본문장과 문장의 확대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기본문장에서는 문장의 종결과 서술어, 어순, 부속성분을 기본문장의 특성으로 기술하고 초점과 화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문장의 종결은 {시선교환}과 {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간 활용과 비수지표지가 한국어의 조사와 서술격조사(계사)에 해당하는 문법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순을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특정할 수도 있으나 어순 제약이 강하지 않으며, 지시, 시선, 휴지 등 비수지표지에 의해 어순이 보정되며 전환이 용인된다고 설명하였다. 서술어 자리에 일치동사가 오는 경우 수어 공간 안에서 동사의 시작점과 끝점, 동사의 방향이 주어와 목적어를 결정하고 공간동사의 경우도 동사의 변형을 통해 주어와 목적어가 실현된다고 하였다.

부속성분은 한국어의 경우 관형어는 체언 앞에, 부사어는 용언 앞에 위치하나 한국수어의 경우 체언을 꾸며주는 수어와 용언을 꾸며주는 수어가 모두 체언과 용언 뒤에 위치한다. 다만, [크다][아버지]('큰 아버지')와 같이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처럼 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장 앞에 오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초점과 화제에서는 수신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새로운 정보를 명확히 강조하는 초점화와 수신자와 공유된 특정 주제나 대상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강조하는 화제화를 나누어 설명하였다.

초점화는 설명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의문표지와 비슷한 표지가 나타나며, 초점화표지 다음에 잠깐의 {휴지}가 있으며, 실제 초점 정보는 문장 끝에 제시되며 약간의 {고개끄덕이기}를 동반한다고 기술하였다. 화제화는 화제화 정보를 문장 맨 앞에 제시하고 {눈썹올리기}, {동공커짐}, {시선교환}, {고개끄덕이기} 등의 비수지표지가 나타나며 {휴지}가 있다고 하였다. 화제화 정보로 제시된 단어의 특성에 따라 {지시}가 동반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문장의 확대에서는 확대된 문장의 특성과 대등적 연결, 종속적 연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확대된 문장의 특성으로는 한국어와 달리 안은문장의 형태보다 이어진문장의 형태를 취하며, 둘 이상의 기본문장이 접속어(수어단어)나 접속사 역할을 하는 비수지표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기술하였다.

이어진문장의 대등적 연결은 나열관계, 대조관계, 선택관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나열관계는 수어단어 [또]와 {고개끄덕이기}, {휴지} 등의 비수지표지로 나타나며, 대조(대립)관계는 수어단어 [그러나]와 {공간활용}, {역할전환}, {휴지} 등의 비수지표지로 선택관계는 [~든지], [둘중 하나], [수사]등의 수어단어와 {지시}, {공간활용}, {역할전환} 등의 비수지표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어진문장의 종속적 연결은 인과관계, 조건관계, 의도관계, 양보관계, 배경관계, 인용관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인관관계는 수어단어 [때문에]와 [자연], 비수지표지 {휴지}, {눈, 눈썹표지}, {머리표지-고개끄덕이기}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조건관계는 가정 조건문과 제의 조건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가정 조건문에서는 수어단어 [만약]과 [혹시], 비수지표지 {눈썹올리기}, {눈 사선 위로 뜨기}, {고개끄덕이기}, {고개가우뚱} 등으로 나타나며, 제의 조건문에서는 [만약], [혹시] 등의 수어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며, 비수지표지 {눈썹 올리기}, {눈 크게 뜨기}, {시선 주기} {상호간응시}, {상호간고개끄덕이기}, {휴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의도관계에서는 수어단어 [왜]와 [목적], 비수지표지 {얼굴표지}, {머리표지}, {설명 의문표지}, {휴지}등으로 나타나며, 양보관계는 ‘아무리~해도’라는 의미로 수어단어 [무엇]에 비수지표지 {눈, 눈썹 찌푸림}을 동반하여 나타내거나 수어단어 [불구하고]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배경관계는 수어 단어 [그러나], 비수지표지 {휴지}, {시선교환}으로 나타나나 수어 단어 [그러나]는 한국어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인용관계를 표현할 때는 [말]과 관련된 수어단어가 등장하고 {휴지}, {역할전환}등의 비수지표지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1.3.3 문장종결

문장종결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평서문은 문장 끝에서 대화 상대방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비수지표지가 동반될 수 있으나 필수적인 비수지표지는 아님을 설명하였다. 또한 평서문의 종결형태에서 [이다/입니다]의 사용은 한국어가 개입된 인위적인 환경에서 주로 나타나며, 한국수어 화자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의문문은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청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는 설명의문문의 경우 [무엇], [언제], [왜], [누구], [어떻게], [어디]와 같은 의문사가 문장 끝에 위치하며, {눈썹올리기}, {눈크게뜨기} 등의 비수지표지가 동반된다. 의문사가 포함되지 않고 ‘예’ 혹은 ‘아니요’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의문문의 경우 {눈썹올리기}, {눈크게뜨기}, {턱약간몸쪽으로당기기} 등의 비수지표지가 동반된다고 설명하였다.

명령문은 {눈썹올리기}, {시선응시}, {고개숙이기} 등의 비수지표지와 더불어 단호하고 절도 있는 수동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청유문은 [가져], [같이], [함께]와 같은 수어 어휘와 {눈썹올리기}, {시선교환(응시)}, {고개기울리기} 등의 비수지표지가 동반되며, 수동이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표현된다고 설명하였다. 감탄문은 기쁨, 슬픔, 놀람 등의 표정을 통해 나타나며, [오]와 같은 수어가 문장의 전과 후에 나타나 감탄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1.3.4 부정법

부정법은 부정법의 정의와 연구에서 한국수어에서 나타는 부정법을 한국어와 비교하여 설명한 후, 부정법 구현 요소, 부정법의 특징,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부정표현 예시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부정법 구현 요소는 부정어와 비수지표지로 부정접미사 역할을 하는 어휘 [없다(손털기)]를 비롯하여 [아니다], [없다], [아직], [아직(비우세손 결합)], [못하다1,2], [말다], [불가능1,2], [안되다], [안 돼], [안하다] 등의 ‘부정어’를 활용하는 방법과 {고개좌우로흔들기}, {고개기울이기}, {눈썹내리기}, {눈썹찌푸리기}, {눈썹올리기}, {눈부릅뜨기}, {눈흘려보기}, {입꼬리내리기}, {입술좌우로당기기}, {입술꼭다물기}, {입술벌리기}, {입술동그랗게만들기}, {공기내쉬기}, {혀내밀기}, {턱내리기} 등 ‘비수지표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부정법의 특징으로는 첫째, 부정어가 서술어 뒤에 나타나며, 둘째, 의미적(어휘적)으로 부정표현으로 쓰이는 단어가 많고 쓰임새가 엄격하며, 셋째, 이중 부정을 사용하지 않고 넷째, 부정을 나타내는 비수지가 문장에서 앞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에서는 부정접미사 역할을 하는 어휘 [없다(손털기)]에 의한 부정표현, 부정의 초점에 따른 부정표현(사실부정, 완료부정, 경험부정, 능력부정, 상황부정), 그 외의 부정표현(사용빈도와 의미면에서 중요한 부정 어휘를 사용한 부정표현, 부정극어를 동반하는 부정표현, 관용어휘에 의한 부정표현, 모순관계 어휘에 의한 부정표현)로 분류하고 부정표현 예시에서는 각각의 부정표현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사실부정은 어떤 사실을 단순 부정할 때 사용되며, [아니다], [안하다]라는 수어단어와 {고개좌우}or{고개가우뚱}, {눈썹내리기}, {입술좌우로당기기}, {턱내리기}, {입꼬리내리기} 등 비수지표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상태부정은 상태, 성질, 존재 등을 부정할 때 사용되며, [없다], [아직]이라는 수어단어와 {입꼬리 내리기}, {고개좌우} 등 비수지표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완료부정은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완렬되지 않았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부정표현으로 [아직 ~하지 않다]라는 수어 단어와 {고개좌우}, {입 벌리기} 등 비수지표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경험부정은 어떤 행위나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음을 나타내거나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지 않아 결백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부정표현으로 [~적없다①], [~적없다②] 수어 단어와 {고개좌우}, {입 조금 벌리기}, {혀 내밀기}, {입술 꼭 다물기}, {볼 부풀리기} 등 비수지표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능력부정은 주체의 의지는 있으나 능력부재, 외부적 요인 등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내거나 어떤 행위나 동작을 시도해도 원하는 대로 기능하지 않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부정표현으로

[못하다], [불가능1]이라는 수어단어와 {눈썹내리기}, {입꼬리 내리기}, {입술꼭다물기}, {입모양 -‘오/후’}, {공기내쉬기} 등 비수지표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상황부정은 금지, 제지의 의미를 담은 부정표현으로 [못하다2], [말다]라는 수어 단어와 {눈썹 찌푸리기}, {눈 부릅뜨기}, {입술 꼭 다물기} 등 비수지표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기타로는 [불가능] · [안되다] · [안 돼] · [안하다] 부정표현, 부정극어 [절대로]를 동반한 부정표현, 수어 단어 [강하다]를 사용한 관용 어휘에 의한 부정표현, [모르다], [못생기다], [못하다] 등 모순관계 어휘를 사용한 부정표현을 설명하였다.

1.3.5 수어양식과 동사

수어양식과 동사에서는 동사의 유형, 공간동사의 개념, 공간동사의 하위 유형, 그리고 동시적 결합으로 나타나는 동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동사 유형은 일반동사와 일치동사, 공간동사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일반동사는 [먹다], [자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기다리다], [웃다], [태어나다], [화나다]와 같이 방향이나 손 모양, 위치 등을 변형시킬 수 없는 것으로 {시선응시}나 {특정 공간 가리키기}, {몸의 방향 바꾸기} 등과 같은 비수지표지와 함께 나타나면서 주어와 목적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일치동사는 [부탁하다], [돕다], [위로하다], [가르치다], [틀리다], [주다], [미워하다], [말(답)하다]와 같이 인칭과 성, 수, 상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수어 공간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가지고 동사의 이동 경로와 방향의 변화를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구현한다고 설명하였다.

공간동사는 [이사하다], [옮기다], [몰려다니다], [(자동차/버스)달리다], [걷다], [전투하다]와 같이 인칭, 수에 따른 변화는 없으나 행위 관련 장소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며, 수형과 수동이 자유로워 통사적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의미적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하였다.

공간동사의 개념에서는 학자들이 공간동사를 어떻게 분류하고 용어를 정의해 왔는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초기 수어 언어학에서는 수어의 동사를 방향동사와 비방향 동사로 구분하였고 그 후 패든(1986)은 방향동사를 공간동사와 일치동사로 분류하였다. 프리쉬버그(1975)는 동사의 논항이 나타내는 의미적 특징을 나타내는 수형을 분류사라고 칭하고 이러한 분류사 수형을 가진 어휘들을 분류사 서술어 혹은 움직임과 위치 동사라고 불렀다. 그 후 수팔라(1982)가 이러한 분류사 수형을 문법 체계로 분석하여 분리된 형태소들이 결합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 후 서턴-스펜스 외(1999)는 움직임과 위치 동사와 분류사 동사를 포함하여 공간동사라 명명하였다. 리텔(2003)은 이러한 동사들이 동사의 어휘적 의미 외에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므로 묘사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공간동사는

문법적 특징을 설명하는 관점에 따라 다형태소동사, 다구성동사라고도 하였다.

공간동사의 하위 유형에서는 각 나라 수어별로 조금씩 다른 용어와 분류 기준을 소개한 다음에 위치(존재), 이동, 움직임 방식, 취급, 모양 묘사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동시적 결합으로 나타나는 동사는 개체 수형이 포함된 동사와 취급 수형이 포함된 동사를 설명하였다. 개체 수형이 포함된 동사는 별도의 부사를 추가하지 않아도 수동의 반복, 속도 조절을 통해 부사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며, 비수지표지의 결합으로 부사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취급 수형이 포함된 동사는 수어 화자가 그 행위를 하는 행위주가 되어 취급의 대상과 취급하는 내용을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1.4. 의미론

의미론은 의미 이론, 한국수어로 본 의미관계, 한국수어에서의 계열 측면 의미관계와 통합 측면 의미관계, 의미전이와 도상성, 구성된 행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4.1. 의미 이론

의미 이론에서는 언어학에서 설명하는 의미 이론의 접근법, 의미의 유형, 인지언어학과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1.4.2. 의미관계

관계에서는 의미관계의 정의와 종류를 설명한 후, 한국수어에서의 의미관계를 동의관계, 대립관계, 상하관계, 관용표현, 속담으로 설명하였다.

동의관계에서는 형태적으로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둘 이상의 단어 의미가 서로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한 동의관계가 있는 수어 어휘를 소개하였다. 대립관계는 단어 간의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한국수어에서의 대립관계에 있는 단어를 소개하였다. 한국수어에서 [잘] [잘못], [동][서]와 같이 대립관계에 있는 수어는 수동의 반대 움직임에 의해 의미관계도 반대가 되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상하관계의 수어 어휘로 [요일]과 [월] [화] [수] 등의 한국수어 어휘를 소개하였는데, 이들 수어 어휘는 같은 수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 한국수어에서의 통합 측면의 의미관계는 관용표현, 속담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관용표현은 [눈]+[보석]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하여 ‘눈썹미가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굳어져 익숙하게 쓰이는 표현을 의미하는데, 한국수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용표현을 소개하였다. 속담은 풍자적, 교육적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한국어 속담 ‘밭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이 [소리]+[전기]로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말]+[귀신]으로 표현되는 것 등을 소개하였다.

1.4.3. 의미전이

의미전이는 의미전이의 양상, 의미전이의 원인, 다의어 현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의미전이의 양상은 의미 확대, 의미 축소, 의미 이동으로 진행됨을 한국수어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의미전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4가지로 설명하였다. 다의어 현상에서는 한국수어에서 나타나는 다의어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1.4.4. 도상성과 비유

도상성에서는 도상성과 자의성을 설명하고 한국수어 도상성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였다. 한국수어에서 도상성은 영상적 도상성, 구조적 도상성, 비유적 도상성으로 나누고 해당하는 한국 수어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비유에서는 은유와 환유가 수어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한국수어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1.4.5. 역할전환

역할전환은 역할전환의 정의, 형식적 요소, 내용적 요소, 담화에서 나타난 역할전환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역할전환의 형식적 요소는 신체전환, 머리의 자세 변화, 얼굴표정, 시선응시로 구분하고 동화「해와 바람」(국립국어원, 2020)을 예시로 설명하였다. 신체전환은 수어 화자가 왼손으로 [바람]을 오른손으로 [해]를 산출하고 이후 [바람]과 [해]를 다시 표현하지 않아도 왼쪽 공간을 ‘바람’, 오른쪽 공간을 ‘해’로 연결 짓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머리의 자세 변화는 신체전환처럼 눈에 확 띄 만큼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머리 자세에 변화를 주어 역할을 구분하라고 하였다. 얼굴표정은 이야기 속 주인공의 언어적, 감정적 표현으로 등장인물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선응시는 역할전환을 하는 동안 수어 화자는 이야기 속 대화 상대를 응시하고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나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만 실제 대화 상대자를 쳐다본다고 설명하였다.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는 인용된 화자의 말, 행위, 생각으로 구분하고 수어영상「빈

도시락」(국립국어원, 2020)을 예시로 설명하였다. 인용된 화자의 말은 [아침] [도시락] [만들다] [주세요] [말하다]와 같이 문장 끝에 [말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담화에서 나타난 역할전환은 서술문의 내용을 등장인물들이 마치 대화를 나누듯이 구성하여 상대의 이해를 높이는 담화전략으로 농인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정보 제공과 사교적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실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2. 제언

2018년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가 이루어진 후 2019년 음운론과 형태론을 중심으로 한 “한국수어 문법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수어 교육능력 검증이나 한국수어 능력검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수어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어 문법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수어 문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수어 문법을 기술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수어 통사론과 의미론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한국수어 통사론과 의미론을 정리하는 작업은 그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논쟁의 여지도 많다. 이에 향후 한국수어 문법서를 발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2019년과 2020년에 이루어진 한국수어 문법 연구는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한국수어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문자가 없는 수어의 형태를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해야만 하는 한계를 안고 나온 결과물이다. 특히 한국어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어가 사용되는 현실에서 어디까지를 오염되지 않은 한국수어라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따랐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표준 또는 규범 문법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향후 신중한 과정을 거쳐 한국수어 표준(규범) 문법을 정의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미 연구되고 증명되어온 문법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한국어 문법서와는 달리 기존 해외 수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수어 형태를 한국수어 모어 화자인 언어재공자를 통해 확인하여 최대한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한국수어 연구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본 보고서에서 기술된 문법 내용을 검증하고 정교화하는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셋째, 2019년과 2020년 한국수어 문법 연구의 내용은 한국수어를 연구하는 학생이나 한국수어학 전문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수어 모어 화자나 한국수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고자 하는 청인들이 학습하기 위한 문법서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수어 문법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문법서의 독자를 먼저 확정하여 그에 적절하게 문법 내용을 재정리하여 확정하고 기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범모(2005). **언어-풀어 쓴 언어학개론(개정판)**. 서울: 한국문화사.
- 국립국어원(2015).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0). 한국수어의 실제. 국립국어원(‘빈도시락’, ‘해와 바람’ 동영상).
- 김칠관(1999). 이디엄을 중심으로 본 한국수화의 의미구조. 수화연구, 2, 2-17.
- 남기심, 고영근, 유현경, 최형용(2019). **표준 국어문법론(전면 개정판)**. 서울: 한국문화사.
- 남기심, 고영근, 유현경, 최형용(2020). **표준 국어문법론(전면 개정판)**. 서울: 한국문화사.
- 남기현(2003). 한국수화의 통사적 수화공간과 지형적 수화 공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남기현(2004). 한국수화의 통사적 수화공간과 지형적 수화공간. 학술대회, 2004(1), 60-88
- 남기현(2009). 한국수어 동사 분류사 연구. 언어연구, 24(4), 707-730.
- 남기현, 원성옥, 허일(2010). 한국수화의 동사 유형과 수 표현의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45-68.
- 남기현, 원성옥, 허일(2011). 한국수화 내러티브 속에 나타난 구성된 행위 분석. **언어연구**, 26권 4호, 한국현대 언어학회.
- 남기현(2012). 한국수화의 기호학적 연구-분류사 구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남기현(2018). 한국수어에서 관용표현 개념 정립을 위한 제언. 한국어 의미학, 60, 93-120.
- 노대규(2002). **한국어의 화용의미론**. 서울: 국학자료원.
- 변강석(2012). 한국수어에서 나타난 A형과 I형의 문법적 기능-성별실현과 동사분류와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석금민웅·고전성石綿敏雄&高田誠. **대조언어학**. 오미영 역(2004). 서울: 제이앤씨.
- 손천식(1999). 한국수화의 관용표현.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32-41.
- 신승용, 이정훈, 오경숙(2013). **국어학 개론(개정판)**. 경기도: 태학사.
- 심수현(2011). 한국수화의 강조표현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양경숙(2007). 한국 수화의 부정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양상백(2001). 한국수화언어의 통사적 구조와 Wh-구문. 언어과학, 8(1), 91-115.
- 엄미숙(1997). 한국수화의 통사론적 특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엄미숙(1999). 한국수화의 통사론적 특징 분석. 수화연구, 2, 38-53.
- 엄미숙(2004). 한국수화의 통사적 수화공간과 지형적 수화공간에 대한 토론. 학술대회, 2004(1), 89-94.

- 원성옥, 허일, 김만영, 김유미, 남기현, 배재만, 변강석(2013). **수화통역의 기초**. 교우사.
- 원성옥, 김유미, 남기현, 김성완(2019). **한국수어 문법 연구**. 국립국어원.
- 유현경, 한재영, 김홍범, 이정택, 김성규, 강현화, 구본관, 이병규, 황화상, 이진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서울: 집문당.
- 윤병천(2003).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대학원.
- 윤병천(2004).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1), 253-277.
- 이건수(2000). **언어학 개론**. 신아사.
- 이세은(2015). 한국수화의 상과 논항구조: 이동 동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주애(2016). 한국수어의 비유세선에 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대학원.
- 이율리(2019). 한국수어로 번역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교과서 단어 및 문장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율하(2011). 한국수어의 동시적 결합구조에 대한 통사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이재연(2006). 한국수화의 부정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이정옥(2012). 한국수어의 복합문 실현 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정옥, 이준우(2005). 한국수화 관용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3), 335-354.
- 이준우, 남기현 (2014). **한국수어학개론**. 경기도: 나남출판.
- 임지룡(2018). 한국 수어의 도상적 양상과 의미 특성. 국어교육연구, 68, 63-88
- 임호빈, 홍경표, 장숙인(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 장세은(1996). 미국수화언어와 한국수화언어에서의 WH-의문문. 언어학, 7(3), 297-319.
- 최상배, 안성우(2003). **한국수어의 이론**. 서울: 서현사.
- 최영주(2017). 한국수화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 현대문법연구, 92(0), 123-147.
- 허용, 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경기도: 소통.
- 허일, 김경진(2013). 한국어와 한국수화의 차이에 따른 수화통역 과정에서의 고려점. 한국복지대학교 논문집.
- Ferdinand De Saussure. **일반언어학 노트**. 김현권·최용호 역(2007). 경기도: 인간사랑.
- John Lyons. **의미론1-의미 연구의 기초**. 강범모 역(2011). 서울: 한국문화사.
- John Lyons. **의미론2-의미와 문법, 맥락, 행동**. 강범모 역(2013). 서울: 한국문화사.
- Liu, Jing-na (2018). 한중 수어에서의 시간의 개념화 양상 대조.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Vyvyan Evans & Melanie Green. **인지언어학 기초**. 임지룡·김동환 역(2020). 서울: 한국문화사.
- Brentari, D.(2010). *Sign languages: A cambridge language surve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mier, K, Smith, S., & Sevcikova, Z.(2013). Framing constructed action in British Sign Language narratives. *Journal of Pragmatics* 55, 119-139.

- Cormier, K., Smith, S., & Sevcikova, Z.(2015). Rethinking constructed action. *Sign Language and Linguistics*. (Submitted 4 April 2015. Check for latest version before citing.
- Engberg-Pedersen, E.(1993). *Space in Danish Sign Language*. Hamburg: Signum.
- Fischer, S. & Gough, B.(1978). Verbs in ASL. *Sign Language Studies*, 18, 17–48.
- Frishberg, N.(1975). Arbitrariness and Iconicity: *Historical Change in American Sign Language*. *Language*, 51, 3, 696–71.
- Liddell, S., K. & Metzger, M.(1998). Gesture in sign language 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30, 657–697.
- Liddell, S. K.(2003). *Grammar, gesture, and mean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llo-Martin, D.(2012). “Utterance reports and constructed action in Sign and spoken languages”. In Roland Pfau, Markus Steinbach & Bencie Woll (eds.), *Sign Languages. An International Handbook*, 365–387. Berlin: Mouton.
- Mandel, M.(1977). Iconic devices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On the other hand: New perspectives on American Sign Language*, ed. L. Friedman, 57–107. New York: Academic Press.
- Metzger, M.(1995). Constructed dialogue and constructed action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C. Lucas, ed., *Sociolinguistics in deaf communities*, 255–271.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Padden, C.(1986). Verbs and role-shift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Proceedings of the fourth national symposium on sign language research and teaching*.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Silver Spring, MD.
- Padden, C. A.(1988). *Interaction of morphology and syntax in American Sign Language*. New York: Garland Press.
- Quer, J.(2011). Reporting and Quoting in Signed Discourse. In: Brendel, Elke/Meibauer, Jörg/Steinbach, Markus (eds.), *Understanding Quot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277–302.
- Quer, J.(2018). On categorizing types of role shift in Sign languages. *Theoretical Linguistics*, 44(3–4): 277–282.
- Schembri, A.(2001). *Issues in the Analysis of Polycomponential Verbs in Australian Sign Language (Ausl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ydney, Sydney.
- Supalla, T.(1982). *Structure and acquisition of verbs of motion and location in American Sign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Supalla, T.(1986). The classifier system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C. Craig (Ed.), *Noun classification and categorization*(pp.181–214).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utton-Spence, K., & Woll, B.(1999).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p. 99–1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nnen, D.(1986). Introducing constructed dialogue in Greek and American conversational and literacy narratives. In: F. Coulmas, ed., Reported speech across languages, 311-332. The Hague: Mouton.

Zwitserlood, I.(2012). Classifiers. In R. Pfau, M. Steinbach, and B. Woll (Eds.),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pp.158-185). Berlin: Mouton De Gruyter.

성북구수어통역센터 농아인센터 역량강화교육 “농 뉴스룸” 미국 대통령 선거

https://www.youtube.com/watch?v=-ho3fUVn_sc&t=1213s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American_Sign_Language_literature#Folktales)

한국수어 연구 학회 지정 한국수어 학회 지정

부록

- 부록 1. 한국수어 말뭉치 자료 목록
- 부록 2. 음운론 사진 목록
- 부록 3. 형태론 사진 목록
- 부록 4. 통사론 사진 목록
- 부록 5. 통사론 사진 목록

〈부록 1〉 한국수어 말뚱치 자료 목록

연번	전사 제목			
1	서울지역	1번쌍	E	토론
2	서울지역	1번쌍	F	표지판
3	서울지역	1번쌍	G	특정사건 묘사
4	서울지역	1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5	서울지역	2번쌍	A	수어 이름 말하기
6	서울지역	2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7	서울지역	2번쌍	F	표지판
8	서울지역	3번쌍	A	수어 이름 말하기
9	서울지역	3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10	서울지역	3번쌍	F	표지판
11	서울지역	3번쌍	I	개별 수어의 다양한 표현
12	서울지역	4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13	서울지역	4번쌍	F	표지판
14	서울지역	5번쌍	A	수어 이름 말하기
15	서울지역	5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16	서울지역	6번쌍	A	수어 이름 말하기
17	서울지역	6번쌍	F	표지판
18	서울지역	6번쌍	G	특정사건 묘사
19	서울지역	7번쌍	F	표지판
20	서울지역	7번쌍	G	특정사건 묘사
21	서울지역	7번쌍	I	개별 수어의 다양한 표현
22	서울지역	8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23	서울지역	8번쌍	F	표지판
24	서울지역	9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25	서울지역	9번쌍	F	표지판
26	서울지역	10번쌍	F	표지판
27	서울지역	10번쌍	G	특정사건 묘사
28	서울지역	10번쌍	L	옛날 수어와 현재 수어
29	서울지역	11번쌍	A	수어 이름 말하기
30	서울지역	11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31	서울지역	11번쌍	F	표지판
32	서울지역	11번쌍	I	개별 수어의 다양한 표현

연번	전사 제목			
33	서울지역	11번쌍	L	옛날 수어와 현재 수어
34	서울지역	12번쌍	A	수어 이름 말하기
35	서울지역	12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36	서울지역	12번쌍	F	표지판
37	서울지역	13번쌍	A	수어 이름 말하기
38	서울지역	13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39	서울지역	13번쌍	F	표지판
40	서울지역	13번쌍	L	옛날 수어와 현재 수어
41	서울지역	14번쌍	E	토론
42	서울지역	14번쌍	F	표지판
43	서울지역	14번쌍	H	주제영역
44	서울지역	14번쌍	J	농사회 행사
45	서울지역	14번쌍	M	농학교 경험 이야기
46	서울지역	14번쌍	A	수어 이름 말하기
47	서울지역	14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48	서울지역	15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49	서울지역	15번쌍	F	표지판
50	서울지역	15번쌍	I	개별 수어의 다양한 표현
51	서울지역	16번쌍	F	표지판
52	서울지역	16번쌍	H	주제영역
53	서울지역	16번쌍	J	농사회 행사
54	서울지역	17번쌍	F	표지판
55	서울지역	17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56	서울지역	18번쌍	F	표지판
57	서울지역	18번쌍	G	특정사건 묘사
58	서울지역	18번쌍	I	개별 수어의 다양한 표현
59	서울지역	19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60	서울지역	19번쌍	E	토론
61	서울지역	19번쌍	F	표지판
62	서울지역	19번쌍	J	농사회 행사
63	서울지역	19번쌍	L	옛날 수어와 현재 수어
64	서울지역	20번쌍	F	표지판
65	서울지역	20번쌍	E	토론

연번	전사 제목			
66	서울지역	20번쌍	H	주제영역
67	서울지역	20번쌍	J	농사회 행사
68	서울지역	20번쌍	M	농학교 경험 이야기
69	서울지역	21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70	서울지역	21번쌍	I	개별 수어의 다양한 표현
71	서울지역	22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72	서울지역	23번쌍	A	수어 이름 말하기
73	서울지역	23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74	서울지역	23번쌍	F	표지판
75	서울지역	24번쌍	I	개별 수어의 다양한 표현
76	서울지역	24번쌍	E	토론
77	서울지역	24번쌍	M	농학교 경험 이야기
78	서울지역	24번쌍	A	수어 이름 말하기
79	서울지역	24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80	서울지역	24번쌍	F	표지판
81	서울지역	24번쌍	J	농사회 행사
82	서울지역	24번쌍	M	농학교 경험 이야기
83	서울지역	25번쌍	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84	서울지역	25번쌍	F	표지판
85	서울지역	25번쌍	I	개별 수어의 다양한 표현
86	서울지역	26번쌍	F	표지판
87	서울지역	27번쌍	F	표지판
88	서울지역	27번쌍	L	옛날 수어와 현재 수어
89	서울지역	29번쌍	A	수어 이름 말하기
90	서울지역	29번쌍	F	표지판
91	서울지역	29번쌍	H	주제영역
92	서울지역	29번쌍	L	옛날 수어와 현재 수어
93	서울지역	29번쌍	M	농학교 경험 이야기
94	서울지역	30번쌍	F	표지판
95	서울지역	30번쌍	I	개별 수어의 다양한 표현
96	서울지역	31번쌍	J	농사회 행사
97	강원지역	2번쌍	E	토론
98	경남지역	9번쌍	J	농사회 행사

〈부록 2〉 음운론 사진 목록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1	음운론	1. 수어의 최소단위		닭
2	음운론	1. 수어의 최소단위		경찰
3	음운론	1. 수어의 최소단위		아차
4	음운론	1. 수어의 최소단위		동물
5	음운론	1. 수어의 최소단위		행동
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귀엽다
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아깝다
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딸
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아들
1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춧불
1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할 뻔하다
1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눈감다
1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눈뜨다
1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1형
1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1형
1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1형
1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1형
1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9형
1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9형
2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9형
2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4형
2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4형
2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감옥
2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1)
2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2)
2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3)
2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4)
2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5)
2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6)
3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7)
3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8)
3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9)
3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10)
3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11)
3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12)
3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13)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3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14)
3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15)
3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16)
4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17)
4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18)
4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19)
4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20)
4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21)
4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22)
4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23)
4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24)
4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25)
4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26)
5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27)
5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28)
5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29)
5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30)
5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31)
5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32)
5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33)
5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수형소(1)
5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수형소(2)
5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수형소(3)
6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수형소(4)
6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수형소(5)
6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수형소(6)
6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 수형소(7)
6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1)
6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2)
6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3)
6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4)
6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5)
6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6)
7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7)
7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8)
7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9)
7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소(10)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7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변이형(1)
7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변이형(2)
7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변이형(3)
7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변이형(4)
7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변이형(5)
7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변이형(6)
8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변이형(7)
8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변이형(8)
8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변이형(9)
8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변이형(10)
8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형-강하다
8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지숫자-60형
8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예쁘다
8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어렵다
8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나쁘다
8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천하다
9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여자
9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남자
9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수저로) 떠먹다
9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먹다
9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1)
9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2)
9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3)
9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4)
9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5)
9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6)
10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7)
10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8)
10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9)
10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10)
10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11)
10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12)
10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13)
10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14)
10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15)
10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16)
11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17)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11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18)
11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19)
11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20)
11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21)
11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22)
11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23)
11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24)
11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25)
11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26)
12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27)
12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28)
12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29)
12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고빈도수형(30)
12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1)
12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2)
12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3)
12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4)
12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5)
12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6)
13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7)
13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8)
13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9)
13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10)
13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11)
13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12)
13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13)
13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14)
13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15)
13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16)
14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17)
14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18)
14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19)
14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20)
14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21)
14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22)
14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23)
14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24)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14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25)
14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26)
15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27)
15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28)
15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29)
15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30)
15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31)
15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32)
156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33)
157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34)
158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35)
159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36)
160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저빈도수형(37)
161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무표수형(1)
162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무표수형(2)
163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무표수형(3)
164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무표수형(4)
165	음운론	2. 수지요소	2.1. 수형소	무표수형(5)
166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닭
167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바보
168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꼭기 끊다
169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관계 끊다
170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하다
171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만들다
172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한국
173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지식
174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어린이(아이)
175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학생
176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땀
177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탈
178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못생기다
179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갑자기
180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마침
181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기술
182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고급
183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구경하다
184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골치 아프다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185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심심하다
186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내일
187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아마/혹시
188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해보다
189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들키다
190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보이다
191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오해
192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보청기
193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귀
194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소식 없다
195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듣다
196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욕심
197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묵묵하다
198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청인
199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합격
200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면도
201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예쁘다
202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개인
203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노력
204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나쁘다
205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겸손하다
206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그냥
207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아(감탄사)
208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뿐/만
209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기침
210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유행
211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속 올렁거리다
212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화나다
213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건강
214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준비
215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벽차다
216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질색
217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나비넥타이
218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기침
219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대통령
220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고혈압
221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고래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222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제일
223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부자
224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계속
225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자랑하다
226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유도
227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입다
228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발인
229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무섭다
230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기분
231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헤어지다 /떨어지다
232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갈등
233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너그럽다 /관대하다
234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따뜻하다
235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비리
236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속이)좁다
237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갑질
238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권리
239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소매치기
240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육교
241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특별/특히
242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엄청나다
243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횡령
244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망하다
245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전염/감염
246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시간 흐르다
247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1시간
248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만들다
249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물건
250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가르치다
251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간사하다
252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심심하다
253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궁금하다
254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쉽다
255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발견
256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성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257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색깔
258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이사(집사)
259	음운론	2. 수지요소	2.2 수위소	주민센터
260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자유
261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동물
262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순종하다
263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불복하다
264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장사
265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경제
266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넘어가다
267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비슷하다
268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벌레
269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전파하다
270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과자
271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당하다(낭패)
272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같다
273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비슷하다
274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경제
275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장사
276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있다
277	음운론	2. 수지요소	2.3. 수동소	훌륭하다2
278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조용하다
279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가라앉히다
280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내일
281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어제
282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베풀다
283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해결하다
284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학교
285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공부
286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미워하다
287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나에게)말하다
288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속이다
289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노려보다
290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비교(판단)
291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선배
292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베풀다
293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차이(차별)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294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후배
295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결석
296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방학
297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자랑하다
298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해결하다
299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부터
300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붙잡다
301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나누다
302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헤어지다
303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갈등
304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미래
305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양
306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연습
307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과거
308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여행
309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청인
310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눈
311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밖
312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기억하다 /암기하다
313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형
314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오빠
315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누나
316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언니
317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비
318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찬성
319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전기
320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나비
321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게
322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동행
323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양
324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연습
325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여행
326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청인
327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필요하다
328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증거
329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비교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330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차이
331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모으다
332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갈라놓다
333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높다
334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깊다
335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나쁘다
336	음운론	2. 수지요소	2.4. 수향소	동양
337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1. 비수지요소의 기능	행복(중립표지)
338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1. 비수지요소의 기능	불만족/불행 (감정표지)
339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1. 비수지요소의 기능	행복(감정표지)
340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1. 비수지요소의 기능	행복(의문표지)
341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실망
342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반갑다
343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화나다
344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기분(행복)
345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기분(불쾌)
346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중독(부정)
347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중독(긍정)
348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완료(평서)
349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완료(의문)
350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주다
351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귀엽다
352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아깝다
353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청인
354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맵다
355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소금
356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철저하다
357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생각
358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왜
359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어지럽다
360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놀라다
361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중독
362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반할 정도로 ~하다
363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기분 좋다
364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기분 나쁘다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365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귀신
366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2. 얼굴표지	감쪽같이 사라지다
367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3. 입움직임	의자(의자)
368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3. 입움직임	의자(자리)
369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3. 입움직임	의자(앉다)
370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3. 입움직임	소개(수어통역)
371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3. 입움직임	소개(수어통역)
372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3. 입움직임	소개(소개)
373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3. 입움직임	어디(곳)
374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3. 입움직임	영양(비타민)
375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3. 입움직임	생명(보험)
376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3. 입움직임	가능1
377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3. 입움직임	지하철1
378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3. 입움직임	낭비하다1
379	음운론	3. 비수지요소	3.3. 입움직임	먹다2
380	음운론	4. 수어소의 결합		예쁘다
381	음운론	4. 수어소의 결합		꽃
382	음운론	4. 수어소의 결합		꽃
383	음운론	4. 수어소의 결합		잇다
384	음운론	4. 수어소의 결합		잇다
385	음운론	4. 수어소의 결합		있다
386	음운론	4. 수어소의 결합		잘하다
387	음운론	5. 음운 변동	5.1. 첨가	계란
388	음운론	5. 음운 변동	5.1. 첨가	일하다
389	음운론	5. 음운 변동	5.1. 첨가	계란
390	음운론	5. 음운 변동	5.1. 첨가	일하다
391	음운론	5. 음운 변동	5.2. 축소	한국
392	음운론	5. 음운 변동	5.2. 축소	나라
393	음운론	5. 음운 변동	5.2. 축소	비밀
394	음운론	5. 음운 변동	5.2. 축소	있다
395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준비
396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생각
397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빨강
398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닫다
399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축구
400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경험
401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있다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402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자신
403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오직
404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지금
405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지숫자 4형+ 지문자-위
406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마음
407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아프다
408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배
409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아프다
410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머리
411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아프다
412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허리
413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아프다
414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귀
415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아프다
416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귀
417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아프다
418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담배
419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있다
420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문제
421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있다
422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장소
423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부터
424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과거
425	음운론	5. 음운 변동	5.3. 동화	부터
426	음운론	5. 음운 변동	5.4. 비우세손 생략	아니다
427	음운론	5. 음운 변동	5.4. 비우세손 생략	필요
428	음운론	5. 음운 변동	5.4. 비우세손 생략	나
429	음운론	5. 음운 변동	5.4. 비우세손 생략	공부
430	음운론	5. 음운 변동	5.4. 비우세손 생략	공부
431	음운론	5. 음운 변동	5.4. 비우세손 생략	않다
432	음운론	5. 음운 변동	5.4. 비우세손 생략	쉽다
433	음운론	5. 음운 변동	5.4. 비우세손 생략	쉽다
434	음운론	5. 음운 변동	5.5. 음위전환	농인
435	음운론	5. 음운 변동	5.5. 음위전환	농인
436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예쁘다
437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어렵다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438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백수(실업자)
439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방탕/타락
440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나쁘다
441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천하다
442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만나다
443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맞닥뜨리다
444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지숫자 10
445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지숫자 20
446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커닝
447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잡다(파리)
448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읽다
449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허락하다
450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도전하다
451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핀잔주다
452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방탕/타락
453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백수(실업자)
454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회사
455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방탕/타락
456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형
457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누나
458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남동생
459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여동생
460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친하다/단짝
461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핀잔주다
462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삼겹살
463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논하다
464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천하다
465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나쁘다
466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소령
467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대령
468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여자
469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남자
470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딸 쌍둥이
471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아들 쌍둥이
472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남자
473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여자
474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고양이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475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여우
476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좋다
477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있다
478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시간
479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때
480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딱딱하다
481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훑어보다/째려보다
482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주차
483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주장/이러쿵저러쿵
484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훑어보다/째려보다
485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딱딱하다
486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철학
487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지식
488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팔자
489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운
490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지숫자 8천
491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지숫자 7천
492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닭
493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경찰
494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페이드아웃
495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페이드인
496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쌍안경
497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안경
498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사라지다
499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무마하다
500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찬성하다
501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무마하다
502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생각 없다
503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주문
504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핀잔주다
505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친하다/단짝
506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청인
507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이론
508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빠지다
509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보람
510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전화기
511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핸드폰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512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핑계
513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바리새인
514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숙녀
515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신사
516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예언
517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말하다
518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제비
519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비행기
520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곰
521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줄
522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한자/문서
523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주세요
524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지식/유식하다
525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훌륭하다1
526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안되다
527	음운론	부록	수형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없다
52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땀
52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탈
53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갑자기
53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못생기다
53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깨끗하다
53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우울하다
53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복습
53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세수
53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기술
53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점심 / 12시
53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마침
53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공짜
54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본 적 없다
54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모범
54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다행이다
54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우두머리
54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절다
54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고급
54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오전
54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오후
54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생각하다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54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심심하다
55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골치아프다 /성가시다
55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문득
55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성령
55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아마
55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내일
55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헛갈리다
55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돌다 /이성을 잃다
55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해보다
55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들키다
55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눈
56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자다
56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보이다
56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오해
56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글로스 확인
56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검토
56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보청기
56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귀걸이
56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귀
56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글로스 확인
56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글로스 확인
57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맹세
57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듣다
57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소식 없다
57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흘려듣다
57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글로스 확인
57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욕심
57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중독
57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시다
57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절대로
57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글로스 확인
58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부리
58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안되다
58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합격
58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청인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58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말하다/말씀
58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불가능
58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부끄럽다
58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사탕
58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어렵다
58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예쁘다
59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거짓말
59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심하다
59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글로스 확인
59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와인
59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개인
59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있다
59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좋다
59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호기심
59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겸손
59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경멸
60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배우다
60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물염치
60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나쁘다
60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꽉차다
60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그냥
60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향기
60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생명
60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부족하다
60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신난다
60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취미
61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색깔
61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뿐/만
61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가난하다
61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싫다
61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아(감탄사)
61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화요일
61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없다
61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나이
61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기침
61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유행
62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속 울렁거리다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62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싫다
62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나
62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준비
62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건강
62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설명하다
62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일
62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복종하다
62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이야기하다
62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배신
63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안 보인다
63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질색
63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겹치다/과부화
63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원하다
63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갈급
63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기침
63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불안
63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자살
63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나비넥타이
63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대통령
64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고혈압
64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부자
64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제일
64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계속
64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말다
64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내버려두다
64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유도
64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자랑
64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배신
64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이중
65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발인
65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자라다
65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하자!
65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입다
65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기분
65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자존심
65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심장
65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이름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65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지치다
65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놀라다
66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무섭다
66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갈등
66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헤어지다
66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따뜻하다
66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개구리
66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망설이다
66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필요하다
66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양심
66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너그럽다
66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배부르다
67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배고프다
67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창자
67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장난
67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없다(공간)
67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속좁다
67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권리
67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무자격
67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갑질
67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소매치기
67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인쇄
68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특별
68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육교
68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불편하다
68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수고하다
68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간단하다
68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엄청나다
68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횡령하다
68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전염
688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하다
689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해방
690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1시간
691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시간 흐르다
692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물건
693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손
694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만들다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695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귀신
696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발
697	음운론	부록	수위소 목록과 수어 단어 예시	지나치다
698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우울
699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응어리지다
700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닭
701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바보
702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곤고하다
703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없다
704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고집
705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왜(생각)
706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거짓말
707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속좁다
708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발견하다
709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쉽다
710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듣다
711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거짓말
712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쉽다
713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발견하다
714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금식
715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관계 끊다
716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거짓말
717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생각
718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의심하다
719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질투하다
720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바로
721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아(감탄사)
722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성
723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색깔
724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색깔
725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성
726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정말
727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질병
728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응어리지다
729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우울
730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기침
731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부르다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732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혈압
733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짜증
734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바람피우다
735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모르다
736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이중
737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공부
738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말다
739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장소
740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모르다
741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바람피우다
742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속좁다
743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고집
744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이사(집사)
745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주민센터
746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수고하다
747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하다
748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하다
749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만들다
750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만들다
751	음운론	부록	수위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수고하다
752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같다
753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비슷하다
754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과자
755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당하다(낭패)
756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지각
757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느리다
758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심심하다
759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뜻밖에
760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있다
761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훌륭하다2
762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외치다
763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전파하다
764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순종하다
765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불복하다 /복종하다
766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장사하다
767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경제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768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위하여
769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민다
770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자유
771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동물
772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자유
773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행동
774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행동
775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활동
776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배우다
777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멋있다
778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보다
779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찾다
780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보다
781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실수
782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실수
783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찾다
784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조사하다
785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지켜보다
786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똑똑하다
787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잠자다
788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잘
789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잘못
790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금지(안 돼)
791	음운론	부록	수동의 대립에 의한 최소대립쌍	불능(안돼)
792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비교
793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차이
794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선배
795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후배
796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차이
797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비교
798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후배
799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선배
800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모으다
801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갈라놓다
802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갈라놓다
803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모으다
804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미래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805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과거
806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연습
807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청인
808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과거
809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미래
810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청인
811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연습
812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높다
813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깊다
814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깊다
815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높다
816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간섭당하다
817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간섭하다
818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간섭하다
819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간섭당하다
820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내일
821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어제
822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넘어가다
823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넘어오다
824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어제
825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내일
826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넘어오다
827	음운론	부록	수향의 최소대립쌍	넘어가다

〈부록 3〉 형태론 사진 목록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1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1. 형태소의 개념	고맙다
2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1. 형태소의 개념	일요일
3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1. 형태소의 개념	칭찬
4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1. 형태소의 개념	권총
5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1. 형태소의 개념	바다
6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1. 형태소의 개념	양치질
7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1. 형태소의 개념	먹보
8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1. 형태소의 개념	갑보
9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2. 형태소의 유형	맛있다
10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2. 형태소의 유형	맛없다
11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2. 형태소의 유형	고맙다
12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2. 형태소의 유형	자다
13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견다
14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적다
15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쓰다
16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벌레
17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견다
18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탁자
19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액자(그림)
20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액자(네모)
21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개
22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소
23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경찰
24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챔피언
25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집
26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주다
27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올림픽
28	형태론	1. 형태소와 형태론	1.3. 도상성	이해
29	형태론	2. 수어 단어 유형	2.1. 수지 단어	가지다
30	형태론	2. 수어 단어 유형	2.1. 수지 단어	없다
31	형태론	2. 수어 단어 유형	2.1. 수지 단어	달리다
32	형태론	2. 수어 단어 유형	2.1. 수지 단어	필요하다
33	형태론	2. 수어 단어 유형	2.1. 수지 단어	돕다
34	형태론	2. 수어 단어 유형	2.1. 수지 단어	편지
35	형태론	2. 수어 단어 유형	2.1. 수지 단어	계란
36	형태론	2. 수어 단어 유형	2.1. 수지 단어	일하다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37	형태론	2. 수어 단어 유형	2.2. 다중 채널 단어	모르다
38	형태론	2. 수어 단어 유형	2.2. 다중 채널 단어	있다
39	형태론	2. 수어 단어 유형	2.2. 다중 채널 단어	가능하다
40	형태론	2. 수어 단어 유형	2.2. 다중 채널 단어	싫다
41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빨강
42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단다
43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생각
44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고정관념
45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외국([다르다])
46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외국([나라])
47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알리다([알다])
48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알리다([주다])
49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경기도
50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맛있다
51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맛이 없다
52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힘이 있다
53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힘이 없다
54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필요하다
55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필요 없다
56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재미있다
57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재미 없다
58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관계
59	형태론	3. 단어 형성	3.1. 순차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관계 없다
60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강원도
61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등산
62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간단
63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수고
64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없다
65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인격
66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사람
67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존중
68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1년
69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1개월
70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어제
71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1시간
72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1분
73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1살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74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1살 위
75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1살 아래
76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초등
77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중등
78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고등
79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대학
80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1층
81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2층
82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3층
83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첫째
84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둘째
85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셋째
86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1범
87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2범
88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5범([전과])
89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오늘
90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지금
91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지식
92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철학
93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문자
94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카카오톡
95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센터
96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택시
97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고속철도
98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소개
99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봄
100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여름
101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가을
102	형태론	3. 단어 형성	3.2. 동시적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겨울
103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모자
104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3
105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책상
106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모자
107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3
108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모자
109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모자 두 개가 놓여 있다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110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모자 세 개가 놓여 있다
111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꼬마
112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5명이 오다
113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영화
114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사람
115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물려들다
116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한국
117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다
118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친절
119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복수를 나타내는 지시 수형
120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둘이서
121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셋이서
122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넷이서
123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여섯이서’(복수를 나타내는 지시수형)
124	형태론	4. 단어 변형	4.1. 복수	‘여섯이서’ ([6])
125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어제
126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책
127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읽다
128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지금
129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책
130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읽다
131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내일
132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책
133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읽다
134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완료하다
135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끝
136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완료하다
137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적있다
138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기다리다
139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서다
140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걷다
141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끓이다
142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침몰2
143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중1
144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선풍기1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145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중1
146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증가1
147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중1
148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자다1
149	형태론	4. 단어 변형	4.2. 시제와 상	중1
150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돈내다
151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알약을 먹다
152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돕다
153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도움을 받다
154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주다
155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받다
156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빌리다
157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초대하다
158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견다
159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자동차가 가다
160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옮기다
161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생각하다
162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알다
163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a[주다]1
164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a[주다]1+ /b[주다]1+
165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a[주다]1+ /a[주다]1+
166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1[돈주다]a /1[돈주다]b
167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1[상여금을 주다]a 1[상여금을 주다]b 1[상여금을 주다]c
168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남, 여
169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이메일 보내다
170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전송하다
171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야단치다
172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칭찬하다
173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비다
174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빈털터리
175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생얼
176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자르다
177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술을 끊다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178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관계를 끊다
179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집
180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집이 무너지다
181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의자
182	형태론	4. 단어 변형	4.3. 일치	듣다

〈부록 4〉 통사론 사진 목록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1	통사론	1. 문장성분	1.3. 독립성분	아하1
2	통사론	1. 문장성분	1.3. 독립성분	아하2
3	통사론	1. 문장성분	1.2. 부속성분	아이쿠1
4	통사론	1. 문장성분	1.2. 부속성분	아이쿠2
5	통사론	1. 문장성분	1.2. 부속성분	오
6	통사론	2. 문장구조	2.1. 기본문장	초점화표지
7	통사론	2. 문장구조	2.1. 기본문장	화제화표지
8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또+{고개 속이기}
9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그러나
10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든지
11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둘 중 하나
12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수사
13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때문에
14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자연
15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조건표지(가정)
16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만약
17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혹시
18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면
19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조건표지(제의)
20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왜
21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목적
22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아무리
23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에도 불구하고
24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도
25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그러나
26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말하다
27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말하다(A→B/A←B)
28	통사론	2. 문장구조	2.2. 문장의 확대	무엇1
29	통사론	3. 문장종결	3.1. 평서문	이다/입니다
30	통사론	3. 문장종결	3.2. 의문문	설명문의문
31	통사론	3. 문장종결	3.2. 의문문	판정의문문
32	통사론	3. 문장종결	3.2. 의문문	무엇1
33	통사론	3. 문장종결	3.2. 의문문	언제
34	통사론	3. 문장종결	3.2. 의문문	왜
35	통사론	3. 문장종결	3.2. 의문문	누구
36	통사론	3. 문장종결	3.2. 의문문	어떻게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37	통사론	3. 문장종결	3.2. 의문문	어디
38	통사론	3. 문장종결	3.2. 의문문	질문
39	통사론	3. 문장종결	3.3. 명령문	해라
40	통사론	3. 문장종결	3.4. 청유문	가자
41	통사론	3. 문장종결	3.4. 청유문	같이
42	통사론	3. 문장종결	3.4. 청유문	함께
43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없다(손털기)
44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결혼+없다(손털기)
45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결혼+아직(한손)
46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보다+없다(손털기)
47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보다+아직(한손)
48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아니다1
49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아니다2
50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없다
51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아직(한손)
52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아직(비우세손 결합)
53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못하다1
54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못하다2
55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말다
56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불가능1
57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불가능2
58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안되다(손가락반복)
59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안 돼
60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안하다
61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안하다
62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절대로1
63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절대로2
64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강하다1
65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강하다2
66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모르다
67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못생기다
68	통사론	4. 부정법	4.4. 부정표현 종류와 기능	잘하지못하다
69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맛있다 + 없다(손털기)
70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보다+없다(손털기)
71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맛+없다(손털기)
72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반가움(흥)+없다(손털기)
73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적없다(손털기)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74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적없다(손털기)
75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아니다1
76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아니다2
77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없다
78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아직(한손)
79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아직 ~하지 않다
80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못하다1
81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불가능1
82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못하다2
83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말다
84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불가능1
85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불가능2
86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안되다(손가락반복)
87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안돼
88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안하다
89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안하다
90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절대로1
91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절대로2
92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강하다1
93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강하다2
94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모르다
95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못생기다
96	통사론	4. 부정법	4.5. 부정표현 예시	못하다
97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다
98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컵라면을 진열장에 놓여 있다
99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자동차가 휴게소에 밀려든다
100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자동차가 빼곡히 주차되어 있다
101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자동차를 나타내는 수형
102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고속도로
103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자동차가 차선을 바꾸며 빠르게 주행하다
104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개
105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두발로 달리다
106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책을 책꽂이에서 꺼내다
107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컵을 진열대에서 꺼내다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108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바람이 불다
109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꽃이 피다
110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나비가 날다
111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낙엽이 떨어지다
112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두 비행기가 차례로 이륙하다
113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두 비행기가 나란히 날아가다
114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비행기가 산을 넘어 날아가다
115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가다
116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아가다
117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밥을 먹다
118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국수를 먹다
119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치킨을 먹다
120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피아노를 치다
121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피리를 불다
122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바이올린을 켜다
123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골프를 치다
124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배드민턴을 치다
125	통사론	5. 수어양식과 동사	5.3. 공간동사 하위 유형	볼링을 치다

〈부록 5〉 통사론 사진 목록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1	의미론	2. 의미관계	2.2. 동의관계	인형1
2	의미론	2. 의미관계	2.2. 동의관계	인형2(대구방언)
3	의미론	2. 의미관계	2.2. 동의관계	굴1
4	의미론	2. 의미관계	2.2. 동의관계	굴2
5	의미론	2. 의미관계	2.2. 동의관계	승리1
6	의미론	2. 의미관계	2.2. 동의관계	승리2
7	의미론	2. 의미관계	2.2. 동의관계	상처1
8	의미론	2. 의미관계	2.2. 동의관계	상처2
9	의미론	2. 의미관계	2.2. 동의관계	오이1
10	의미론	2. 의미관계	2.2. 동의관계	오이2
11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잘
12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잘못
13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알다
14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모르다
15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줄어들다
16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늘어나다
17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승리
18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패배
19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동
20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서
21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무식하다
22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유식하다
23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교만
24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겸손
25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동양
26	의미론	2. 의미관계	2.3. 대립관계	서양
27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색
28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빨강
29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노랑
30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파랑
31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보라
32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요일
33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월
34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화
35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수
36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토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37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사과+무엇3
38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사과
39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배
40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감
41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포도
42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배추+무엇3
43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파랑
44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양파
45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마늘
46	의미론	2. 의미관계	2.4. 상하관계	오이
47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하늘+땅(지시)
48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코+꽃
49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닭+꽃
50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송편+축하
51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눈+보석
52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눈+싸다
53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눈+귀신
54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쥐+빼먹다
55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쥐+동전 끌어오기
56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쥐+구불구불 움직이기(1형)
57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말+갈등
58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말+심심하다
59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스스로+이야기
60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맛+없다(손털기)
61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맛+아직
62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생각+박수
63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일+힘
64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부러지다+강하다
65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깨끗하다+주다
66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기억+약취
67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길+병신
68	의미론	2. 의미관계	2.5. 관용표현	돈+죽다
69	의미론	2. 의미관계	2.6. 속담	소리+전기 전달
70	의미론	2. 의미관계	2.6. 속담	일자무식
71	의미론	2. 의미관계	2.6. 속담	말+귀신
72	의미론	3. 의미 전의	3.2. 다의어 현상	나무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73	의미론	3. 의미 전의	3.2. 다의어 현상	뵤죽하다
74	의미론	3. 의미 전의	3.2. 다의어 현상	여우
75	의미론	3. 의미 전의	3.2. 다의어 현상	소개
76	의미론	3. 의미 전의	3.2. 다의어 현상	춡다
77	의미론	3. 의미 전의	3.2. 다의어 현상	쇠
78	의미론	3. 의미 전의	3.2. 다의어 현상	뿌리
79	의미론	3. 의미 전의	3.2. 다의어 현상	일
80	의미론	3. 의미 전의	3.2. 다의어 현상	염소
81	의미론	3. 의미 전의	3.2. 다의어 현상	생명
82	의미론	3. 의미 전의	3.2. 다의어 현상	시원하다
83	의미론	3. 의미 전의	3.2. 다의어 현상	위로
84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선생
85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집
86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굴
87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선생
88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시골
89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학생
90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못(하다)
91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가능하다
92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핑계
93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매력
94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간단하다
95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글자
96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집
97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달
98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원숭이
99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물고기
100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마시다
101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야구
102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달다
103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마라톤
104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1. 도상성	궁궐
105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2. 비유	결혼
106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2. 비유	이혼
107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2. 비유	잇다
108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2. 비유	정직하다
109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2. 비유	하마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110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2. 비유	오리
111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2. 비유	대한민국(갓)
112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2. 비유	일본(수염)
113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3. 영상적 도상성	다리
114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3. 영상적 도상성	얼굴
115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3. 영상적 도상성	달
116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3. 영상적 도상성	나팔
117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3. 영상적 도상성	마시다
118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3. 영상적 도상성	건다
119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3. 영상적 도상성	콜라
120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3. 영상적 도상성	야구
121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4. 구조적 도상성	사람
122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4. 구조적 도상성	사람들
123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4. 구조적 도상성	일대일 회의
124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4. 구조적 도상성	다자회의
125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4. 구조적 도상성	가깝다
126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4. 구조적 도상성	멀다
127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4. 구조적 도상성	조상
128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4. 구조적 도상성	후손
129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4. 구조적 도상성	그제
130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4. 구조적 도상성	어제
131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4. 구조적 도상성	내일
132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4. 구조적 도상성	모래
133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결혼
134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이혼
135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가볍다
136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무겁다
137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훌륭하다
138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나쁘다
139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이기다
140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지다
141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발전
142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퇴보
143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과거
144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미래
145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기분+가볍다
146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기분+없애다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147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생각+뒤틀리는 동작
148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기억
149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잇다
150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정직하다
151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바르다
152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소
153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닭
154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돼지
155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낙타
156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신사
157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회원
158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군인
159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사제
160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배-넓다(관대)
161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여우
162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코흐르다+왼쪽가슴손수건
163	의미론	4. 도성성과 비유	4.5. 비유적 도상성	바르다
164	의미론	5. 역할전환	5.2. 역할전환의 형식적 요소	바람
165	의미론	5. 역할전환	5.2. 역할전환의 형식적 요소	해
166	의미론	5. 역할전환	5.2. 역할전환의 형식적 요소	바람
167	의미론	5. 역할전환	5.2. 역할전환의 형식적 요소	해
168	의미론	5. 역할전환	5.2. 역할전환의 형식적 요소	바람의 놀란 얼굴표정
169	의미론	5. 역할전환	5.2. 역할전환의 형식적 요소	남자의 당황한 얼굴표정
170	의미론	5. 역할전환	5.2. 역할전환의 형식적 요소	해를 쳐다봄
171	의미론	5. 역할전환	5.2. 역할전환의 형식적 요소	바람을 쳐다봄
172	의미론	5. 역할전환	5.2. 역할전환의 형식적 요소	대화상대를 쳐다봄
173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아침
174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도시락
175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만들다
176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주세요
177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말하다
178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걸어가다
179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나
180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얼굴
181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미남

연번	구분	제목	소제목	글로스
182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아니다
183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어깨를 으쓱거린다
184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아마도
185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다
186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기분
187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좋다
188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도시락
189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도시락을 가방에서 꺼내다
190	의미론	5. 역할전환	5.3. 역할전환의 내용적 요소	도시락을 앞뒤로 흔들다

연구 책임자 원성옥

공동 연구원 김유미, 남기현, 김성완

연구 보조원 홍장미, 박정민

담당 연구원 남미정(학예연구사)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37

인쇄일: 2020년 11월 27일

발행일: 2020년 11월 27일

인 쇄: (주) 데프플러스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0 한국수어 문법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